



목차

아시아 Asia

- p.006 대만 Taiwan, Republic of China
- p.044 말레이시아 Malaysia
- p.076 베트남 Vietnam
- p.108 홍콩 Hong Kong, People's Republic of China

유럽 Europe

- p.140 네덜란드 Netherlands
- p.190 벨기에 Belgium
- p.216 이탈리아 Italy
- p.248 폴란드 Poland

북미 North America

- p.278 캐나다 Canada
- p.306 필자소개
- p.308 사업소개



# 제작

『2020 NEXT 문화예술 디렉토리북』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재외한국문화원 및 해외 주요 문화예술기관에 파견된 국제문화교류 기획자들의 현지 국가 문화예술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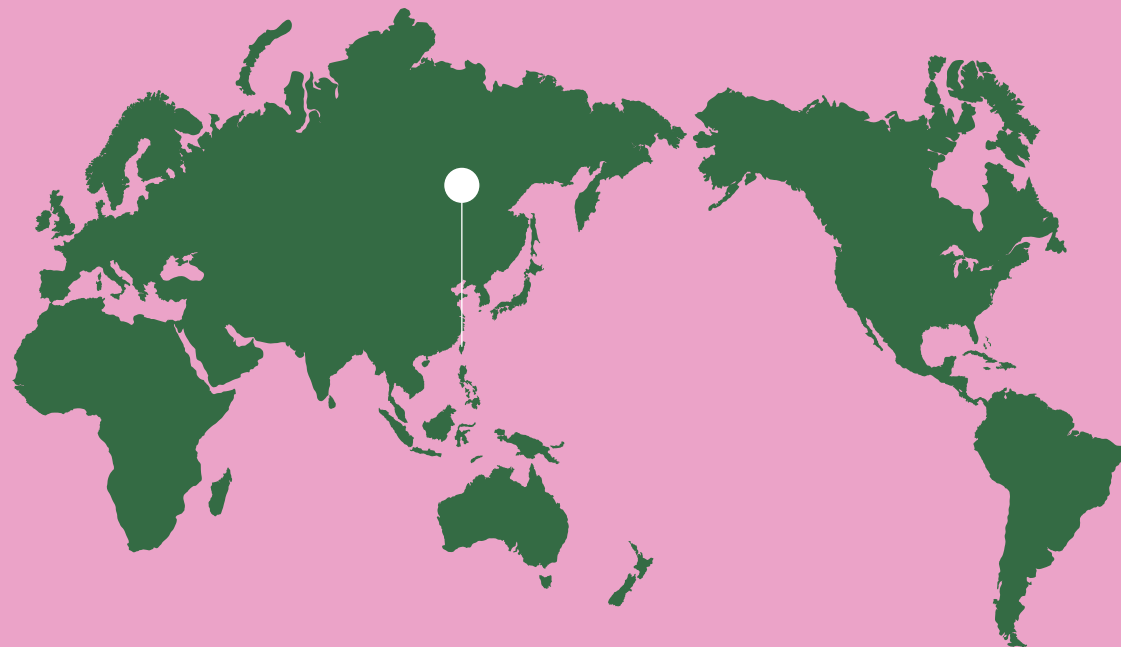
문화예술 현장 종사자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국제문화교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 9개국 총 128개의 현지 문화예술 기관·단체, 공간, 축제·행사 프로그램 등의 정보 및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작을 위해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집필자 분들과 편집자에게 감사드리며, 국제문화교류 혹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2020 NEXT 문화예술 디렉토리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디렉토리북에 게재된 집필자의 의견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수록된 글과 사진은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 → 대만

Asia → Taiwan, Republic of China



p.008	국가소개	p.028	타이베이금마장영화제 Taipei Golden Horse Film Festival
p.012	국가문화예술기금회 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	p.030	타이베이문화재단 Taipei Culture Foundation
p.014	국가양청원 National Theater & Concert Hall	p.032	타이베이시 문화국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Taipei City Government
p.016	국가인권박물관 National Human Right Museum	p.034	타이베이예술인마을/ 보장암국제예술촌 Taipei Artist Village/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p.018	국립가오슝아트센터 '웨이우잉' National Kaohsiung Center for the Arts 'Weiwuying'	p.036	타이베이예술제 Taipei Arts Festival
p.020	랙킹사운드페스티벌 Lacking Sound Festival	p.038	타이베이컨템퍼러리아트센터 Taipei Contemporary Art Center(TCAC)
p.022	밤부커튼스튜디오 Bamboo Curtain Studio	p.040	타이베이프린지페스티벌 Taipei Fringe Festival
p.024	송산문화창조공원 Songsshan Cultural and Creative Park	p.042	화산1914창조공원 Huashan 1914 Creative Park
p.026	오픈-컨템퍼러리아트센터 Open-Contemporary Art Center		

# 대만 Taiwan, Republic of China

우리가 대만(臺灣, Taiwan)이라고 흔히 부르는 국가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 냉전 시대 한국인들에게는 자유중국으로 불리었다. 대만은 이 국가가 통치하는 섬의 이름이다. 대한민국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진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두 개의 중국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1912년 신해혁명을 통해 청나라[1]의 봉건사회를 극복하고 중국 대륙 전체에 세워진 공화국이었다. 그러나 국공내전을 통해 중화민국 정부는 난징에서 대만섬으로 후퇴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대만이라는 정체성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장개석(장제스, 蔣介石, Chiang Kai-shek)의 중화민국 이전에도 많은 역사적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주변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의 다양한 원주민들과 유사한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특징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1624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게 된다. 당시에는 포르모사(Ilha Formosa[2])라고 불렸다. 이후 짧은 기간 스페인 통치를 거치다 명나라의 멸망 이후 해상의 아들인 정성공[3]에 의해 1661년에 처음으로 한족 정권 ‘타이완 왕국(Kingdom of Taiwan/Koxinga dynasty)’이 세워지게 된다. 이후 청나라에 통치를 받다가 청일전쟁에 패하면서 1895년부터 50년간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 중화민국의 영토가 되었고 1949년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 이르러 지금의 중화민국이 밀려나 대만에 자리를 잡게 된다. 청초에 건너가 자리를 먼저 잡은 푸젠인[4]들이 약 300년간 대만의 문화, 언어를 지배하다 갑작스럽게 난징에서 넘어온 전혀 다른 언어(북경어)를 사용하는 정치 세력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대만은 원주민(파이만족排灣 등[5]), 본성인(명말 청초에 푸젠성에서 내려온 민난인, 객가인[6]) 그리고 현대에 장개석과 함께 넘어온 외성인으로 구분되는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미묘한 그룹 간의 갈등을 동반하게 되었다. 청초의 봉건사회를 극복하며 탄생한 공화국이었지만 모순적으로 계엄령과 함께 장개석, 장경국 부자의 혹독한 군사독재정권[7]이 장기간 대만을 지배하였고 1987년에 이르러서야 계엄이 해제되고 1991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민주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으로 인하여 대만의 현대미술 또한 크게 4개의 시대(식민 이전 시대, 식민 시대/근대, 독재 시대, 민주화 시대)로 구분하여 형성되었다고 이야기 될 수 있다. 서구에서 유입된 컨템퍼러리 미술은 계엄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야 대만에 주류로 등장하게 되었다. 대만의 현대미술계에서 이러한 정치·사회적인 혹은 역사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미술 운동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대만의 썬플라워 무브먼트(Sunflower Movement)가 홍콩의 우산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지만, 민주화 시대에 교육받고 활동해온 대만의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 조직적,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논쟁하는 모습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긴 식민지배로 많은 국토와 건물을 빼앗겼으나 독립 이후에 이는 국가의 막대한 자산이 된다.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방대한 부동산의 국가 소유는 대만 정부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기업이 아닌 공공의 방만한 운영은 낙후된 원도심에 많은 유휴공간과 폐허들을 양산하게 된다. 수많은 국가소유 유휴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압도적인 규모의 다양한 미술, 전시, 문화예술공간의 탄생으로 이어져 하나의 강점이 되었다. 낡은 것을 좋아하는 기질과 맞물려 식민시대부터 남겨진 근대건축문화유산들을 허물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형태로 정

비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 본토와 비교해 대만은 작은 국가이나 이러한 공간들의 규모는 본토에 비교해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대만이 작은 섬이라는 물리적 개념을 잊고 운영하는 공간만 본다면 중국이나 한국보다 더 큰 나라처럼 보일 정도이다. 대만인들은 부수고 새롭게 고층건물을 건설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본래 근대 건축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시민, 관광객, 방문객을 상업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들은 과거 역사의 향수를 자극하는 대만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대만의 도시재생이 크게 젠트리피케이션의 논쟁에 직면하지 않은 이유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서 장시간에 걸쳐 온 거대 이주민집단들로 구성된 국가라는 대만의 특성으로 인해 민족의 디아스포라 이슈라는 거대 담론에 비교적 소규모인 젠트리피케이션이 묻히게 된 듯하다. 대만 미술계의 강점은 ‘국제교류’에 있다. 대부분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전시, 세미나, 아티스트/연구자 레지던시, 아티스트 토크 등 대부분의 행사에서 쉽게 외국에서 초대된 작가, 기획자들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소규모의 행사에도 기본적으로 영·중 통역이 함께한다. 대만의 국제교류는 단순히 일방적 초청이나 파견을 넘어서서 1:1로 초청과 파견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가 두드러진다. 국제교류에서의 상호교류 원칙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만의 미술계에서 국제 행사를 조직하는 기획자들은 그만큼 해외에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며, 해외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과의 국제교류는 곧 대만이라는 허브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교류까지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리, 역사, 문화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속한 국가이지만 동남아시아와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예술계와의 국제교류가 활발하고 탄탄하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국가(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다.

기획자, 작가들의 연령대가 젊고 그만큼 실험적인 경향의 작품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대만의 산업적 특성이 작용한 듯 IT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활발한 담론과 함께 로봇, 키네틱, AR, VR 그리고 AI 등을 활용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디어 아트 전시회의 개막식에서 로봇과 현대무용가가 함께 춤을 추거나 국제 비엔날레의 환경 토론회에 인공지능 로봇이 토론자로 나와 대담을 하는 풍경이 이곳에서는 낯설지 않아 보인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기반의 작품과 함께 Sound Art, Noise Art[8]의 창작이 활발한 것이 지역적 특징이다.

반면 활발한 국제교류의 원인을 중국과의 양안 관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대만은 정치, 외교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국에 완전히 사로잡힌 형국이고 대만 정치가 이를 극복하고 직접적으로 맞설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대만의 국제적인 외교 활동은 중국에 의해 거의 잘려 나간 상황이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을 유지하고자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소프트한 문화예술로서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숨은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홍콩

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탄압을 보며 홍콩의 상황이 진정되면 바로 다음 접령지는 대만이라는 인식도 한몫을 한다.

[1]

흔히 중국의 마지막 왕조(1616-1912)라고 기술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만리장성 넘어 전혀 다른 역사-지리적 배경을 가진 이민족(흔히 오랑캐라고 부르던)이었던 만주족(여진족)이 침략하여 한족을 포함한 중국영토 전체를 지배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다. 한족의 흔적을 지우는 변발령을 내려 강제하였고 피지배층인 한족을 대량학살(5,000만~최대 1억 명)한 기록 혹은 주장이 있다. 따라서 신해혁명은 한족이 다시 중국 역사의 주인공으로 재등장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2]

포르모사(福爾摩沙, Ilha Formosa)는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이다. 대만에서 알아두면 좋은 단어이다. 이를 국호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3]

모계는 일본인이다. 전반적으로 대만인들은 독립 후에도 일본/일본문화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다. 정성공은 대만섬을 거점으로 이민족에게 빼앗긴 중국영토를 전쟁을 통해 되찾으려는 의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중국 푸젠성(Fujian) 출신의 이민자들로, 호키엔(Hokkien)이라고 부른다. 한족의 한 갈래라고 하며 원나라침입 이후 13세기부터 타국으로 이주하였다. 푸젠 남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에 거주한다.

[5]

원주민(Taiwanese Aborigines) 2%, 본성인(민난인 70%, 객가인 14%) 84%, 나머지 외성인 14%. 본성인, 특히 객가인(客家人, 하카, Hakka)을 원주민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호키엔과 하카도 엄연히 다르다.

[6]

손님이라는 뜻을 가진 객가인(客家人, 하카, Hakka)은 본래 황하 북쪽에 살았던 한족이었으나 통일왕조인 서진(西晉, 265-317)때부터 전란을 피해 남하하여 푸젠성 등의 오지에 자리를 잡았던 이들로 동양의 유대인으로 불리며 동남아 전체로 진출하였다. 주로 산악 지역에 살며 집단생활을 하며 2천 년 동안 다섯 번의 큰 이동을 하였다. 객가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고유어인 객가어를 사용한다. 손문, 덩샤오핑, 싱가포르의 리관유, 대만 총통 리덩후이, 필리핀 대통령 아키노가 대표적인 객가인 출신이다.

[7]

계엄 당시의 정치범 수용소는 본래 모습 그대로 국립인권박물관(National Human Rights Museum)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개석, 장경국 독재 시기에 있었던 화이트 테러, 인권 유린에 대해 알리고 연관된 주제의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공간의 이야기를 잘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의 정치가 친 중국 성향과 독립 유지 성향으로 양분되어 있어 그 박물관 운영의 존폐가

우려된다고 한다. 한국의 군사독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잔인한 통치였으나 이러한 제대로 된 인권 박물관 하나 건립하지 못한 한국의 상황과 비교가 된다. [www.nhrm.gov.tw](http://www.nhrm.gov.tw)

[8]

예술계 현장에서 노이즈 아트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지만 아직은 사전적 정의로 보기는 어렵다. Noise Music이라는 용어는 존재하는데 리듬과 선율 없이 악기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음악을 만들어간다. 이와 유사하지만, 노이즈 아트를 음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국가문화예술기금회(국예회)

## 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NCAF) /

### 國家文化藝術基金會(國藝會)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1996년
운영주체	대만 정부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SNS	www.ncafroc.org.tw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관련 정책 연구, 정보 수집, 시장 연구, 전략 수립</li> <li>- 예술기금 운영 및 사업 공모, 국가예술상 시상</li> <li>- 평론, 포용예술, 지역교류, 국제교류 사업</li> <li>- 국립공연예술단 사업</li> </ul>		

국가문화예술기금회(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 NCAF)는 대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우수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예술가의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대만 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NCAF 기금의 지원은 문화행사 운영 지도, 문화사업 재정지원 대출, 문화 분야 종사자 격려, 문화예술 포상법에서 정한 업무수행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각 기금은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를 두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의 배분을 관리한다. 감독위원회는 기금의 재무 업무를 감사할 책임이 있다. 위원은 문화부가 원장에게 이사 임명을 추천한 문화예술계 인사, 전문가, 학자, 정부 대표 등을 포함한 저명인사들로 구성된다. 집행부는 운영위에 의해 구성되며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최고 경영자와 이를 보좌하는 부서별 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집행부에는 연구개발부, A·B 기금부, 자원개발부, 행정부, 재무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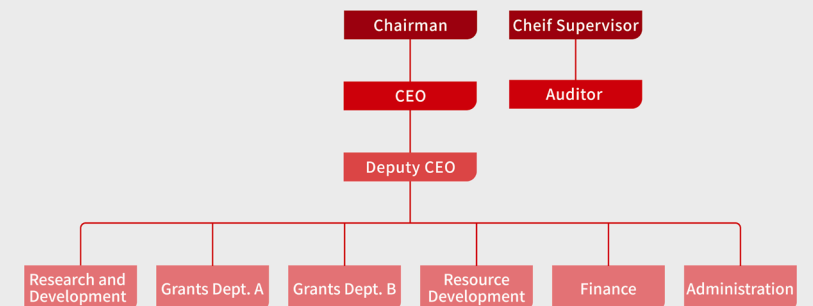
NCAF는 최근 5년간 지원금의 규모를 2~3배로 올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타 기관과 달리 관료 주의를 탈피해 정산의 절차를 최소화하여 예술가들에게 자율성을 더 부여하고 있다. 급격하게 늘어난 지원으로 예술가들이 활동이 좀 더 과거보다 활발해졌다고 한다. 대만에서 열리는 수준 있는 대부분의 문화행사에서 NCAF의 후원 로고를 발견할 수 있다. 촘촘하고 넓은 지원을 함으로써 대만 예술계의 발전과 교류에 크게 기여한다. 미국식 문화예술 정책을 벗어나 유럽식의 모델로 전환하였다. 문화예술 행정에서 자본주의적인 접근을 피하고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 행정을 지양하고 있다. 어려운 예술가들을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공동체의 공공재로 보고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문화예술기금회 로고 ©NCAF

### 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 Organizational Chart



국가문화예술기금회 조직도 ©NCAF

# 국가양청원

## National Theater & Concert Hall(NTCH) / 國家兩廳院

유형	국공립단체, 아트센터	설립연도	1987년
운영주체	대만 정부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SNS	<a href="https://npac-ntch.org/zh/">https://npac-ntch.org/zh/</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등 공연예술 프로그램</li> <li>- 국제교류, 연구사업</li> </ul>		

국가양청원(National Theater and Concert Hall, 이하 NTCH)은 대만의 국립극장으로, 국가극원(國家戲劇院, National Theater)과 국가음악청(國家音樂廳, Concert Hall and Recital Hall)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의 초대 총통이었던 장개석을 기리는 중정기념당(中正紀念堂, National Chiang Kai-Shek Memorial Hall)과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중화권 문화 특유의 강렬한 붉은 색을 넘치게 강조한 전통적인 건축물의 분위기가 시선을 압도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대만의 세종문화회관 혹은 예술의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 아시아를 아우르고자 하는 비전은 아시아문화의전당의 성격과도 유사하겠다.

NTCH는 국제적인 규모의 아트센터이자, 아시아의 상징적인 극장이다. 전통, 현대, 외국 등 다양한 스타일의 예술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만난다. 대만 특유의 자유와 개방성을 살려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 지형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0년 동안 NTCH는 대만 예술가들과 함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동시에 국내외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도 개발해왔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장소, 예술, 사회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성장 주기별로 탐구하고 있다.

NTCH는 대만과 아시아의 문화 발전 전략을 4개의 축으로 요약한다. 사람(People), 디지털(Digital), 유기성(Organic),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성(Mobility)이다. 이것은 NTCH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체

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 다양성과 문화적 평등을 나타내는 장소, 디지털 문화를 수용하는 장소, 예술가를 지원하는 장소가 되며, 아시아 전역의 창조적인 교류와 공동 창작을 위한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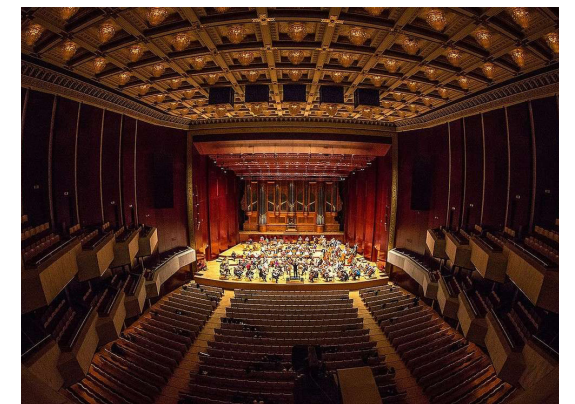
NTCH는 공연, 홍보, 공간 관리 등 문화와 삶 사이의 대화를 위한 3가지 접근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공연 예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아시아의 문화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7년부터 2003년까지는 NTCH의 시작 단계로, '생존기'라고 불린다. NTCH가 완공되면서 관객 양성 및 대만 공연예술의 전문화와 예술문화 진흥을 우선시하였다. 공연이 NTCH의 핵심 역할로 지정되고, 중요한 국제 공연 예술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다. 2004년부터 2019년은 NTCH의 두 번째 단계로 '유지기'이라고도 한다. 2004년 NTCH는 독립행정 기관이 되어 2단계로 접어들었다. 공공정책 이행의 원칙에 따라 NTCH는 전문가팀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국제 행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웠다. 공연을 핵심으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부대 서비스도 관객에게 제공되었으며, 하드웨어를 크게 개선하였다. 2020년에는 '불가피한 시대'라고 알려진 NTCH의 세 번째 단계를 시작하였다.



국가양청원 전경 ©NTCH



국가양청원 공연 'Bando' ©NTCH



국가양청원 콘서트홀 ©NTCH

# 국가인권박물관

## National Human Right Museum / 國家人權博物館

유형	국공립단체, 박물관	설립연도	2011년
운영주체	대만문화부	장르	문화예술일반, 문화유산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SNS	www.nhrm.gov.tw/en		
주요 프로그램	- 징메이백색테러추모공원, 그린아일랜드백색테러추모공원 - 박물관, 전시회, 퍼포먼스		

국가인권박물관(National Human Right Museum)은 대만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방문해야 하는 곳이다. 한국인들에게는 남산 중앙정보부 같은 곳으로, 과거에는 징메이 간수소나 푸싱 캠프라고 불리기도 했다. 중화민국의 계엄령 시기에 정치범수용소로 사용되어 수많은 인권 탄압을 자행했던 이곳이 인권박물관으로 다시 세워졌다. 실질적으로 대중들에게 여러 난관을 거쳤으며 개방되기까지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보수정치 세력의 반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물관이 실질적으로 대중들에게 개방된 것은 2018년이며 대만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공간일 수 있다. 인권 박물관이지만 종합 대학 같은 넓은 부지에 많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재판정이나 진보정치인을 수감하고 고문하였던 장소를 박물관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그 외 전시회나 퍼포먼스 공연도 개최되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후 중화민국이 대만을 접수했고, 1947년 국민당의 실정으로 2·28 사건(二二八事件)이 터졌다. 2년 후 국민당은 공산당에 패해 중앙정부를 대만으로 옮겼다. 대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고 권위주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는 1949년 계엄령을 공포했다. 냉전 시기 동안 간첩탐지 및 근절법령, 내란처벌법령이 연달아 제정되었다. 이 행위를 위반한 사람들은 체포, 심문, 기소, 재판, 수감 그리고 심지어 정보기관에 의해 처형되었고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40년간의 억압적인 통치 기간인 1949년부터 1992년까지를 백색테러시대라 부른다. 통계에 의하면 2014년 3월 8일까지 1만여 건의 보상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백색테러시대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정

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용의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구금됐던 대만 보안사령부 새생활교정센터와 국방부 녹도교정감옥, 신디안 군사구치소 등은 수년간의 보수 공사 끝에 추모의 공간이 됐다. 2002년과 2007년 각각 인권기념공원과 징메이인권문화공원이 개원하였고 2011년 국립인권박물관 준비사무소가 설립되었다. 준비사무소는 희생자들의 유물과 역사자료의 수집을 마치고 6년간의 준비 끝에 인권교육을 시작했다. 그 이후 이 두 공원은 대만의 인권의 발전을 목격하고 국가 기억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면서 백색테러추모공원(White Terror Memorial Park)으로 탈바꿈했다. 국립인권박물관 조직 법안은 2017년 10월 입법부에 제출되었고, 입법부가 법안을 승인하고 대통령이 법을 공포함에 따라 2018년 3월 15일 해당 법이 발효되었다. 국립인권박물관의 개관은 대만이 인권을 보호하고 과거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들을 인정할 용기를 지닌 민주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사회가 되었음을 입증한다.



국가인권박물관 ©National Human Right Museum



징메이백색테러추모공원 ©National Human Right Museum



그린아일랜드백색테러추모공원 ©National Human Right Museum

# 국립가오슝아트센터 '웨이우잉' National Kaohsiung Center for the Arts 'Weiwuying' / 衛武營國家藝術文化中心

유형	국공립단체, 아트센터	설립연도	2018년
운영주체	대만문화부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가오슝(Kaohsiung)		
홈페이지 /SNS	www.npac-weiwuying.org		
주요 프로그램	- 음악, 무용, 연극, 서커스 등 공연예술 프로그램 - 예술교육, 예술가 레지던스 사업, 국제교류 사업		

가오슝 평산지구의 웨이우잉 메트로폴리탄 공원 앞에 위치한 국립가오슝아트센터 '웨이우잉'(National Kaohsiung Center for the Arts, Weiwuying)은 99,000㎡ 규모의 대지에 위치하여 33,00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가오슝을 대만 남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야심이 담겨 있다. 음악, 무용, 연극, 서커스 등 공연예술의 다양한 장르들을 포괄하여 소개하며, 관객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댄스플랫폼, 서커스플랫폼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술가 레지던스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네덜란드 건축가 프란신 후벤(Francine Houben)이 디자인한 국립가오슝아트센터의 건축은 가오슝 지역 반얀나무의 아름다움과 상징적인 캐노피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항구도시인 가오슝의 습도와 염도를 견딜 수 있는 표면과 함께 조산업자들의 협력으로 지어졌다. 자유로운 공간 아래 지붕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콘서트홀을 들어서는 순간 압도하는 건축미가 감탄을 자아낸다. 마치 21세기에 새롭게 해석되고 설계된 방주의 내부에 들어선 듯하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이프 오르간도 눈에 들어온다.

하나의 지붕 아래 4개의 공연장(콘서트홀, 플레이하우스, 오페라하우스, 리사이틀홀)이 연결되어있는 구조의 독특한 랜드마크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을 가진 아트센터 건축물이기도 하다. 이 웅장한 건축

물을 감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다. 거대한 지붕 아래에는 공연장 건물 이외에 거대한 용수광장(물수)이 넓게 펼쳐져 있다. 가오슝을 상징하는 해양과 가오슝 시민이 사랑하는 용수나무를 형상화하였다고 한다. 광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요가 강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대만 남부의 열대성 기후와 야외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을 고려하여, 센터에는 울타리가 없는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은 산책, 휴식 등을 위해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연극과 음악이 일상의 일부가 되는 산들바람이 부는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국립가오슝아트센터는 2018년 10월13일에 개관 이래, 현재 대만 남부 지역에 해외의 인재뿐만 아니라 지역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연중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오슝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변에 위치한 초대형 벽화로 유명한 웨이우잉 벽화마을도 꽤 알려져 있다. 마을 주민의 생활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 평화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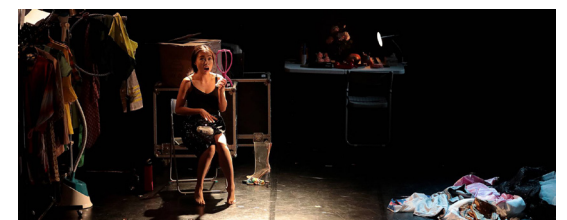
국립가오슝아트센터 전경 ©Weiwuying



국립가오슝아트센터 '대만댄스플랫폼' ©Weiwuying



국립가오슝아트센터 '웨이우잉 서커스 플랫폼' ©Weiwuying



국립가오슝아트센터 'Young Stars New Vision' ©Weiwuying

# 랙킹사운드페스티벌

## Lacking Sound Festival / 失聲祭

유형	축제	설립연도	2012년
운영주체	랙킹사운드페스티벌	장르	시각예술, 융·복합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 SNS	<a href="https://lacking_soundfest.com">https://lacking_soundfest.com</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 축제</li> <li>- 온라인 아티스트 레지던시</li> </ul>		

가상으로 입주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리, 이미지, 텍스트를 통해 ‘내륙의, 내륙으로(Inland)’라는 화두에 대한 해석, 연구, 조사를 공유한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온라인 전시회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선보였다. [www.inlandresidency.com](http://www.inlandresidency.com)

[1] 한국 최초의 국제 사운드 아트 페스티벌으로는 사운드이펙트서울이 있다. 2019년 11월에 제6회 행사가 대안공간 루프에서 열렸다. (양지윤, 바루흐 고틀립 공동 기획) [www.sfxseoul.org](http://www.sfxseoul.org)

이름부터 무척 비주류의 느낌인 랙킹사운드페스티벌(Lacking Sound Festival)은 독립예술제로 대만에서 실험적인 사운드 아티스트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국가문화예술기금회, 타이베이시 문화국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를 하는 대만 예술가들의 콜렉티브이자 국제교류 플랫폼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아직 한국에는 생소한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가 굉장히 활발한 대만 미술계의 지역적인 특성을 느낄 수 있다.[1] 타이베이비엔날레 등 대만 주류 예술계에서도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고 젊은 작가들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를 패러디하는 작품도 나오고 있다. 음악인들과 협업을 하긴 하지만 음악 장르보다는 시각예술 장르의 퍼포먼스에서 출발하여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운드리기보다는 노이즈에 더 가깝고 퍼포먼스와 키네틱 같은 시각적인 장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확장된 감각의 듣는 시각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다. 비주류, 인디 문화 같은 노선을 걷고 있으며 새로운 테크놀로지, 뉴 미디어아트와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소리가 무엇인지 매체 자체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타 장르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즐기며 융·복합, 탈 장르 내지는 다원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활발한 영역이다. 랙킹사운드페스티벌은 이러한 창작 매체를 위한 플랫폼과 공동체의 부족함을 파악한 사운드 아티스트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 월간 공연 행사가 탄생되었다.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온 이 랙킹 사운드 페스티벌은 국제적인 신진예술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대만 사운드 아트계에 대한 이론을 쓰고 기록하는 역할에도 전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인랜드(INLAND)’라는 이름의 가상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영국과 대만의 아티스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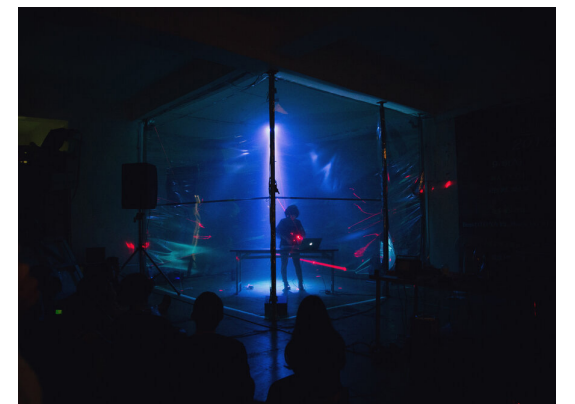
랙킹사운드페스티벌 'Inland' ©LSF



랙킹사운드페스티벌 'Inland' ©LSF



랙킹사운드페스티벌의 오디오-비주얼 전시 ©LSF



랙킹사운드페스티벌의 공연장면 ©LSF

# 밤부커튼스튜디오

## Bamboo Curtain Studio(BCS) / 竹圍工作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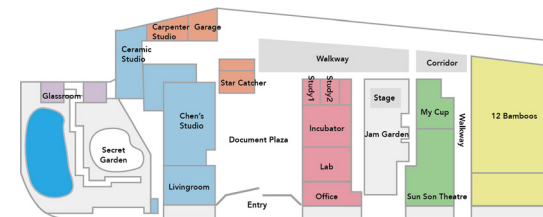
유형	민간단체, 예술공간	설립연도	1995년
운영주체	밤부커튼스튜디오	장르	시각예술, 융·복합, 문화유산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 SNS	<a href="http://bambooculture.com/en">http://bambooculture.com/en</a>		
주요 프로그램	- 국제교류 레지던시, 커뮤니티 프로그램, 리서치		

대만보다 먼저 자유를 누렸던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됨에 따라 다수의 홍콩인들이 공산당의 지배를 피해 대만으로 이민을 오던 시절, 1995년 대만인 남편과 함께 홍콩에서 이주해 온 마가렛 슈(Magaret Shiu)는 맹그로브 숲으로 둘러싸인 단수이 지역에 당시 사용되지 않고 있던 닭 농장을 매입하여 최초의 민간 차원의 비영리 대안공간 중의 하나인 밤부커튼스튜디오(Bamboo Curtain Studio, 이하 BCS)를 창립하였다. 이는 민간에서 진행한 최초의 도시재생형 미술 프로젝트로, 대만 미술계에 신선한 계기가 되었다. 마가렛 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위치해 있지만 많은 축산 농가가 있어 오염 되어가는 이 지역에서 미술인으로서 최초로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운동을 벌여 국내외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지구 온난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알리고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BCS는 국제교류, 예술가/연구자 레지던시 프로그램, 커뮤니티 프로그램, 리서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2009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국제공모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한다.

대만 미술계에서 적극적으로 큐레이터라는 직업과 역할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활동하게 된 것은 15년 정도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대만 미술계에서 가장 초창기에 설립된 대안공간인 BCS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큐레이팅 기획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당시 미술관 중심의 대만 미술계는 보수적이었고 장소특정적 예술, 대지예술, 자연예술 등 비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실험적인 미술 작품이 미술관의 주목을 받거나 초대되어 전시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초창기 BCS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일반적으로 갤러리들의

접근을 벗어나 예술가들의 콜렉티브의 노선을 택했다. 단순히 작품을 선보이는 공간이 아닌 대안적인 예술가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였다. 일종의 에이전시이기도 했고 허브이기도 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생태학 등 환경을 고민하는 예술운동을 90년대부터 이끌어 왔다.

BCS의 강점은 명확한 지향점과 주제도 있지만 다양한 국가들의 레지던시 공간들과 진행하고 있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의 대안공간, 국공립/사립 스튜디오들과 협약 하에 BCS로 예술가, 연구자를 초대하여 머무르며 활동하도록 하고, 또한 BCS와 연계된 대만의 예술가/연구자들이 국제 레지던시 참여를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레지던시를 거처간 예술가/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후속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국제교류가 더 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순수한 민간차원의 효과적인 국제교류가 대만 현대 미술의 국제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대만의 대안공간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며, BCS는 대만의 독립기획자, 큐레이터에게 중요한 커뮤니티 허브가 되었다. 다만 아쉽게도 타이베이-신베이 간의 도로 공사로 인해 사라질 위협에 처해있다.



밤부커튼스튜디오 도면 ©BCS



밤부커튼스튜디오 ©BCS



밤부커튼스튜디오 ©Chiu Chih Hua



밤부커튼스튜디오 ©BCS

# 송산문화창조공원

## Songshan Cultural and Creative Park(SCCP) /

### 松山文創園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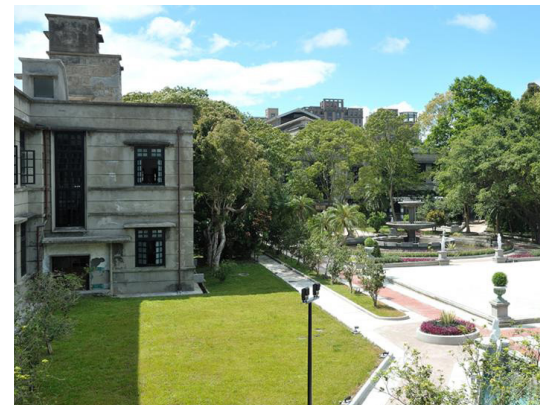
유형	국공립단체, 예술공간	설립연도	2011년
운영주체	타이베이문화재단	장르	문화예술일반, 문화유산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SNS	www.songshanculturalpark.org		
주요 프로그램	- 디자인, 시각 그리고 융복합 행사 - 영화 촬영, 기자회견, 전시회, 시상식, 심포지엄, 세미나, 패션쇼		

송산문화창조공원(Songshan Cultural and Creative Park, SCCP)은 타이베이의 창조 허브를 목표로 설립되어 창의성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오늘날의 산업계에서 관찰되는 학제 간의 발전적인 추세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타이베이 신이구에 있으며, 점유지가 무려 66,000㎡에 이른다. 이름처럼 산책하기 좋은 생태연못도 위치한 아이들이 개구리나 곤충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적한 공원이기도 하다. 일본의 총독부가 설립한 담배판매공장의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만든 곳으로 대만의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 건물이자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언급된다. 건축양식은 수평선, 단순한 고전적 모양, 세련된 세공에 중점을 둔 ‘일본 초기 모더니즘’에 속한다. 초기부터 ‘산업 마을’의 개념을 도입하여 단지 내에 기숙사와 의료시설, 탁아소 같은 시설들도 함께 건설되었다. 1998년 수요량 감소 등의 원인으로 공장의 생산이 중단되고 타이베이 담배공장에 흡수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1년 타이베이 정부에 의해 문화유산으로 지정, 송산문화창조공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과거 대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수많은 근로자가 일했던 장소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다시금 활기를 되찾아 새로운 창조의 허브로 자리 매김한 것이다.

디자인, 공예, 아이디어 산업 등에 사업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규모 전시회들이 자주 열린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전시 공간은 민간기업에 가까운 코엑스 이외에는 찾기가 어렵지만, 영토가 작은 대만에서 수많은 오래된 대규모 산업 단지들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게다가 상업적으로 성공시키고 있

는 것이 놀랍다. 땅값이 비싼 도심 중심지의 구 산업 단지를 보전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산업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만인들의 의지가 돋보인다.

'창의 연구소', '창의 조합', '창의 학교', '창의 쇼케이스', '창의 허브'라는 5대 전략을 통해 창의력을 고취하고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자인, 시각 그리고 융복합 행사에 대한 발표를 포함하는 다양한 예술, 문화 그리고 창조적인 행사의 개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이는 영화 촬영, 기자회견, 전시회, 시상식, 심포지엄, 세미나, 패션쇼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미학적 체험의 발전을 위한 지원, 홍보 및 마케팅 노력을 지속하여 수행한다. 다기능의 공간을 갖추고 다면적인 운영 전략을 통해 포괄적인 복합 창조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한다.



송산문화창조공원 전경 ©SCCP



송산문화창조공원 조감도 ©SCCP



송산문화창조공원 창고 ©SCCP



송산문화창조공원 컴퓨터룸 ©SCCP

# 오픈-컨템퍼러리아트센터

## Open-Contemporary Art Center(OCAC) /

### 打開-當代藝術工作站

유형	민간단체, 예술공간	설립연도	2002년
운영주체	오픈-컨템퍼러리아트센터	장르	시각예술, 융·복합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SNS	<a href="https://ocac.com.tw">https://ocac.com.tw</a>		
주요 프로그램	- 큐레이션, 학제 간 교류, 포럼, 연구, 출판 사업		

오픈-컨템퍼러리아트센터(Open Contemporary Art Center, 이하 OCAC)는 타이베이 반시아오 지역에 설립된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공간(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Artist run space)이다. 주요 사업은 큐레이션, 학제 간 교류, 포럼, 연구, 출판 등이다. 대만의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가운데서도 초창기에 설립되어,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안공간에 속하며, 제일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뤼시둥(Lo Shih Tung)이 현재 디렉터를 맡고 있다.

공간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은 전시장, 2층은 사무실, 3층은 작가 레지던시 공간이다. 예술공간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오래된 원도심 골목에 자리 잡고 있다. 기획자들이 아닌 예술가들이 이런 공간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처음엔 의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술가 특유의 유연성이 이 공간이 특징이다. 공간의 모든 사업은 예술가다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다른 공간들에 비해 개방적이고 더 실험적이다. OCAC의 특징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대안공간과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OCAC를 태국으로 일 년 동안 옮겨 운영하기도 하였다.

최근 한국의 대안공간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OCAC는 컨템퍼러리 예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넓은 범위에서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다고 믿는다. 컨템퍼러리 예술이 무엇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대중들이 컨템퍼러리 예술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큐레이션: OCAC는 예술가-큐레이터 그룹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으로서, 예술의 이론적 방법론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동시대 사회와 예술 작품의 반영으로부터 OCAC의 큐레이션은 항상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제시한다. 전 세계의 예술계에 대만의 피드백을 신중하게 전달하고, 대만의 컨템퍼러리 예술을 세계화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아트/아트 스튜디오: OCAC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아트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공공의 장소와 예술가가 교류하는 것을 필수적이라고 보며, 예술공간에서 단순히 창작과 아카이빙, 전시를 넘어서서 더 많은 대화와 급진적인 고민, 게릴라 활동 등을 추진한다. 공간에서의 예술적인 실천이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의 대항하는 제안이라고 믿는다.

커뮤니티 대화: 대중의 예술에 대한 참여 경향과 더불어 컨템퍼러리 예술은 비예술의 영역에도 개방되며,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OCAC는 예술가들이 서로 다른 공동체에 예술을 알리며, 문화의 다양한 실천을 전하고, 이를 통해 예술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오픈-컨템퍼러리아트센터 ©OCAC



오픈-컨템퍼러리아트센터 ©OCAC



오픈-컨템퍼러리아트센터 ©OCAC



오픈-컨템퍼러리아트센터 외부 ©OCAC



오픈-컨템퍼러리아트센터 내부 ©OCAC

# 타이베이금마장영화제

## Taipei Golden Horse Film Festival(TGHFF) /

### 台北金馬影展

유형	영화제, 축제	설립연도	1962년
운영주체	타이베이금마영화제 집행위원회	장르	영화, 축제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SNS	www.goldenhorse.org.tw		
주요 프로그램	- 시상식, 영화제, 영화 프로젝트 홍보, 영화 아카데미		

대만에서 매년 열리는 영화제로 중국어권 3대 영화제[1]이다. 중국어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경쟁 부문인 금마장(The Golden Horse Awards)과 세계의 우수영화를 소개하는 타이베이금마장영화제(Taipei Golden Horse Film Festival)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양안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었던 1962년에 금마장 시상식이 시작되었는데 원래 의도는 대만 영화의 제작을 장려하고 우수한 영화와 영화 제작자들을 표창하기 위한 것이었다. 황금말을 의미하는 금마는 외딴 섬인 금문도(金門島, Kinmen, 킨먼)과 마조도(馬祖島, Matsu, 마쭈)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름에서 벌써 장제스 국민정부의 반공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킨먼과 마쭈가 대만의 영토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1980년까지는 중국에서 제작된 영화는 심사에 제외하고 대만과 홍콩에서 제작한 영화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1990년대부터 중국 영화의 참여 비중이 높아졌다.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 한 수상자의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발언이 이슈가 되면서 양안 영화계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고 급기야 중국 정부는 중국 배우들의 참여 금지를 지시하였다. 두 개의 중국, 양안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첨예한 지점에서 있는 문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정치적으로 중국에 완전히 사로잡힌 대만에서는 비정치 영역인 영화예술을 통해 정치적 속내를 간접적으로나마 적극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1990년 제27회 금마영화제가 국정홍보실에서 영화진흥재단으로 이관되고 타이베이금마영화제 집행위원회(TGHFF Executive Committee)가 산하로

설립되었다. 공식 명칭은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제인 타이베이금마영화제로 바뀌었고 주요 활동은 금마장 시상식, 영화제, 영화 프로젝트 홍보, 영화 아카데미 등 4개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금마장 시상식은 중국어 영화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어권 영화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 중 하나이다. 과거 대만 영화계가 차이밍량, 허샤오셴 같은 걸출한 영화감독들을 쏟아내며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뻗어 나갈 수 있었던 것에는 금마장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총 23개의 수상작은 영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결정된다. 공식적인 상 이외에 관객상도 있다. 영화제는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하고 창의성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우수한 대만 영화를 소개한다. 영화 프로젝트 홍보는 중국 영화 제작자들과 국제 산업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화 아카데미는 전문가 수업을 개최함으로써 젊은 영화 제작자들을 양성하고, 이들을 홍보하려고 노력한다.

[1] 홍콩의 금상장, 중국의 금계백화장이 있다.



타이베이금마영화제 2020년 포스터 ©TGHFF



타이베이금마장 영화 아카데미 ©TGHFF



타이베이금마장 영화 프로젝트 홍보 사업 ©TGHFF



타이베이금마장영화제 2020년 금마장 수상자 ©TGHFF

# 타이베이문화재단

Taipei Culture Foundation(TCF) / 台北市文化基金會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1985년
운영주체	타이베이시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SNS	www.tcf.taipei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영화, 예술, 문화 행사</li> <li>- 예술가 및 영화 산업의 국제적인 전문가와 시장 연계</li> <li>- 문화, 창의 인재, 산업 육성</li> <li>- 예술, 문화 공간 운영</li> </ul>		

타이베이문화재단(Taipei Culture Foundation, TCF)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한 비영리 단체이다. 2007년 9월 타이베이 시 정부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타이베이의 예술 및 문화 발전을 향상시키는데 전념하고 있다. 공공의 다양한 축제와 공간을 위탁 운영한다. 기금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다양한 공간과 축제를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타이베이시 문화국으로부터 송산문화창조공원, 시먼홍러우, 타이베이영화테마파크, 보피랴오역사거리, 타이베이당대예술관, 타이베이예술인마을 등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타이베이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시먼홍러우는 한국의 명동, 보피랴오역사거리는 한국의 인사동과 유사하다. 이중 시먼홍러우는 대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명소로, 최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타이베이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간들은 한국의 공공기관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상업성을 추구하여 운영된다. 공공영역의 참여와 감독으로 인하여 타이베이문화재단은 일반 민간차원의 재단보다 문화 활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여 타이베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타이베이문화재단, 보피랴오역사거리(剝皮寮歷史街區, Bopiliao Historic Block) ©TCF



타이베이문화재단, 시먼홍러우(西門紅樓, The Red House) ©TCF



타이베이문화재단, 타이베이영화테마파크(臺北市電影主題公園, Taipei Cinema Park) ©TCF

# 타이베이시 문화국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Taipei City Government /

臺北市政府文化局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1999년
운영주체	대만 정부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 SNS	www.culture.gov.taipei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지원금 및 기금 사업 추진</li> <li>- 영화제, 레지던시, 시립예술단, 타이베이시립미술관, 타이베이 문화원, 타이베이시립기록보관소, 중산홀, 거리예술 사업 운영</li> </ul>		

타이베이시 문화국(이하 문화국)은 대만 최초의 지자체 차원의 문화 조직이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문화 평론가인 잉타이 령 박사가 첫 이사직을 맡았으며, 시민들이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닌 시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이 되고자 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문화는 삶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현대성은 전통을 기반으로 정체되어야 한다’, ‘세계화는 로컬을 기반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 원칙을 주창하였다.

국제 업무 및 정책 수립, 문화보존 및 유산, 예술 및 인문, 공공 및 지역사회 예술 개발 등 총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와 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 개발 부문이 신설되었다. 문화국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창설 이래 문화 정책에 관한 중대한 이슈를 대중들에게 환기시켰으며, 도시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많은 공공 행사를 개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문화국이 후원하는 예술 활동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기를 열망하며 타이베이시의 모든 시민들이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고 예술에서 우수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수준 있는 문화행사나 민간 공간은 대부분 문화국의 후원을 받고 있다.

문화국은 다양한 예술지원사업(Grants for Arts) 등 기금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이 제안한 프로젝트들을 매년 600건 이상을 지원한다. 전문예술, 커뮤니티와 문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타이베이 아티스트 레지던시(AIR Arts in Residency Taipei)은 타이베이예술인마을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타이베이영화위원회(Taipei Film Commission, TFC)은 2008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영화제작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이다. 위원회는 로케이션 헌팅, 사용 신청, 예산 통제, 영화 제작 및 마케팅 측면을 지원한다. 타이베이필름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거리예술(Street Performer) 사업 역시 문화국의 사업 중 하나이다. 거리 공연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규정이 2005년 4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면허를 받은 거리 공연단체와 예술인들이 누구나 수도권의 공공장소, 공원 등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매년 5월에 거리 예술인에 대한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총 1,500명에 가까운 거리 공연단체와 예술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타이베이시 문화국 타이베이미술관(Taipei City Museum) ©TDA



타이베이시 문화국 타이베이영화위원회(Taipei Film Commission) 필름 로케이션 ©TDA



타이베이시 문화국 거리예술가 ©TDA

# 타이베이예술인마을/보장암국제예술촌

## Taipei Artist Village(TAV)/Treasure Hill Artist Village(THAV) /

### 台北國際藝術村/寶藏巖國際藝術村

유형	국공립기관, 예술공간	설립연도	2001/2010년
운영주체	타이베이문화재단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SNS	www.artistvillage.org		
주요 프로그램	- 국내외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국제교류, 창작지원, 커뮤니티아트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타이베이예술인마을(Taipei Artist Village, 이하 TAV)과 역사적 공동체에 자리 잡은 보장암국제예술촌(Treasure Hill Artist Village, 이하 THAV)은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만 예술가, 작가, 비평가 및 개인들에게 개방되어 공간을 제공한다. 지역 문화와 정치적 조건의 제약과 틀을 완전히 초월하는 국경 없는 공간으로서 더 높은 관점에서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류를 창출하고자 한다.

타이베이예술인마을(TAV)은 베이핑동로 7번지의 수수한 건물에 위치해 있다. 타이베이는 도심의 유희공간을 재생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공공정비건설부 청사였던 이 시설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했다. 대나무 숲이 있는 작고 외진 마당에 자리를 잡아 도시 환경의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 무용 리허설 공간, 피아노 연습실, 암실,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예술가들의 연구, 예술 창작, 전시, 공연 등 다양한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관람객과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거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다목적 예술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대만에서 가장 쾌적한 시설의 작가 스튜디오이다. 레지던시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 축제, 예술장터 등을 유치하고 기획을 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활발한 문화공간의 역할도 한다. 11, 12월의 타이베이는 한국의 가을처럼 선선한 기후이다. 이러한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작가들이 머무르고 창작 활동하기에 편한 곳이다.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하며 한국의 광주시립미술관 등과 예술가들을 교환하여 입주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만 내의 타 민간 국제 창작 스튜디오와의 교류도 활발하기에 TAV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온 작가들과 교류하기도 좋다.

보장암국제예술촌(THAV)은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을 이루고 있다. 3개월 단위로 젊은 국내외의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무료로 임대한다. 부산의 감천문화마을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THAV는 원래 집이 없던 군인들이 모여 무허가 주택을 지어 살던 곳이었다. 100가구가 넘는 판자촌은 점차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쇠락하였고 이내 전체가 철거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요구가 계기가 되어 마을의 보존이 결정되고, 마을 전체가 역사 건축물로 지정되어 복원작업이 진행되었다. 주민 거주 공간 이외에 남는 공간은 예술가들에게 제공되어, 약 30명의 예술가가 상주하면서 마을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후 몇 년 동안 이 동네는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역사를 바탕으로 자연과 예술, 공동체가 공존하고 상호 작용하는 곳으로 성장하였다. 자유롭게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구경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TAV와 THAV는 이종 문화, 학제 간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예술적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곳이다. 서로 다른 계층, 연령대, 민족이 만나 소통한다. 이 두 예술인 마을은 예술 실험실이 되기를 바라며, '평형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금 이곳의 사회와 창조적인 대화를 하고 문화교류의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지역 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이를 통해 도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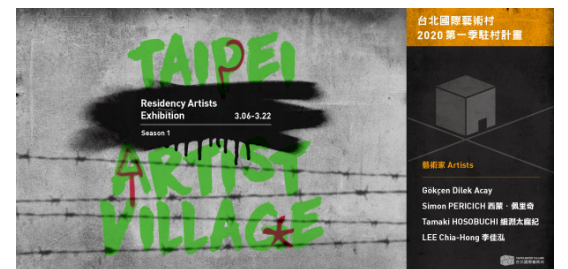
보장암국제예술촌 지도 ©TCF



보장암국제예술촌 ©TCF



타이베이예술인마을 ©TCF



타이베이예술인마을 레지던시 아티스트의 전시회 포스터 ©TCF

# 타이베이예술제

## Taipei Arts Festival / 臺北藝術節

유형	축제	설립연도	1998년
운영주체	타이베이시, 타이베이시문화부, 타이베이문화재단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융·복합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SNS	www.artsfestival.taipei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 장르를 지향하는 다원예술형 프로그램 (공연, 전시, 프리젠테이션 등)</li> <li>- 국제교류 및 청년 예술가 지원 플랫폼</li> </ul>		

타이베이예술제(Taipei Arts Festival)는 1998년 시작된 이래, 예술적 창의성의 가치를 입증하는 공연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2018년부터 타이베이공연예술센터(Taipei Performing Arts Center, TPAC)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축제는 타이베이 전역의 다양한 공연 공간 곳곳에서 일관적인 주제의 공연을 선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싱가포르인 큐레이터 탕푸쿠엔(Tang Fukuen)이 큐레이터를 맡고 있으며, 예술가를 선정하여 초청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매년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개최된다. 2019년은 ‘우리는 정체성이 있다/없다’를 주제로 삼았으며, 2020년에는 ‘슈퍼(Super)’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반응을 실험하고 해석하는 작업들을 선보였다.

무용, 연극, 퍼포먼스, 전시회, 융·복합예술, 프리젠테이션(Think Bar), 서커스 등 공연예술, 시각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함께 선보이는데 각 장르의 작품이 장르적인 특징을 유지하기보다는 탈 장르적이고, 융·복합 내지는 다원예술적인 형태로 선보인다. 큐레이터와 예술가들이 주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화이트 박스가 아니라 블랙박스에서 정교하게 기획되고 연출되어 열리는 행사이다. 몇 해 동안 반복하여 참여하는 팀도 있고 필리핀,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국제교류의 플랫폼 역할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것을 벗어나는 실험적인 예술을 주로 선보이며 매체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공연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고 참여 예술가 간의 팀워크가 중요하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연극, 공연을 선보이며, 작품에 대한 해석과 발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타이베이를 거점으로 국제교류를 통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타 도시와의 교류, 유망 예술가 지원을 포함하여 탈장르 공연, 문화 교류를 추진하여 중국어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청년들에게 창작활동을 장려하여 뛰어난 예술적 재능이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관련 예술 자원들을 통합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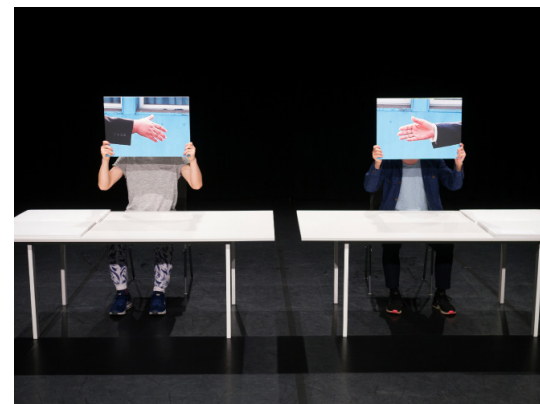
매년 여름에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이를 통해 예술교육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깊이 있고 아름다운 미적 체험을 선사하여 대중들에게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 축제와 연계한 행사를 조직하고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화창조 산업을 활성화하며, 타이베이 국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타이베이의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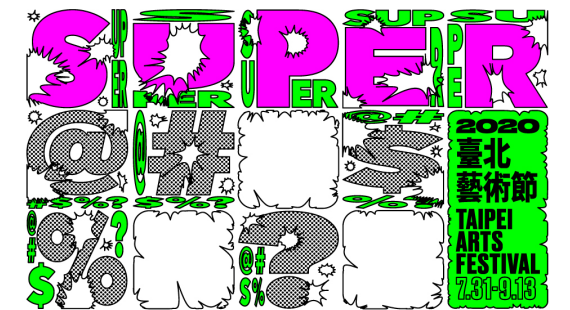
타이베이예술제 공연 'Dacon Express' ©Taipei Arts Festival



타이베이예술제 공연 'Disappearing Island' ©Taipei Arts Festival



타이베이예술제 공연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Taipei Arts Festival



타이베이예술제 2020 포스터 ©Taipei Arts Festival

# 타이베이컨템퍼러리아트센터

## Taipei Contemporary Art Center(TCAC) / 台北當代藝術中心

유형	민간단체, 예술공간	설립연도	2010년
운영주체	타이베이컨템퍼러리아트센터	장르	시각예술, 융·복합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SNS	www.tcac.tw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회, 포럼, 대화, 워크숍, 퍼포먼스 프로그램</li> <li>- 국제교류, 예술가/기획자 커뮤니티 공간</li> </ul>		

타이베이컨템퍼러리아트센터(Taipei Contemporary Art Center, 이하 TCAC)는 대만 예술가, 큐레이터, 비평가, 작가, 학자, 문화 연구자들이 설립한 독립예술공간이다. 제시, 교류, 창작과 공유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장가치와 개인주의를 넘어 제도적 지형과 가치를 실험하는 미학적인 표현을 수용한다. 아티스트들이 운영하는 오픈-컨템퍼러리아트센터(OCAC)와 달리 기획자 콜렉티브가 설립했다. 아주 오래된 원도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름에 비해 놀랍도록 작은 공간이다.

역사가 오래된 절과 소문난 길거리 음식들이 준비해 있는 거리를 지나면 발견되는 이곳에 들어서면, 긴 책상이 있고 여러 명의 젊은 기획자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시공간이기도 하고 대만의 젊은 기획자들의 구심점이 되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다. 예술가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리고 국제 교류에도 활발하다. 젊은 기획자들과 만나고 소통하기 좋은 공간이다. 미디어 아트 등 실험적인 작품들을 주로 선보인다. 좁은 영토로 인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타이베이에서 지역의 젊은 예술가, 기획자들이 작지만,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을 마련하고 동시에 문화공간으로 대중들에게 공개하여 활용하는 지혜가 돋보인다.

TCAC의 핵심 가치는 중요한 공공의 영역을 확보하고, 국제 교류를 촉진하며, 다양한 실험 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화적 환경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하여 타 장르와 문화 분야 간의 교류를 모색한다. 개관 이후 전시회, 포럼, 대화, 워크숍, 퍼포먼스 프로그램 등 400개 이상의 행사를 개최해왔다. 현재 TCAC의 공간은 미술 도서관, 비디오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회, 토크, 스크리닝 등으로 사용된다.



타이베이컨템퍼러리아트센터 공연 'Code Blue' ©TCAC



타이베이컨템퍼러리아트센터 전시 'It Follows' ©Xander Dixon

# 타이베이프린지페스티벌 Taipei Fringe Festival / 台北艺穗节

유형	국공립단체, 축제	설립연도	2008년
운영주체	타이베이시, 타이베이시문화부, 타이베이문화재단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축제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SNS	www.fringefestival.taipei		
주요 프로그램	- 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다원예술, 토크쇼, 전시 등 - 매년 참가작 공모를 통해 축제 프로그램 구성		

타이베이프린지페스티벌(Taipei Fringe Festival)의 목표는 예술이 극장 공간에서 해방되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축제에 참여하는 작품은 갤러리 공원 커피숍 및 기타 공공 일상 공간에서 선보일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소규모 공연예술 작품이나 설치미술을 포함한다. 축제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술이 엘리트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한다. 누구나 자신의 창작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 권위적인 주류 예술계에서 쉽게 선보이지 못하는 예술을 전통적인 축제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원도심 곳곳에서 선보인다.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다원예술, 토크쇼, 전시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이 이벤트가 400회 이상 열리는 대규모 축제이다. 다양한 국적의 100여 팀이 참여한다. 전통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모해가는 대만 사회의 젊은 에너지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행사이다. 주류 예술의 형식과 공간적 제약을 과감히 탈피하여 예술을 공원, 커피숍 등 생활공간으로 해방시키며, 각양각색의 공연과 설치미술 등을 선보인다. 매해 공모를 통해 참여 예술가들을 섭외하는 개방형 축제이다.

프린지 페스티벌의 개념은 1947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유래했는데, 축제에 초대받지 못한 8개의 예술단체가 국제적 규모의 축제에 맞설 수 있는 그들만의 대안 행사를 만들기로 하면서 시작되었다. 주류를 탈피하고 독립정신을 기리려는 의지로 인해 그들의 행사인 더 프린지(The Fringe)는 전 세계 예술가

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 이후로 60여 년 동안 프린지 축제는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예술 운동이 되었다. 새로운 창의력의 원천을 축하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재능을 지원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것은 프린지의 핵심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타이베이 프린지페스티벌은 이러한 철학에 따라 응모한 지원서를 심사하거나 불합격시키지 않다. 각 공연은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새로운 개념의 공연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관객은 프린지 공동체의 필수적인 구성원이 되고 예술가들과 함께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용기 있는 독립 정신을 스스로 정의한다.

사회의 집단적 에너지에 기초하여, 공연자의 창조적 능력을 고무하는 동시에 사회의 모든 계층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예술을 자극하는 비전통적인 자리를 제공하는 길을 추구한다. 축제의 장소들이 타이베이의 주거 지역 내에 있으며 교차하는 골목과 차선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둘러싸여 있다. 페스티벌의 범위는 도시의 경계까지 확장된다. 이처럼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는 것은 창의적 한계를 넘히는 효과를 거두며 축제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 축제에서 제작비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참여하는 모든 예술가는 티켓 판매 수익의 100%를 가져간다.



타이베이프린지페스티벌 2015 공연사진 ©Taipei Fringe Festival



타이베이프린지페스티벌 2020 공연사진 ©Taipei Fringe Festival



타이베이프린지페스티벌 2020 공연사진 ©Taipei Fringe Festival



타이베이프린지페스티벌 2020 공연사진 ©Taipei Fringe Festival

# 화산1914창조공원

## Huashan 1914 Creative Park / 華山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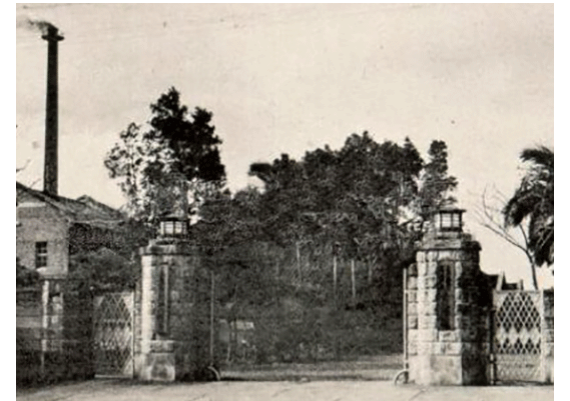
유형	민단단체, 문화복합공간	설립연도	1999년
운영주체	대만문화창조개발재단	장르	문화예술일반, 문화유산
소재지	타이베이(Taipei)		
홈페이지 /SNS	www.huashan1914.com		
주요 프로그램	- 공연, 전시, 포럼, 콘퍼런스, 축제 등 문화행사 - 연습실 및 발표 공간 대관		

화산1914창조공원(Huashan 1914 Creative Park)은 대규모 복합문화지구이다. 와인 공장으로 쓰이던 건물을 본래 형태를 거스르지 않고 정비하여 사용하는 곳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로 소개된다.

1914년에 와인 공장으로 번창하던 이곳은 대만 최대 규모의 주류 공장 중 하나였다. 1987년 와인 공장이 이전되면서 공간이 방치되고 폐허가 되었다. 1992년에 대만 정부가 이 부지의 명칭을 화산지구로 변경하여 입법청사 부지로 지정했으나 이후 무산되고, 1997년에 예술가들이 화산지구를 예술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1998년에 대만 정부가 문화부에 3년간 화산지구 관리와 유지를 의뢰하여 예술, 문화 행사, 전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1999년 화산예술문화지구(Huashan Arts and Culture District)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2002년 대만 행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낡은 와인 공장의 유휴공간을 재활용하고, 화산을 포함한 대만 북부와 남부에 5곳의 문화창조공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6개년 투자 계획인 '도전 2008: 국가발전중점계획'을 출범,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 2007년 대만 문화부는 화산구를 3개 분야로 나누어 관리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였다.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이곳에서는 아트페어나 대규모 전시회가 많이 열린다. 관광객 유치 등 상업적으로도 꽤 성공적인 운영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일반 예술가들에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싼 대관료로 인해 이곳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미술 전시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권

위 있는 미술관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한국의 코엑스 같은 블록버스터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이자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다. 고급 레스토랑, 주점을 비롯하여 매력적인 디자인샵도 많이 입점해 있다. 대규모 전시장, 오디토리움, 야외무대, 공연장,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공연과 전시,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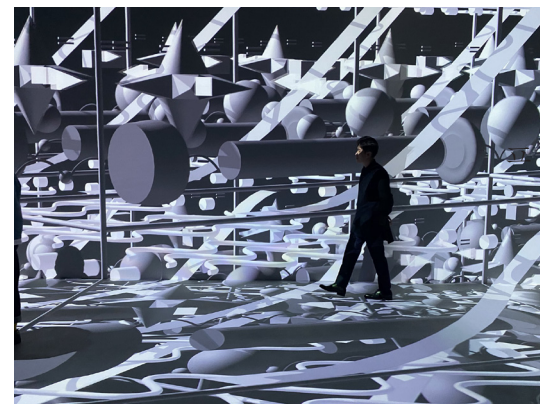
화산1914창조공원 과거 공장건물 ©Huashan1914



화산1914창조공원 전경 ©Huashan1914



화산1914창조공원 공연 ©Huashan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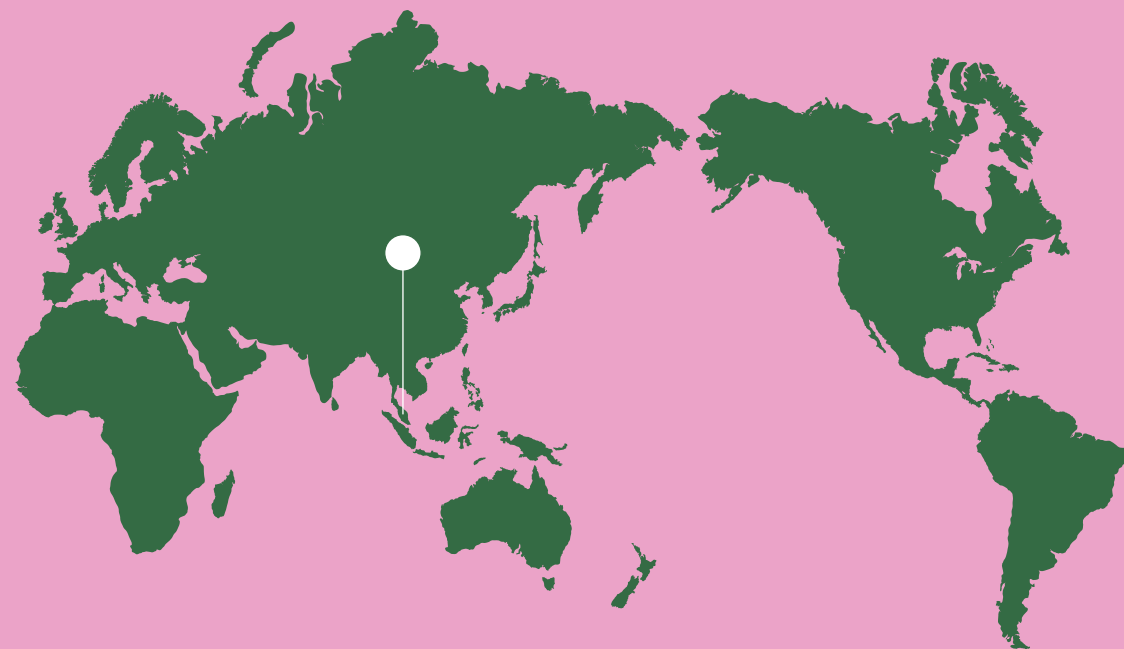
화산1914창조공원 전시 'Ocean' ©Huashan1914



화산1914창조공원 행사 ©Huashan1914

아시아 → 말레이시아

Asia → Malaysia



p.046 국가소개

p.048 관광예술문화부

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 Malaysia

p.050 레인포레스트월드뮤직페스티벌  
Rainforest World Music  
Festival

p.052 로스트젠스

Lostgens' Contemporary  
Art Space

p.054 씨어터쓰리식스티

theatrethreesixty

p.056 아이다레드자

Aida Redza

p.058 인소문화예술재단

INXO Arts & Culture (L)  
Foundation

p.060 일함갤러리

ILHAM Gallery

p.062 조지타운페스티벌

George Town Festival

p.064 첸다나

CENDANA

p.066 카키세니

Kakiseni

p.068 쿠알라룸푸르공연예술센터

Kuala Lumpur Performing  
Arts Centre

p.070 토카타스튜디오

Toccata Studio

p.072 파이브아트센터

Five Arts Centre

p.074 페낭하우스오브뮤직

Penang House of Music

# 말레이시아 Malaysia

‘포푸리’의 나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이므로, 문화, 관습 및  
전통의 끝없는 포푸리를 계승합니다.’

2019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에서 마하티르 모하맛(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가 한 말이다. ‘포푸리(Potpourri)’는 말린 꽃잎들의 혼합물(향료)로, 온갖 사물, 문화가 혼합된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언어, 종교, 문화가 이질적인 3개 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 세 민족의 명절과 기념일을 모두 공휴일로 정하는 나라. 음식점 종업원이 어떤 언어로 말을 걸어올지 알 수 없는 나라.

한국에서처럼 통일감 있는 문화에 익숙하거나, 혹은 ‘멀티내셔널(Multi-national)’한 이민자의 나라를 경험했다 해도, 이 느낌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성의 배경은 무엇이며 지금 그 공간을 나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다.

말레이시아는 19~20세기에 걸쳐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인도계(타밀)와 중국계 말레이시아 인구 대부분은 그 당시 영국 식민정책 하에 동원되듯 유입되었다. 최근 5년 내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에서 말레이계는 60% 이상, 중국계는 20% 이상, 인도계는 최소 6% 이상을 구성한다 - 말레이시아 통계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민족별 통계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은 이제야 다양성을 겸비하느라 야단이지만 말레이시아는 ‘하나’로 간다고 바쁘다.

아직은 딱히 하나가 된 것 같지 않다. 각 민족이 자신의 모어를 여전히 고집하고 상당수가 모어가 사용되는 민족 학교로 자식을 보낸다. 물론, 절대다수는 말레이계이며 진작 1957년부터 말레이어가 공식 언어로 헌법 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3개 언어가 공존하고 있다. 그 대신, 영어가 다소 중립적 위치에서 심판처럼 공식인 듯 비공식인 듯 널리 사용된다. 일상에서도 문화예술의 세계에서든 그러한 문화적-언어적 배경이 자리한다.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작품을 강한 중국 억양의 말레이시아 배우들이 영어 대사로 연기하는 것을 본다면 -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볼 때보다도 더 - 머리가 멍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그간 당연하게 믿었던 개념들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온다. 거기에 말레이시아가 있다.

말레이시아 현대사의 대부분 걸쳐 권위주의 정부는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나라를 동남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시켰지만, 그 사이 종교적, 정치적 제약과 탄압은 예술문화의 성장을 방해했다. 그러나 독재가 어느 정도 종식된 2000년대 이후로 예술을 통한 표현이 점점 더 많이 허용되고 있다. - 한때, 2인 이상의 모임도 금지되어, 축제 따위는 꿈도 꿀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야외 행사를 조직하는 데는 힘겹고 복잡한 수고가 따른다. 표현의 자유 외에도, 말레이시아 예술가가 부딪혀야 하는 도전은 많다. 가장 현실적으로는 예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심히 제한적이며, 전통이 아닌 실험적 테마와 형식을 장려하는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

말레이시아 재무부가 발표한 2021년 국가예산계획에 따르면, 창조산업 분야(문화예술)에 1,500만 말레이시아 링깃(약 40억 원)의 예산이 할당됐으며, 최소 5,000명의 실무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함이라고 한다. 이 예산의 일차적 종착지라 할 수 있는 첸다나(Cultural Economy Development Agency)에 독립 문화예술단체들이 기대할 수 있는 지원의 거의 전부가 달려있다시피 하지만, 첸다나 역시 2017~22년에 걸쳐 5개년 계획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안정성이 공고하지 못하다. 따라서, 사실상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문화예술 실무자들은 개별적으로 생존을 해결해 나가는 형편이며, 문화예술단체나 아트마켓, 축제와 같은 행사는 긴 생명력이나 안정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 뒤에서 나올 단체 중 다수도 같은 처지임을 밝힌다. -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 역시 디지털로 연결되는 세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표현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레이시아의 중국계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룬다. 말레이계 연극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레이어로 표현할 수 있는 고유한 작품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투하며 말레이어 전용 공간을 만든다. 거리에는 힌두사원과 인도식 축제와 음식을 쉽게 볼 수 있다.

문화예술에 있어 ‘다양성’은 생명력과 같다. 오래전 강제로 심어졌던 다양성은 이제 말레이시아 사회와 문화예술에서 진주알로 피어나고 있다. 성장 가도의 말레이시아가 가진 자원과 미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앞서 모하맛 총리가 이어서 밝혔듯, 이러한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은 자명한 이치라 하겠다.

## 관광예술문화부

### 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 Malaysia(MoTAC)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1959년
운영주체	말레이시아 정부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푸트라자야(Putrajaya)		
홈페이지 /SNS	관광예술문화부 <a href="http://www.motac.gov.my/en/">www.motac.gov.my/en/</a> 국가문화예술국 <a href="http://www.jkkn.gov.my/en">www.jkkn.gov.my/en</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기관 운영, 연구, 지원</li> <li>- 국가문화예술국 예술 교육 프로그램, 예술문화기업 혁신 연구 랩</li> <li>- 공연 기술 부문 실무, 문화예술 NGO 경영 코스 등 정기 운영</li> <li>- 포럼 Covid-19: 이벤트 관리와 예술 기업의 미래</li> </ul>		

관광예술문화부(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 Malaysia, 이하 MoTAC)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응하는 정부 부처이다. 관광부로 시작한 기관의 유래나 명칭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 역사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문화예술을 주로 관광 촉진의 견인차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은 관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며, 그나마 2000년대 이후 지원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2009년 국가창조산업정책(National Creative Industry Policy) 도입 시, 독립 예술가들을 위한 기금이 발표되었으나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

문화예술이 해당하는 창조산업 분야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의 2021년도 예산은 1,500만 말레이시아 링깃(한화 약 40억 원)이다. 국가 규모를 생각했을 때 매우 작게 여겨지는 이 예산은 실제로는 MoTAC 이 아닌 통신멀티미디어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와 그 산하 기관인 마이 크리에이티브벤처스(MyCreative Ventures)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화예술지원기관 첸다나(Cultural Economy Development Agency, CENDANA)에서 집행하게 된다.

산하 조직으로 말레이시아 관광국, 국가기록원, 국립도서관, 박물관국, 국가유산국, 국가문화예술국, 국립 예술문화 및 문화유산 아카데미, 국립극장, 국립미술관 등이 있다. 그중 국가문화예술국(National Department For Culture And Arts)이 문화예술산업 육성과 관련된 일부 사업과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계승과 전파 등에 주력하며, 관련 교육과 자료 아카이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서, 분열을 지양하고 ‘하나의 말레이시아’를 꿈꾸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통 부문의 문화예술 지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2012년, 말레이시아 창조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2억 링깃(약 540억 원)을 배정하고 출범시킨 정부 투자기관이 앞서 언급한 마이크리에이티브벤처스이다. 이 기관에서는 보조금 형태로는 지원하지 않지만, 비주얼 아트, 음악, 문학, 공연, 패션, 전통, 디자인, 요리, 콘텐츠 제작에 대해 지원이나 대출 형태로 투자하며, 지원자는 5년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관광문화예술부 로고 ©MoTAC



관광문화예술부 포럼 Covid 19 ©MoTAC

## 레인포레스트월드뮤지컬페스티벌 Rainforest World Music Festival(RWMF)

유형	국공립단체	설립연도	2005년
운영주체	사라왁관광청	장르	공연예술, 축제
소재지	쿠칭(Kuching)		
홈페이지/SNS	<a href="https://rwmf.net">https://rwmf.net</a>		
주요 프로그램	- 전통음악, 월드뮤직 등 음악 공연 프로그램, 쇼케이스, 워크숍, 플리마켓, 전시		

말레이시아에서 오직 한 개의 축제만을 가야 한다면, 레인포레스트월드뮤지컬페스티벌(Rainforest World Music Festival, 이하 RWMF)이어야 할 것이다. 음악에 극히 관심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3일간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 쿠칭 시에서 개최되며, 사라왁관광청(Sarawak Tourism Board)이 주최한다. 오전부터 저녁 공연 전까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음악 워크숍들은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흥미진진함 그 자체이다. 초청된 다국적 아티스트들이 함께 협업해 워크숍 이상의 즉흥 콘서트를 만들어 내며,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물론, 그 밖에도 축제의 단골 프로그램인 플리마켓, 전시, 음식 도 판매 만하다. 그러나 어쩌면 이 축제가 관객의 마음을 빼앗는 가장 큰 요소는 그 환경에 있을 것이다. 축제 장소인 사라왁문화마을(Sarawak Cultural Village)은 매력적인 힐링의 장소로, 68,796㎡에 달하는 산기슭 녹음의 공간이다. 숲 사이에 서 있는 전통 양식의 아름다운 목조 건물들은 실내 공연장과 워크숍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조차도 관객들 속에 섞여 축제를 만끽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축제 구석구석 자연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캠페인도 볼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축제 장소와 도시 간 온종일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므로 편리하다.

전통음악부터 월드퓨전, 현대 월드뮤직 등을 주요 장르로 하며, 축제 3일간 평균 26~27개의 국내외 밴드가 공식 무대에 참여하고 100여 개의 프린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다양한 말레이시아 부족 전통 공연

으로부터 생소한 섬나라 아티스트들의 연주와 각종 악기까지 볼 수 있어 음악 문화적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듯 규모가 큰 행사이지만, 축제의 명성 덕분에 자국에서 경비를 지원 받고 참여하는 아티스트가 많은 터라 주최 측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실속을 챙기는 면도 있다. 다른 한편, 프린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축제는 유료로 운영되어 티켓 수입도 수익에 한몫하고 있다. 할인을 받지 않는 경우, 1일 패스 165링깃(약 45,000원), 3일 패스 420링깃(약 113,000원)이다. 말레이시아 물가를 고려했을 때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수익 창출보다는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입장 관객의 수(2019년 기준 23,650명)를 조절하기 위한 의도라고 한다. 권위 있는 음악 매거진 송라인즈(Songlines)가 선정한 최고의 국제 페스티벌 25개 리스트에 6년 연속 선정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공연의 아카이브를 선보였다. (RWMF 2020 Playlist, <https://rwmf.net/rwmf2020/rwmf-2020/>)



축제 공간 지도 ©RWMF



축제 공간 전경 ©김은하



다국적 음악가 워크숍 ©RWMF



축제 워크숍 공간 ©김은하

# 로스트젠스

## Lostgens' Contemporary Art Space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04년
운영주체	로스트젠스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홈페이지 /SNS	<a href="http://lostgenerationspace.blogspot.com">http://lostgenerationspace.blogspot.com</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트갤러리, 대안예술공간 운영</li> <li>- 전시, 워크숍, 토론, 퍼포먼스, 음악, 커뮤니티 프로젝트</li> <li>- 아티스트 레지던시</li> </ul>		

로스트젠스(Lostgens' Contemporary Arts Space)는 실험정신 넘치는 독립 예술가들의 아트 갤러리이자 대안 예술 공간이며, 동시에 예술가 집단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를 알고 그 공간을 알고 나면, 이 공간의 이름에 대한 느낌이 새삼 가까이 다가오기도 한다. 헤밍웨이의 인용문, '당신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a lost generation)입니다'에서 따온 명칭이다.

2004년, 미술 기획자 여 리안 행(Yeoh Lian Heng)을 포함하여 예술가들이 독립예술제 낫뎃발라이아트페스티벌(Not That Balai Art Festival)의 개최를 계기로 집단을 구성한 것이 발단이 됐고, 독립적인 예술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가 지금의 예술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공공예술기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말레이시아 예술 현장에서 오래도록 자생해 온 로스트젠스에는 심플하지만 매력 있는 카페, 그리고 책과 수공예품 코너도 있다.

예술을 도구 삼아 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취지에서, 토론과 워크숍, 커뮤니티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때로는 퍼포먼스나 음악과 같은 다른 예술 형식으로도 확장된다. 예술교류에도 적극적이며,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로, 2021년까지 이어질 젤라자(Jelajah)는 쿠알라룸푸르의 호키엔 공동묘지(Hokkien Cemetery)를 활용한 장소특정형 설치미술 프로젝트이다. 이곳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

역 내 중국계 공동체의 중요한 매장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계 이주자들의 초기 정착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 역사적 문화적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프로젝트 언더플로우(Underflow)는 말레이시아와 대만 간의 역사 및 문화적 연결점을 찾아, 대만 예술단체 앵솔루트 스페이스(Absolute Space for the Arts)와 협업한 프로젝트이다. 무관해 보이는 두 나라가 고대부터 바다로 인해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언어, 문화, 음식 면에서 유사점이 발견된 연구가 있었다. 전시를 통해 오랫동안 정치적 경계로 인해 덮여 온 역사적 발전과 문화적 관계를 밝히고 표현했다.

로스트젠스의 디렉터 여 리안 행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미술 기획자로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다. 예술창작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고민하고 아티스트들의 프로젝트와 연계 시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르 간, 지역 간, 인종 간 매개 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스트젠스 공간 내부 ©Lostgens



전시 ©Lostgens



아티스트 토크 ©Lostgens



연극 워크숍 ©Lostgens



대만과의 협업 'Underflow' 프로젝트 ©Lostgens

# 씨어터쓰리식스티

## theatrethreesixty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14년
운영주체	씨어터쓰리식스티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수방자야(Subang Jaya)		
홈페이지 /SNS	<a href="https://theatrethreesixty.com">https://theatrethreesixty.com</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뉴씨어터, 피지컬씨어터 등</li> <li>- 신진/전문가 대상 트레이닝, 워크숍 프로그램</li> <li>- 국제교류 및 협업, 공동창작</li> </ul>		

말레이시아 연극의 현주소를 보고 싶다면, 씨어터쓰리식스티(theatrethreesixty)를 찾아야 할 것이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지하철로 연결되는 수방자야에 자리 잡고 있다. 4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블랙박스 극장과 리허설 스튜디오로 구성된 그들의 보금자리 이름은 로팅아트스페이스(Lot'ng Arts Space)이다. 중국계 배우가 강한 역양의 영어로, 때로는 말레이계 배우가 말레이어로 대사를 읊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말레이시아 다양한 민족 각 계층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연극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창작자나 기존 작품의 독창적 해석에 주력하는 씨어터쓰리식스티는, 공동 창립자이자 연출이자 예술감독인 크리스토퍼 링(Christopher Ling)의 지휘하에 매년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살린 뉴 씨어터를 다작 제작·발표해 왔다.

대표적 공연예술제 조지타운페스티벌(George Town Festival)을 포함하여, 코타키나발루아트페스티벌(Kota Kinabalu Arts Festival), 왓어바웃쿠칭(What About Kuching), 카키세니국제예술축제(Kakiseni International Arts Festival), 디아더페스티벌(The Other Festival), 페스티벌벨리아푸트라자야(Festival Belia Putrajaya), 싱가포르 코즈웨이익스체인지페스티벌(CausewayExchange Arts Festival) 등 중요한 예술축제에서 이들의 작품이 초청되어 왔으니, 말레이시아에서의 위상은 공고하다 할 수 있다. 한편, 현지의 독창적 작품을 공동 제작하여 참여국에서 번갈아 선보이는 국제협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지역 공연예술의 성장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으로 신진 또는 기존 전문가 모두에게 개방되는 트레이닝 및 워크숍을 운영하기도 한다. 퍼포머, 작가 및 기술팀으로서의 테크닉을 배우고 탐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믿음이 뒷받침된다. 이는 결국 훈련된 실무자 수를 늘리고 공연예술 현장에서 인재 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영국 내셔널유스씨어터와 미들섹스대학교에서 극예술을 전공한 인재인, 예술감독 크리스토퍼 링은 2009년 아누그라 세니 네가라(Anugerah Seni Negara) 국가예술상에서 연극 부문 젊은 인재상, 2012년 보 카메로니안 아트 어워즈(BOH Cameronian Arts Awards, BCAA)에서 뮤지컬 부문 최우수 연출상을 받았다.



공연 'Titus Andronicus' ©theatrethreesixty



말레이어 공연 '24 Jam Dalam 37 Tahun' ©theatrethreesixty



로팅아트스페이스 내부 ©theatrethreesixty



말레이어 공연 'Cikgu Disiplin Sekolah Aku' ©theatrethreesixty



워크숍 ©theatrethreesixty

# 아이다레드자

## Aida Redza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1987년
운영주체	아이다레드자 그룹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페낭(Penang)		
홈페이지 /SNS	<a href="https://aidamohdredza.wixsite.com/website">https://aidamohdredza.wixsite.com/website</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용, 안무, 국제협업 등 창작</li> <li>- 국제교류 및 협업, 공동창작</li> </ul>		

말레이시아에서, 야외 공간에 주목하는 예술단체를 찾기란 쉽지 않다. 무용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다레드자(Aida Redza)는 기존의 극장을 벗어난 공간이나 이벤트 또는 축제 장소를 선호하여 극장 관객보다 더 큰 커뮤니티와의 만남을 추구한다.

작품은 다분히 사회 참여적이며, 예술과 일상 사이에 위치해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가장 대표작인 ‘파디(Padi, 쌀)’ 시리즈는 논에서 시작하여, 문명에서의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 정신적 힘에 이르기까지, 쌀에서 영감을 얻었다. 실제로 쌀을 키워, 비주얼 아트, 음악과 무용을 조합한 공연에 이른다. 이 작품은 국제협업을 통해 거듭 나고 있으며, 태국 예술단체 아트페디아(Artpedia)와의 협업 리빙 프로젝트(LIVING Project)를 통해 공동제작한 ‘라이즈 투 라이스(Rise to Rice, 2019 치앙마이 ACTUP 축제)’, ‘리빙 쇼케이스(LIVING Showcase, 치앙마이 Empty Space Gallery)’ 및 ‘라이스 업!(Rice Up!, 말레이시아 2019 유기능 컨퍼런스)’을 발표했다. 2019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도 ‘쌀의 여정(Wandering Padi)’라는 타이틀의 작은 버전으로 소개한 바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공연예술축제인 조지타운페스티벌에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에 대한 환기를 주제로 하는 ‘리클레임(Reclaim)’을 2019년 선보였다.

말레이시아 페낭에 기반을 둔 안무가이자 무용가이며 그룹 리더인 아이다 레드자는 일상 속의 소재를 통해서 인권, 환경,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 특히, 취약 계층(청소년, 여성, 어머니, LGBT 커뮤니티 등) 관

련 주제들을 대중에게 더 가까이 가져오기 위해서 치유·변화시키는 일에 사명감을 느끼고 펜자가(Penjaga,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한다. 변화를 촉구하고 영향을 미치고 자극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콘텐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커뮤니티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작품을 만든다. 윈드리버프로덕션(WindRiver Productions)의 창립자이며 스튜디오펜타스(Studio Pentas)의 예술감독이기도 하다. 스튜디오펜타스는 희망과 회복력을 갖는 예술 커뮤니티 육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로, 여기서 진행되는 교육과 프로젝트들을 위해 다양한 부문 예술가 및 사회 활동가들의 공동 작업을 지원하는 조직이 윈드리버프로덕션이다. 페낭의 주 정부가 설립하여 지원하는 페낭현대무용단유포리아(Penang Modern Dance Ensemble Euphoria)의 예술감독이기도 하며, 2019년과 2020년 조지타운페스티벌의 예술 자문을 맡았다. 2016년, 일본 시즈오카공연예술센터(Shizuoka Performing Arts Center, SPAC)에서 국제협력 워크숍의 감독으로 초청되어 페낭과 일본 간 예술 교류를 촉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가장 활발한 말레이시아 아티스트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LIVING Project' 워크숍 ©Aida Redza



'LIVING Project' 치앙마이 ACTUP 축제 공연 ©Aida Redza



'Rice Up!' 공연 ©Aida Redza



'Wandering Padi' 공연 ©안산국제거리극축제



Studio Pentas 야외 퍼포먼스 ©Aida Redza



일본교류프로그램 TradeWinds Arts Exchange ©Aida Redza

# 인소문화예술재단

## INXO Arts & Culture (L) Foundation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12년
운영주체	인소문화예술재단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홈페이지 /SNS	www.inxo.org.my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지원, 신진예술가 육성 사업</li> <li>- 학술 토론 및 교류 사업</li> <li>-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li> </ul>		

광범위한 부문을 포괄하는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로 시작한 인소문화예술재단(INXO Arts & Culture (L) Foundation, 이하 INXO)은 주요 구성원이 문화예술분야 프리젠티어, 프로듀서 등으로, 공공차원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부족을 메꾸는데 헌신하는 몇 안 되는 단체 중 하나이다. INXO라는 용어는 구름 ‘운(云)’ 과 손 ‘수(手)’의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표현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름’은 자유롭게 흐르는 개념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손’은 실제적 노력과 작업을 상징한다. 문화예술 축진이라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자신들의 방식을 설명하는 이름이다.

인소예술기금(INXO Arts Fund, IAF)은 18~35세의 신진 예술가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금 외에도 이론 및 기술 관련 멘토링을 제공한다. 제한 없이 다양한 분야에 열려 있으나, 주요한 부문은 비주얼아트, 공연, 문학이다. 2019년의 경우, 기금 수혜자 선정 축하 행사와 함께 이들에 걸쳐 국제 포럼을 운영했는데, 한국을 포함하여, 호주,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6개국 8명의 패널리스트가 예술 관련 다양한 주제의 토론에 참여했다. 2020년에는 온라인 플랫폼 토크 시리즈(Arts Beyond Distance)를 기획하기도 했다.

2017년, 차를 곁들인 편안한 살롱 토크 형태로 시작된 티 필로(Tea Philo)는 초기의 철학과 인문학 주제에서 더 진화하여 뮤지션, 영화감독, 무용가, 패션 디자이너, 전시기획자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의 인사를 스피커로 초청하여 관객과 함께 월간 토론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아티스트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술가들은 체류 기간 중 지역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다원예술 작품을 창작하며, 말레이시아 예술가와 국제 예술가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 참가 아티스트는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워크숍을 열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레지던시 기간 중 지역 요소를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을 쇼케이스 형태로 선보이게 된다.



인소예술기금 2019 수여식 ©INXO Arts & Culture (L) Foundation



인소예술기금 토론, 국립미술관 ©INXO Arts & Culture (L) Foundation



인소예술기금 국제포럼 ©INXO Arts & Culture (L) Foundation



'Tea philo' 토크쇼 ©INXO Arts & Culture (L) Foundation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INXO Arts & Culture (L) Foundation



아티스트 레지던시 작업 ©INXO Arts & Culture (L) Foundation



아티스트 레지던시 지역 커뮤니티 협업 ©INXO Arts & Culture (L) Foundation

# 일함갤러리 ILHAM Gallery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15년
운영주체	야야산 일함 (YAYASAN ILHAM)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홈페이지 /SNS	www.ilhamgallery.com		
주요 프로그램	- 전시, 워크숍, 퍼포먼스, 강연 및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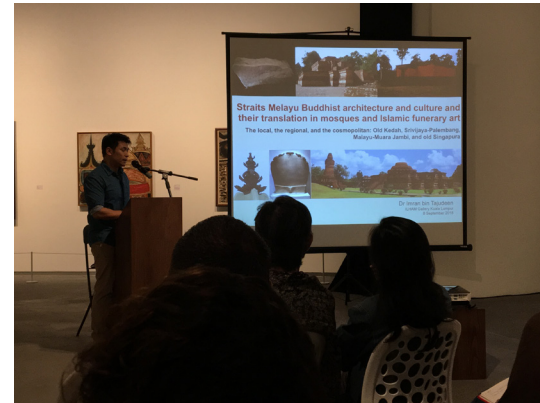
일함갤러리(ILHAM Gallery)는 현대 및 동시대 말레이시아 예술을 선보이는 입장료 무료의 공공 미술관으로, 예술, 문화 및 교육 분야 비영리 재단인 야야산일함(YAYASAN ILHAM)에서 운영한다. 쿠알라룸푸르의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 불리는 부유한 빌딩 숲에 위치한 세련된 60층 일함타워(Ilham Tower)에 있으며 3~5층이 갤러리 공간으로 작은 기프트 샵을 포함하고 있다. 일함타워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속한다.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말레이시아 근현대에서 동시대까지 중요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고 청소년에서 전문가까지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흥미로운 워크숍과 공연을 포함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다른 말레이시아 갤러리와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

동남아 권역을 무대로 활동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발렌틴(Valentine Willie)의 영향도 있겠지만, 2015년 오픈한 일함의 컬렉션은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 기반의 역사적, 개인적, 정치적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보유 작품이 2,000점을 넘어섰다. 동남아 지역 국가나 작가들과의 협업도 왕성하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싱가포르아트뮤지엄(Singapore Art Museum)과의 협력으로 말레이시아의 사회정치적 기억을 다룬 작품 전시가 있었고, 싱가포르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와 협력으로 태국 사진작가의 태국 사회에 관한 작품 전시를 하기도 했다.

코로나 19 대유행 관련 행정명령으로 인해, 7월부터는 가상 큐레이터 투어 방식으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 작품 관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회 큐레이터가 바뀌며, 갤러리 내 다른 전시 작품을 소개한다.

빌딩 밖의 공공미술로 두 개의 조각 작품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건축가이자 시인, 활동가이기도 한 영향력 있는 중국 작가 아이 웨이웨이(Ai Weiwei)의 작품 ‘디비나 프로포티오네(Divina Proportione, 2015)’이다. 이 작품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된 웨이웨이의 공공미술이기도 하다. 다른 작품 ‘브레스트 스투파 토피아리(Breast Stupa Topiary)’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 중 한 명인 피나리 산피탁(Pinaree Sanpitak)의 식물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다.



갤러리 내 말레이시아 문화사 강좌 ©김은하



갤러리 공간 활용 퍼포먼스 'Why not here?' ©ILH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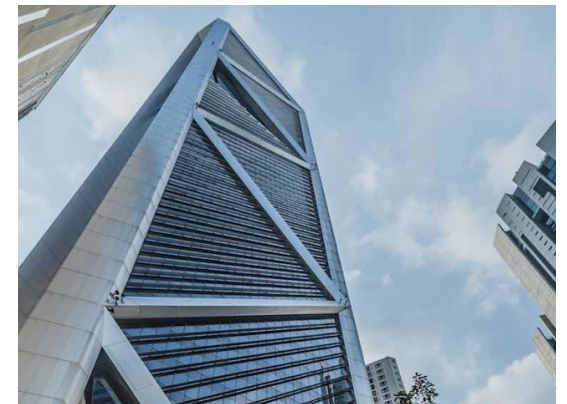
싱가폴 협력 전시 'The Voyage' by Mohammad Din Mohammad ©ILHAM



일함갤러리 내부 전경 ©ILHAM



공공미술 'Divina Proportione' ©ILHAM



일함타워 빌딩 ©ILHAM

# 조지타운페스티벌 George Town Festival(GTF)

유형	국공립단체	설립연도	2010년
운영주체	조지타운세계유산법인(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GTWHI)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축제
소재지	페낭(Penang)		
홈페이지 /SNS	<a href="https://georgetownfestival.com">https://georgetownfestival.com</a>		
주요 프로그램	- 연극, 음악, 무용, 영화, 시각예술, 사진 등 축제 프로그램 구성 - 축제 프로그램 공모 진행		

조지타운페스티벌(George Town Festival, 이하 GTF)은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공연예술축제라 할 수 있다. 매년 7월이면, 거의 한 달 내내 연극, 음악, 무용, 영화, 시각예술, 사진 전시 분야의 국내외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페낭의 조지 타운에서 열린다. 조지 타운이 관광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기간 외국 예술 관계자들도 많이 모여들어, 작은 도시가 북적이게 된다.

조지 타운의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으로 시작된 만큼, 조지타운세계유산법인(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GTWHI)과 페낭 주 정부 등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 따라서, 때로는 축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적극적 관여가 있기도 하다. - 식민지 시대 풍경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조지 타운의 역사적 운치를 맞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또한, 축제의 취지 자체가 조지 타운의 프로모션에 있기에, 조지 타운 구석구석의 건물과 거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확보한다. - 야외나 특정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는 날씨가 무더운 말레이시아 예술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 만큼 더욱더 귀하게 여겨진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이벤트를 수행하지 않는 대신 GTF 2020: 에브리웨어 에브리웨어(GTF 2020: Everywhere Everywhere)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7월에 3주간 연극, 음악, 무용, 영화, 시각예술 부문에서 쇼케이스, 토크, 워크숍, 필름 등을 온라인 스트리밍했다. 총

11개의 프로그램이 페스티벌에 큐레이팅되었으며 태블릿,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으로 관람 할 수 있어 관객에게 가상 GTF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GTF는 연령, 민족 또는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예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것은 어쩌면 상투적 표현일 수도 있으나, 말레이시아의 다민족/다문화 환경에서는 매우 예민한 주제이다. 대부분의 이벤트는 무료이며, 지역민 참여와 지역 콘텐츠를 동반하여 모두를 위한 축제를 추구한다. 그러한 면에서 프로그래밍 되는 작품들의 성격이나 수준은 다소 들쭉날쭉하기도 하지만, 페낭의 특별한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은 사실이다.

2021년 페스티벌은 전통적인 형태의 현장 엔터테인먼트와 가상의 요소를 통합하여 하이브리드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 작품을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큐레이팅 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신진 아티스트 간 협업에 관심이 있다. 양국의 페스티벌에서 선보이고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도 소개할 수 있는 국제 협업을 희망한다.



전통공연 'BaiZam Generation' ©GTF



공연 'Moz Drums' ©GTF



공연 'Sada Borneo' ©GTF



건물 야간 프로젝션 매핑 'When Night Falls' ©GTF



'Compagnie des Quidams' ©GTF



'Teatro Pavana' ©GTF

## 첸다나

### CENDANA(Cultural Economy Development Agency)

유형	국공립단체	설립연도	2017년
운영주체	첸다나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다만사라(Damansara)		
홈페이지 /SNS	www.cendana.com.my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지원 사업</li> <li>- 교육 서비스 사업</li> <li>- 도시 공공예술 지원사업</li> <li>- 해외 쇼케이스, 홍보, 창작, 연구, 네트워킹, 예술 프로젝트 촉진, 숙련도 향상 지원</li> </ul>		

2017년 공식 출범한 첸다나(CENDANA, Cultural Economy Development Agency)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독보적인 문화예술 지원기관이다. 활동 내용으로 보자면 한국의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비견되지만, 특이하게도 문화부처가 아닌 통신 멀티미디어부 산하의 문화예술 투자기관 마이크리에이티브벤처스(MyCreative Ventures)를 통해 예산을 받고 있다. 이 점은, 말레이시아 정부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경제 효과 창출 쪽에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첸다나의 사업은 크게 보조금과 교육 서비스로 나뉜다. 2020년 기준 보조금은 공공예술, 공연, 예술단체, 예술공간,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디지털 프로젝트, 인디음악, 비주얼아트, 수공예, 예술가 역량강화 지원 부문이 있다. 여기에는 물론,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첸다나 자체적으로도 해외 기관과의 협업에 관심이 많다. 교육 관련으로는,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디음악 전공자 및 예술가 대상 교육 캠프, 문화예술관계자 대상 교육 및 리서치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외, 도시 공간을 활용한 공공예술 프로그램(CENDANA Art in the City Public Art Commissioning Program)도 큰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경제 위주의 정책과 분위기에 따라 예술 접근의 기회가 많지 않은 도시민들과 삭막하게 남겨지는 도시 공간들을 고려한다면, 꽤 의미 있는 시도이다. 쿠알라룸푸르 시청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예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심의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예술 작품을 설치하거나 퍼포먼

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고, 광범위한 공공 및 민간 파트너, 즉 관광예술문화부(MOTAC), 국립박물관 등으로부터 기업체들까지 협업을 끌어낸다. 공연, 전시, 벽화, 조각, 설치 미술, 조명 예술, 비디오 프로젝션, 워크숍 등 형태는 다양하게 열려 있으며, 1년에 몇 회에 걸쳐 예술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

한편, 코로나 19의 대유행 이후 예술가·단체 실정에 대한 구체적 리서치를 완수하고 코로나 19 관련 문화예술분야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발 빠르게 준비하여, 2020년 7월부터 매달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 예술공간에 대해서 최대 35,000링깃(약 950만 원)의 운영비용(임대료, 공공요금 및 마케팅 비용 등)과 함께 안전한 공간 운영을 위한 실무교육을 지원한다. 크리에이트 나우(Create Now) 기금의 경우, 물리적 제한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동원한 예술 개발 및 아이디어 제안을 도모하고 지원한다는 목표이다. 디지털 마케팅 및 프로모션 보조금은 모든 분야 예술가들의 디지털 매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틱톡, 스냅샷, 트위터, 유튜브,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등)를 통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추가적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2021 창조경제 포럼 ©CENDANA



Art in the City 포스터 ©CENDANA



Art in the city 공연 ©CENDANA



첸다나 문화예술단체 시상식 ©CENDANA

## 카키세니 Kakiseni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01년
운영주체	카키세니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홈페이지 /SNS	http://kakiseni.org, https://kakiseni.com		

주요  
프로그램

- 문화예술 관련 정보 아카이빙, 웹 사이트 운영
- 공연예술상 ‘보 카메로니안 아트 어워즈’ 운영
- 축제 ‘디아더페스티벌’
- 문화예술 프로모션, 프로그래밍 및 큐레이션, 행사 운영, 예술교육, 출판

카키세니(Kakiseni)는 말레이시아의 예술 및 문화 산업 촉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다. 2001년, 예술가와 관객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및 소식, 리뷰와 특집 기사 등을 제공하는 예술 전문 온라인 포털로 처음 시작했다. 2002년부터는 기업인 보 플랜테이션(BOH Plantations)의 후원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유일무이한 공연예술상인 보 카메로니안 아트 어워즈(BOH Cameronian Arts Awards, BCAA)를 주관하고 있다. 전년도에 공연된 무용, 음악, 연극 및 뮤지컬 가운데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독보적 권위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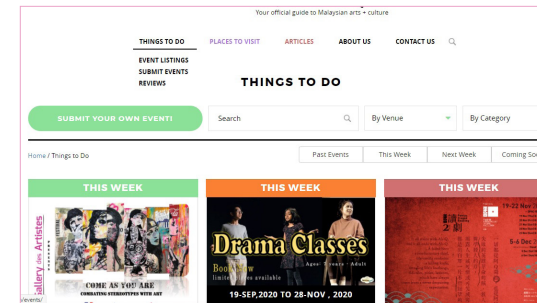
카키세니의 포털사이트(<https://kakiseni.com>)는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예술행사를 총체적으로 리스트업하고 있다. 개인으로서는 알아내기 힘든 크고 작은 음악, 영화, 무용, 연극, 문학, 미술 행사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유용할 방문 대상 공간과 교육, 워크숍, 콘퍼런스를 총망라하는 목차를 제공하므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온라인 공간이다. 한편, 예술가들을 위해서는 기금, 페스티벌, 레지던시, 세금 공제 안내 등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http://kakiseni.org/>)

카키세니는 온라인 서비스를 뛰어넘어 현장에서 문화예술 프로모션이나 운영사업을 많이 위임받는다. 아티스트 및 지역 시민들과 협력하여 카키세니가 큐레이팅하고 있는 디아더페스티벌(The Other Festival)은

페라크주(Perak) 이포시(Ipoh)의 구도심의 생활예술, 문화 및 유산을 기념하는 축제로, 페라크 주 정부와 페라크 관광청의 지원 속에 2015년에 시작된 연례행사이다. 음악과 공연예술, 영화 상영, 가이드 투어, 음식 산책, 창의적인 워크숍 및 강연, 전시회, 바자회 등 가족 친화적 축제이다. 한때, 카키세니국제예술축제도 운영하였으나, 말레이시아 다수 축제가 그러하듯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지 오래다.

한편, 에어비앤비의 ‘체험’ 서비스와 협력하여, 쿠알라룸푸르의 문화와 예술 현장을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도시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동하며, 운이 좋으면 갤러리 큐레이터, 디자이너 또는 아티스트를 만날 수도 있다.

그 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교육이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거나, 관련 출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카키세니의 어린이 대상 예술 프로젝트는 말레이 전통무용극 막용(Mak Yong)과 같이 주로 전통 문화의 계승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카키세니 홈페이지 ©Kakiseni



카키세니 BCAA 시상식 로고 ©Kakiseni



카키세니 BCAA 수상자 토크 행사 ©Kakiseni



카키세니 어린이 대상 전통공연 프로그램 ©김은하

# 쿠알라룸푸르공연예술센터

## The Kuala Lumpur Performing Arts Centre(klpac)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05년
운영주체	쿠알라룸푸르공연예술센터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홈페이지 /SNS	www.klpac.org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스튜디오, 갤러리, 콘퍼런스룸</li> <li>- 공연, 전시, 교육, 역량강화, 인재양성,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li> <li>- 축제 ‘쇼트+스위트말레이시아’, ‘야야산시메다비예술제’</li> </ul>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공연예술 공간으로, 중심가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아름다운 야외를 포함하여 그 규모는 7,614㎡에 이른다. 504석의 프로시니엄 극장과 190석의 블랙박스 극장, 배우 리허설 및 트레이닝을 위한 9개의 스튜디오, 아트갤러리, 콘퍼런스룸, 그리고 3개의 식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말레이시아 연극계의 대모와 같은 배우 파리다 메리칸(Faridah Merican)과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남편 조 하삼(Joe Hasham)이 함께 설립한 액터스튜디오(The Actors Studio)가 2003년 홍수로 붕괴된 후, YTL 그룹과 자선 재단 야야산부디펜야양(Yayasan Budi Penyayang)의 후원으로 쿠알라룸푸르공연예술센터(The Kuala Lumpur Performing Arts Centre, 이하 klpac)가 탄생했다. 파리다는 현재 페낭공연예술센터(Performing Arts Centre of Penang, 이하 penangpac)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공동 창립자이며, 조는 액터스튜디오의 예술감독이자 klpac과 penangpac의 예술감독이다.

소외계층이 공연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Community Outreach Programme, CORE)을 운영하며, 무료 강연, 가이드 투어, 공연 교육, 연극 워크숍을 진행하고 무료 티켓을 제공한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참여에 대한 배려는 축제나 이벤트 프로그램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그 외, 주로 지역사회 젊은 예술가들의 육성을 목표로, klpac 오케스트라, klpac 심포닉 밴드, klpac 현악 앙상블, 아동청소년연극(Theatre for Young People, T4YP)과 같은 프로젝트들도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 연극 수업과 중국무술 수업이 눈에 띈다.

klpac의 대표적 축제로는 2008년 시작된 경연 형식의 페스티벌 쇼트+스위트말레이시아(Short+Sweet Malaysia)가 있다. 연극 부문만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무용, 뮤지컬, 스탠드업 코미디, 노래, 음악 등으로 확대되었다. klpac이 자선재단 야야산시메다비(Yayasan Sime Darby)와 함께 격년제로 주최하는 야야산시메다비예술제(Yayasan Sime Darby Arts Festival)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무료 예술축제이다. 전통에서 현대, 동양과 서양, 주류에서 실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연예술을 망라하며, 단순히 공연뿐만 아니라 워크숍, 쇼케이스, 설치미술, 스크린 상영 등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온 가족이 즐길 만한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klpac의 실내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축제 참가자들을 위해 공연장과 지하철 간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센스도 잊지 않는다.



야야산다비예술제 내부 로비 공연 ©김은하



야야산다비예술제 어린이 프로그램 ©김은하



야야산다비예술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김은하



야야산다비예술제 야외 무용공연 ©김은하

# 토카타스튜디오 Toccata Studio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13년
운영주체	토카타스튜디오	장르	공연예술, 융·복합
소재지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홈페이지 /SNS	www.toccatastudio.com		
주요 프로그램	- 공연, 설치, 인터랙티브, 시각예술, 비디오아트 - 국제교류, 국제공동창작		

토카타스튜디오(Toccata Studio)는 ‘실험적’ 또는 ‘혁신적’으로 일컬을 만한 말레이시아 창작집단을 뽑자면, 반드시 들어갈 그룹으로, 스스로 역시 자신들을 ‘창조적 인큐베이터’로 인식한다.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설치, 인터랙티브, 시각예술, 비디오 등의 작품도 제작하고 있다. 즉, 공연예술 공간을 넘어 갤러리, 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 파트너와도 협력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실험음악가인 예술감독 응 출 관(Ng Chor Guan)의 영향으로, 텍스트가 아닌 음악을 내러티브의 도구로 하는 비언어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020년은 토카타 스튜디오에 있어 2015년부터 야심 차게 진행해 온 프로젝트 2020(Project 2020)이 그 결실을 맺을 한 해가 될 예정이었다. '미래를 형성하는 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아이디어 속에서 클론, 타임머신, 시간 여행 주제의 작품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의 모든 투어와 공동창작을 취소해야 했다. 2020 세계투어가 예정됐던, 독일의 파라노말스트링쿼텟(Paranormal String Quartet)과 함께 2019년 초연한 '2020 타임스캐퍼(2020:Timescaper)' 역시 원본 오디오 CD를 통해 프로모션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응하는 작품 제작도 포기치 않았다. ‘아이소우램(I SAW A LAMB)’이 그것으로, 독일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전염병의 여정을 다룬 온라인 실험 영상이다. 그리고 '현재의 산과 바다'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다. 중국 고대문학, '산과 바다의 고전'을 모티프로 하는 이 작품은 2019년부터

논의해 왔으며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했을 때 미래의 풍경과 생물에 대한 상상력을 고취하기 위해 이 작업이 더 시급하다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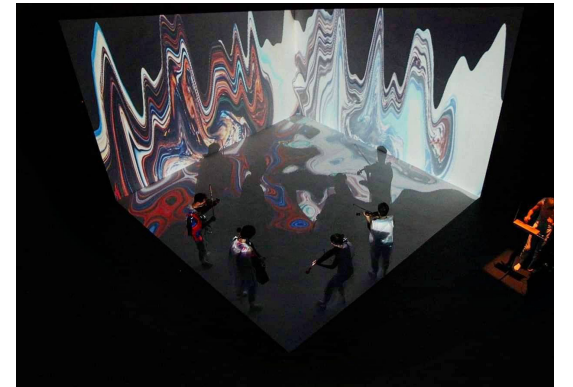
이들 작업의 포커스는 '미래를 형성하는 힘으로서의 예술'로서, 역사와 과거에 뿌리를 두고 미래의 언어를 만드는 것, 그리고 현 사회를 반영하고 동시대를 기록하는 작업이다. 미래, 복합, 실험, 멀티미디어를 컨셉으로 하는 한국 예술가/단체, 축제나 공간과의 협업에 관심이 있다. 예술감독 응 출 관은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제예술축제에 단골 초청되는 작곡가, 사운드 디자이너, 테레미니스트(Thereminist)이며, 프로듀서인 이잔 탄(E-Jan Tan) 역시 아시아프로듀서플랫폼(Asian Producers' Platform, APP)에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국제협업에 열정을 갖고 뛰고 있다.



오디오 투어형 관객 참여 공연 '모바일폰 오케스트라' ©Toccata Studio



음악 워크숍 ©Toccata Studio



공연 '프로젝트 2020' ©Toccata Studio



TIGA 트리오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Toccata Studio



공연 'Timescaper' 공연단과 스태프 ©Toccata Studio

# 파이브아트센터 Five Arts Centre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1984년
운영주체	파이브아트센터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홈페이지 /SNS	www.fiveartscentre.org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창작, 공연, 토론, 워크숍</li> <li>- 크리셴짓아스트로펀드(Krishen Jit ASTRO Fund) 국내외 예술가 지원 기금</li> <li>- 오픈하우스프로그램(Open House' Programme) 예술가 대상 무료 공간 대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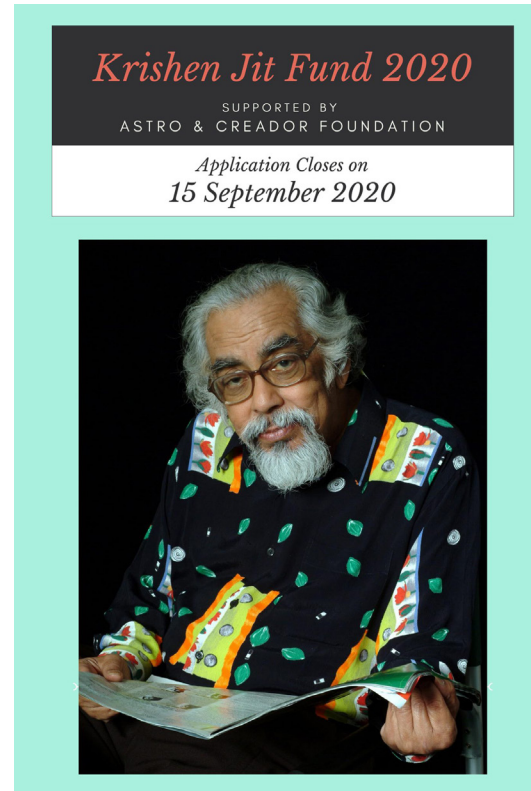
파이브아트센터(Five Arts Centre)는 대안예술 창출을 목표로 하는 예술가와 제작자들의 집단이자 공간으로, 연극, 무용, 음악뿐 아니라 시각 예술과 디지털 예술의 측면도 포괄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창작 아이디어나 연구 작업의 발표와 토론, 워크숍 등과 소규모 작품의 발표가 이루어진다. 엘리트 예술가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단체와 그 구성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광범위한 국제교류 주자들이기도 하다.

1984년, 연출가 친 산 수이(Chin San Sooi)와 크리셴 짓(Krishen Jit), 안무가 마리온 드 크루즈(Marion D' Cruz)가 공동 설립한 이래, 다양한 민족과 문화로 얽혀 있는 말레이시아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표현해 왔다. 35주년을 넘은 현재 주요 구성원들은, 공연예술 전공자뿐만 아니라 과학자, 영화감독, 연구자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만큼, 예술을 넘어, 말레이시아 사회, 정치, 문화적 이슈들을 공연, 전시, 세미나 및 연구 워크숍, 콘퍼런스 등을 통해 다루고 토론하며 말레이시아 예술계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 예술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씽크탱크와 같은 그룹이다.

2006년 기업 아스트로(ASTRO)의 후원으로 말레이시아 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내외국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크리셴짓아스트로펀드(Krishen Jit ASTRO Fund)를 출범시켰으며, 매년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부문은 워크숍, 레지던시, 실험 제작, 연구 및 문서 작업, 글쓰기, 그리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시각/공연예술 분야 신작 창작 등이다.

파이브아트센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시아의 예술작품을 지원하는 지역 조직인 아트네트워크 아시아(Arts Network Asia, ANA)의 매니저를 역임하는 등 꾸준히 국제협업을 추구해 왔으며, 2019년에는 일본 요코하마의 도쿄공연예술미팅(Tokyo Performing Arts Meeting, TPAM in Yokohama)에서 파이브아트센터의 마크 테(Mark The)가 감독한 '개념적 역사(A Notional History)'와 파미 파질(Fahmi Fadzil)과 잔 야마시타(Zan Yamashita)의 공동 작업인 'GE14'의 두 작품을 발표했다. 두 작품 모두 개인과 정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신작 지원으로 유명한 연극 인큐베이션 공간인 싱가포르의 센터 42(Center 42)와 함께 양국 아티스트들이 더블빌로 참여하는 작품 개발에 참여했다.

한편, 2020년 7월부터 팬더믹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예술가/단체들의 리허설과 공연, 예술적 실험을 위해 무상으로 자신들의 블랙박스 코탁(KOTAK)을 임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첸다나(CENDANA)에서 임대료를 위한 보조금을 수취하였다.



2020 Krishen Jit 기금 ©Five Arts Centre



'VERSION 2020' 독일 원형 공연 ©Five Arts Centre



파이브아트센터 워크숍 ©Five Arts Centre



팬더믹 관련 회의 중인 파이브아트센터 사무실 ©Five Arts Centre



80년대에 진행된 공연의 한 장면 ©Five Arts Centre

# 페낭하우스오브뮤직

## Penang House of Music(PHoM)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16년
운영주체	페낭하우스오브뮤직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페낭(Penang)		
홈페이지 /SNS	www.penanghouseofmusic.com		
주요 프로그램	- 음악 공연, 아카이빙, 학술 및 포럼 행사 - 음악 관련 워크숍, 축제		

페낭하우스오브뮤직(Penang House of Music, 이하 PHoM)은 페낭을 중심으로 한 말레이시아 근현대 음악 역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동시에 기록하는 음악 박물관, 아카이브, 공연장이다. 테이프, 레코드, CD, 전축 및 오디오 시스템, 악기, 서적뿐 아니라, 옛 음악다방의 재현, 녹음실, 라디오 룸, 시네마 룸, 공연장까지 갖출 것은 다 갖추었다. 블랙박스는 크지 않지만,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과 워크숍, 토론과 같은 행사가 꾸준히 이어진다.

페낭음악유산프로젝트(Penang Musical Heritage Project, PMHP)의 결실로 설립되었으나, PHoM의 운영과 발전은 순전히 디렉터인 폴 오거스틴(Paul Augustin)의 열정의 소산이다. 폴 자신이 페낭 출신 뮤지션이자 페낭아일랜드재즈페스티벌(Penang Island Jazz Festival)의 디렉터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과 교류가 많은 문화예술 인사이며, 자라섬재즈페스티벌과는 특별한 인연으로 오랜 기간 협업 해왔다.

말레이시아 음악 자체가 말레이, 인도, 중국 등 세 가지 이상의 문화 속에 발전되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데다,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페낭은 동남아의 관문이 되는 항구로서, 다양한 국가의 문화예술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페낭의 뮤지션들은 말레이시아 초기 음악 산업과 라디오의 탄생(Radio Television Malaysia)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페낭은 말레이시아에서 음악과 관련하여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PHoM 역시 팬더믹 기간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했으나, 동시에 이 기간 많은 사람이 음악 자료들(오래된 레코드, 테이프, 책, 잡지, 사진 등)을 기증하여 현재는 소장 자료들의 디지털화 작업(Audio-Video Lab)에 매진 중이다. 자료의 증가뿐만 아니라, 팬더믹을 계기로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 그리고 예술가들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공연예술 유산에 있어 국가 차원의 기록·보관 작업에 미진함이 있기에, PHoM 아카이빙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으며, 말레이시아 현지와 외국 대학(호주, 대만,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많은 연구원이 음악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에 대한 리서치를 위해 아카이브를 방문하고 있다.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PHoM이 연구자들과 함께 협업하고 있다.

다른 한편, PHoM은 아시아 지역 간 문화예술교류에 대한 역사 연구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아시아 음악의 지식과 정보 공유, 문서화 및 디지털화 측면에서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



공연 'Boria' (PHoM 블랙박스) ©PHoM



조지타운페스티벌 연계 문학축제 (PHoM 음악다방) ©PHoM



60-70년대 뮤지션 공연 'The Living Room' (PHoM 블랙박스) ©PH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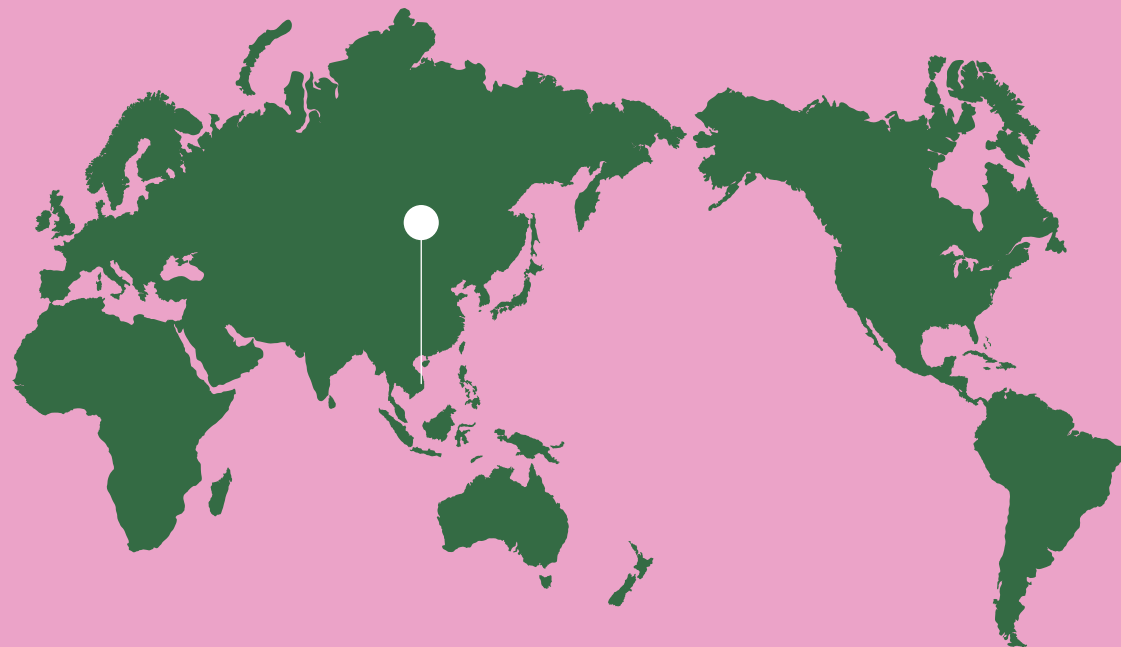


음악 및 문화예술 기금 설명회 ©PHoM



레코드 전시 및 음악 포럼 'Songs at the Dawn of a Nation' (GTF 2019) ©PHoM

아시아 → 베트남  
Asia → Vietnam



- p.078 국가소개  
Nha San Collective
- p.080 냐산콜렉티브  
Nha San Collective
- p.082 닥랩  
Hanoi Doclab
- p.084 돔돔  
Domdom
- p.086 만지  
Manzi
- p.088 베트남국립가무악단  
Vietnamese National  
Music, Song and Dance  
Theatre
- p.090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ietnam
- p.092 베트남여성박물관  
Vietnamese Women's  
Museum
- p.094 비카스아트스튜디오  
VICAS Art Studio
- p.096 빈컴컨템퍼러리아트센터  
Vincom Center for  
Contemporary Art
- p.098 아라베스크 베트남  
Arabesque Vietnam
- p.100 크로싱오버아츠페스티벌  
Crossing Over Arts Festival
- p.102 키너지스튜디오  
Kinergie Studio
- p.104 하노이그레이프바인  
Hanoi Grapevine
- p.106 헤리티지스페이스  
Heritage Space

# 베트남 Vietnam

베트남은 한국 사람들에게 친근한 나라다. 코로나 팬더믹 이전인 2018, 19년에는 베트남 방문객 1, 2위는 한국인이었다. 쌀국수, 오토바이, 커피, 아오자이(베트남 전통의상)가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베트남의 문화를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 베트남과 그들의 정신의 정수가 담긴 예술까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베트남의 역사·정치·사회적 특징을 짚어보면서 이 나라의 문화예술을 알아보자.

## 전쟁과 지형으로 이해하는 예술 환경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중국 한나라로부터 1,000년, 19세기 말부터 프랑스로부터 50년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이후 1945년 세계 2차 대전을 기점으로 외세와의 갈등에 시달리다가, 1954년 미국이 지원하는 남베트남과 민족주의 호찌민이 주도하는 북베트남으로 이념이 나뉘어 반쪽짜리 독립을 한다. 이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 치열한 남북전쟁을 겪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들은 사회주의 성향의 북베트남이 승리한 후 현재의 통일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이루게 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호찌민은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했던 남부 지역으로, 원래 이름은 사이공이었지만, 통일 후 정부에서 그 세력을 누르고자 도시의 이름을 정신적 지도자인 호찌민의 이름으로 붙인 것이다. 여전히 남부지역 사람들은 그 도시를 사이공이라고도 부르지만 말이다. 실제로, 같은 나라 사람이든가 싶을 만큼 북부와 남부 사람들은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기다란 지형적 특성에도 있을 것이다. 폭이 좁고 위아래로 길게 뻗어 해안선의 길이가 3,000km가 넘는다. 기후도 다르고 겪은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예술계 분위기 차이도 존재한다. 주로 하노이는 베트남만의 전통적 색채가 강하게 배어있다. 수도이기 때문에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많고, 해외 공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하노이에 몰리고 있다. 하노이의 독립 예술가들은 고유성을 살린 작품에 집중하는 편이다. 반면, 상업적으로 성장한 호찌민은 경제적으로도 부유층이 많아 상대적으로 관객들이 예술 소비문화가 더 활발하고, 실험적이고 개방적인 예술을 즐기는 데 거리낌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일을 쉽게 적용한다. 소수민족에 대한 포용성을 주장하는 예술가도 많다. 베트남에는 54개에 이르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비엣족이 전체의 인구의 85% 이상을 차지해 나머지 소수민족은 오랜 기간 핍박받아왔다.

## 예술, 검열과 자유 사이

대형 문화예술 기관들은 모두 정부 산하에 있어 나라를 홍보하는 선전용 예술 퍼포먼스 기능을 수행한다. 그들은 나라의 민족성을 고양하기 위한 음악이나 공연을 만들어내는 많은 지원을 하므로 국민들도 이들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쉽게 접한다. 러시아의 클래식 발레가 그랬듯, 예산이나 권력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 국가에서 예술이 일정 수준 발전하고 전통예술의 보존과 창작적 계승이 이뤄진다. 베트남의 경우 민간단체가 꼭 선전용 예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 산하 단체가 아니어도 베트남에서 예술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등록을 받았거나 관리하에 있는 예술기관을 통해 예술단체나 개인이 일종의 ‘라이

선스’를 사전에 획득해야 하고, 단계적인 검열을 거쳐야 공연이나 전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체제나 역사에 대한 비판 콘텐츠는 검열 대상이다.

그럼에도 언더그라운드 세계의 아티스트들은 자신들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구축해나가며 활동한다. 모든 작품이 정부 비판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을 갈망한다. 특히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그러나 특정 활동이 두드러지면 선정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부에서 폐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집합 장소는 늘 옮겨 다니거나 자주 업데이트된다. 현대 아티스트들도 세대적인 특징이 있다. 베트남의 전체 인구 9,700만 명 중 70% 이상이 1980년대 전후로 태어난 청년층이다. 외국 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거나, 베트남 내 높은 교육열 아래에서 성장한 이들은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고유한 베트남 스타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므로 베트남 예술에는 이념 선전, 이에 대항하는 움직임, 세계 최신의 트렌드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 베트남 고유의 현대예술을 기대하다

현재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새롭게 개혁함)’라는 경제개방 정책 이후 세계 여러 국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새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베트남 실리콘 밸리 프로젝트, 2015년에는 사기업과 손잡고 만든 다낭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2017년 비카스아트스튜디오 설립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독립 예술가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작은 프랑스처럼 알록달록하면서도 유구한 역사의 강인함이 넘치는 베트남의 독특한 예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 냐산콜렉티브

### Nha San Collective / Nhà Sàn Collective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1998년
운영주체	냐산콜렉티브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하노이(Hanoi)		
홈페이지 / SNS	<a href="http://nhasan.org">http://nhasan.org</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프로젝트 기획, 추진</li> <li>- 실험예술, 아방가르드, 국제교류 및 공동창작</li> </ul>		

냐산의 본원지인 냐산스튜디오는 냐산카페로 탈바꿈했다. 스튜디오로서는 폐쇄되었지만, 베트남의 북부 소수민족인 므엥(Muong)족의 독특한 거주 형태이기 때문에 아트카페로 새로이 오픈해 일반인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공간상 독특한 구조와 골격으로 설치작품 전시나 강연, 퍼포먼스, 워크숍을 개최했고, 일반 대중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상시 오픈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방문 예약을 해야 이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하노이의 예술가들은 여전히 이 공간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베트남의 컨템퍼러리 예술 역사에서 냐산은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들이 가졌던 베트남에서 실험예술 정신과 역동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활동하는 공간은 어디로 옮겨는지 늘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콜렉티브를 구성하는 인원들도 해외에서 미술, 예술경영 등을 공부하고 온 세대로, 베트남에 신선한 바람을 넣는 역할을 하고 개개인이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는 2012년 금천예술공장 레지던시, 2014년 창원조각비엔날레 아카이브형 전시에도 참여한 바가 있다.

※ 그 외 시각예술 관련 단체로 산아트(San Art), 조프로젝트(Zo Project), 워크룸포(Work Room Four), 아트레이버(Art Labor Collective) 등이 있다.

베트남 예술에서 냐산콜렉티브(Nha San Collective)는 약 20년 역사와 그 존재만으로 유명한 단체다. 처음 1998년 응우옌 마잉 득(Nguyen Manh Duc)과 쩐 르엉(Tran Luong)이 냐산스튜디오(Nhasan Studio)를 설립해 베트남의 아방가르드 실험예술을 지향하는 대안 공간을 만들었다. 응우옌 마잉 득의 개인 집이자 베트남의 첫 비영리 독립 예술공간은 당시 떠오르는 비디오 아트, 설치미술에 사운드와 공연을 엮은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2011년 그들의 작품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냐산스튜디오가 폐쇄되는 조치를 받고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스튜디오가 갈 곳을 잃자, 2년 뒤인 2013년, 젊은 세대들이 기존 냐산의 정신을 이어 냐산콜렉티브를 결성해 하노이 중심가에 약 2년 간 오픈스튜디오, 전시 등 활동을 했다. 여기에는 응우옌 마잉 득의 딸인 응우옌 프엉 링(Nguyen Phuong Linh)과 또 다른 파트너 뚜안 마미(Tuan Mami)가 앞장섰다. 이후 2015년에는 장소를 옮겨 하노이크리에이티브시티(Hanoi Creative City)에 자리를 잡았고, 연예기획사, 디자이너 샵, 오락 시설 등이 주를 이룬 상업 단지에서 순수 예술적 활동을 이어가지만, 높아진 임대료로 다시 냐산콜렉티브는 특정 공간 없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게릴라식으로 활동하거나 해외기관과 협업 프로젝트가 있을 시에 움직인다.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발적이며, 베트남 전통예술과 세계의 사회정치적 흐름 속에서 그들만의 현대 시각예술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다.



냐산스튜디오 ©Nha San Collective



냐산스튜디오 ©Nha San Collective

# 닥랩

## Hanoi Doclab

유형	민간단체, 예술공간	설립연도	2009년
운영주체	닥랩	장르	시각예술, 영상예술, 영화
소재지	하노이(Hanoi)		
홈페이지 /SNS	www.hanidoclab.org www.facebook.com/HanoiDOCLAB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상영회, 영화 제작, 촬영 장비 대여</li> <li>- 교육, 워크숍, 강연, 세미나, 영화 자료실 운영</li> <li>- 축제 '미니닥페스트' 개최</li> </ul>		

닥랩(Hanoi Doclab)은 베트남의 영상예술 단체다. 2009년 응우옌 쩌 티(Nguyen Trinh Thi)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독일문화원 내 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응우옌 쩌 티가 미국에서 언론과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것처럼 주로 다큐멘터리에 중점을 두고 시작했지만, 외부와의 협력이나 외국인 초청 연사로 더 넓은 개념의 '영상'을 포괄해 독립 영화, 실험적 영상물까지 아우르는 독립 기관이다. 즉, 그들이 '큰 생각을 담은 작은 센터'라고 한 것처럼 영상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영역, 미디어, 독립영화 등 베트남 영상 창작의 기반이 되고자 한다.

닥랩이 진행하는 교육 활동 중에서는 영화 제작자들에게 촬영 장비를 빌려주며 진행하는 기술적 교육이 있고, 자료실에 구비된 고전 영화, 현대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등 예술 영상물을 함께 관람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축제 미니닥페스트(Mini DocFest)를 개최해 젊은 베트남 예술가들이 만든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해왔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다양한 영상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다.

※ 그 외 영상예술 관련 단체로 사이공아웃캐스트(Saigon Outcast), 영화진흥지원센터(Centre for Assistance & Development of Movie Talents, TPD), 오키아(O Kia), 퓨처쇼츠베트남(Future Shorts Vietnam) 등이 있다.



닥랩 ©HanoiDoclab



닥랩 2층 공간 ©HanoiDoclab



닥랩이 있는 독일문화원 ©HanoiDoclab

# 돔돔 Domdom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12년
운영주체	돔돔	장르	공연예술, 음악
소재지	하노이(Hanoi)		
홈페이지 /SNS	<a href="http://domdommusic.com/en">http://domdommusic.com/en</a> <a href="http://www.hanoinewmusicfestival.com">www.hanoinewmusicfestival.com</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공연, 워크숍, 전문가 플랫폼 사업</li> <li>- 교육 프로그램, 관객 대상 프로그램</li> <li>- 축제 ‘하노이뉴뮤직페스티벌’ 개최</li> </ul>		

돔돔(Domdom)은 2012년 째 티 김 응옥(Tran Thi Kim Ngoc)에 의해 베트남 최초의 현대음악 관련 예술단체로서 설립되었다. 설립자인 김 응옥은 2002년부터 나산스튜디오에서 현대음악 활동을 하면서 시각과 현대 음악의 조합에 대해 실험을 했고, 이후 독일에서 작곡과 즉흥을 공부해 조명과 연출까지 아우르는 더욱더 다채롭고 새로운 무대를 꾸미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첫 시범 프로젝트였던 하노이뉴뮤직미팅2009(Hanoi New Music Meeting 2009)는 지역 및 국제 음악 관계자들 2,500명을 모으며 엄청난 관심과 호평을 받았는데,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이후 돔돔의 유형별 사업 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다. 바로 플랫폼 사업, 월별 교육 프로그램, 관객 대상 프로그램, 그리고 하노이뉴뮤직페스티벌(Hanoi New Music Festival)이다.

이후 돔돔은 베트남 컨템퍼러리 음악의 발전과 다른 장르와의 교류 및 콜라보레이션을 전담하는 플랫폼이 되면서 베트남 현대 미술 및 음악 교육, 젊은 작곡가와 뮤지션의 기반 조성 등 현대음악의 예술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음악이 예술로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기를 지향하며, 예술적 협력을 장려하고, 관객들이 실험적인 음악을 접할 수 있게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돔돔의 사업 중 중요한 부분인 하노이뉴뮤직페스티벌은 베트남 최초의 실험음악축제로, 2013년 ‘블라인

드 스팟(The Blind Spot)’이라는 주제로 처음 시작되었다. 첫 페스티벌에서는 하노이 시내와 극장들에서 다양한 실험적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장르가 낯선 베트남에서 1회 축제로서는 성공적으로 3천여 명의 관객과 스웨덴, 덴마크,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베트남까지 8개국 50여 명의 작곡가와 아티스트가 참가했다. 하지만 비엔날레 목적이던 축제는 5년이 지난 2018년에야 두 번째 행사 ‘메이크더사일런스(Make the Silence)’를 개최하였고, 아시아권에 집중해 캄보디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을 비롯해 스웨덴, 영국까지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 그 외 음악 관련 단체 및 공간으로 덴(Den), 폴리곤뮤직카페(Polygon Music Cafe), 어니언셀러(The Onion Celler), 하노이락시티(Hanoi Rock City), 식스스페이스(Six Space), MoT+++, 백스테이지11(Backstage 11), 팩토리컨템퍼러리아트센터(The Factory Contemporary Arts Centre), 콘그레게이션(Congregation), 세비지(Savage) 등이 있다.



돔돔 공연 'Beyond sound' ©Domdom



돔돔 워크숍 'Composing workshop' ©Domdom

# 만지 Manzi

유형	민간단체,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2012년
운영주체	만지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하노이(Hanoi)		
홈페이지 /SNS	www.facebook.com/manzihanoi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 바 운영</li> <li>- 기획 전시, 공간 내 다양한 행사 개최</li> <li>- 해외 파트너와 프로젝트 협업</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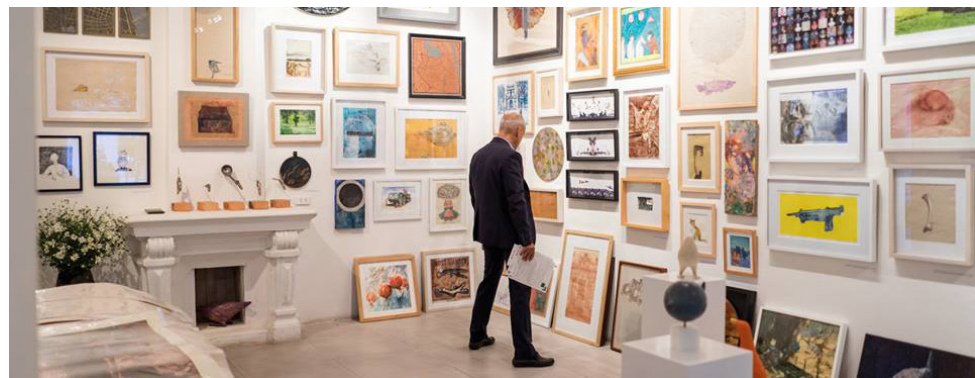
만지(Manzi)는 2012년부터 운영된 만지아트스페이스(Manzi Art Space)와 2019년 추가된 만지전시공간(Manzi Exhibition Space)로 나뉜다. 아트스페이스에서는 1, 2층의 카페와 바가 운영되고, 곳곳에 그림들이 전시되어있다. 이곳은 평소에는 카페로 활용되지만, 행사가 있을 때는 다양하게 활용되는 공간이다. 전시공간에서는 더 많은 이벤트와 아티스트들의 레지던시가 이루어진다. 처음 문을 연 후 현재까지 카페, 바 운영과 미술품 판매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다.

만지는 독일문화원의 후원을 받으며 많은 예술가, 예술 기관들과 협업하면서 하노이의 독보적인 브랜드이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이들의 목표는 현대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새로운 관객층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비판적 사고와 문화적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간적 허브로서 전시, 아트마켓, 토크, 워크숍, 출판 기념회, 영화 상영회, 음악 연주회, 무용 공연 등을 열었다. 국내외 단체들과 일하고 특히 국제기관들(재외문화원, 재외대사관, 유네스코, UN, 한국국제교류재단 등)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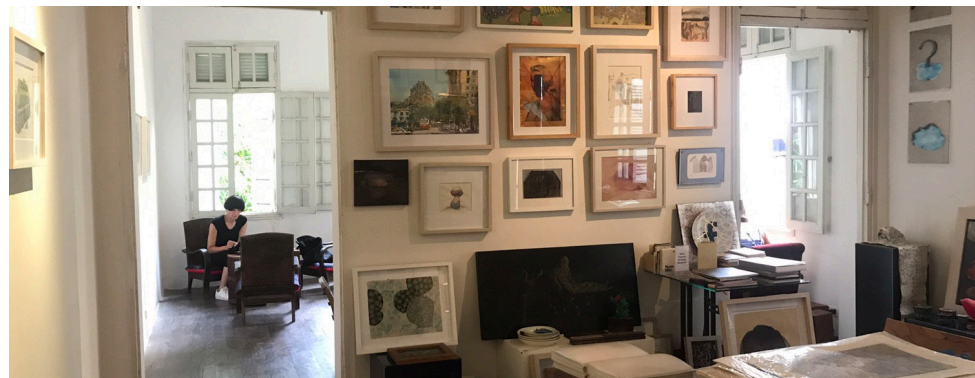
만지의 행사 일정은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되며, 매월 뽀뽀하게 늘 문화예술 행사들로 꽉 차 있다. 그 일정만 봐도 대략적인 베트남 현대예술의 지형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만지 카페는 평소에도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나 지성인, 국제교류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다.

최근의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국가문화원(European Union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 EUNIC)과 함께 인투씬에어(Into Thin Air) 시리즈를 3번째 진행 중인 것인데,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로서 2016년에 1회, 2018년에 2회가 진행되었다. 가령 인투씬에어2(Into Thin Air 2)는 하노이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미술 작품 10개를 방문하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의 증강 현실 기술을 통해 작품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거리예술이나 공공예술을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간섭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베트남 예술계에 고무적인 일이다.

※ 그 외 문화공간, 문화 허브로 어고허브(Agohub), 카페투베이(Ca Phe Thu Bay), 푸사랩(Phu Sa Lab), 공감박물관(Bao Tang Thau Cam) 등이 있다.



만지아트페어 ©Manzi



만지 ©손예운



만지 ©손예운

# 베트남국립가무악단

## Vietnamese National Music, Song and Dance Theatre / Nhà Hát Ca Múa Nhạc Việt Nam

유형	국공립단체	설립연도	1951년
운영주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하노이(Hanoi)		
홈페이지 /SNS	<a href="https://nhahatcamuanhacvietnam.com">https://nhahatcamuanhacvietnam.com</a> <a href="http://www.facebook.com/NhaHatCaMuaNhacVietNam">www.facebook.com/NhaHatCaMuaNhacVietNam</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공연</li> <li>- 자체 공연 프로그램</li> <li>- 베트남 국영 방송 프로그램 공연</li> </ul>		

베트남국립가무악단(Vietnamese National Music, Song and Dance Theatre)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국 소속으로 베트남 전통공연예술의 대표적인 단체다. 단체는 세 분류로 나뉘며, 무용단에 약 25명, 악기단에 30명, 가악단에 2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따로 혹은 함께 공연한다.

이 단체는 베트남의 '얼굴'이다. 해외 정상들의 베트남 방문, ASEAN 정상회의 개막식, 국가 기념 공연 등 국제 행사에서 공연하고, 베트남 국영 방송 프로그램 출연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들은 베트남의 전통, 민속 공연예술 형태의 보존과 전승을 통해 그들만 무대를 꾸민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예술로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보다는, 현재까지는 베트남 정부가 대외적으로 선전하고자 하는 모습의 화려한 베트남 무용, 노래, 극의 모습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 프로그램 개발을 주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 교류에도 참여하고 싶어 한다.

가무악단은 2010년 지어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어우꺼극장(Nhà hát Âu Cơ)에 상주하는데, 800석 중 규모면서 최신 공연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다양한 공연 행사가 열리는 하노이의 주요 극장이다. 이 극장 옆에 베트남가무악단의 연습실과 사무실이 있다.

※ 그 외 국립 문화예술 기관 및 극장으로, 베트남국립오페라발레(Vietnam National Opera & Ballet), 호찌민시 발레심포니오케스트라(Ho Chi Minh City Ballet Symphony Orchestra and Opera), 베트남국립파인아트뮤지엄(Vietnam National Fine Arts Museum), 호찌민파인아트뮤지엄(Ho Chi Minh City Museum of Fine Arts), 하노이오페라극장(Hanoi Opera House), 호찌민오페라극장(Saigon Opera House), 유스시어터(Youth Theatre of Vietnam), 탕롱수상인형극장(Thang Long Water Puppet Theater), 벤타극장(Ben Thanh Theatre) 등이 있다.



베트남국립가무악단 ©Vietnamese National Music, Song and Dance Theatre



베트남국립가무악단 연습실 ©손예운



어우꺼극장 ©손예운

#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ietnam /

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2007년
운영주체	베트남 중앙정부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하노이(Hanoi)		
홈페이지 /SNS	<a href="http://english.bvhttdl.gov.vn">http://english.bvhttdl.gov.vn</a>		
주요 프로그램	- 문화, 가족, 스포츠, 관광 분야 국가 행정 업무, 공공 서비스 관리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는 2007년, 문화국과 스포츠관광국이 합쳐지면서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베트남한국문화원과 멀지 않은 하노이의 구시가지이자 정치적 중심지인 하이 바 쯙(Hai Ba Trung) 지역에 있다.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는 크게 5개의 부서 갈래로 나뉘는데, 관광과, 검열과[1], 문화예술과, 스포츠과, 국제 및 경영관리과로, 세부적으로는 그 아래 30여 개 부서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의 많은 극장과 박물관 등 60여 곳 이상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주요하게 사진미술국, 공연예술국 등 여러 부처가 있으나 영문 홈페이지를 대부분 지원하지 않아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관계자를 거쳐야 다양한 정보를 얻기 쉽다.

[1] (편집자 주)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베트남에서는 모든 예술 활동들이 사전 검열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주관하는 상위 기관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이다.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ietnam

# 베트남여성박물관

## Vietnamese Women's Museum /

###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유형	국공립기관, 박물관	설립연도	1987년
운영주체	베트남여성연맹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하노이(Hanoi)		
홈페이지 /SNS	www.womenmuseum.org.vn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설전시(여성과 가족, 역사 속 여성, 여성과 패션)</li> <li>- 기획전시, 온라인 전시</li> <li>- 기타 행사(‘전국여성대표대회’ 개최 등)</li> </ul>		

베트남여성박물관(Vietnamese Women's Museum)은 베트남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에 의해 설립된 하노이의 중요한 문화 랜드마크다. 베트남여성연맹은 1930년부터 베트남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회정치적 정부 기관으로, 베트남 전국 지자체 및 도시에 1,300만 명이 넘는 여성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베트남여성연맹과 베트남여성박물관은 긴밀히 함께 일하며 베트남 여성의 이미지 제고와 향상을 위한 출판물 발간, 문화예술 행사 개최, 전시 기획 등에 앞장선다.

베트남여성박물관은 1987년 설립되었으며, 베트남 여성과 관련한 미술품과 자료를 수집해 대중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995년에 공식적으로 전시를 오픈했다. 이후 2010년에 보수 공사를 거쳐 현재는 40,000여 개의 소장품이 있는 상설전시가 있으며, 때때로 기획전시와 다양한 여성의 권익과 관련한 행사를 주최한다. 상설전시는 1층 ‘여성과 가족’, 2층 ‘역사 속 여성’ 그리고 3층 ‘여성과 패션’으로 나뉜다. 국가와 가정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있다. 특히 외세와의 전쟁이 잦았던 베트남 역사에서 장군급 혹은 리더로 활약한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전시는 독보적이다. 3층 패션 부분에서는 소수민족 여성들의 공예품을 소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일찍부터 베트남 체제에서 여성 계층의 사회적 활동을 소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 세계적 이슈인 성 평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인권과 관련해 국제기관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실제

로도 많은 일을 해외 기관과 협업하는 등 열려있는 기관이다. 또한 외국인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관광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에서 2013년 '아시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박물관 25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베트남여성박물관 ©손예운



베트남여성박물관 ©손예운

# 비카스아트스튜디오

## VICAS Art Studio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2017년
운영주체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	장르	문화예술일반, 시각예술
소재지	하노이(Hanoi)		
홈페이지 /SNS	<a href="http://vicas.org.vn">http://vicas.org.vn</a> <a href="http://www.facebook.com/vicasartstudio">www.facebook.com/vicasartstudio</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전시, 워크숍, 퍼포먼스, 세미나, 토크 프로그램</li> <li>- 국제교류, 국제관계 관련 프로젝트, 컨설팅</li> <li>- 공간 대여, 미술품 판매</li> </ul>		

비카스아트스튜디오(VICAS Art Studio)는 2017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베트남의 현대미술을 지원하고 개발하고자 베트남문화예술연구원(Vietnam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VICAS, 이하 비카스연구원) 옆에 설립되었다. 비카스연구원은 문화예술 전문, 예술경영과정 연구원 양성,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주최, 국제교류 및 레지던시, 베트남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수집, 베트남 문화예술 자료 출판 및 도서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아가 비카스아트스튜디오는 갤러리 형태로 오픈했으며, 베트남 현대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비카스연구원과 달리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재정적으로 독립한 상태며, 공간 대여나 미술품 판매 등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비카스아트스튜디오의 설립 배경은 베트남 문화예술 역사에 큰 의미를 갖는다. 처음으로 현대예술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행보는 '창의성'에 주목하면서 시작됐다. 2030년을 향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연구(2016~20)를 거쳐 '창의성'이 강조되었다. 여태껏 베트남은 새로운 형태의 현대예술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래서 프랑스문화원이나 독일문화원과 같은 외국 기관이 현대예술 분야를 주도하도록 두어 당국은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그렇다 보니 현재까지도 베트남 내 컨템퍼러리 예술은 해외 기관들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비카스아트스튜디오는 베트남 컨템퍼러리 예술가와 당국 사이의 긴장과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예술 형식을 마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카스아트스튜디오는 적극적으로 베트남 현대미술 지원에 앞장서게 되었다. 예술가들이 이 현장과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 컨설팅,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조직임에도 최대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출신이나 성별, 민족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전시하며, 모든 작품이 코너에 가격표를 달고 진열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비카스아트스튜디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파격 행보 덕분에 현대 미술에 대한 정부 부문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베트남의 현대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예술 커뮤니티와의 교량 역할을 하는 신흥 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카스아트스튜디오 ©손예운



비카스아트스튜디오 ©VICAS Art Studio



비카스아트스튜디오 로고 ©VICAS Art Studio

# 빈컴컨템퍼러리아트센터

## Vincom Center for Contemporary Art(VCCA)

유형	민간단체,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2017년
운영주체	빙그룹(Vingroup JSC)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하노이(Hanoi)		
홈페이지 /SNS	<a href="http://vccavietnam.com">http://vccavietnam.com</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전시</li> <li>-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li> <li>- 부대 행사</li> </ul>		

빈컴컨템퍼러리아트센터(Vincom Center for Contemporary Art, 이하 VCCA)는 베트남 내 규모 1위 회사인 빙그룹(Vingroup JSC)이 후원하는 비영리 예술센터다. 베트남 대기업 산하 최대 규모 예술 기관으로, 2017년 베트남 현대미술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어 큰 이목을 끌었다. 하노이의 최신식 복합쇼핑센터인 로열 시티 빈컴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해 총면적이 약 4,000㎡나 되는 대규모 놀이터이자 독특한 아트센터다.

VCCA는 연중 3~4회의 기획 전시와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한다. 그중 1회는 베트남 정부가 제안하는 전통 미술을 보존하는 박물관적인 전시를 하고, 그 외에는 주목받는 현대 예술 작품과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해 컨템퍼러리 아트센터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현대예술과 거리가 먼 일반 베트남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한다. 나아가 베트남 현대 미술을 국제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미래의 가장 유망한 현대 미술 센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한다고 밝혔다.

예술감독은 일본인 미즈키 엔도(Mizuki Endo)가 설립 때부터 맡고 있다. 미즈키 엔도는 일본과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예술감독, 큐레이터이자 아시아 주요 아트 공간 설립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필자와의 인터뷰 중 VCCA의 예술감독으로서 여러 책임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컨템퍼러리’라는 단어를 걸고 나온 단체는 없으며, 아직도 정확히 무엇이 ‘컨템퍼러리’인지 모르는 관계자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과거 일본 도쿄에서 첫 현대미술관 ‘모리’가 등장하던 때를 회고하면서는 베트남의 컨템퍼러

리 미술이 일본이나 한국이 겪었던 성장 과정을 똑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서양 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은 고유성을 잃게 하기 때문에, 세계적 컨템퍼러리가 베트남 그 자체라고 본다”라며 베트남 현대예술에 대해 자긍심을 표했다.

VCCA의 등장은 최근 베트남 예술 지형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바탕으로 한 신선한 전시도 호평을 받았고, 더불어 기관 내 시설, 지역 문화 시설, 예술가들의 역량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도 주목받을 만했다. 어린이 혹은 일반인 대상 현대무용 체험, 공예, 스토리텔링 등 컨템퍼러리 예술을 활용한 커뮤니티 사업이 진행되었다.



빈컴컨템퍼러리아트센터 예술감독 미즈키 엔도 ©Mizuki Endo



빈컴컨템퍼러리아트센터 내부 ©손예운



빈컴컨템퍼러리아트센터 내부 ©손예운

# 아라베스크 베트남 Arabesque Vietnam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10년
운영주체	아라베스크 베트남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호찌민(Ho Chi Minh)		
홈페이지 /SNS	<a href="http://www.facebook.com/arabesque.official">www.facebook.com/arabesque.official</a>		
주요 프로그램	- 현대 무용 창작, 공연 - 국제교류, 협업		

호찌민의 독립 현대 무용단인 아라베스크 베트남(Arabesque Vietnam)은 클래식 발레와 현대무용 테크닉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색채를 지닌 새로운 움직임 어휘를 통해 독특한 작품 활동을 해나가는 민간단체다. 도쿄의 후지 사토 발레단으로 활동했던 응우옌 탄 록(Nguyễn Tấn Lộc)을 필두로 2010년부터 자신만의 작품을 축제 및 무대에 올리면서 베트남 내외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민간 순수 예술 공연 단체다.

아라베스크는 서양무용과 베트남의 전통 민속 무용에서 영감을 받아 베트남 문화의 일상적 관계를 현대적인 움직임으로 풀어간다. 이를 통해 세계의 컨템퍼러리 무용 흐름과 베트남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무용단의 대표 록은, 이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 없이도 국제 축제나 콜라보레이션 작업에 초청받고 공연하며 자신만의 네트워크와 입지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국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라베스크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에 개방되면서 국제적 고립을 돌파함에 따라 문화적으로도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찾는 플랫폼을 알고, 찾아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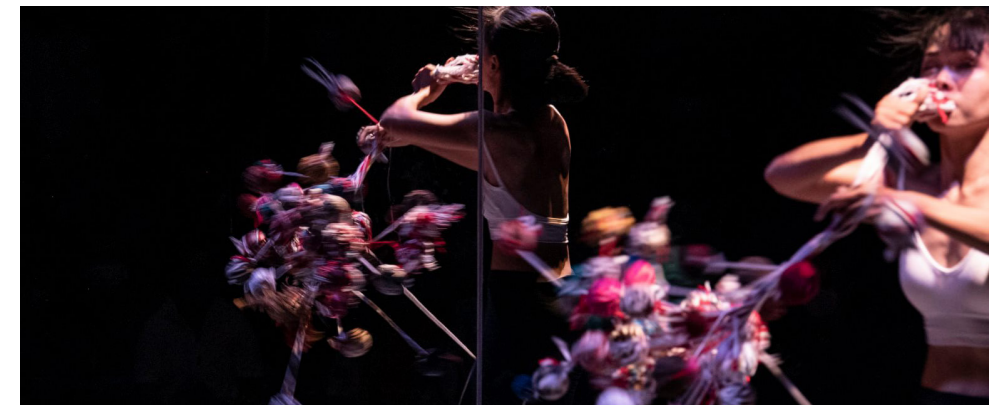
이들의 움직임은 클래식 발레를 기반으로 기본기를 갖추고 있지만, 베트남 54개 소수 민족의 전통춤을 세련되게 녹여낼 수 있는 작업에 주로 몰두하며 독자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한국의 대구시립무용단과 2014년 호찌민국제무용페스티벌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오다가, 호찌민오페라 하우스의 공식 초청으로 2018년 10월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올렸다. 아라베스크의 동양적인 발레 스타일로 한국 KBS 뉴스에 소개된 바 있다.

※ 그 외 공연예술 관련 단체로 사이공플레이어스(Saigon Players)가 있다.



아라베스크 베트남 ©Arabesque Vietnam



아라베스크 베트남 ©Arabesque Vietnam



아라베스크 베트남 ©Arabesque Vietnam

# 크로싱오버아트페스티벌

## Krossing Over Arts Festival(KOAF)

유형	민간단체, 축제	설립연도	2017년
운영주체	케르만(Cie Kerman)	장르	공연예술, 융·복합
소재지	호찌민(Ho Chi Minh), 하노이(Hanoi)		
홈페이지 /SNS	www.krossingover.com www.facebook.com/krossingoverartsfestival		
주요 프로그램	-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컨템퍼러리 공연, 축제		

2017년부터 매년 진행되어온 크로싱오버아트페스티벌(Krossing Over Arts Festival)은 호찌민과 하노이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품과 작품 간 상호 교감을 유도하는 다원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컨템퍼러리 공연예술 축제다. 매해 ‘주택, 도시 및 건축’, ‘환경’, ‘뿌리’ 등 다양한 주제 아래, 복합예술 장르의 작품들이 약 1~2주간 호찌민과 하노이에서 열린다. 프로그램마다 한 장르, 한 예술가의 무대만이 아니라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작품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으로 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면모를 끌어내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예술과 예술 간 시너지를 공개적으로 관객과 나누며 예술과 관객이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한다.

기존 공연예술 축제로는 하노이에서 독일문화원을 주축으로 열리는 유럽밋츠아시아(Europe Meets Asia)가 있었는데, 호찌민을 기반으로 시작한 크로싱오버아트페스티벌이 그 뒤를 잇는 것이다. 유럽밋츠아시아 축제는 2013년 시작해 총 5회 간 연이어 공연했으나 2018년에는 소규모 워크숍으로 진행됐고, 흐지부지되어 베트남 공연예술계 예술가들의 관심은 크로싱오버아트페스티벌에 더 많이 쏠려있다.

이 페스티벌의 중심인물인 세바스찬 리(Sebastien Ly)는 케르만(Cie Kerman)이라는 프랑스 무용단의 대표다. 그 역시 무용수 출신으로 베트남 혈통이지만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무용수 활동을 해서 베트남어 조차 잘하지 못하는 인물인데, 주베트남프랑스문화원의 적극적인 후원과 다양한 기업들의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인 컨템퍼러리 융·복합 페스티벌을 이끌었다.

※ 그 외 문화예술 축제로 유럽밋츠아시아(Europe meets Asia), 몬순뮤직페스티벌(Monsoon Music Festival), 하노이뉴뮤직페스티벌(Hanoi New Music Festival), 퀘스트페스티벌(Quest Festival) 등이 있다.



크로싱오버아트페스티벌 ©DAINGO Studio



크로싱오버아트페스티벌 ©KOAF



크로싱오버아트페스티벌 ©KOAF



크로싱오버아트페스티벌 ©KOAF

# 키너지스튜디오 Kinergie Studio

유형	민간기관, 교육기관	설립연도	2015년
운영주체	키너지스튜디오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하노이(Hanoi)		
홈페이지 /SNS	www.kinergiestudio.com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설 교육(어린이, 성인 발레 및 컨템퍼러리 무용 강습)</li> <li>-멤버 워크숍(컨템퍼러리 무용, 즉흥 움직임 세션)</li> <li>-대외 프로그램 개최, 공간 대여</li> </ul>		

키너지스튜디오(Kinergie Studio)는 하노이 사회에 해외 순수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기관으로 2015년 설립되었다. 공동 설립자인 조 호양 티 응옥(Do Hoang Thi Ngoc)은 베트남 국립 오페라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4년 간 활동하다 프랑스에서 6년 간 컨템퍼러리 무용으로 활동한 인물로, 스튜디오의 무용 강습을 도맡는 강사이기도 하다.

이곳은 하노이에서 유일한 순수무용 민간 교육기관으로서, 어린이 및 성인 발레, 컨템퍼러리 무용 강습 프로그램과 대관을 통해 기관이 운영된다. 하노이 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무용가 대부분은 키너지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15명 내외의 참여 아티스트 중 7~8명은 미술, 디자인, 음악 등 타 장르 아티스트다. 이들은 즉흥 움직임 세션, 컨템퍼러리 무용 워크숍을 매주 1~2회 진행하고, 전문 무용 테크닉 교육을 받은 전문 댄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형태의 작품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한다.

키너지스튜디오 역시 유일한 베트남 최초 현대무용 플랫폼으로 무용 교육, 국제 워크숍, 자체 공연, 대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춤을 통해 사회의 담론을 형성하고 해외 파트너 기관과 협업을 다수 추진해왔다. 특히 주베트남재외공관 주최 무용 교류 행사를 다수 기획했다. 일본 부토춤 워크숍(2015), 베트남-벨기에 수교 45주년 기념 벨기에 안무가 워크숍(2018), 스웨덴 무용영화 상영회(2018)를 비롯해 2016년에는 주베트남한국문화원과 함께 장소특정형 공연예술을 선보였다.

키너지스튜디오는 무용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전방위에 걸쳐 활동한다. 열린 분위기와 유연한 소통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해 앞으로 공연 관련 문화 프로젝트가 있을 시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조 호양 티 응옥은 대표이자 예술감독으로 역할을 하며 외국어는 프랑스어만 구사하고, 스튜디오 매니저인 히엔(Hien)이 영어로 대부분의 기획과 홍보를 맡고 있다.



키너지스튜디오 워크숍 ©손예운



키너지스튜디오 대표 응옥(Ngoc), 매니저 히엔(Hien) ©손예운

# 하노이그레이프바인 Hanoi Grapevine

유형	민간기관	설립연도	2007년
운영주체	하노이그레이프바인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하노이(Hanoi)		
홈페이지 /SNS	https://hanoigrapevine.com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예술계 소식 전달</li> <li>- 베트남 아티스트 및 단체 데이터베이스</li> <li>- 전시 및 공연의 사진, 영상, 평론 업로드</li> </ul>		

하노이그레이프바인(Hanoi Grapevine)은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다. 외국인으로서 베트남 문화예술 이슈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 매체가 가장 정확하고 다방면의 정보와 서비스를 베트남어와 영어로 제공한다.

독립적인 비영리 온라인 플랫폼으로, 베트남의 최신 문화예술행사 소식이나 예술 평론, 예술가 인터뷰, 베트남 작가의 해외 활동 소식, 레지던시 공모 등 정보를 공유하고 베트남에서 유용한 예술가나 예술공간, 해외문화원 등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2007년 처음 만들 때 1인 블로거였던 예술가 브라이언 링(Bryan Ring)이 베트남에서 활동할 때 정보를 ‘그레이프바인(Grapevine, 포도)’을 통해 들었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직접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워듣는 것이 유일한 정보 수집 방법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웹 사이트가 되었다.

하노이그레이프바인은 정보 유통이 원활하지 않던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등 허브가 되고자 하며, 베트남의 문화예술과 독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 그 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아래의 채널이 있다.

- Saigoneer <http://saigoneer.com> (호찌민 문화예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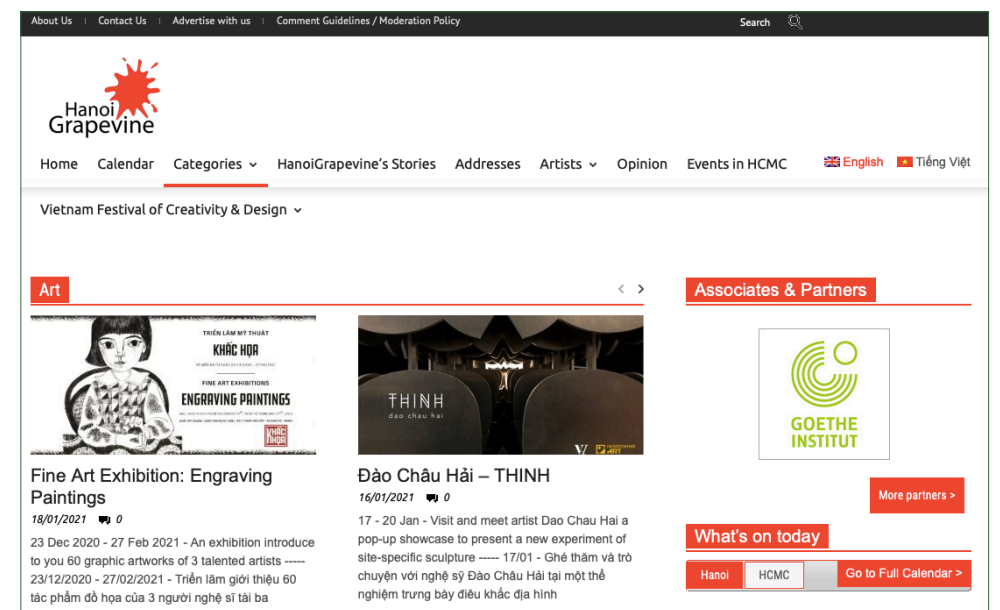
- Worldvietnam [www.worldvietnam.com](http://www.worldvietnam.com) (이벤트 캘린더 참고)

- Hanoise <http://hanoise.com> (하노이 현대 음악 관련 정보)

- Vietnam Artists Resource Group <https://www.facebook.com/groups/7930870471823> (정보 공유)



10주년을 맞이한 하노이그레이프바인 팀 ©Hanoi Grapevine



하노이그레이프바인 홈페이지 ©Hanoi Grapevine

# 헤리티지스페이스 Heritage Space

유형	민간기관,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2014년
운영주체	헤리티지스페이스	장르	융·복합
소재지	하노이(Hanoi)		
홈페이지 /SNS	<a href="http://heritagespace.com.vn">http://heritagespace.com.vn</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프로그램 기획</li> <li>- 워크숍, 세미나, 강의, 토론, 상영회</li> <li>- 예술자료실 운영, 국내외 예술가 및 단체와의 교류 사업</li> </ul>		

헤리티지스페이스(Heritage Space)는 하노이 미딩(My Dinh) 지역에 들어선 고층 건물 돌핀플라자에 있다. 2014년 큐레이터와 예술가들이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설립되었다.

이곳의 주요 프로그램은 시각, 건축, 음악, 공연, 영상, 문학이 뒤섞인 융·복합 기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워크숍, 세미나, 강의, 토크, 상영회 등을 시행하며 베트남의 모든 예술가 개인이나 일반 대중, 전문가, 기관들이 모이는 크리에이티브 허브가 되고자 한다. 현재까지 베트남 내, 국제적 파트너들과 일했으며, 베트남의 문화예술을 증진하고 인프라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넓은 전시 공간 외에도 아트숍, 도서관, 무대, 회원 전용 랩과 같은 시설이 있다. 특히 2층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 좋은 공간으로, 아티스트 토크와 같은 행사나 책 출판기념회 등과 같은 문학 행사도 종종 열린다.

※ 그 외 시각예술 관련 공간으로 갤러리꾸잉(Galerie Quynh), 쿡갤러리(Cuc Gallery), 하노이아트21(Hanoi Art 21), 도미노아트페어(Domino Art Fair), 카오스다운타운차오(Chaos downtown Cháo), 소마(Soma), 제로스테이션(Zero Station)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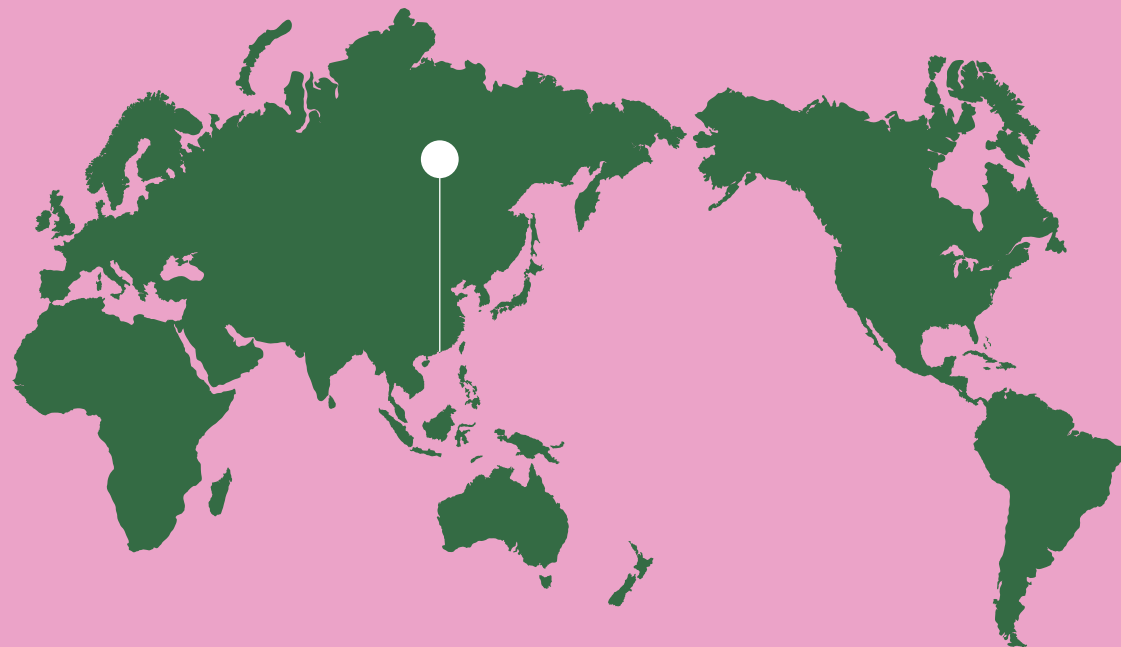
헤리티지스페이스 음악공연 ©Heritage Space



헤리티지스페이스 토크 ©Heritage Space

아시아 → 홍콩

Asia → Hong Kong, People's Republic of China



p.110 국가소개

p.112 그린허브

Green Hub

p.114 브로드웨이 시네마테크

& 큐브릭 비씨

Broadway Cinematheque

& Kubrick BC

p.116 서구룡문화지구

West Kowloon Culture

District

p.118 아시아아트아카이브

Asia Art Archive

p.120 아트 & 컬처아웃리치

Art & Culture Outreach

p.122 에이치퀸즈

H Queens

p.124 오일

Oi!

p.126 타이관센터

Tai Kwun Centre

p.128 파라사이트

Para-Site

p.130 프린지클럽

Fringe Club

p.132 피엠큐

PMQ

p.134 홍콩문화센터

Hong Kong Cultural

Centre

p.136 홍콩아트센터

Hong Kong Art Center

p.138 홍콩예술발전국

Hong Kong Arts

Development Council

# 홍콩

## Hong Kong, People's Republic of China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진 다문화 국제도시, 홍콩의 역사적 특성상 예술의 역사가 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0세기 초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이민자로서 중국에서 건너온 예술가들은 홍콩에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홍콩에 머물며 기존의 작업을 이어 나갔고, 150여 년간 이어진 영국의 통치 아래 국제화와 실용주의에 익숙해진 홍콩 사람들은 1997년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에 중국 본토에서 요구하는 문화적 가치와 충돌하는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 왔다.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과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급속한 변화, 치솟는 임대료라는 삶의 조건들 앞에서 홍콩 현지의 예술가들은 그들의 개인적, 국가적인 정체성을 고민해왔고, 자신들의 작업 환경이 확보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오기도 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의 영향 관계 아래, 홍콩 예술계에서는 국제교류의 허브로서 역할 하는 국제 예술시장과 아트페어 등의 상업예술, 정부산하 예술기관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전통예술과 순수예술, 대안 공간과 같은 비영리 공간 중심의 복합적 형태와 동시대 담론의 현대미술이 공존해왔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홍콩 내 문화 예술 기관 및 예술 공간들을 리서치한 결과, 각각의 공간들은 모두 저마다의 비전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전 연령, 전 계층을 아우르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들이 두드러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화, 지역 개발에 대항하는 현지 예술가들과 신생하는 대안공간들을 중심으로 사회 참여적인 미술, 커뮤니티 기반 예술 활동이 시작되었던 배경, 그리고 정부의 문화유산 보존 사업들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헤리티지 공간들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보여주는 방식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들을 적극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워크숍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는 전 연령이 모두 모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홍콩인들의 문화적인 태도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홍콩 현대미술계에서는 악명 높은 땅값과 건물세로 인해서 지난 몇십 년간 현지 비영리 기관들이 중심부에서 외지로 몰려나가는 추세를 보여 오기도 했다. ‘웡척항’과 같이 산업지구에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지역이나 국가적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설 곳을 잃어가는 문화 공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며 퍼포먼스 아트마켓 등의 참여적 예술 활동 등을 진행해왔다. 이처럼 로컬 현대미술 작가들을 위한 공간은 여전히 영속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한편 높은 임대료에 큰 영향 받지 않는 듯 홍콩 중심부의 예술시장은 늘 활기를 띠어왔다. 그러나 올해 전 세계에 불어 닥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각종 국제 행사나 예술품 경매, 상업 전시 등의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수입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때문에 재빠르게 철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난처함을 겪고 있다.

홍콩 사람들은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 현대예술계를 포함한 아시아 문화예술의 흐름 전반을 주시하며 연구하는 추세로, 향후 더욱 활발한 국제교류의 비전이 높은 지역으로 여겨진다. 다만 1997년 홍콩 반환, 2014년 우산 혁명, 최근의 정치, 사회적 이슈 등 동시대를 살고 있는 홍콩

인들에게 역사적 사건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문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예민한 주제이고, 홍콩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대조적인 경우도 있어 관련 이슈를 다룰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점차 잦아드는 정부의 검열에 대항하며 예술의 자율성에 대해 외치는 예술가들의 활동도 꾸준히 눈에 띄는 분위기이다.

# 그린허브

## Green Hub / 綠匯學苑

유형	민간단체,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2010년
운영주체	카도리에농식물원 (Kadoorie Farm and Botanic Garden, KFBG)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완타우콕, 다푸((Wan Tau Kok, Tai Po)		
홈페이지 /SNS	www.greenhub.hk/eng		
주요 프로그램	- 상설 전시, 환경 친화 콘텐츠 비정기 워크숍, 오픈 마켓 등		

작은 언덕의 완타우콕(Wan Tau Kok)에 위치한 그린허브(Green Hub)는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여 운영하는 헤리티지 공간이다. 1898년 대영제국이 홍콩과 인접한 새로운 행정구역, 신계(新界, New Territories)지역을 조차했을 때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Union Jack)을 처음으로 세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지역경찰본부(The Old Tai Po Police Station)가 같은 곳에 세워졌는데 신계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영구적 경찰서였다. 이곳은 1949년까지 경찰본부로 사용되었으며 이후에는 경찰력의 다른 부서들로 쓰였다. 1987년에 새로운 다푸 경찰서가 세워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으나, 2009년 12월에 역사적 건물로서 지정되어, 이후 2010년 9월 홍콩 정부 기관에 의해 역사적 명소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그린허브(Green Hub for Sustainable Living)라는 헤리티지 문화공간으로 복원되었다. 그린허브는 기존의 역사적, 건축적 요소들과 생태학적 가치들은 보존하되 인간의 환경친화적인 삶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 운영되어 왔는데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2016년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 상을 받았다.

교도소와 군사 훈련장으로 쓰였던 장소가 모두 보존되어 전시되어 있으며 교도소 내의 생활, 훈련 방법 및 통제 시스템 등 역사적 사실을 다양한 시각 자료로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농장이 있어 직접 재배한 채소와 과일, 열매들로 채식 요리와 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데 식당 또한 기존 경찰서의 식당 공간을 그대로 사용한다. 좋은 천연 재료와 맛으로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곳이었고, 식당 앞 작은 야

외 정원에 앉아 유기농으로 재배된 차를 즐기며 조용히 책을 읽는 방문객들도 많았다. 한편 자연 친화적 워크숍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주말이면 오픈 마켓을 열어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와 유기농 식품 및 아이디어 제품 등을 판매한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어 차(Tea)를 끓여 마시는 등의 자연 친화적인 워크숍을 상시 운영하고 있었고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공간 설명을 제공하고 있었다. 기후 변화와 부족한 자원 등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혹은 소정의 재료비만을 받으며 운영된다. 그린허브에서는 체험형 거주 프로그램(Residential Courses)도 운영하고 있다.



그린허브 외부 공간 ©남궁홍



그린허브 외부 공간 ©남궁홍



그린허브 외부 공간 ©남궁홍



그린허브 외부 공간 ©남궁홍

# 브로드웨이 시네마테크 & 큐브릭 비씨

## Broadway Cinematheque & Kubrick BC / 百老匯電影中心

유형	민간단체,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2001년
운영주체	브로드웨이 시네마테크 & 큐브릭 비씨	장르	영화, 시각예술, 복합예술
소재지	야우마테이(Yau Ma Tei)		
홈페이지 /SNS	<a href="https://bc.cinema.com.hk">https://bc.cinema.com.hk</a> <a href="http://www.kubrick.com.hk">www.kubrick.com.hk</a>		
주요 프로그램	- 영화 상영, 연계 프로그램, 퍼포먼스, 토론 - 영화 음악 및 예술 소품 상점, 북 카페		

야우마테이의 주거지역 부근에 위치한 브로드웨이 시네마테크 & 큐브릭 비씨(Broadway Cinematheque & Kubrick BC)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 영화와 오래된 레코드, 희귀한 영화 포스터, 카페와 독립 서적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비싼 땅값으로 유명한 홍콩에서는 그 특성상 복합 문화 공간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가들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의미가 크다. 브로드웨이 시네마테크에서는 홍콩의 다른 메이저급 영화관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립 영화들을 상영하기도 하고, 감독과의 대화 및 전시 등 연계 행사를 활발히 진행한다.

큐브릭 비씨(Kubrick BC)로 구분되는 북 카페는 엄선된 예술 관련 서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스타, 베이커리 등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 공간과 서점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홍콩의 유명 영화 제작자였던 큐브릭의 오너가 피오비(P.O.V.)라는 영화 전문 서점이 있던 자리에 영화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를 다루는 복합적이고 개성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한다.

건물 1층에는 카페와 영화관 매표소, 영화 음악과 예술 음악 디스크를 판매하는 상점, 그리고 디자인 물품을 판매하는 공간들이 명확한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절판된 레코드, 희귀한 영화 포스터와 OST 앨범, 독특한 예술 소품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공간으로 전 세계 예술가들과 영화 팬들에게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로컬 작가들의 전시와 워크숍 등도 운영하며 현지 예술계의 발전과 활성화에

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큐브릭에서 자체 제작하는 매거진이 오픈된 공간에 비치되어 있으며, 판매되는 예술 서적과 소품들, 그리고 진행 예정인 행사 등을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브로드웨이 시네마테크 & 큐브릭 비씨 레코드 상점 ©남궁홍



브로드웨이 시네마테크 & 큐브릭 비씨 포스터 상점 ©남궁홍



브로드웨이 시네마테크 & 큐브릭 비씨 문구류 상점 ©남궁홍



브로드웨이 시네마테크 & 큐브릭 비씨 서점 ©남궁홍

# 서구룡문화지구

## West Kowloon Culture District / 西九文化區

유형	국공립단체,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1998년 (2025년 완공)
운영주체	서구룡문화지구	장르	문화예술일반, 공연예술, 시각예술
소재지	침사추이, 서구룡(Tsim Sha Tsui, West Kowloon)		
홈페이지 /SNS	www.westkowloon.hk/en		
주요 프로그램	-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 행사 - 예술교육, 커뮤니티 아트, 워크숍, 연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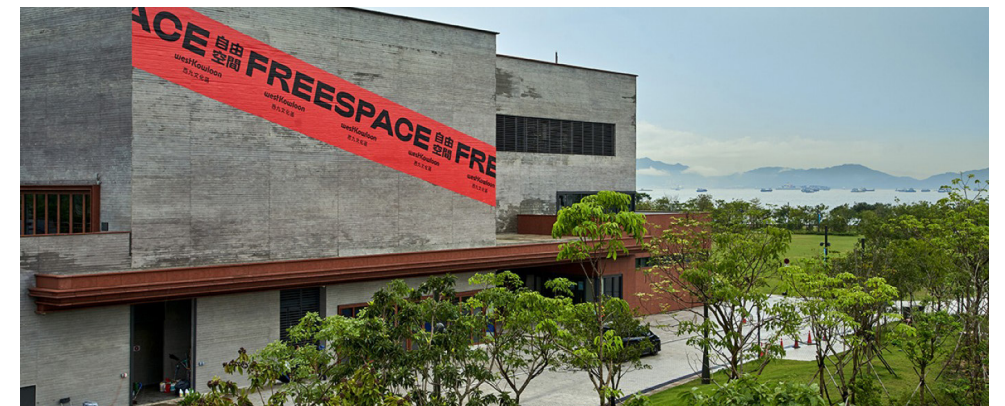
그중에서도 서구룡문화지구에 위치한 M+ 뮤지엄은 아시아 근현대 미술, 건축, 디자인, 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 규모로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는데 초기에는 홍콩 현지의 높은 임대료로 인해 작업할 공간을 잃어 가고 있는 예술가들 사이에서 예술 생태계 내의 불균형을 우려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2017년 박물관 개관 일정이 공표되었지만 여러 차례의 연기 발표 후 2021년으로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 대신 2016년부터 M+ 파빌리온을 건설하여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 소장품 구축 등의 미술관 주요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며 운영 중이다. M+ 파빌리온은 정식으로 미술관이 개관한 후에는 예술가 지원을 위한 작은 전시와 이벤트 운영의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홍콩 정부의 주도로 세워진 아시아 문화 예술 중심지, 서구룡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e District)의 조성사업은 1998년 소개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서구룡문화 지구는 1990년대에 공항 핵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립되었던 서구룡의 400,000㎡ 규모 토지에 약 700억 홍콩달러를 투자하여 건설하는 국제적인 예술문화 중심 허브로, 거대한 복합 문화 단지다. 광동 오페라인 월극과 중국 전통 공연을 선보이는 극장, 시취센터(Xiqu Centre), 공연 및 행사 중심의 복합 예술 공연장, 프리스페이스(Freespace), 홍콩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대 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다루고 수집하는 M+ 뮤지엄(M+) 등의 문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서구룡문화지구 관리국을 설립, 2013년 착공을 시작해 2020년 초에 1단계 시설이 완공되었다고 발표했다. 1단계 시설은 서구룡예술공원(West Kowloon Art Park), 시취센터, M+ 뮤지엄 및 M+ 파빌리온을 포함한다. 이후 2단계는 엠플러스 소규모 블랙박스 극장 설치, 3단계는 홍콩고궁박물관(Hong Kong Palace Museum), 대규모 뮤지컬 공연장(2000석 이상 규모), 종합시설(호텔, 사무실, 쇼핑몰) 등으로, 건설을 단계별로 진행해 2025년에 최종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투자 금액이 애초의 계획보다 훨씬 많아지고, 오랫동안 지속된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 보니 건설현장에서의 싱크홀 발생, 협력 기관과의 문제 발생 등 건설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홍콩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향후 운영에 있어 적자가 발생할 우려에 따른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서구룡문화지구 ©WKLCD



서구룡문화지구 프리스페이스 ©WKLCD

# 아시아아트아카이브

## AAA(Asia Art Archive) / 亞洲藝術文獻庫

유형	민간단체, 비영리기관	설립연도	2000년
운영주체	아시아아트아카이브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센트럴(Central)		
홈페이지 / SNS	<a href="https://aaa.org.hk/en">https://aaa.org.hk/en</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예술 기록, 보존 아카이브</li> <li>- 전시, 레지던시 프로그램</li> <li>- 국제교류, 인력양성, 워크숍, 학술교류, 포럼, 인턴십 프로그램</li> </ul>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의 현대예술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시아아트아카이브(Asia Art Archive, 이하 AAA)는 2000년에 홍콩 중심부에 세워진 비영리 기관이다. 도서관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에 국가별, 매체별, 담론 별로 분류된 방대한 양의 예술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공간 한쪽에 컴퓨터로 누구나 온라인 자료들을 검색하고 살펴볼 수 있다. 아카이브 되어 있는 자료들은 총 약 5만여 종이 된다고 한다. 홍콩 본사뿐 아니라 미국과 인도에도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sia Art Archive in America, Asia Art Archive in India)를 확장 운영해 왔다.

책, 도록 등의 실제 자료 뿐 아니라 디지털로 보관 중인 사진, 영상, 텍스트 등의 기록물들은 기관 설립 당시부터 각 나라에 통신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연구자들을 섭외하고 협업함으로써 차곡차곡 모아온 소중한 자료들이다. 여러 사람의 노력 덕분에 각국의 언어로 되어 있는 흔치 않은 자료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데, 필자가 AAA를 방문했을 때 도서 자료실 한국 세션에 한국어로 발간된 오래된 도록과 예술 서적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한국의 도서관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소책자, 전시 기록물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아카이브를 위해 오랜 시간동안 많은 노력을 쏟아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2000년대 초에는 홍콩에 전문적으로 현대미술을 다루는 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AAA는 현대미술을 홍콩에 소개하고 국제교류를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AAA는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토크,

워크숍, 전시, 레지던시 프로그램, 국제 심포지엄,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며 아카이브 기능 뿐 아니라 복합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다음 세대의 문화예술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체계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기관에 초청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홈페이지에는 교육자들을 위한 창의적 교육자료 및 다양한 교육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라이프 레슨(Life Lessons) 시리즈와 같은 토크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독특한 교육법을 소개하는 6번째 세션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라이프레슨 자료들은 모두 영상자료로 기록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아시아아트아카이브 ©AAA

# 아트 & 컬처아웃리치

## Art & Culture Outreach(ACO) / 艺鵠

유형	민간단체,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2003년
운영주체	아트&컬처아웃리치	장르	문학, 시각예술, 융·복합 예술
소재지	완차이(Wanchai)		
홈페이지 /SNS	www.aco.hk		
주요 프로그램	- 예술가 레지던시, 전시 공간, 갤러리, 스튜디오 운영 - 예술 서적 판매, 영화 스크리닝, 전시, 출판 기념회, 워크숍 프로그램		

아트&컬처아웃리치(Art & Culture Outreach, 이하 ACO)는 독립 출판물 등의 예술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이자 다양한 예술 관련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중국어로 ACO(艺鵠)는 'Birds of Art'라는 뜻을 지닌다. 예술가 레지던시, 갤러리, 스튜디오 등의 공간을 ACO가 비영리 예술인 지원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복잡하게 붐비는 완차이 대로변에 위치한 푸탁 빌딩(Foo Tak Building) 대부분의 층을 ACO가 쓰고 있는데 건물의 외관은 높고 오래된 홍콩 시내의 다른 빌딩들과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그 내부는 예술적인 콘텐츠로 꽉 차 있었다. ACO는 2003년부터 환경 파괴 없이 삶을 지속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독서와 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다.

독립출판 서점이자 ACO의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14층 공간에는 예술 관련 서적들을 판매하며 누구나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도서관 겸 서점이 있는데 소규모의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사진, 디자인, 건축, 회화, 기획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서적을 구비해 놓고 방문객들이 책을 구매하지 않아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구성해 놓았다. 방문객들은 간단한 음료와 차를 마실 수 있고 폭신한 소파 공간이 누구에게나 시간적 제약 없이 제공된다. 필자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진열된 책에 작은 메모들이 끼워져 있어 살펴보니 레지던시 작가들이 책을 읽고 써놓은 감상과 다른 추천

도서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곳곳에 독립 서적과 예술가들이 제작한 소품들도 함께 판매되고 있어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동네 책방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독립 서점 운영 외에도 영화 스크리닝, 전시와 출판 기념회,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건물 옆에 조성된 작은 정원에서는 음식 프로젝트도 진행된다고 한다. 6층에는 신진작가들의 전시를 지원하는 갤러리 공간이, 8층은 스튜디오로 운영되고 있다.

ACO는 다웨이 자선 재단의 후원을 받아 독립적으로 비영리 공간을 운영해오면서 신진작가들에게 전시 공간, 커뮤니티, 레지던시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홍콩 예술계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빌딩 내 다른 층 공간들은 적은 임대료로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데 20여 명의 예술가가 머물고 있다고 한다.



ACO 서점 내부 ©남궁홍



ACO 서점 내부 ©남궁홍

# 에이치퀸즈 H Queens

유형	민간단체,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2018년
운영주체	에이치퀸즈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소재지	센트럴(Central)		
홈페이지 /SNS	<a href="http://www.hqueens.com.hk/html/eng/index.shtml">www.hqueens.com.hk/html/eng/index.shtml</a>		
주요 프로그램	- 미술 작품 전시, 경매		

홍콩섬에서 가장 변화가라고 할 수 있는 센트럴 퀸스로드의 26층의 갤러리 특화 건물, 에이치퀸즈(H Queens)는 부동산 재벌 리 샤우키(Lee Shau-kee)가 소유한 건물로서 건축 당시부터 상업예술의 허브로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수상 회사인 CL3과 건축가 윌리엄 림(William Lim)이 디자인했고, 2015년 아시아태평양부동산어워즈(Asia Pacific Property Awards)에서 수상한 바 있다. 아트 바젤이나 경매 등과 같은 국제 행사를 방문하는 전 세계 화상 및 예술 관계자들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게 에이치퀸즈는 페더(Pedder) 빌딩과 더불어 한눈에 유명 작가들의 전시를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로서 알려져 있다. 저층인 1~3층과 제일 높은 층인 25~26층에는 고급 카페와 레스토랑이, 나머지 층은 전부 세계 유수의 갤러리들이 각 층을 임대하여 입점해 있다.

입점 갤러리: 데이빗즈위너(David Zwirner, 5~6층), 갤러리오라-오라(Galerie Ora-Ora, 17층), 하우스저&워스(Hauser & Wirth, 15~16층), 페이스갤러리(Pace Gallery, 12층), 펄램갤러리(Pearl Lam Galleries, 9층), 탕컨템퍼러리아트(Tang Contemporary Art, 10층), 화이트스톤갤러리(Whitestone Gallery, 7~8층), 서울 옥션(SA+ Seoul Auction, 1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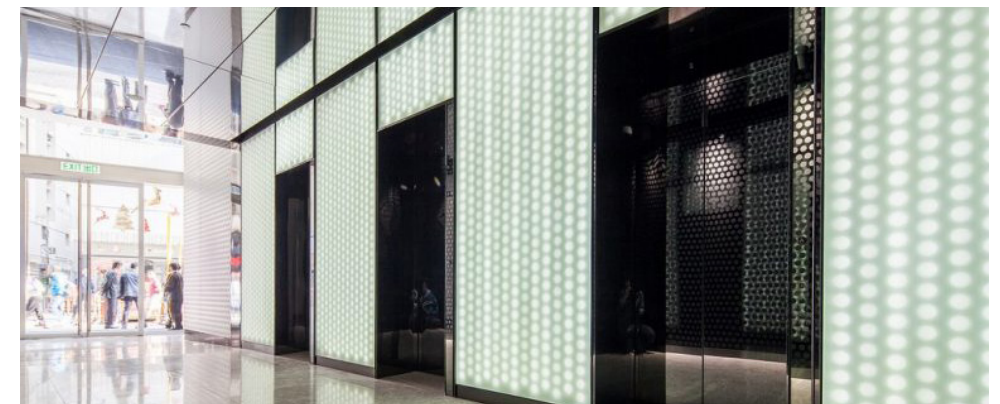
최근 코로나 19 상황에 의해 홍콩 소재 화랑들은 경매 행사 개최와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임대료가 높은 센트럴로부터 대거 이전하거나 철수할 계획을 세우는 움직임이다. 경매를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운영

하는 등 대안을 찾아온 서울옥션(홍콩) 역시 철수 예정이다.[1]

[1] '6월 홍콩 문화예술 등 동향',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정책동향, 2020.6.12



에이치퀸즈 건물 외관 ©H Queens



에이치퀸즈 로비 ©H Queens

# 오일 Oi!

유형	국공립기관,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2013년
운영주체	홍콩여가문화부 (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Department)	장르	시각예술, 문화유산
소재지	노스포인트(North Point)		
홈페이지 /SNS	<a href="http://www.lcsd.gov.hk/CE/Museum/APO/en_US/web/apo/about_oi.html">www.lcsd.gov.hk/CE/Museum/APO/en_US/web/apo/about_oi.html</a>		
주요 프로그램	- 전시, 워크숍 프로그램, 커뮤니티 아트		

노스포인트(North Point)의 오일 스트리트(Oil Street) 12번지에 위치한 오일(Oi!)은 예술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믿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Oi!은 누구에게나 열린 대화의 장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 일원들이 서로 만나 동시대 미술과 문화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전시와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젊은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커뮤니티 아트를 활용한다. 건물은 1908년에 로열홍콩요트클럽(Royal Hong Kong Yacht Club)의 클럽하우스 용도로 지어진 2급의 역사적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홍콩비주얼아트센터(Hong Kong Visual Arts Centre, vA!, 이하 VAC)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데, VAC가 지속적인 예술적 발전을 위한 공공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수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Oi!은 보다 수평적으로 창조성에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들과 대중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들로 예술에서의 경험을 중시하고 가능성을 모색한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Oi!의 비전은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북돋우며, 커뮤니티 안에서의 예술이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창조적인 생각을 지지하고,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힘을 주고, 서로 연결하며,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상호 반응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전시 및 주요 프로그램으로, 사라 리(Sarah Lee)와 유타카 야노(Yutaka Yano)에 의해 디자인된 공공예술작품, ‘움직이는 놀이터(Kinetic Playground)’가 있다. 야외 공간에 설치된 파빌리온인데 햇빛

과 바람의 세기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며 사람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다. 또한 ‘엑스체인지: 메이크 오버 메이크 굿(XCHANGE : Make Over Make Good)’은 매년 꾸준히 진행되어 온 참여 프로젝트인데 지역 주민들, 상인들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식당 또는 개인 참여자들에게 남은 재료들을 기증받아 함께 음식을 해 먹고, 모여서 운동을 하거나 거리를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는 등의 세부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이처럼 Oi!은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지속 가능한 삶, 자연과 더불어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오일 XCHANGE 워크숍 ©남궁홍



오일 XCHANGE 워크숍 ©남궁홍

# 타이관센터

## Tai Kwun Centre / 大館

유형	국공립기관,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2018년
운영주체	홍콩경마기수클럽(Hong Kong Jockey Club), 홍콩 정부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융·복합, 문화유산
소재지	센트럴(Central)		
홈페이지 /SNS	<a href="http://www.taikwun.hk/en">www.taikwun.hk/en</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공연, 퍼포먼스</li> <li>- 영화 상영회, 융·복합 예술프로그램</li> <li>- 공공예술 프로그램, 투어 및 워크숍</li> </ul>		

광둥어로 ‘대형 회관, 큰 역(大館)’이라는 뜻인 타이관(Tai Kwun)은 홍콩섬 센트럴 중앙에 위치한 복합 문화 단지로 2018년 5월 문을 열었다. 영국 통치 기간 중 중앙 경찰서(Central Police Station)였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복원 프로젝트로, 크게 중앙 경찰서(Central Police Station), 중앙 관공서(Central Magistracy), 빅토리아 감옥(Victoria Prison)의 세 개의 기념비적 장소와 현대미술 전시용 갤러리 제이씨컨템퍼러리(JC CONTEMPORARY), 퍼블릭 아트 스페이스와 강당 및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경마기수클럽(홍콩자키클럽, Hong Kong Jockey Club, 1884 설립)이라는 비영리 공공기관이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와의 파트너십으로 타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전시와 동시대 미술품 전시, 공연, 퍼포먼스, 참여형 워크숍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트상품 및 미술 관련 서적을 판매하는 상점과 전통 차와 덤섬을 함께 판매하는 레스토랑 등 복합 문화 공간 및 헤리티지 단지로서의 구색을 갖추어, 홍콩 지역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예술을 매개로 홍콩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중앙 전시실은 홍콩의 역사를 현대적 미감에 맞추어 시각화된 정보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대 일러스트 작가가 묘사한 옛날 홍콩 경찰서(Police Station) 내부 및 주변 모습과 홍콩주민들이 시대상을 회고하는 인터뷰 영상 기록물들, 홍콩 식민지 시대를 기록한 여러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별도로 분리된 제이씨컨템퍼러리 건물에서는 동시대 예술가들의 작업을 주로 다룬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동시대 예술이란 무엇인가?(What is Contemporary Art?)’라는 제목의 리플릿이 비치되어 있어서 동시대 미술이라는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작품의 캡션 읽는 법, 홍콩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업 방식들을 소개하며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그 외에도 프리즌야드(Prison Yard)라 불리는 야외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과 퍼포먼스 워크숍 등이 열리는데, 예를 들어 한약재 만들기 워크숍, 공공 미술 프로젝트, 공연장을 활용한 연극 퍼포먼스 관람 및 일요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관람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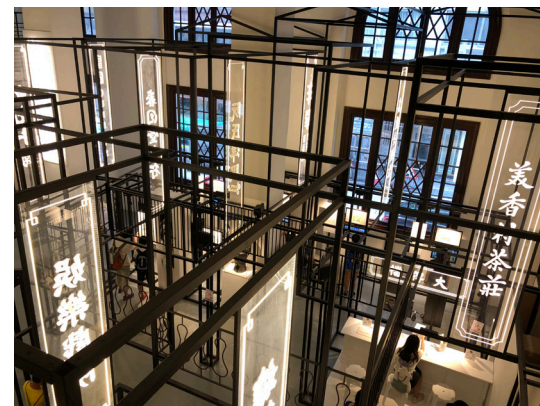
타이관센터 외부 ©남궁홍



타이관센터 외부 ©남궁홍



타이관센터 외부 ©남궁홍



타이관센터 전시장 전경 ©남궁홍



타이관센터 전시장 전경 ©남궁홍

# 파라사이트 Para-Site

유형	민간단체, 예술공간	설립연도	1996년
운영주체	파라사이트	장르	시각예술, 융·복합
소재지	쿼리베이(Quarry Bay)		
홈페이지 /SNS	www.para-site.art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미술 전시</li> <li>- 신진 작가 및 기획자 대상 워크숍</li> <li>- 매년 다양한 이슈를 나누는 국제 콘퍼런스 운영</li> </ul>		

또한 파라사이트는 또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또한 활발히 운영해오으로써 젊은 현대미술 작가 들 및 기획자들을 지원하고 국내외 예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왔다. 국내 참여 작가로는 2013년 김성환 작가가 있다.

[1] Patrick Lee, Leung Chi-wo, Phoebe Man Ching-ying, Sara Wong Chi-hang, Leung Mee-ping, Tsang Tak-ping, Lisa Cheung



파라사이트 워크숍 ©남궁홍



파라사이트 전시장 ©남궁홍

파라사이트(Para-Site)는 1996년, 홍콩의 대안 공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무렵, 예술가들[1]이 모여 만든 비영리 공간이다. 현대미술 전시와 출판물, 교육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 및 콘퍼런스, 작가 레지던시 등을 운영하며 홍콩 지역과 동시대 국제적 이슈들에 대해 비판적 사고로 접근한다. 또한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아시아 문화 예술 담론과 현대미술 담론을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고자 시도해왔다. 파라사이트는 홍콩에서 현대미술 전시를 처음으로 기획해 선보인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여러 다른 예술 공간 및 미술관, 교육 기관들과 협업하며 입지를 굳혀왔다. 최근 우리나라 일민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토크 프로그램에서도 파라사이트 기획자들이 패널로 참가하는 등 활발한 국제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파라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되어온 국제 콘퍼런스와 예술 전문인 대상의 워크숍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동시대 문화 예술 담론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자 시도한다. 2018년에는 타이완센터의 오디토리움 공간에서 ‘무엇을 보낼 것인가?(What to Let go?)’라는 제목으로 3일간 규모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11월 중, 3일 동안 진행된 이 콘퍼런스는 국제적으로 다시 새롭게 논란이 되어온 식민지 역사 문화유산의 반환 이슈를 둘러싼 질문들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과 여러 논쟁을 다루었고 이어서 2019년에는 언어와 정규 교육, 비정규 교육, 디자인 분야 등 문화 전반에 녹아 있는 권력 관계와 예술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전 세계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대부분의 자료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

# 프린지클럽

## Fringe Club / 藝穗會

유형	민간단체, 예술공간	설립연도	1984년
운영주체	프린지클럽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센트럴(Central)		
홈페이지 / SNS	www.hkfringeclub.com/en		
주요 프로그램	- 공연, 전시, 시 낭송, 댄스파티 - 커뮤니티 이벤트, 라이브 음악 공연, 페스티벌		

영국 식민시대 때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이 눈에 띄는 프린지클럽(Fringe Club)은 공연과 레스토랑, 클럽으로 유명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예전에 낙농장 창고였던 건물을 활용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2001년 홍콩 정부로부터 최고의 문화유산상(HKSAR Government's First-ever Hong Kong Heritage Award)을 수상하였고, 2009년에는 1등급 문화유산(Grade-1 heritage)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홍콩건축유산연구소(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ists, HKICON)에서 보존 상(Conservation Award)을 받으며, 역사적 건물을 예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보존, 발전시켜온 공을 재차 인정받았다.

열린 공간을 추구하는 프린지 클럽은 운영 초기부터 전문 예술인이든 신진 예술인이든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해 왔다. 이러한 가치관과 비전으로부터 식사와 음주를 즐기며 다양한 쇼와 공연을 관람하는 란콰이퐁(Lan Kwai Fong)의 밤 문화를 부흥시켜왔으며 젊은 층뿐 아니라 80년대 프린지 클럽 문화를 즐기던 중년층 관객들까지 폭넓은 세대를 예술로써 포용한다. 2018년 재즈 파티에 방문했을 때, 화려한 파티복으로 치장한 2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경계 없이 음악과 춤에 심취해 즐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프린지 클럽은 자선 행사를 포함한 공연, 연극과 시 낭송, 댄스파티 등 관객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다양한 페스티벌과 자체 제작 연극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커뮤니티들과 협업을 통해 이벤트, 라이브 음악 공연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최근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라이브 공연은 연말이 취소되었지만, 코미디 공연을 서서 관람하는 라이브 쇼(Hong Kong Stories December Live Show - For You)와 사진 전시(A Chance Encounter - Experimental Photography by Elizabeth Thorn), 주점에서의 무료 시 낭송 등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기획되어 소개되어 있다.

참고문헌: <여행, 디자이너처럼 Hong Kong, 60명의 예술가, 60개의 공간>, 빅셔너리(Victionary) 지음, 김선하 옮김



프린지클럽 ©Fringe Club

## 피엠큐 PMQ

유형	공공기관,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2010년
운영주체	홍콩디자인센터(Hong Kong Design Centre), 홍콩폴리텍대학교(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홍콩디자인연구소(Hong Kong Design Institute of the Vocational Training Council)	장르	시각예술, 문화유산
소재지	센트럴(Central)		
홈페이지/SNS	<a href="http://www.pmq.org.hk">www.pmq.org.hk</a>		
주요 프로그램	- 행사, 페스티벌, 전시, 설치, 워크숍, 토크 프로그램		

피엠큐(PMQ)는 약 100여 개의 상점, 레스토랑, 디자인 샵 및 공방, 문화예술 관련 기관 등이 입점 되어 있는 문화예술 종합단지이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빌딩, 할리우드(Hollywood)와 스톤튼(Staut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건물의 사이 공간은 대중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광장처럼 사용된다. 건물의 명칭은 인접한 길 이름을 따라 지어졌으나 간단히 A동과 B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1층 광장과 4층 옥상정원을 통해 두 건물이 서로 이어져 있으며, 주홍콩한국문화원도 피엠큐의 B블록인 할리우드의 6, 7층에 위치해 있다. B동 건물 뒤편 계단에는 한국문화원과 피엠큐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태호 작가의 계단 벽화 '나비의 꿈'이 공공예술작품으로 전시되어 있다. 주홍콩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주최, 진행하기도 하고, 자체 홈페이지 공간을 활용한 전시 홍보 등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홈페이지의 기본 정보가 한국어로도 제공되어 있다. 피엠큐는 역사적으로 학교(Central School)로 사용되다가 1951년 하위직 경찰관들을 위한 숙소(Police Married Quarters)로 재건축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후 2000년부터 비어 있던 경찰 숙소 건물이 2010년, 홍콩 정부의 문화유산 보존 계획사업에 의해 피엠큐로 재탄생되었는데 현재 역사적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피엠큐는 다양한 장르의 행사와 전시,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자체적으로, 그리고 입점 공간 및 기관들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쥬얼리 또는 펜던트 만들기, 채식주의 식단 함께 맛보기, 전통 차 문화 맛보기 등의 전통, 공예, 디자인 분야를 실습해보는 워크숍들과 홍콩의 다른 문화 예술 기관들과 콜라보레이션

으로 진행되는 페스티벌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건물과 건물 사이 광장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가 가능한 공공 미술 작품들을 정기적으로 설치해왔는데 높은 퀄리티로 유명하다.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모여 참여하는 시민 광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피엠큐 광장에서 종종 열리는 야시장은 전통 놀이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매우 붐빈다. 다양한 예술 관련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만큼 새로운 행사들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자주 업데이트되며 참여 방법은 프로그램별로 다양하다.



피엠큐 광장 설치물 ©남궁홍



피엠큐 광장 설치물 ©남궁홍

# 홍콩문화센터

## Hong Kong Cultural Centre / 香港文化中心

유형	국공립기관, 아트센터	설립연도	1989년
운영주체	홍콩여가문화부 (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Department)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침사추이(Tsim Sha Tsui)		
홈페이지 /SNS	<a href="http://www.lcsd.gov.hk/en/hkcc/index.html">www.lcsd.gov.hk/en/hkcc/index.html</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서트홀, 예술 극장, 스튜디오, 전시 공간 운영</li> <li>- 오페라, 연극, 전시, 워크숍, 예술교육, 문화행사</li> </ul>		

홍콩여가문화부(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Department) 산하 기관으로서 세계적인 공연을 위한 최첨단 시설과 대규모의 콘서트홀, 그랜드 극장, 스튜디오 극장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전시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관광 코스로 빠지지 않는 침사추이 시계탑 맞은편에 위치한 홍콩문화센터(Hong Kong Cultural Centre)는 독특한 건축 외관으로도 유명한데 창문이 뚫려 있지 않아 설계 당시 논란이 많았다고 한다. 건물 내 광동식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볼 수 있는 빅토리아 하버의 풍경으로도 유명하다. 홍콩 문화 센터 앞 계단과 전망대는 특정 시간 동안만 진행되는 레이저 쇼 '심포니 오브 라이트(A Symphony of Lights)'를 관람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어 공간을 찾는 여행객들도 많다.

1989년 영국 식민시기에 개관한 이곳은 주로 세계적인 수준의 오페라, 연극,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위해 개관 이후 쉬는 일정 없이 이용돼 왔으며, 그 규모나 역할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과 같은 기관이라 볼 수 있다.

활발히 운영되는 공연 전시 등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무료로 공개된 공연들도 간혹 있다. 이 밖에도 대중의 예술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료 문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데 휴게 공간 또는 야외광장의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프리 포이어 프로그램(Free Foyer Programmes)라고 이름 붙여 참여자를 모집한다. 그 일환으로 매월 진행되는 위크데이 해피 아워(Weekday Happy Hours)와 위켄드 아트 딜라이트

(Weekend Arts Delights)는 국내외의 다양한 퍼포먼스 예술을 선보이고, 다른 정규 예술교육 활동들로는 파이프 오르간 교육 시리즈와 파이프 오르간 교육 콘서트 등이 있다.



홍콩문화센터 건물 외관 ©HKCC



홍콩문화센터 공연장 ©HKCC

# 홍콩아트센터

## Hong Kong Art Center / 香港藝術中心

유형	민간단체,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1977년
운영주체	홍콩아트센터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소재지	완차이(Wanchai)		
홈페이지 /SNS	<a href="https://hkac.org.hk">https://hkac.org.hk</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교류, 전시, 공연, 퍼포먼스, 커미셔닝, 교육 사업</li> <li>- 극장, 전시 공간, 스튜디오, 세미나실, 레스토랑</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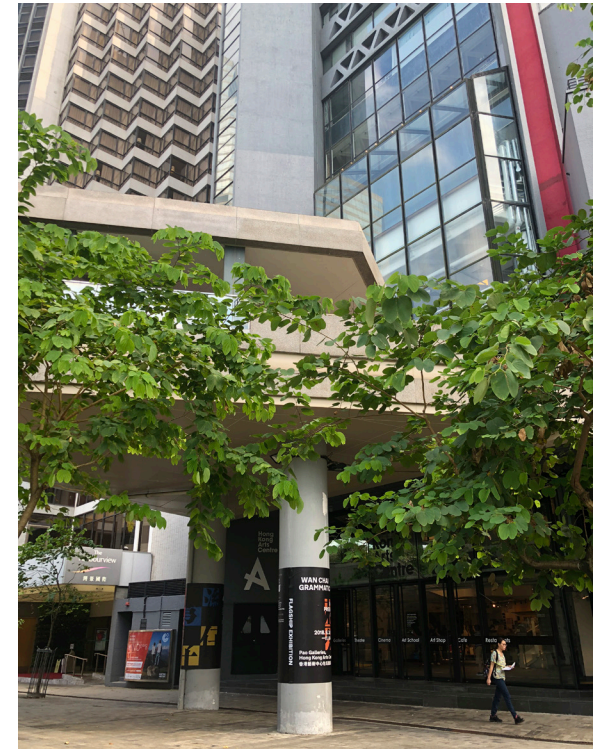
완차이 역에서 빅토리아 하버 방향으로 걷다 보면 홍콩의 유명한 건축가 타오 호(Tao Ho)가 디자인한 건물, 홍콩아트센터(Hong Kong Art Centre)가 있다. 홍콩아트센터는 국내외의 예술 교류를 촉진하고자 전시, 영화 스크리닝,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온 복합문화공간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이다.

건물은 층별로 영화, 연극 공연을 상영하는 극장과 전시 공간, 세미나 특화 공간 및 스튜디오,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 가장 아래층에는 카페, 아트숍이 있는 오픈 공간에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어 운이 좋으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즉석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홍콩아트센터는 1977년 설립 이래, 40여 년간 약 2,0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홍콩과 전 세계 다른 지역 간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며 현지 현대미술 커뮤니티 공간으로 예술계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00년에는 홍콩아트스쿨(Hong Kong Art School, HKAS)이 설립되어 순수 예술, 실용 예술, 미디어 아트, 실용 연극, 드라마 교육 분야를 교육하는 단기 코스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제공해왔다. 홍콩아트스쿨을 운영하며 졸업생들의 전시를 아트센터 공간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다양한 커미셔닝 프로젝트를 통해 로컬 예술현장을 활성화하며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국가와 협업하는 전시 프로그램이 눈에 띄는데 2018년에 홍콩 포함 중국,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필리핀 등 세계 각지 출신 작가 18명이 참여한 ‘완차이 그램마티카(Wan Chai Grammatica: Past, Present, Future Tense)’ 전시가 홍콩아트센터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는데 홍콩의 정체성을 탐구해보자는 의미에서 홍콩의 상징적 지역, 완차이에 대해 조사해보는 전시였다. 배경, 세대, 출신 국가가 모두 다르지만, 홍콩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과 표현 방법은 홍콩이라는 국제도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담아온 다채로운 시각을 흥미롭게 즐기게 해주었다.

최근에는 프랑스와 홍콩의 현대 작가들의 교류 행사로 ‘피버 홍콩 프랑스 만화창작 교류 프로그램(FEVER\_Hong Kong and France Comics Creation Exchange Programme)’이 열렸다. 2020년 가을 기획된 ‘홍콩아트센터 아트 팩토리(HKAC ART Factory)’에서는 퍼포먼스, 사운드 아트, 글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워크숍이 기획되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료로 진행되고 전시는 보통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홍콩아트센터 건물 외관 ©남궁홍



홍콩아트센터 전시장 ©남궁홍

# 홍콩예술발전국

## Hong Kong Arts Development Council / 香港藝術發展局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1995년
운영주체	홍콩 정부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쿼리베이(Quarry Bay)		
홈페이지 /SNS	www.hkadc.org.hk		
주요 프로그램	- 예술가와 예술기관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금 지원 모집 (퍼포먼스, 전시, 출판, 교육프로그램 등 분야 다양)		

- 국제교류(Cultural Exchange): 지난 시간 동안 현지 작가들뿐 아니라 해외 예술 기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홍콩 예술계의 지평을 넓혀왔는데 현지 예술의 수준으로 올리고 국제적 이해를 깊이 도모한다.

- 장소지원(Venue Support & Arts Space Development): 현지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지원해주고 일반 공중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처럼 홍콩예술발전국의 다채로운 진흥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예술 활동과 예술인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과 비슷한 점이 많다. 실제로 2014년에 두 기관은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한국과 홍콩과의 예술인력 교류 프로그램과 같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호 간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참고자료: '문화예술 교류로 더욱 가까워지는 한국과 홍콩' 웹진 아르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2014.9.15

홍콩예술발전국(Hong Kong Arts Development Council)은 1995년 홍콩 정부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세운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국가적 지원사업과 정책 계획, 프로그램 기획 및 예술 진흥 및 홍보를 담당한다. 홍콩예술발전국이 다루는 장르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그리고 영화예술까지 다양한 범주를 넘나들며 현지 예술 전문가들 및 다른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기금으로 진행되는 예술 프로젝트들을 선발, 실험, 감독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예술 지원(Arts Support): 예술의 발전과 다양한 예술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지 작가들과 예술 그룹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작가들을 위한 1, 2, 3년 단위의 지원금 보조사업, 프로젝트 기금 및 신진작가지원, 인턴십 지원,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등)

- 정책과 연구(Policy & Research): 커뮤니티 기반 연구와 현지 예술 현장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힘쓰고 있는 홍콩예술발전국은 매년 홍콩 예술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관람객 행동 조사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 예술 프로모션(Arts Promotion):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사람들이 예술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활동을 진행해왔는데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 큰 규모의 예술 프로젝트를 구성하거나 청소년들의 예술 감상 또는 예술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술프로모션 사업을 지원해왔다.



홍콩예술발전국 로고 ©HKADC



홍콩예술발전국 ©artinasia

유럽 → 네덜란드  
Europe → Netherlands

- p.142 국가소개  
Gaudeamus Music Week
- p.144 가우데아무스 뮤직위크  
Gaudeamus Music Week
- p.146 더 블랙 아카이브  
The Black Archives
- p.148 룡롱  
rongwrong
- p.150 리와이어  
Rewire

- p.152 몬드리안 펀드  
Mondriaan Fund
- p.154 박  
BAK (Basis voor Actuele Kunst)
- p.156 반 아베미술관  
Van Abbemuseum
- p.158 비디오파워  
Video Power
- p.160 소닉액츠  
Sonic Acts
- p.162 스타임  
STEIM
- p.164 아더 퓨처스 페스티벌  
Other Futures Festival
- p.166 아이 영화박물관  
EYE Filmmuseum
- p.168 알아이비  
RIB
- p.170 암스테르담 박물관  
Amsterdam Museum

- p.172 암스테르담예술펀드  
The Amsterdam Fund for the Arts
- p.174 원 에이커  
One Acre
- p.176 이프아이캔댄스  
If I Can't Dance, I Don't Want To Be Part of Your Revolution
- p.178 임팩트  
IMPAKT
- p.180 카스코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 p.182 테일오브튜브  
A Tale of a Tub
- p.184 파이버  
Fiber
- p.186 페이지 낫 파운드  
PAGE NOT FOUND
- p.188 프레이머 프레임드  
Framer Framed



## 네덜란드 Netherlands

### 다시 생각하는 황금시대

최근 네덜란드와 한국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더 가까워졌다. 지난 10월 14일, 네덜란드문화센터(Dutch Culture Centre)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가 MOU를 체결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과 네덜란드는 문화예술가들의 연구, 협업 그리고 교류사업 등 활발히 지원하기로 했는데, 특히 혁신적인 실험예술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예술가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토양이 단단한 곳이다. 지난 15년간 문화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극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많은 문화예술기관을 건립, 재건 또는 재정비했다. 이 중 상당수는 민관협력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었던 이들을 민영화해 민간재단이 운영하도록 했다.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비록 부분적으로 정부 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암스테르담은 최근 2017년부터 2020년 동안의 문화예술 지원자금이 전년보다 9%(90만 유로, 한화 약 120억 원)나 증가했고, 혁신, 실험 및 인재육성을 위해서 600만 유로(한화 80억 원)가 배정되었다. 2013년부터 교육과정에서 매주 최대 3시간의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다.

혁신, 실험은 네덜란드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요강에 자주 등장한다. 강조되고 있다는 것,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페스티벌인 가우데아무스 뮤직위크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5년 설립 당시 네덜란드의 보수적인 분위기로 인해 젊은 작곡가들의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소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주변국 독일의 다름슈타트 페스티벌이 백남준, 존 케이지, 슈톡하우젠 등 과감한 실험을 하는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네덜란드 특유의 실용주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게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실용 중심적 사고가 촉발한 공연 분야의 독특한 양상이 있는데, 바로 EDM(Electronic Dance Music)이다.

2013년 암스테르담은 24시간 개방을 실험하기 시작한다. 특히 나이트클럽, 카페, 갤러리, 콘서트 공연장이 그 대상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나이트 메이어(Night Mayor)’ 프로젝트의 연장인데, 이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도시의 밤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다. 이는 자연스럽게 관광수익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도시의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각종 다양한 음악, 공연 페스티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가 EDM의 최강국이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듯하다. 물론, EDM을 이끌었던 DJ 아르민 반 뷔렌(Armin van Buuren)의 존재와 그가 네덜란드 왕실로부터 궁중 음악장 서품을 받았고, 국왕 취임식에 EDM이 연주된 것도 한몫한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꽤 굵직한 공연 축제가 나이트클럽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공연 외에도 전시,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네덜란드 문화예술계에 위기가 없지는 않았다. 2010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한 유럽연합국 경제 위기의 시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이 대폭 삼각 되기 시작했다. 극장, 미술관,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등 거의 모든 문화예술기관은 40%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실험 음

악, 현대 음악 분야는 더욱더 심했다. 이후 스타임(STEIM), 드아펠(De Appel) 등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던 기관들은 도심에서 밀려 암스테르담 변두리로 이전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50여년간 실험 음악 연구소 역할을 했던 스타임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삭감된 예산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 발표된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스타임과 함께 삭감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현대미술센터 드아펠은 최근 몬드리안 펀드 수혜 기관으로 선정되어 4년간 매년 275,000유로(한화 3억 6천만 원)를 지원받게 되었다.

현재, 네덜란드는 흥미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제, 문화예술 면에서 풍요로웠던 17세기 즉, 황금시대(the Golden Age)라 불렸던 시대를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기로 했다.

“모든 세대와 각 개인은 역사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특정한 대화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황금시대’라는 용어가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큐레이터 톰 판 더르 몰렌(Tom van der Molen)/암스테르담 박물관 17세기 담당

황금시대라는 용어가 번영, 평화 등만을 반영하고, 당시의 현실인 가난, 전쟁,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LGBT의 권리와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의의 최전선에 선 국가다운 반가운 변화다.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비주류 예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더불어 한국과의 문화예술 교류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주는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www.worldcitiescultureforum.com](http://www.worldcitiescultureforum.com)

[www.holland.com](http://www.holland.com)

<http://dutchculturekorea.com>

# 가우데아무스 뮤직위크

## Gaudeamus Music Week

유형	민간단체, 축제	설립연도	1945년
운영주체	가우데아무스 뮤직위크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위트레흐트(Utrecht)		
홈페이지 / SNS	<a href="https://gaudeamus.nl">https://gaudeamus.nl</a>		
주요 프로그램	- 축제, 레지던시, 가우데아무스 상, 커미션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축제로 1945년 11월 독일 섬유사업가 발터 마스(Walter Maas)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독일을 탈출한 유대인으로 빌트호번의 가우데아무스 하우스에서 은둔생활을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곳에서 네덜란드의 문화예술 재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처음에는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후에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헨크 스타(Henk Stam)를 만나게 되면서 젊은 작곡가들의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지원하는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당시 보수적인 네덜란드의 음악가들은 실험적인 음악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오늘날 세계적인 실험 음악페스티벌로 발전하였다.

※ 가우데아무스 하우스: 1924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부근의 작은마을 빌트호번에 지어진 작곡가 율리우스 뢰트겐(Julius Roentgen)의 집으로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인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음악을 연주하곤 했다. 가우데아무스(Gaudeamus)는 라틴어로 '기뻐하자'라는 뜻이다

매년 9월에 진행되는 음악축제인 가우데아무스 뮤직위크(Gaudeamus Music Week)는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여 다양한 실험 작품을 발표하는 장으로 레지던시(Artists in Residence), 가우데아무스 상(Gaudeamus Award Winner), 커미션(Commissions) 등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후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다. 1959년 작곡가 윤이상의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이 초연되었으며 1985년에는 작곡가 진

은숙이 가우데아무스 상을 받았다. 윤이상과 진은숙은 가우데아무스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가우데아무스는 디렉터가 자주 바뀌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설립자 발터 마스(Walter Maas) 다음으로 크리스 발라벤(Chris Walraven)이 1961년부터 1990년까지 약 30년간, 현재 디렉터인 헨크 헤벨만(Henk Heuvelmans)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가우데아무스를 이끌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마틴 부저(Martijn Buser)가 헨크 헤벨만의 뒤를 이어 합류할 예정이다.



가우데아무스 ©Gaudeamus



가우데아무스 공연 ©Gaudeamus



가우데아무스 공연 ©Gaudeamus

# 더 블랙 아카이브

## The Black Archives

유형	민간단체, 비영리기관	설립연도	2015년
운영주체	뉴 어반 콜렉티브	장르	시각예술, 사회과학, 문학
소재지	암스테르담(Amsterdam)		
홈페이지 /SNS	www.theblackarchives.nl		
주요 프로그램	- 연구, 자료실, 아카이빙 - 아카이브 가이드 투어, 격주로 상시 진행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의 중심에는 아카이브가 있다.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된 아카이브는 여전히 정리 중에 있으며 연구자와 방문객들의 요청에 의해 열람이 가능하며, 2주에 한 번씩 아카이브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카이브를 활용한 전시나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식민의 역사와 네덜란드 사회 내의 인종주의를 가시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1년 이후 일기 시작한 반인종주의 운동의 물결은 국공립기관의 활동에 있어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더 블랙 아카이브와의 협업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http://voetnoot.org/research>  
<https://www.amsterdammuseum.nl>



더 블랙 아카이브 토요일 투어 프로그램 ©박가희



'Surinamese people in the Netherlands' 전시전경, 2020 ©The Black Archives



'Surinamese people in the Netherlands' 전시전경, 2020 ©The Black Archives



'Surinamese people in the Netherlands' 전시전경, 2020 ©The Black Archives



더 블랙 아카이브 ©박가희

더 블랙 아카이브(The Black Archives)는 비영리 단체인 뉴 어반 콜렉티브(New Urban Collective)가 운영하는 비영리공간이다. 뉴 어반 콜렉티브의 전신은 2015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흑인학생연합이 운영했던 뉴 어반 카페(New Urban Cafe)이며, 학생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제시카 드 아브루(Jessica de Abreu)와 미첼 이사야스(Mitchell Esajas), 그리고 탈식민주의와 노예 시장과 인종주의 및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쳤던 암스테르담 대학의 교수이자 사회학자인 왈도 헤일브론(Waldo Heilbron)의 서적을 기증하면서 뉴 어반 카페의 활동에 합류한 미겔 헤일브론(Miguel Heilbron)과 티에모 헤일브론(Thiemo Heilbron)이 더 블랙 아카이브의 토대를 마련했다. 당시 뉴 어반 카페의 활동은 크게 2,000여 권의 기증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과 이와 함께 수리남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문화, 역사, 문학 등을 배우고 논의하는 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자료들이 점차 늘어났고, 수리남 협회 공간으로 2016년에 이전하면서 더 블랙 아카이브가 지금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더 블랙 아카이브의 가장 큰 목적은 네덜란드 내의 수리남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은 물론 사회가 제공하는 합당한 기회를 유색인종들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있다. 네덜란드 사회에서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식민 시대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 유색인종과 관련된 정책을 발의하는 일, 젊은 학자들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인종 차별에 대항하는 일 등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수리남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문화와 역사, 인권 등을 위해 일하고 있다.

# 롱롱 rongwrong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11년
운영주체	롱롱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암스테르담(Amsterdam)		
홈페이지 /SNS	www.rongwrong.org		
주요 프로그램	- 기획 전시, 협업 프로그램		

암스테르담 차이나타운의 한 가정집에 위치한 롱롱(rongwrong)은 2011년 문을 열었다. 미술사가이자 독립 큐레이터였던 아니사 제코(Arnisa Zepo)와 안토니아 카라라(Antonia Carrara)가 함께 젊은 큐레이터에게 수여 하는 기금을 토대로 아니사가 살던 집의 1층 공간을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작가 빈센트 베어호프(Vincent Verhoef)와 폰즈웰터스갤러리(Galerie Fons Welters)의 디렉터 로리 클라우츠만(Laurie Cluitmans)이 합류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다.

전면 유리를 통해 흰히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이 공간은 전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활동보다는 예술, 사회과학, 문학, 문화 등이 교차하는 담론과 대화의 장소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기획되는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 대화를 통해 촉발되며 또 대화의 형식으로 연결되고 지속되기도 한다. 또한 작은 규모의 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기관-이프아이캔댄스(If I can't dance, I don't want to be part of your revolution), 스테델리크 미술관(Stedelijk Museum) 등-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결하기를 시도함으로써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무색하게 한다.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조안 조나스(Joan Jonas)와 같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작가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롱롱에서는 이들의 표현을 빌자면 ‘비밀에 부친’, 혹은 ‘루머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을 소개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둔다. 따라서, 기획/운영진이 기획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젊은 큐레

이터를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커뮤니티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롱롱 마스터 클래스 프로그램 중 ‘히토 슈타이얼’ ©rongwrong



롱롱 전경 ©rongwrong

# 리와이어 Rewire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11년
운영주체	리와이어	장르	음악/공연예술
소재지	헤이그(Hague)		
홈페이지/SNS	www.rewirefestival.nl		
주요 프로그램	- 현대 음악, 사운드아트 공연 - 음악가 발굴, 작품 소개, 페스티벌 개최, 강연, 워크숍		

리와이어(Rewire)는 헤이그 기반의 비영리 단체로 현대 음악과 사운드아트 공연을 주로 다루는데, 특히 현대음악 작곡가 지원을 비롯해 전자음악, 팝, 재즈 등의 실험적인 작품을 발굴하고 소개한다. 매해 진행되는 페스티벌에는 다양한 공연과 영상 상영회, 강연,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연중 공연이 진행되는데 콘서트 시리즈인 리와이어 x 코르조(Rewire x Korzo)와 토론 시리즈인 뮤지컬 머터리얼(Musical Material)이 대표적이다. 교회, 오래된 공장, 버려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지윤, 박지하 등 한국 예술가들이 참여한 바 있다.

리와이어 x 코르조(Rewire x Korzo)는 현대무용 페스티벌 카댄스(CaDance)의 거점이자 실험적인 현대무용극장인 코르조(Korzo)와의 협업으로 연중 공연을 개최한다. 현대, 고전, 전자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최근 헤이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스테파니 판(Stephanie Pan)의 목소리와 실험적인 음악 작업을 하는 앙상블 클랑(Klang)의 연주를 전자장치로 결합하는 라이브쇼 'Have Robot Dog, Will Travel'과 핀란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운드아티스트 쿠치나 포베라(Cucina Povera)의 'Found Soundscapes' 등의 프로젝트를 무대에 올렸다.

뮤지컬 머터리얼(Musical Material)은 인터뷰 형식의 토론 시리즈로 주로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작품 이해를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나비아트센터 레지던시에 참여한 네덜란드 미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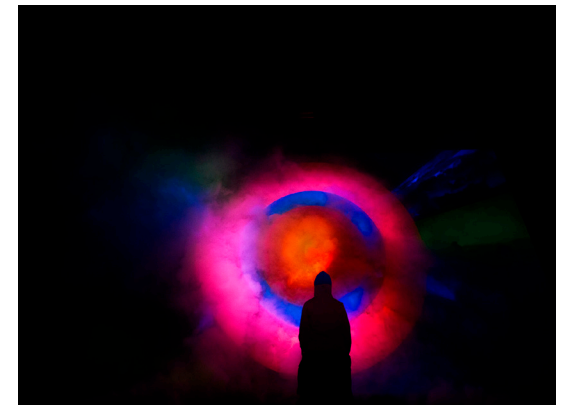
어 아티스트 마크 이저맨(Mark IJzerman)과 프랑스의 사운드 아티스트 세바스티앙 로베르(Sébastien Robert)의 첫 합작 프로젝트인 'As above, so below'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라이브 비주얼과 사운드를 이용해 칠레 중남부 지역의 변화하는 풍경을 탐험하는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과 위성사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이원화된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이다.

스테이트 오브 앰플리튜드(A state of amplitude)는 2020년 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동하는 물질의 미세한 힘을 다시 증폭시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전시다. 전시를 위해 제작된 악기에서 음을 발체하고, 이 발체한 음을 여과, 왜곡시켜 증폭시키는데 이 진동의 공간에 들어가면 관람자들은 관람자 자신과 공간의 소리, 환영과 현실,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동일성의 감각을 느끼게 된다. 본 전시는 1992년 헤이그에서 결성된 비영리 예술가 그룹 콰테르(Quartair)가 기획하였다. 콰테르는 헤이그에서 가장 오래된 아티스트런 그룹으로 1902년 세워진 헤이그 빵 공장을 개조해 전시 공간 및 작업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s://korzo.nl  
www.quartair.nl



리와이어 페스티벌 2020 ©Rewire



리와이어 페스티벌 2020 ©Rewire



리와이어 페스티벌 2020 Mark IJzerman & Sébastien Robert ©Rewire

## 몬드리안 펀드

### Mondriaan Fund / Mondriaan Fonds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1994년
운영주체	몬드리안 펀드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암스테르담(Amsterdam)		
홈페이지 /SNS	www.mondriaanfonds.nl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지원 프로그램, 정기공모 및 수시 공모</li> <li>- 코로나 긴급지원 프로그램</li> <li>- 예술 분야 시상(Prix de Rome, Award for Young Critic)</li> </ul>		

4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3천만 유로(한화 약 400억)를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지원한다. 24개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연간 약 2,500건의 신청 중에서 약 3분의 1이 수여 된다. 평가마다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다. 1년에 1회 정기공모가 있으며, 이 외에도 수시공모가 있는데, 심의 기간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참여 예술가의 국적은 무관하다.

코로나 긴급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취소, 연기 등 손해를 본 신진예술가들에게 최대 6개월간 작업제작비를 지원한다. A4 1장 분량의 신규 작품 제작을 설명하는 진술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중견 예술인(큐레이터, 평론가, 이론가 등)들에게도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들의 저술 작업, 연구 프로젝트, 공간 대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12개월간 한 달에 2,200유로(한화 약 300만 원)씩 지원한다. 난민 출신의 예술가들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있다. 작품 제작을 비롯하여 작업실 임대료, 작품 운반 그리고 생활비 등 총 19,000유로(한화 약 2,500만 원)가 지원되며 원하는 중견 예술인을 멘토로 삼아 작업 활동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몬드리안 펀드 웹 사이트에 35명의 멘토 리스트가 있고 맘에 드는 멘토를 선정할 수 있다.

로마 상(Prix de Rome)은 몬드리안 펀드와 암스테르담 스테델리크미술관(Stedelijk Museum Amsterdam)의 협업 프로젝트로 매년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커리어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한

다. 선정된 예술가들의 신작 중심의 전시가 매년 연말 스테델리크 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가들에게 기회는 열려있다. 전년도 연말 즈음에 공모를 통해서 작가를 모집한다.

젊은 비평가상(Award for Young Critic)은 35세 미만의 신진 비평가, 에세이스트를 위한 상이다. 선정되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멘토와 매칭되어 그들의 재능을 확장하고 직업 경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선정된 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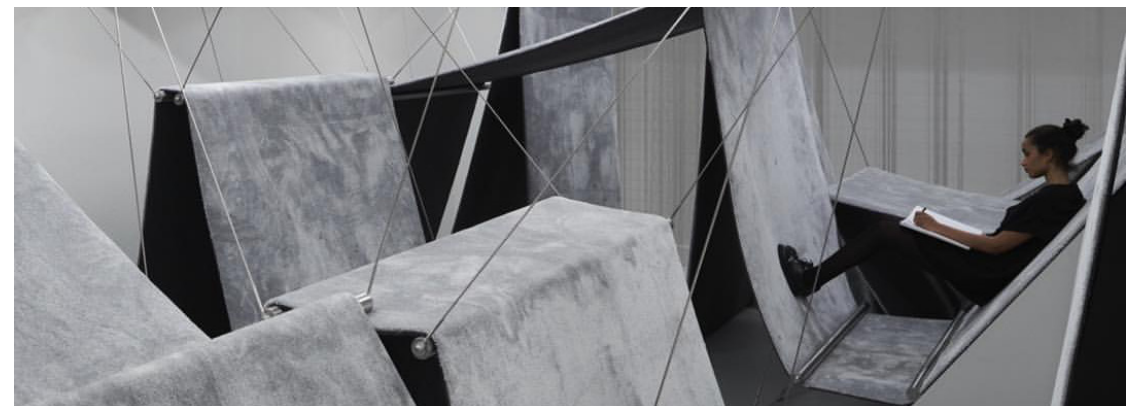
드 쿤스트쿵(De Kunstkoop)은 예술작품을 살 때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8세 이상 75세 미만이어야 하며, 최소 또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 네덜란드 125개의 갤러리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이자 대출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Kunst는 예술, Koop은 판매라는 뜻이다)



몬드리안펀드 세미나 ©Mondriaan Fund



몬드리안펀드 ©Mondriaan Fund



몬드리안펀드 전시 ©Mondriaan Fund

# 박

## BAK (Basis voor Actuele Kunst)

유형	민간단체, 예술공간	설립연도	2000년
운영주체	박(BAK)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위트레흐트(Utrecht)		
홈페이지 /SNS	www.bakonline.org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별 프로젝트 기획, 전시, 강연, 토론, 세미나, 워크숍, 퍼포먼스, 출판</li> <li>- 펠로우십 프로그램</li> </ul>		

박, 바시스 포르 악틸러 쿤스트(Basis voor Actuele Kunst, 이하 BAK)는 위트레흐트에 위치한 시각예술 공간이다. 2000년에 개관한 이 공간은 국제적인 미술 플랫폼 부재에 대한 지역 사회(위트레흐트 시 정부와 지역 예술가)의 요청에 의해 등장했다. BAK은 예술, 이론, 정치를 주축으로 현실의 복잡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과 적극적으로 공명하며 예술이라는 시각언어를 통해 현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분석/비판하고, 나아가 대안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논의하고 내어놓고자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유지 및 지속하기 위하여 BAK은 다양한 객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며, 따라서 개방과 환대, 유연성, 움직임, 겸손함, 지속성과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BAK은 당대의 사회 및 정치적 이슈를 예술과 연결하고 이에 상응하는 담론 생산에 주력한다. 이러한 활동은 대체로 긴 시간과 다양한 주체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며, 활동의 결과물은 단순히 전시에 제한하지 않는다. 한 주제의 프로젝트가 보통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8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영회, 담화, 강연, 토론, 세미나, 워크숍, 퍼포먼스, 전시 및 출판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와 발화가 생성되고 기록된다. 그 중에서도 냉전 이후 유럽의 역사와 예술의 현상을 다각도로 동시대 미술의 언어, 사유, 시선으로 모색했던 포머 웨스트(Former West, 2008-2016)는 BAK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BAK의 중요한 활동을 차지한다. 2017년부터 시작하여 매해 6~10명의 참

가자를 모집하고, 10개월 동안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BAK의 활동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 연구와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BAK의 기획 프로그램과 교차하며 실천을 통해 연구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펠로우들은 6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펠로우 집중 활동(Fellows Intensive)에 참여하며, 리딩 그룹, 스터디 그룹 및 외부 전문가와의 미팅 등의 활동을 한다. 실제로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같은 시기에 시작된 프로포지션 포 논-파시스트 리빙(Propositions for Non-Fascist Living)의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펠로우들의 활동으로 이뤄졌다.

[참고자료]  
<https://formerwest.org>



'How Much Fascism' 전시전경, 2012 ©Victor Nieuwenhuijs



'Tranings for the Not-Yet' 전시전경, 오디오리움 ©박가희



'Tranings for the Not-Yet' 전시전경 ©박가희

# 반 아베미술관 Van Abbemuseum

유형	국공립기관, 미술관	설립연도	1936년
운영주체	반 아베미술관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에인트호번(Eindhoven)		
홈페이지 /SNS	<a href="https://vanabbemuseum.nl">https://vanabbemuseum.nl</a>		
주요 프로그램	- 근현대 미술 작품 기획 전시, 소장품 전시, 연구 및 비평		

반 아베미술관(Van Abbemuseum)은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의 『래디컬 뮤지올로지(Radical Museology)』의 주요한 케이스 스터디로 언급된 바 있으며, 현대미술관의 역할과 그 실천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한 세계적인 기관 중 하나이다. 1936년 에인트호번의 지역 미술관으로서 네덜란드 현대 미술을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고자 문을 연 반 아베미술관은 근‘현대’ 미술관으로서 유럽 내에 설립된 최초의 공공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네, 피카소 등 근대미술의 대가들의 작품부터 요나스 스탈(Jonas Staal)과 같은 젊은 네덜란드 작가의 현대미술 작품까지 근현대를 망라하는 3,000여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의 반 아베미술관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근대를 해체하기(Demodernisation)’와 이로부터 파생된 ‘퀴어링(Queering)’ ‘포용하기(Inclusion)’가 있으며, 이와 같은 개념은 미술관 활동 전반에 걸쳐, 특히 미술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장품을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주요한 방법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플레이 반 아베(Play Van Abbe: The Museum in the 21st century), 2009-2011)’와 ‘근대 미술 만들기(The Making of Modern Art, 2017-2019)’가 있다. 전자는 미술관 소장품의 의미를 되짚는 전시로서 반 아베미술관 큐레이터뿐만 아니라 게스트 큐레이터, 연구자, 작가 등을 초대하여 소장품을 토대로 가능한 다양한 서사와 서술의 양식을 보여준다. 이로써 미

술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품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미술관의 유동성과 지식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의미 등을 다양한 형식의 실천을 통해 보여줬다고 평가받는다. 한편, 정전으로 여겨지는 서구 중심의 근대미술의 역사 서술을 해체하고자 하는 후자의 전시는 반 아베미술관의 소장품과 타 유럽국가의 소장품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서구 근대미술의 역사가 서술되어 왔는지를 굉장히 비평적이며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서술해 간다. 따라서 반 아베미술관의 활동은 기존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앞으로 미술관의 역할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하고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참고자료]

[https://artreview.com/features/summer\\_2016\\_feature\\_charles\\_esche\\_on\\_euro\\_crisis](https://artreview.com/features/summer_2016_feature_charles_esche_on_euro_crisis)  
<http://moussmagazine.it/making-modern-art-way-beyond-art-van-abbemuseum-eindhoven-2017>



Dan Peterman, 'Civilian Defense' as part of Play Van Abbe, 2007 ©Bram Saeys, Van Abbemuseum



Petra Bauer Annette Krauss, 'Read the masks Tradition is not given', 2008, ©Peter Cox, Van Abbemuseum



'The Making of Modern Art', 2017, ©Peter Cox, Van abbemuseum

# 비디오파워 Video Power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13년
운영주체	비디오파워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홈페이지 /SNS	www.videopower.eu		
주요 프로그램	- 비디오/영화 작품 제작 지원, 배포 - 테이블 세션, 피치 프로그램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 마스트리히트를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런 플랫폼이다. 주로 비디오/영화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배포한다. 마스트리히트시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2013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총 60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 지원했고 전 세계에 상영하였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작품을 보급한다. 홈페이지에서 1~2분 분량의 트레일러를 볼 수 있다.

테이블 세션(Table Session)은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 열리는 미팅 프로그램이다. 작업방식, 배포 등 작품 제작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의 프로젝트를 알리고 다른 사람들의 프로젝트도 들어볼 수 있으며 서로 아이디어 토론을 진행하기도 한다. 2020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어디서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피치(Pitch)는 오디오비주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경력, 이력, 나이 등 상관 없이 준비 중인 실험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을 소개하는 2분 영상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일년에 두 번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작품 제작, 배포 등을 지원한다.



비디오파워 아티스트 토크 ©Video Power



비디오파워 파티 ©Video Power



비디오파워 피치 ©Video Power

# 소닉액츠 Sonic Acts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1994년
운영주체	민간단체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암스테르담(Amsterdam)		
홈페이지 / SNS	<a href="https://sonicacts.com">https://sonicacts.com</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실험예술 플랫폼, 창작 활동 및 출판, 연구 지원</li> <li>- 생태, 정치, 기술 및 사회 환경의 변화와 예술 연구, 포럼 및 페스티벌 개최</li> </ul>		

무르만스크 프로스펙트(Murmansk Prospekt)는 프라이데이밀크(Fridaymilk)와의 합작 프로젝트로 러시아의 도시 무르만스크의 숨겨진 역사와 잃어버린 정체성을 탐구한다. 디지털 기반의 예술로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도시를 재정립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네덜란드와 러시아의 예술가, 사상가들 간의 지식교류를 자극하는 연구프로젝트로 구성되며, 그 결과물은 협력작품, 무르만스크와 암스테르담의 공개세미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어진다.

※ 무르만스크는 영웅 도시라는 뜻으로 해군기지가 있는 러시아 최북서단에 위치한 도시이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연합국 측의 보급 물자의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했지만, 1941년 독일군에 의해 도시가 파괴되었다.

[참고자료]  
<http://fridaymilk.com>

소닉액츠(Sonic Acts)는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실험예술 플랫폼이다. 1994년에 설립되었고, 2년마다 생태, 정치, 기술 및 사회 환경의 변화와 예술을 연구하는 포럼과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그리고 큐레이터, 예술가, 평론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창작 활동 및 출판,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리 이매진 유럽(Re-Imagine Europe)은 최근 유럽의 사회, 정치적 변화에 대한 예술적 가능성을 시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럽 10개 문화단체가 협업하여 4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난민, 기후 변화 등의 이슈가 유럽 국가들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반해, 기술은 상호작용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새로운 운영 방식을 모색한다. 크리에이티브 유럽(Creative Europe)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작품 제작, 워크숍, 심포지엄 등 디지털로 연결된 젊은 세대의 유럽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닉액츠를 중심으로 Paradiso(네덜란드), Elevel Festival(오스트리아), Lighthouse(영국), Ina GRM(프랑스), KONTEJNER(크로아티아), Bergen Kunsthall(노르웨이), A4(슬로바키아), Disruption Network Lab(덴마크), Ràdio Web MACBA(스페인) 등 총 10개의 예술단체가 참여한다.

※ 크리에이티브 유럽(Creative Europe)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14억 6천만 유로(한화 약 20,440억)의 예산을 집행한다.



소닉액츠 2020, Stedelijk Museum Amsterdam에서의 공연 ©Sonic Acts



소닉액츠 2020 festival, Ben Russell, 'The Gateway to the Invisible' 스크리닝 ©Sonic Acts



소닉액츠 2020 festival, Ben Russell의 워크숍 ©Sonic Acts

# 스타임 STEIM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1969년
운영주체	민간단체	장르	음악/공연예술
소재지	암스테르담(Amsterdam)		
홈페이지 /SNS	<a href="https://steim.org">https://steim.org</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사운드아트 실험, 연구, 교육, 기획 프로젝트</li> <li>- 톤(TONE), 모바일터치(Mobile Touch), 웨이스오브스페이스(Ways of Space) 등</li> </ul>		

1969년 암스테르담의 봉건적인 음악을 개혁하기 위해 루이스 안드리센(Louis Andriessen)을 비롯한 작곡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창립 당시 실험적이고 즉흥적인 전자 음악을 위해 최초로 공공 기금이 시작되었고 이에 실험적인 멀티미디어 오페라 ‘재건축(Reconstruction)’이 초연되었다. 그 후 작곡가, 연주가, 시각 예술가, 과학자들의 네트워크 실험실로서 예술적 성과와 가치에 방점을 두고 음악과 소리의 관계, 소리와 음악의 사회적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예술가, 과학자, 학생, 그리고 문화예술 및 과학 기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헤이그 왕립 음악원과 협력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 하고, 위트레흐트와 암스테르담의 음악원 같은 예술 학교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소닉액츠(Sonic Acts), 파이버(Fiber), 투데이스아트(TodaysArt)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여 예술가들의 실험을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사운드 아티스트 권병준이 이곳에서 악기 개발 엔지니어로 활동했다.

톤(TONE)은 사운드 아트를 외부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전시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작품이 들어 있는 곳에 머리를 넣고 감상할 수 있는 박스 형식의 공간인 마이크로톤(microTONE)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어떤 공간이든 전시가 가능하고, 운반이 용이한 이점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반대 지점에 매크로톤(macroTONE)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암스테르담의 항구와 같은 대형 건축물과 그 주변 환경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소리를 이용한다. 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지 않은 소리를 증폭 시켜 들려준다.

모바일터치(Mobile Touch)는 스타임에서 개발한 실험적인 전자 악기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전시회이다. 소리와 기술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지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만지고 재생시킬 수 있는 연주기구를 만들어 전시한다. 관람객들은 각 기구를 이용해 완전히 새로운 음악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학교, 박물관 등과의 협업으로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음향, 기술 워크숍도 진행한다.

웨이스오브스페이스(Ways of Space)는 스타임의 비전이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건축가 마치엘 스파안(Machiel Spaan)과 작곡가 로잘리 히르스(Rozalie Hirs)가 협업한다. 공간 경험 속에서 소리와 소리의 조형적 의미를 살펴보는 건축음향예술 연구 프로젝트로 2020년에는 몬드리안과 함께 데 스틸 운동(De Stijl)을 이끌었던 테오 반 데스부르크(Theo Van Does burg, 1883~1831)의 건축에 영감을 받은 작품을 발표했다.

[참고자료]

<https://rozalie.com/ways-of-space-2019-steim-amsterdam>



스타임 2019 Atau Tanaka와 DJ Sniff의 워크숍 ©STEIM



스타임 microTONE Project STEIM ©STEIM



스타임 Sound Performance ©STEIM

# 아더 퓨처스 페스티벌 Other Futures Festival

유형	민간단체, 축제	설립연도	2018년
운영주체	무플론재단(Aim of Mouflon Foundation, ANBI)	장르	융·복합
소재지	암스테르담(Amsterdam)		
홈페이지 /SNS	www.otherfutures.nl		
주요 프로그램	- 아더퓨처스페스티벌, 전시, 스크리닝, 음악, 퍼포먼스, 독서 등으로 프로그램 구성		

될 예정이었던 이 페스티벌은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두 번째 에디션에서는 SF를 공상과학뿐만 아니라 사변 소설(Speculative Fiction)의 관점에서도 살피며, 방법과 담론을 확장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참고 자료]  
브리짓 반 데 산데(아더퓨처스페스티벌 디렉터) 인터뷰

2018년부터 시작된 온-오프라인 플랫폼 아더 퓨처스 페스티벌(Other Futures Festival)은 1992년 파울 켐퍼(Paul Kempers)와 브리짓 반 데 산데(Briditte van der Sande)가 함께 새로운 관점과 예술의 가장 최전선을 실험해 보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설립한 무플론 재단(Mouflon Foundation)이 운영하는 페스티벌이다.

미술사가이자 독립큐레이터로 활동하는 브리짓은 2014년 문학의 한 장르인 SF(Science Fiction)가 가진 비평적인 가능성을 통해 미래를 상상하고 그려보는 다학제적 페스티벌을 제안했고, 2015년 이와 뜻을 함께하는 동료 페기 게머트(Peggy Gemerts)와 그래픽 디자이너 아우토반(Autobahn)이 합류하면서 아더 퓨처스 페스티벌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8년 개최된 첫 번째 에디션 ‘공상 과학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탐험하기(Exploring New Perspectives through Science Fiction)’라는 부제와 함께 비서구권, 특히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에 주목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와누리 카히우와 밍 원을 비롯한 31개국 출신의 72명/팀의 참여자가 함께한 가운데, 1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 열린 전시 ‘다른 미래를 창조하기(Creating Other Futures)’와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페스티벌,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행동을 위한 새로운 내러티브(New Narratives for Climate Action)’라는 스토리텔링 이벤트를 개최했다. 2020년에 계획되었던 두 번째 에디션은 아시아에 초점을 두고,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살피고자 했다. 전시를 비롯하여 스크리닝, 음악, 퍼포먼스, 독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



아더퓨처스페스티벌 2018 Mykki Blanco의 공연 ©Pieter Kers, Other Futures



아더퓨처스페스티벌 Wanuri Kahiu, Pumzi ©Other Futures



아더퓨처스페스티벌 Natasha Tontey 워크숍 'Pest to Power' ©Geerte Verduijn, Other Futures

# 아이 영화박물관 EYE Filmmuseum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2010년
운영주체	아이 영화박물관	장르	영화
소재지	암스테르담(Amsterdam)		
홈페이지 /SNS	www.eyefilm.nl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관련 전시, 아카이브 자료실, 도서관</li> <li>- 아이 아트 &amp; 필름 상</li> <li>- 연구, 레지던시, 교육 사업</li> <li>- 아이 인터네셔널, 네덜란드 영화의 배급 및 홍보</li> </ul>		

아이 영화박물관(EYE Filmmuseum, 이하 ‘아이’)은 1946년에 개관한 영화박물관(Filmmuseum)을 전신 삼아 자국 영화를 해외로 알리는 역할을 해온 홀란드영화(Holland Film), 실험영화의 배급에 주목해 온 필름뱅크(Filmbank), 네덜란드영화교육연구소(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Film Education)와 같은 네덜란드 내 영화 관련 기관들을 통합하여 2010년에 개관하였다. 네 기관을 통합한 아이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영화 도서관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만여 점이 넘는 필름, 6만 여 점의 영화 포스터는 물론 영화 회사와 영화 관련 단체들의 기록을 다수 소장한 곳으로서 국립 영화 아카이브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자료는 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전시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거나 가입된 회원의 요청에 따라 열람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감독, 프로그래머, 연구자 등 영화계의 다양한 종사자들이 연구를 위해 찾아오는 곳이다.

일 년에 약 2회의 기획 전시가 개최되는데, 영화의 정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장들의 개인전이 있는 한편 동시대 무빙 이미지의 이슈와 작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되어 아이의 활동이 ‘영화’라는 보수적인 범주의 특정 장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아이와 패디 & 존 레이 페르모르 아트 펀드(Paddy and Joan Leigh Fermor Arts Fund)와의 협력을 통해 시작된 아이 아트 & 필름 상(Eye Art & Film Prize)의 역대 수상자들 -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2015), 벤 리버스(Ben Rivers, 2016), 왕 빙(Wang Bing, 2017), 프란시스 알리스(Francis Alÿs, 2018), 메리엠 베나니

(Meriem Bennani, 2019), 칼릴 조셉(Kahlil Joseph, 2020) - 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아이에서는 2016년 아이의 컬렉션 70주년을 맞아 연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아이의 소장품을 초청된 연구자에게 공개하고, 이들의 연구를 다시 공공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 박물관이 지닌 방대한 양의 저작물들이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아이의 프로그램은 교육, 전시 등과 같은 기존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네덜란드 영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다양한 곳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돕는 아이 인터네셔널(EYE International)을 운영하면서 네덜란드 영화의 홍보와 배급을 담당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www.dutchculturekorea.com



아이 영화박물관 ©Iwan Baan, EYE



아이 영화박물관 Francis Alÿs ‘Children’s Games’ ©EYE



아이 영화박물관 Collection Center ©Paul van Riel Filmblikken, EYE

# 알아이비 RIB

유형	민간단체, 예술공간	설립연도	2015년
운영주체	알아이비	장르	융·복합
소재지	로테르담(Rotterdam)		
홈페이지 /SNS	www.ribrib.nl		
주요 프로그램	- 큐레이팅, 전시, 워크숍, 레지던시		

알아이비(이하 RIB)는 2015년에 예술가이자 큐레이터인 마자르 마프라사아비(Maziar Afrassiabi)가 로테르담의 옛 정육점에 개조해 만든 예술공간이다. 서로 다른 형태와 형식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기존 제도에 도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다. 실험적인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동시에 전시, 워크숍, 레지던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년 반 동안 진행되는 장기 프로그램(Long-term Program)에서는 2020~2021년에 10여 년간 바람의 현상을 연구한 예술가 하세브 아메드(Haseeb Ahmed, US/BE)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그는 바람을 예술적, 사회정치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이고 개념적인 힘으로 보고 바람으로 자신과 RIB, 로테르담의 환경을 결합하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출판, 워크숍, 강연, 전시를 통해 발표한다.

리베르담 썸머랩(Summer Lab at Riberdam)은 매년 강연,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2020년에는 예술가이자 문인인 후안 파블로 파체코(Juan Pablo Pacheco)와 협업으로 발효에 관해 연구한다. 발효 과정에서의 생물학적 변화와 박테리아의 미세조직을 사회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로 실험을 통해 음식, 이주, 식민주의 등을 발효와 상호 연관시키며 깊이 있게 연구한다.

장소와 상황(Site & Situation)은 RIB의 주변 공간의 미적, 물질적, 사회적 잠재력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이다. 건물의 옥상, 운동장, 놀이터 등이 탐구의 대상이 되는데, 주로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되었던 공간에 주목한다.

오라토리 서비스(Oratory Services)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사운드 서비스 프로젝트로 로테르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리너스 본듀엘(Linus Bonduelle)이 큐레이팅한다. RIB 주변의 놀이터와 같은 야외공간을 무대로 실험적인 사운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티사 네아 헤렉(Tisa Neža Herlec), 애쉬 킬마틴(Ash Kilmartin), 버거 토마스 앤더슨(Bergur Thomas Anderson), 엠멜리퍼인(Emmeli Person) 등의 작가들이 참여했고 홈페이지에서 퍼포먼스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https://haseebahmed.com>  
[www.juanpablopacheco.com](http://www.juanpablopacheco.com)



알아이비 전시 ©RIB



알아이비 출판 ©RIB



알아이비 워크숍 ©RIB

# 암스테르담 박물관 Amsterdam Museum

유형	국공립기관, 박물관	설립연도	1926년
운영주체	암스테르담박물관	장르	역사, 시각예술
소재지	암스테르담(Amsterdam)		
홈페이지 /SNS	www.amsterdammuseum.nl		
주요 프로그램	- 암스테르담 역사 소장품 전시, 기획 프로그램		

1926년에 문을 연 암스테르담 박물관(Amsterdam Museum)은 15세기 암스테르담의 성문 중 하나였던 바그(Waag) 지역에서 고아원으로 사용되었던 현재의 장소로 1975년에 이전해 왔다. 중세부터 현재까지 도시 암스테르담의 역사를 망라하는 소장품과 다양한 프로그램은 2011년 암스테르담 박물관하고 개칭하기 이전 암스테르담 역사 박물관(Amsterdam Historisch Museum)으로 불렸던 박물관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도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고고학적인 유물은 물론, 당대의 풍경화 및 초상화를 비롯하여, 흥등가의 유명한 펍 카페 만제(Cafe Mandje)의 재현물까지 다양하다.

암스테르담 박물관은 기술을 이용한 전시 방법론을 통해 약 한 시간 안에 암스테르담의 역사를 개괄하는 상설전 암스테르담 DNA를 비롯하여, 네덜란드의 수도이자, 오랜 기간 무역의 중심에 있었던 암스테르담의 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인다. 한편, 2019년 암스테르담 박물관은 박물관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글에서 ‘황금기(Golden Age)’를 걷어내고 ‘17세기’로 수정하는 결정을 단행했다. 이는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에서 이를 들여다보는 관점의 변화를 지시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에까지 그 변화를 촉구하는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구체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암스테르담 박물관과 네덜란드 국립 박물관(Rijksmuseum)의 소장품으로 구성된 반상설전 ‘황금기의 초상 갤러리(Portrait Gallery of the Golden Age)’에서 시작되었다. 황금기로 지칭된 17세기는 네덜란드가 무역을 통해 많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호를 누리던 시기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시 역시도 17세기를 호

가했던 당대의 부호들의 초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구성은 한편으로는 부를 이루기 위해 악행으로 이어지던 노예무역이나 강제 노동과 같은 역사적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지워내는 서술로 귀결되었다. 이에 박물관 내외부에서 이의가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박물관은 용어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전시에 반응하는 전시로서 당대를 살았던 혹은 방문했던 13명의 유색인들의 서사를 삽입하는 방식의 전시 ‘더치 마스터스 리비지티드(Dutch Masters Revisited)’가 기획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용어의 교체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네덜란드 사회 자체에 만연해 있던 인종차별과 이에 대응하는 박물관/미술관 차원의 다양성 및 포용성 정책과도 맞닿아 이루어진 당연한 결과였다.

[참고 자료]

Tom van der Molen, 'Whose Golden Age? On A Term That's Not Fit For Purpose.', 2019  
Imara Limon (암스테르담 박물관 큐레이터) 인터뷰  
[https://www.amsterdammuseum.nl/sites/default/files/whose\\_golden\\_age\\_def.pdf](https://www.amsterdammuseum.nl/sites/default/files/whose_golden_age_def.pdf)



암스테르담 박물관 'Dutch masters revisited' 전시 전경 ©박가희



암스테르담 박물관 전경 ©Amsterdam Museum



암스테르담 박물관 'Portrait gallery of 17th century' 전시 전경 사진 ©박가희

## 암스테르담예술펀드

### The Amsterdam Fund for the Arts(AFK) / Amsterdams Fonds voor de Kunst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1972년
운영주체	암스테르담예술펀드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암스테르담(Amsterdam)		
홈페이지 /SNS	www.amsterdamsfondsvoordekunst.nl		
주요 프로그램	- 예술지원, 컨설팅, 인재 양성		

암스테르담에 기반한 단체를 지원한다. 실험적인 전문 예술공간에서 아마추어 예술공간까지 도시를 문화 예술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단체를 지원한다. 암스테르담의 문화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도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원사업은 크게 다년간 보조금을 위한 프로그램과 일회성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우수한 국제적 인재를 위한 암스테르담 예술상 등 문화예술 분야 내 인재육성과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년 지원(Multi-year Grants) 사업은 극장, 오케스트라, 댄스 컴퍼니, 미디어 랩, 축제, 디지털 플랫폼, 시각예술공간 등 4년 단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암스테르담의 문화, 예술기관 중 206개의 기관이 신청을 했고 그중 115개의 기관이 선정되었다. 4년 동안 총 19,680,000유로(한화 약 260억 원)가 지원되는데 선정된 단체와 각 지원되는 예산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리스트에는 최근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진 리마미디어센터(LIMA),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W139 등이 있다.

드롭-인 컨설팅(The Drop-in Consultation)은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가/예술단체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계획

서를 접수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원 결정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아마추어예술가, 단체, 기관은 물론 전문 예술가, 단체, 기관에도 열려 있다.

3 패키지 딜(3 Package Deal)은 저렴한 생활 및 작업 공간, 예산, 네트워크를 통해 훌륭한 인재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BBP(Buredplaatsen)와의 협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문화예술 전문 기관들이 연합해 1년 동안 최고의 인재를 선정하여 그들의 노력과 성과가 암스테르담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발표하는 기회를 준다.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육성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암스테르담예술펀드 세미나 ©Amsterdams Fonds



암스테르담예술펀드 워크숍 ©Amsterdams Fonds



암스테르담예술펀드 컨설팅 ©Amsterdams Fonds

# 원 에이커 One Acre

[참고자료]

www.yunlee.digital

http://sophiedyer.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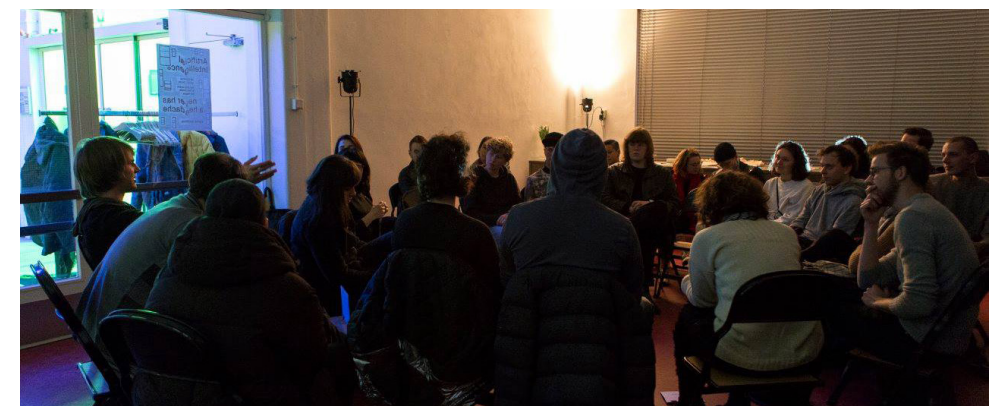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17년
운영주체	원에이커	장르	융·복합
소재지	헤이그(Hague)		
홈페이지 /SNS	www.oneacre.online		
주요 프로그램	- 출판, 커미셔닝, 텍스트 기반의 작업 소개		



원 에이커 아티스트 토크 ©One Acre



원 에이커 북클럽 ©One Acre



원 에이커 세미나 ©One Acre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진 작가들의 인쇄 불가능한 텍스트 기반 작업을 소개하는 실험적인 출판 및 배포 플랫폼이다. 출판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커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 안에서 경험되는 권력 구조에 대해 연구하는 여성 예술가들의 출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헤이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스테프 콜스(Stef Kors), 티투스 크넥텔(Titus Knegtel), 빅토리아 두카-두코폴루(Victoria Douka-Doukopoulou)가 설립했다.

카탈로그 오브젝트(Catalogued Objects)는 창립 후 그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담은 출판 프로젝트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시작, 발표된 프로젝트들로 이윤(Yun Lee)의 다학제 연구논문 ‘제거의 미학과 정치(Poetics and Politics of Erasure)’와 시에 대한 카리나 자피도바(Karina Zavidova) 생각을 담은 장편 텍스트인 ‘인공지능은 결코 두통이 없다(Artificial Intelligence Never Has a Headache)’ 등의 작업이 소개되었다.

라디오, 테크노, 포실(RADIO, TECHNO, FOSSIL)은 헤이그를 기반으로 전자음악 작업을 하는 뒤스테르 바르도(Duistere Bardo)가 진행하는 격주 라디오 쇼 프로그램이다. 주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주변의 소리를 들려주는데, 시끄러운 소음, 밤에만 들리는 소리 등 지구 표면, 대기, 테크노 지오그래피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운드 이미지를 다루며 공연,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다.

# 이프아이캔댄스

## If I Can't Dance, I Don't Want To Be Part of Your Revolution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05년
운영주체	아이캔댄스	장르	융·복합
소재지	암스테르담(Amsterdam)		
홈페이지 /SNS	<a href="https://ificantdance.org">https://ificantdance.org</a>		
주요 프로그램	- 작품 제작, 출판, 연구, 토론, 퍼포먼스		

2005년에 설립되었다. 현대 미술에서 퍼포먼스의 전개와 그 양상을 탐구하는 예술 단체다. 장기적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예술가, 큐레이터, 연구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제작, 지원한다. 국내외 파트너 기관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작품 제작을 위해 예술가와 연구자들과 장기적으로 협업하며 그들의 창작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2년마다 열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강연, 상영회, 연구, 토론,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으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인다. 한국 작가 김성환, 양혜규, 장세진(Sara van der Heide's) 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출판사업은 커미션(commissions), 리서치 프로젝트(Research Project), 그리고 리더스(Readers) 등 크게 3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아티스트 북, 모노그래프, 작품 카탈로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하고 간행물 시리즈 퍼포먼스 인 레지던스 프로젝트(Performance in Residence Project)는 퍼포먼스 작업에 대한 연구로 작품 제작에 수반되는 담론을 기록한다. 이 시리즈는 예술에서의 읽고 쓰는 것을 다루는 저널 에프알 데이비드(F.R. David)의 편집자 빌 홀더(Will Holder)에 의해 설계된다. 출판물 일부는 홈페이지에서 PDF로 열람할 수 있다.

리딩그룹(Reading Group)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의식되는 사회적, 정치적 경험을 예술적으로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독서 모임으로 주로 작가, 연구자들의 주도하에 진행된다. 작품 활동, 연구를 위한 협업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리추얼 & 디스플레이(Ritual and Display)는 2019~2020년도 리서치 펠로우 길리아 다미아니(Giulia Damiani)의 기획, 사라 지아니니(Sara Giannini), 아나사 체크(Arnisa Zeqo, Rongwrong)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철학가이자 문인, 예술가인 리나 망기아카프레(Lina Mangiacapre)가 1970년대에 나폴리를 거점으로 창립한 페미니스트 그룹 르 네미시아체(Le Nemesiache)를 다루는데,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 예술과 정치의 경계에서 어떻게 여성 해방 운동을 실행했는지 그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전시다.



이프아이캔댄스 출판 ©IFICANDANCE



이프아이캔댄스 아티스트 토크 ©IFICANDANCE



이프아이캔댄스 아티스트 토크 ©IFICANDANCE



이프아이캔댄스 스크리닝 ©IFICANDANCE

# 임팩트 IMPAKT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1988년
운영주체	민간	장르	시각예술, 융·복합
소재지	위트레흐트(Utrecht)		
홈페이지 /SNS	<a href="https://impakt.nl">https://impakt.nl</a>		
주요 프로그램	- 전시, 아카이브, 연구, 레지던시, 워크숍, 강연, 토론, 상영		

미디어아트를 다루는 예술기관으로 1988년 위트레흐트에서 시작되었다. 다학제적인 맥락에서 동시대 미디어 아트에 대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사회, 미디어, 기술, 예술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한다. 매년 열리는 행사인 임팩트페스티벌(IMFAKT Festival)에서는 전시, 영화 상영, 강연, 패널, 공연, 발표, 예술가 토크 등의 프로그램이 5일간 진행된다. 그 외에도 레지던시, 워크숍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중으로 열린다. 2020년 페스티벌은 제로 풋프린트(Zero Footprint)라는 타이틀 아래 현재의 사회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실험을 선보였다. 한국 작가 김아영의 퍼포먼스 ‘페트라 제네트릭스를 찾아서(In Search of Petra Genetrix)’가 소개되었다.

임팩트 채널(IMPAKT Channel)은 비디오 아카이브 채널이다.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아카이브는 큐레이터들에 의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 비디오 작품 등 다양한 작업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상영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도 볼 수 있다.

임팩트 워크스(IMPAKT Works)는 연구소이자 레지던시로, 전 세계 예술가들을 초대해 그들의 작업을 지원한다. 주로 오디오비주얼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에게 열려있으며, 1년에 평균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초대된 예술가들은 작업 이외에도 지역의 예술학교 학생들과 워크숍을 하기도 한다.

웹 프로젝트(Web Project)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찾고자 기획되었다. 사회적 행동과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강연, 토론, 상영, 전시회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혁명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플랫폼의 기능을 가진다. 2020년에는 러셀 마티너스(Rudsel Martinus)의 비디오 작품 ‘카나발(Kanaval)’이 온라인으로 첫 상영 되었다.

[참고자료]  
<http://ayoungkim.com>



임팩트 페스티벌 2020 컨퍼런스 ©IMPAKT



임팩트 페스티벌 2020 전시 ©IMPAKT



임팩트 페스티벌 2020 ©IMPAKT

# 카스코

##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유형	민간단체, 예술공간	설립연도	1990년
운영주체	카스코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위트레흐트(Utrecht)		
홈페이지 /SNS	www.casco.art		
주요 프로그램	- 전시 프로그램, 스터디 라인, 집회		

시로 마무리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카스코의 활동이 단지 공동의 문제를 반영하는 시각적인 실천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커먼즈를 위한 지식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카스코의 활동은 비단 프로그램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운영하고 조직하는데 방식에도 적용된다. 매주 수요일에 모여 함께 청소를 하거나, 매일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등의 의식적인 결정으로서 커먼즈를 방해하는 자본주의와 생산성에 대해 저항하며, 노동을 재생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커먼즈를 실천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는 아트 콜라보라토리(Art Collaboratory)에 합류하여 25개 이상의 예술 공간들과 초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연구와 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하며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사회를 위해 일을 도모하고 있다.

[참고자료]

www.artscollaboratory.org

www.common.art

카스코(Casco Art Institute)는 1990년 작가들에 의해 위트레흐트에 설립된 비영리공간으로서 동시대 예술의 실험적, 비판적 담론 생성을 지향한다. 2018년에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라는 이름 아래 커먼즈(common), 공동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조직들과 협력하며 공동을 실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카스코의 활동은 크게 일 년에 2회씩 개최되는 전시 프로그램과 예술과 커먼즈를 중심으로 설계된 8개의 스터디 라인(Study Lines)이 교차하면서 연 4회에 걸쳐 진행되는 공동의 학교(School in Common)와 일 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집회(Assembly)가 있다. 수일에 걸쳐 진행되는 집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천가들이 모여 기관의 조건과 예술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예술 기관의 공동화를 실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실천을 구체화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방향성을 담은 과정과 결과로서의 전시가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기관이 설정한 질문과 논의의 주제를 따라 다년간에 걸친 워크숍, 이벤트, 출판, 전시, 집회, 스터디 모임 등과 같은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입체화된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만 3년에 걸쳐 진행된 프로젝트 컴포징 더 커먼즈(Composing the Commons) 역시도 커먼즈를 질문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작가, 철학자, 이론가, 실천가 등이 이끄는 다양한 방식의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거쳐 전



'School in Common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Solution' 중, Jing Y Ng, 광저우, 2018 ©Casco



카스코 'Silence is Commons' 전시 전경 Babi Badalov의 'Landscape Langscape' ©Casco



카스코 'We are the Time Machines' 전시전경, 2015, ©Casco

# 테일오브튜브 A Tale of a Tub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14년
운영주체	민간(재단)	장르	복합예술
소재지	로테르담(Rotterdam)		
홈페이지 /SNS	<a href="http://a-tub.org">http://a-tub.org</a>		
주요 프로그램	- 공연, 교육, 전시, 출판		

로테르담의 오래된 목욕탕 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비영리 문화예술 기관이다. 예술이 오늘날의 사회, 정치, 생태학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방점을 두고 기후, 탈 식민지화, 페미니즘 그리고 신자유주의 등의 주제를 다룬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큐레이터,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공간,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고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작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복잡한 사회적 이슈와 논쟁을 깊이 있게 다룬다. 장기간의 연구와 다학제 간의 담론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노동조건에 대해 고찰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나타냐 반 딕(Nathanja van Dijk)과 수잔 왈링아(Suzanne Wallinga)가 2014년도에 설립했다.

2019년도에 시작된 기획 공모(Open Call)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큐레이터 등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네덜란드에서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 매년 1월 중에 마감되고 선정되면 그해 7월에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예산은 15,000~20,000유로(한화 1,900~2,600만 원)가 지원된다. 참여 작가는 로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 번째 공모에서는 2012년도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코스에 참여한 바 있는 독립기획자 티아고 드 아브로 핀토(Tiago de Abreu Pinto, 브라질)가 선정되었다.

[참고자료]  
<http://artoffice.info>



테일오브튜브 심포지움 ©A Tale of a Tub



테일오브튜브 전시 ©A Tale of a Tub



테일오브튜브 ©A Tale of a Tub

# 파이버 Fiber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2011년
운영주체	파이버	장르	융·복합
소재지	암스테르담(Amsterdam)		
홈페이지 / SNS	<a href="https://2020.fiberfestival.nl">https://2020.fiberfestival.nl</a>		
주요 프로그램	- 전시, 공연, 축제, 콘퍼런스, 프로젝트 개발 및 유통, 큐레이션		

암스테르담에 기반을 둔 단체로 오디오비주얼, 디지털, 그리고 전자 음악 등의 다양한 융복합 실험 예술을 소개하고 제작을 지원한다. 2011년 암스테르담의 클럽 트루(Trouw)에서 창립되었다. 클럽 트루는 오래된 인쇄공장을 클럽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전시, 상영하기도 한다. 2020년에는 불안정(Instability)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구환경과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한다.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와 연계하여 새로운 통찰력, 비인간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며 예술이 이러한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시대에 대안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한 예술적 감수성을 추구한다.

2020년 축제전시/공연(Festival Exhibition & Performance)의 주제인 불안정(Instability)은 전시의 주제로 이어진다. 덴마크 작가 시셀 마리 톤(Sissel Marie Tonn)의 지진기록보관소는 지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고, 네덜란드 작가 틱스 에베 폭켄스(Tics Ebbe Fokkens)의 에브리 퓨처(Every Future (Is A Crime Scene))는 기술적 진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재고한다. 그리고 미국 작가 타이곤 라이스(Tigon Rice)는 예술적 시가 환경변화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네덜란드 미디어 아티스트 마크 이저맨(Mark IJzerman)과 프랑스 사운드 아티스트 세바스티앙 로베르(Sébastien Robert)는 칠레 중남부라 아우카이나 지역의 변화하는 풍경을 탐구한다.

하이브리드 콘퍼런스(Hybrid Conference)는 페스티벌 연계 행사인 이틀간의 강의 프로그램이다. 예술 창작, 연구, 공연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 예술, 사회, 그리고 지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는 대화, 토론으로 구성된다. 2020년에는 비커밍 언스테이블(Becoming Unstable)을 포함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영상 전체를 볼 수 있다.

파이버 프로덕션(Fiber Productions)은 비즈니스 파트너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 연구, 워크숍, 매치 메이킹, 위탁, 유통, 큐레이션 등 작품 제작에서 연구 유통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작품은 배포 준비가 되어 있어 외부 전시와 공연을 통해 소개되기도 한다. 주로 예술, 디자인, 음악, 기술 분야에서 재능 있는 신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누구든 기회는 열려있으며 이메일로 지원을 받는다.

[참고자료]

<https://markijzerm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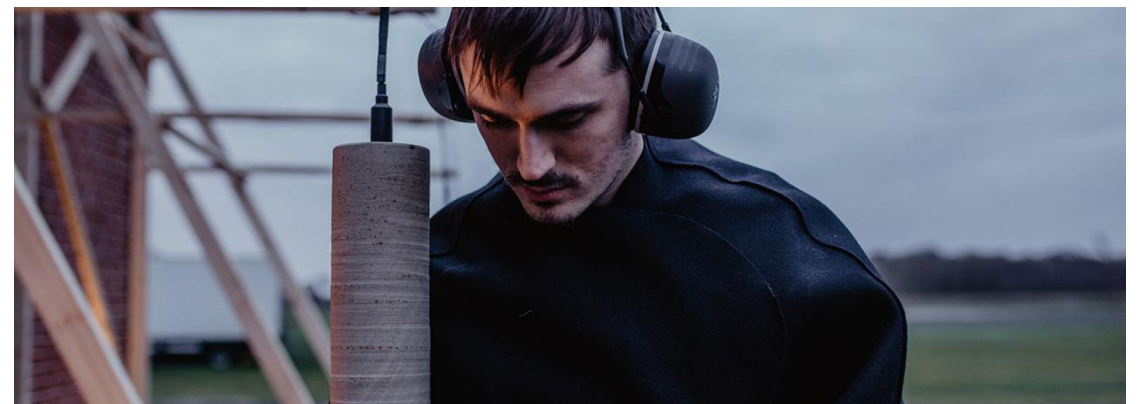
<https://failedarchitecture.com>



파이버 콘퍼런스, 2020 ©Fiber Festival



파이버 공연, 2020 ©Fiber Festival



파이버 전시, 2020 ©Fiber Festival

# 페이지 낫 파운드

## PAGE NOT FOUND

유형	민간단체,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2015년
운영주체	페이지 낫 파운드	장르	융·복합
소재지	헤이그(Hague)		
홈페이지 / SNS	<a href="https://page-not-found.nl">https://page-not-found.nl</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적 실천을 위한 출판, 공연, 강연,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등의 프로그램</li> <li>- 서점, 출판물 소개, 연구사업, 독서 세션 등</li> </ul>		

헤이그에 위치한 비영리 공간이다. 예술적 실천으로서 출판을 그 사업의 중심에 두고 예술가의 글을 많은 관객들이 접할 수 있도록 공연, 강연,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점을 겸비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주로 예술가, 디자이너, 비평가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작업을 성찰하고 공유한다. 예술가 헬기 에오손(Helgi Þórsson)과 올라 바실예바(Ola Vasiljeva)가 공간을 디자인했다.

읽지 않음 표시하기(Mark as Unread)는 독특한 출판물을 소개하는 세션이다. 최근에는 예술가들이 제공하는 링크만 호스팅하는 온라인 플랫폼 코스모 칼 - 플랫폼 파라사이트(Cosmos Carl - Platform Parasite)가 소개되었다. 링크를 제외하고 암호로 표기되어 작품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우연성을 증폭시킨다.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도 겸한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진 작가들의 인쇄 불가능한 텍스트 기반 작품을 소개하는 실험적인 출판 및 배포 프로젝트인 원 에이커(One Acre)도 소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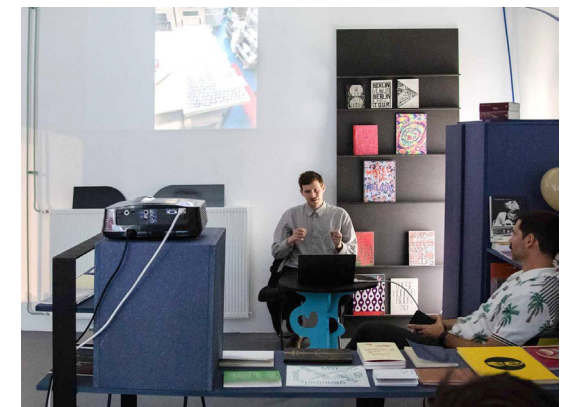
예술연구 석사과정(Master Artistic Research)은 헤이그 왕립예술학교(Royal Academy of Arts in Hague)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예술 석사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논문연구와 함께 예술적 관심을 두어 주제를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2년간의 프로젝트다.

픽셔널 턴(A Fictional Turn)이라는 타이틀로 예술가에 대한 출판물이 어떻게 소설/픽션으로 변모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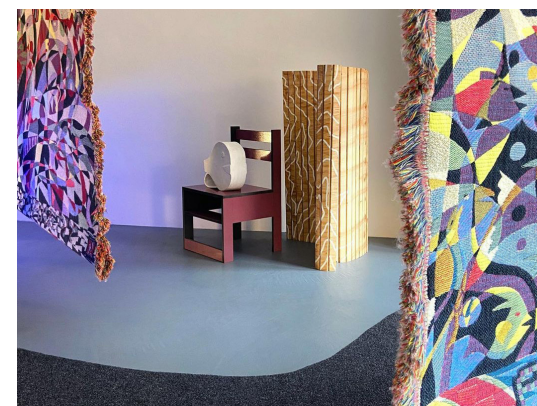
지를 다룬 세 개의 행사가 최근 진행되었다.

리딩 룸(The Reading Room)은 연구자, 문화 이론가, 철학자, 예술가들의 짧은 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독서 세션이다. 우리가 당면한 주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그 맥락을 분석한다. 최근에는 텍스트를 사회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리딩 인벤션(Reading Invention)이 진행되었다. 시셀 마리 톤(Sissel Marie Tonn), 조나단 르우스(Jonathan Reus), 플로라 레즈닉(Flora Reznik)이 큐레이션 한다.

[참고자료]  
<http://cosmoscarl.com>



페이지낫파운드 아티스트 토크 ©Page Not Found



페이지낫파운드 전시 ©Page Not Found



페이지낫파운드 리딩룸 ©Page Not Found

# 프레이머 프레임드

## Framer Framed

유형	비영리기관, 예술공간	설립연도	2010년
운영주체	Framer Framed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암스테르담(Amsterdam)		
홈페이지 /SNS	<a href="https://framerframed.nl">https://framerframed.nl</a>		
주요 프로그램	- 전시,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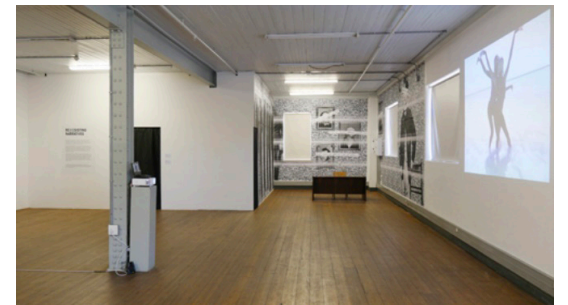
프레이머 프레임드(Framer Framed)는 2008년경 위트레흐트에서 활동을 도모하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문을 연 것은 2010년이다. 당시 네덜란드는 미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을 받아 대대적인 감축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대다수의 기관이 재정난으로 활동을 축소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문을 닫는 상황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레이머 프레임드는 실질적인 공간을 갖추지 않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으로서 여러 기관과 연대하며 담화와 토의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활동에 집중했다. 이 기관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요지엔 피터세(Josien Pieterse)가 당시 위트레흐트의 공공 교육기관 튀물트(Tumult)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곳은 당시 위트레흐트의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의 큐레이터들이 대화를 촉진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이 기관에 접근하여 많은 논의들을 생산해 냈다. 이러한 튀물트의 역할과 작동 방식은 초기 프레이머 프레임드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초창기 프레이머 프레임드에서는 타 유럽지역에 비해 인식이 결여된 네덜란드 제도 내의 식민성 논의를 가시화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했다. 근대에서 기인한 기존 제도기관의 제도적 구조를 해체하고 질문함으로써 제도 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창출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움직이는 플랫폼으로서 작동했던 프레이머 프레임드가 2014년에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공간을 갖추고, 프로그램 외에도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타지역’에 초점을 맞춘 전

시 프로그램은 근대 미술관이 근대미술의 서사를 주도하고 서술하는 방식에 대한 대항으로서 다중 서사의 가능성에 주력하고자 했다. 한편, 기관 내부에 큐레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로운데, 매년 전시를 기획할 때마다 해당 지역에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큐레이터를 초청하여 전시를 꾸린다. 이는 식민의 역사를 타자화했던 과거 기존 미술/박물관들의 방식과 차이를 두기 위한 일종의 전략처럼 보인다. 프레이머 프레임드의 이와 같은 활동은 네덜란드에서 제도 기관이 어떻게 글로벌리즘과 인터내셔널리즘, 다문화주의와 같은 담론을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예시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Cas Bool and Josien Petrise, 'Framer Framed: The Museum in Transition' in Changing Perspectives: Dealing with Globalisation in the Presentation and Collection of Contemporary Art, Amsterdam: KIT Publishers, 2012, pp. 112-120.



프레이머 프레임드 'Re(as)sisting Narratives in South Africa', 2016 ©Framer Framed



프레이머 프레임드 'Sethembile Msezane Chapungu The Day Rhodes Fell', 2015 ©Framer Framed

유럽 → 벨기에  
Europe → Belgium



- p.192 국가소개
- p.194 겐트 현대미술관  
S.M.A.K. Ghent
- p.196 넥스트  
NEXT
- p.198 디셈버댄스  
December Dance
- p.200 벨스카우버그  
Beursschouwburg
- p.202 보자르  
BOZAR
- p.204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  
Concertgebouw Brugge
- p.206 쿤스텐페스티벌데자르  
Kunstenfestivaldesarts
- p.208 타즈  
TAZ Theatre Aan Zee
- p.210 페이드당스  
Pays de Danses
- p.212 프랑스어공동체위원회  
French Community  
Commission
- p.214 플랑드르어공동체위원회  
The Flemish Community  
Commission

## 벨기에 Belgium

벨기에의 면적은 약 3만 km<sup>2</sup> 정도로, 한국의 30% 수준이며 경상도의 면적이 벨기에 전체보다 약간 큰 수준이다. 하지만 벨기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 독일어에 영어까지 망라하고 있다. -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프랑스어 사용권(왈롱 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북부 지역은 대부분 네덜란드어 사용권(플랑드르 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브뤼셀과 같은 수도의 경우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가 함께 사용되는 이중 언어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복잡성은 벨기에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와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상황과도 연관성이 깊은데, 아마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벨기에 브뤼셀을 지나간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지역인 탓에 나폴레옹 전쟁부터 세계 대전까지 많은 전쟁을 거치는 아픔도 겪었으나, 현재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본부와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본부가 모두 위치한 유럽의 중추국이 되었다.

벨기에는 언어, 인종, 문화가 모두 혼재되어 있는 국가이며, 이러한 ‘혼종(Métissage)’의 성격은 수도인 브뤼셀에서 정점을 찍는다 - 사실 벨기에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에 대해 무작정 개방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프랑스어권과 네덜란드어권 간의 미묘한 갈등이 언제나 존재하며 지역주의도 상당히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뤼셀은 유럽연합에서 일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들은 금요일 오후를 룩셈부르크 공원에서 만끽한 후 주말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가 월요일에 다시 일터로 돌아온다. 벨기에와 브뤼셀은 국가 내에 언제나 존재하는 갈등과 충돌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자 하며, 이러한 시도는 문화예술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된다.

벨기에가 현대무용과 현대미술을 비롯해 이른바 컨템퍼러리 예술의 성지라 불리게 된 것은 결국 이러한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과 맞닿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양성과 이질성, 혼종과 융합을 지원하는 국가적 분위기에 힘입어 예술의 실험이 다각도로 전개될 수 있었다. 관객들 역시 현대예술에 대해 거부감 없이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서, ‘다원’과 ‘컨템퍼러리’를 지향하는 축제가 전국의 극장과 예술센터에서 수시로 진행된다.

벨기에에는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나라, 때로는 무색무취하고 심심하게 느껴지는 나라, 와플과 스머프의 고향 정도로만 생각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대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벨기에라는 것이다.

## 겐트 현대미술관

S.M.A.K. Ghent, Stedelijk Museum voor Actuele Kun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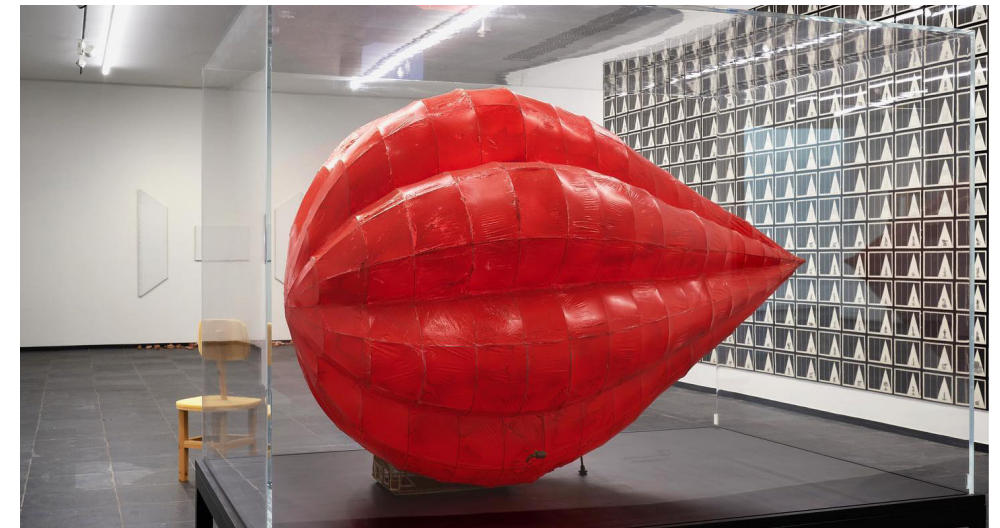
유형	미술관	설립연도	1957년
운영주체	겐트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겐트(Ghent)		
홈페이지 /SNS	<a href="http://www.smak.be">www.smak.be</a> <a href="https://www.facebook.com/SMAK.Gent">www.facebook.com/SMAK.Gent</a> <a href="https://www.instagram.com/smakgent">www.instagram.com/smakgent</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 컬렉션 작품의 전시와 기획전시를 병행하여 진행</li> <li>- 겐트 대학과 협력하여 강의 및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li> </ul>		

겐트 현대미술관(Stedelijk Museum voor Actuele Kunst, S.M.A.K.)은 1957년 겐트에서 현대미술관 협회의 창립을 통해 촉발된 미술관으로, 이후 1975년에는 협회가 벨기에 최초의 현대미술관을 설립하였으며 1999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하고 겐트시가 운영하게 되었다.

프랜시스 베이컨, 앤디 워홀 등 유명한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역동적이고 독창적인 현대미술계의 일면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시립미술관으로서 여러 아티스트와 관객 간의 접점을 확장하고자 하며, 예술가들에게 실험의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관객들이 현대 예술의 의미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SMAK



S.M.A.K. 전시 'Poetic Faith' ©SMAK



S.M.A.K. 전시 'Poetic Faith' ©SMAK

## 넥스트 NEXT

유형	축제	설립연도	2008년
운영주체	플랑드르어권 5개 센터 공동 조직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소재지	투르네(Tournai) 외		
홈페이지 /SNS	<a href="https://nextfestival.eu">https://nextfestival.eu</a> <a href="http://www.facebook.com/Festival.NEXT">www.facebook.com/Festival.NEXT</a> <a href="http://www.instagram.com/nextfestival_eu">www.instagram.com/nextfestival_eu</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예술축제를 지향하는 현대예술축제</li> <li>- 투르네, 코르트레이크 등 벨기에/프랑스 접경 도시의 예술기관이 협력하여 개최</li> <li>- 예술가 창작 지원 프로그램인 '넥스트 레지던시'를 주축으로 운영</li> </ul>		

넥스트(NEXT)는 벨기에의 투르네(Tournai), 코르트레이크(Kortrijk), 프랑스의 릴(Lille), 발랑시엔(Valenciennes) 등 접경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이 연합하여 11월에서 12월까지 약 한 달 동안 개최하는 축제이다. 각 도시의 예술기관[1]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여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들은 '국경을 넘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권 내지는 국가에 소속된 예술가들을 한데 모으고자 한다.

특히 넥스트는 상연에 목적을 둔 축제라기보다는 그 상연을 위한 과정에 더욱 집중하는 축제로서 특색을 갖고 있는데, 넥스트가 새로운 작품의 제작에 참여하고 창작을 지원하며 이러한 결과물을 초연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관객의 범위 역시 넓히고자 한다. 축제 중에는 4개 도시를 돌아다니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공연은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 및 영어로 모두 번역되며, 공연과 청중 간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제공된다.

4주에 걸쳐 40개 내외의 현대공연예술 작품이 선을 보이며, 이를 위해 넥스트의 레지던시가 운영된다. 레지던시에 참가하는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축제에서 작품을 초연한 후 유럽권 투어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적이고 통섭적인 작품을 선호하는 넥스트 축제는 국제 예술 축제이자 복합 예술 축제로서의 성격을 천명하고 있으며, '유로-메트로폴리스(Euro-metropolis, 국경을 초월한 대도시)'로서 젊은 예술가들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1] 코르트레이크의 부다아트센터(Buda Art Centre), 릴의 라호즈데방(La Rose des Vents), 발랑시엔의 피닉스국립공연장(Le Phénix scène nationale Valenciennes) 등



넥스트 2019 ©NEXT



넥스트 2019 ©NEXT

# 디셈버댄스 December 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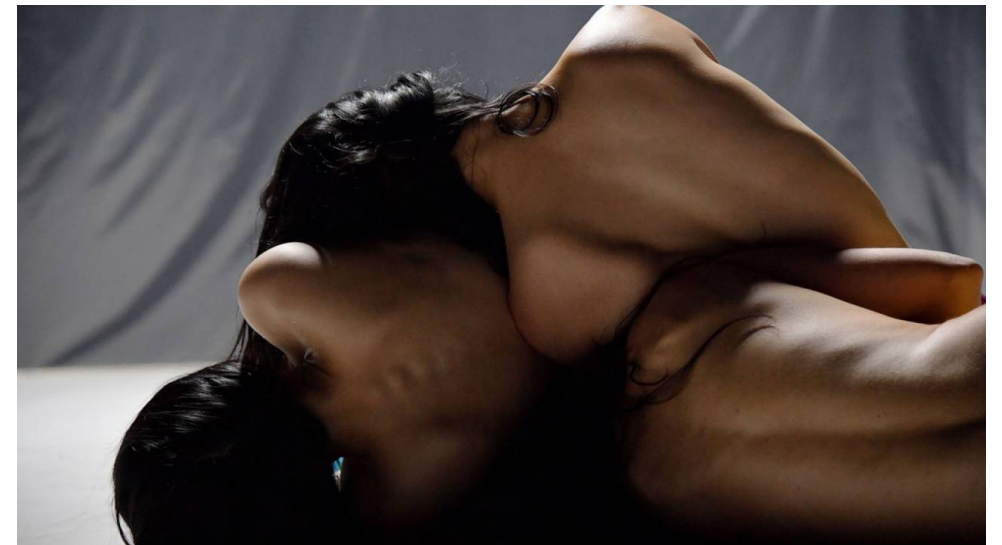
유형	축제	설립연도	2007년
운영주체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브뤼헤(Brugge)		
홈페이지 /SNS	www.concertgebouw.be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12월 열흘 간 축제를 개최</li> <li>- 초청 공연 프로그램, 큐레이터가 선정한 신진 아티스트의 쇼케이스</li> <li>- 전시, 영화 등 부대 프로그램으로 구성</li> </ul>		

벨기에 플랑드르권의 중심지이자 운하의 도시이기도 한 브뤼헤(Brugge)에서는 매년 12월 현대무용축제 디셈버댄스(December Dance, DD)가 열린다. 2007년 처음으로 열린 이후 벨기에를 대표하는 현대무용축제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Concertgebouw Brugge)가 시디 라비 체르카위(Sidi Larbi Cherkaoui)나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Anne Teresa de Keersmaecker), 크리스티앙 리조(Christian Rizzo) 등을 포함하여 매년 새로운 큐레이터를 섭외하고 이들과 함께 가장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콘체르트헤바우는 브뤼헤문화센터(Cultuurcentrum Brugge, CC Brugge)와 협력하여 매년 12월 열흘 간 축제를 개최하는데, 초청 아티스트의 공연과 신진 아티스트의 쇼케이스를 포함한다. 대형 공연과 워크숍 프로그램의 경우 콘체르트헤바우에서 진행하고, 소규모 공연이나 전시의 경우에는 브뤼헤문화센터 산하 브뤼헤시 극장 및 막달레나홀(Magdalenzaal) 등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식이다.

한편 2019년에는 1986년 설립된 현대예술 콜렉티브 니드컴퍼니(Need Company)가 큐레이터직을 맡았다. 이처럼 얀 파브르(Jan Fabre)나 크리스티앙 리조(Christian Rizzo) 및 니드컴퍼니(Need Company) 등의 경우에서와같이 다채로운 장르를 망라하는 큐레이터를 선정하는 데에서도 디셈버댄스가 지향하는 바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실험적이면서도 수준이 높은 작품을 다수 섭외해 선보여 왔기에,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모객에 성공하며 브뤼헤를 대표하는 현대무용축제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2020년의 디셈버댄스는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유럽 현대무용의 혁신적 일면을 제시하는 축제로서의 성격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디셈버댄스 2019 '넛크러셔' ©December Dance



디셈버댄스 2019 '흔적들' ©December Dance

# 벌스카우버그 Beursschouwburg

유형	아트센터	설립연도	1965년
운영주체	벌스카우버그	장르	융복합, 다원예술
소재지	브뤼셀(Brussels)		
홈페이지 /SNS	<a href="http://Beursschouwburg.be">http://Beursschouwburg.be</a> <a href="http://www.facebook.com/Beursschouwburg">www.facebook.com/Beursschouwburg</a>		
주요 프로그램	- 음악, 연극, 무용 및 다원적 퍼포먼스를 다수 제시 - 시각예술의 경우 사진과 설치 및 영상을 선호		

벌스카우버그(Beursschouwburg)를 어떻게 읽는 것이 과연 맞는 발음인지 누구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네덜란드어로 ‘전시회’와 ‘극장’을 합성한 단어로서 ‘Beursschouwburg’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발음 - 대략 ‘벌스카우버그’쯤으로 불리고 있다.

브뤼셀 그랑 플라스와 구도심 지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벌스카우버그는 1885년 지어진 건물을 1946년에 극장으로 개축하면서 현재와 같은 예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브리지 틴스(Les Brigittines) 등과 같은 기관이 민간 프랑수어권 예술기관의 주축 역할을 수행한다면 벌스카우버그는 네덜란드어권 기관의 중추이다. 최초에는 플랑드르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목적에서 벌스카우버그 상주 연극 단체가 다수의 플랑드르 연극을 상연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점차 그 규모를 키워 1990년대에는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그 성격을 굳히게 되었다.

현재 벌스카우버그는 다원예술센터(Multi-disciplinary Arts Center)를 표방하며 여러 공간을 가용성 있게 운영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래밍을 선보이고 있다. 연극과 퍼포먼스, 영화와 전시, 라운드테이블과 워크숍 등이 수시로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공연과 전시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도 잦다. 혁신적인 작품을 선호하며, 장르 간 융합과 붕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직접 국내외의 안무가, 사진작가, 현대 음악가, 영화 제작자 등과 작업을 실시하기도 하며, 옥외 루프탑을 활용해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면서 젊은 관객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벌스카우버그 ©Beursschouwburg



벌스카우버그 내부 ©Beursschouwburg

## 보자르 BOZAR

유형	아트센터,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1985년
운영주체	보자르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소재지	브뤼셀(Brussels)		
홈페이지 /SNS	www.bozar.be www.facebook.com/BOZARbrussels www.facebook.com/BOZARbrussels		
주요 프로그램	- 전시, 음악, 영화, 무용, 연극, 문학, 필름, 건축 8개 부문을 운영 - 공연장 3개(대극장 1개, 중/소극장 2개), 전시 홀, 시네마테크 프로그램		

벨기에 브뤼셀 중심지에 위치한 보자르(BOZAR, Centre for Fine Arts, 브뤼셀순수예술센터)는 그 단어 그대로 '순수 예술(Fine Arts)'을 위해 설립된 예술기관이며 인근의 왕립미술관과 더불어 브뤼셀 최고의 예술기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건물은 1922년 건축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복합예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은 1985년부터이다. 2002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하였으며 보자르 엑스포(BOZAR Expo), 보자르 아키텍처(BOZAR Architecture), 보자르 뮤직(BOZAR Music)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자르는 벨기에국립오케스트라(Belgian National Orchestra), 라모네왕립극장(La Theatre Royal de la Monnaie)과 함께 3개의 벨기에 연방 문화기관 중 하나를 구성한다. 이 중 벨기에국립오케스트라가 상주단체로 콘서트홀을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약 2,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앙리르뵈프홀(Henry Le Boeuf Hall)의 경우 유럽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홀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외에도 여러 공연장과 스튜디오 및 시네마테크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며 컨템퍼러리 예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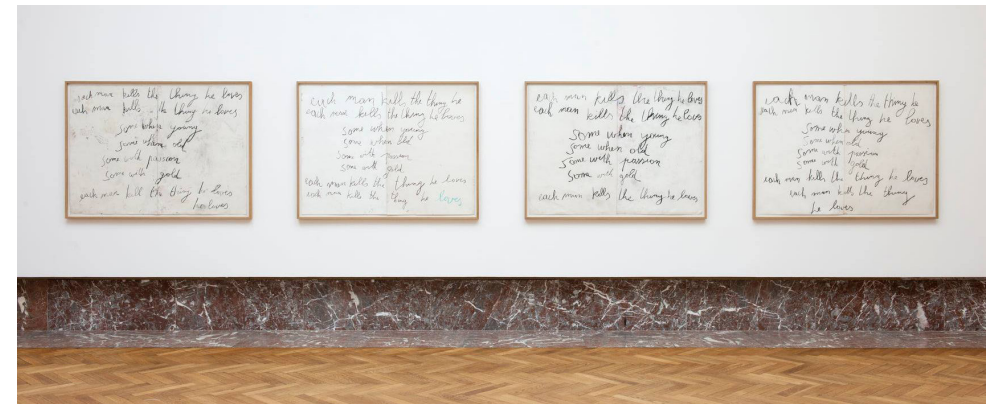
보자르는 브뤼셀의 가장 중요한 예술기관이자 최고 권위의 예술기관으로서 벨기에 중앙 정부, 왈로니 정부와 플랑드르 정부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다. 왈로니권과 플랑드르권의 예술을 전부 포괄하므로 큐레이션에 있어서도 풍부함을 자랑한다. 유럽연합의 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수시

로 오가는 관문 지역이기도 한 브뤼셀의 예술기관답게 다양성과 국제성을 지향하고 있다. 규모가 큰 예술기관이만큼 브뤼셀의 다른 예술센터들에 비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독특하며 실험성이 높은 예술센터인 것이다.

특히 보자르의 시각예술 비엔날레인 유로팔리아(Europalia)의 경우, 1969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면서 특정한 국가를 주빈국으로 삼고 그 국가의 문화예술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자르가 지닌 성격을 잘 보여준다. 보자르는 보자르 내의 여러 공간을 거치며 관객이 예술의 '총체적인 경험(total experiences)'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만큼, 유로팔리아에서도 장르와 시대에 국한하지 않고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예술작품을 관객에게 제시함으로써 관객 스스로가 배타성을 지양하고 개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보자르 2020 공연 'Drumming' ©BOZAR Brussels



보자르 2020 전시 'Molenbeek' ©BOZAR Brussels

#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 Concertgebouw Brugge

유형	아트센터, 비영리단체	설립연도	2002년
운영주체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소재지	브뤼헤(Brugge)		
홈페이지 /SNS	<a href="http://concertgebouw.be">http://concertgebouw.be</a> <a href="http://www.facebook.com/ConcertgebouwBrugge">www.facebook.com/ConcertgebouwBrugge</a>		
주요 프로그램	- 대형 콘서트홀(1,200석 규모), 실내악홀(300석 규모) 등 보유 - 음악, 무용, 전시 등 공연/시각예술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		

브뤼헤 지역은 운하를 주변으로 중세의 풍경을 갖춘 구도심이 잘 보존되어 있어, 19세기부터 유럽 전역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으며 ‘천장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200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2002년에는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된 덕에 관광 수입이 두드러진 지역이기도 한데, 덕분에 예술을 위한 프로젝트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콘체르트헤바우(Concertgebouw)는 브뤼헤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콤플렉스로, 브뤼헤의 예술 공간들 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콘체르트헤바우는 2002년 브뤼헤 유럽문화수도(Brugge Cultural Capital of Europ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되었으며, 현재 비영리단체로서 운영되는 중이다. 약 1,200석 규모의 오케스트라 콘서트홀과 300석 규모의 실내악 홀 이외에도 크고 작은 스튜디오와 전시 및 레지던시 공간을 갖추고 있어, 음악과 현대무용의 상연에서부터 브뤼헤 사진축제(Brugge Foto Festival) 등을 비롯한 시각예술 축제의 개최까지 수시로 이루어진다.

콘체르트헤바우가 브뤼헤문화센터(Cultuurcentrum Brugge, CC Brugge)와 함께 매해 12월 개최하는 현대무용축제 디셈버댄스(December Dance) 이외에도 브뤼헤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축제가 계속하여 열리는 가운데, 콘체르트헤바우는 관객을 위한 살롱이나 아티스트와의 만남 등을 주선하며 학제 간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는 예술기관으로 자리 잡고자 한다.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 ©Concertgebouw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 ©Concertgebouw

## 쿤스텐페스티벌데자르 Kunstenfestivaldesarts

유형	축제	설립연도	1994년
운영주체	쿤스텐페스티벌데자르	장르	융복합, 다원예술
소재지	브뤼셀(Brussels)		
홈페이지 /SNS	<a href="http://www.kfda.be">www.kfda.be</a> <a href="https://www.facebook.com/kunstenfestivaldesarts">www.facebook.com/kunstenfestivaldesarts</a> <a href="https://www.instagram.com/kunstenfestivaldesarts">www.instagram.com/kunstenfestivaldesarts</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5월 약 3주간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현대예술축제</li> <li>- 도시의 여러 장소에서 공연과 전시 및 영화 상영</li> <li>- 토론, 포럼 및 오픈 클래스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제공</li> </ul>		

쿤스텐페스티벌데자르(Kunstenfestivaldesarts) 또는 쿤스텐축제는 벨기에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와 최대 권위의 예술축제이다. 매년 5월 벨기에 브뤼셀의 여러 공연장과 예술기관은 ‘쿤스텐의 파트너’임을 자랑하며 관객을 맞이하고, 축제는 장르를 불문하고 다원과 현대 예술의 실험을 지향하는 작품을 선정하여 관객에게 선을 보인다.

브뤼셀에 소재한 극장 KVS(Koninklijke Vlaamse Schouwburg)와 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뿐만 아니라 카이씨어터(Kaaitheater), 벌스카우버그(Beursschouwburg), 브리지틴스(Les Brigittines), 바리아(Theatre Varia) 등 유명 극장을 대부분이 쿤스텐페스티벌데자르의 프로그램을 상연하는 가운데, 플랑드르 커뮤니티와 왈로니 커뮤니티 모두 쿤스텐페스티벌데자르를 지원한다. 이는 쿤스텐페스티벌데자르가 플랑드르권과 왈로니권의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이며, 하나의 역동적인 공동체로서 브뤼셀이 갖고 있는 힘을 발휘하는 계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양한 장소에서 축제 프로그램을 나누어 진행하는 이유도 축제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현대예술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선정의 대상이 되며, 벨기에 예술가와 해외 예술가의 작품을 포함한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이 초연을 원칙으로 하며, 쿤스텐페스티벌데자르가 직접 제작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작품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축제의 설립자이기도 한 프리 라이젠(Frie Leysen)이 예술감독을 맡았고, 이후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크리스토퍼 슬래그뮐더(Christophe Slagmuylder)가 감독직을 수행했다. 크리스토퍼 슬래그뮐더가 비엔나 축제의 예술감독으로 자리를 옮긴 후 현재에는 소피 알렉산더(Sophie Alexandre), 다니엘 구베이(Daniel Gubbay) 및 드리어스 두이비(Dries Douibi) 등 3인이 공동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쿤스텐페스티벌데자르는 프리 스쿨(Free School)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쿤스텐 축제의 본질을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며 코로나 19와 같은 사태를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예술적 지식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현재 6개의 프로젝트가 올해의 프리 스쿨, 또는 디아스포릭 스쿨(Diasporicschool, 망명자 학교)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쿠바와 팔레스타인 등 혼란을 경험한 바 있는 여러 국가들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어 흥미롭다.



쿤스텐페스티벌데자르 2019 클로징파티 ©KFDA



쿤스텐페스티벌데자르 2019 프리 스쿨 ©KFDA



쿤스텐페스티벌데자르 2019 프리 스쿨 ©KFDA

# 타즈

## TAZ(Theatre Aan Zee)

유형	축제	설립연도	1997년
운영주체	타르타르티(TarTarT vzw)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소재지	오스텐드(Oostende)		
홈페이지 /SNS	<a href="https://theateraanzee.be">https://theateraanzee.be</a> <a href="https://www.facebook.com/theateraanzee">www.facebook.com/theateraanzee</a> <a href="https://www.instagram.com/theateraanzee">www.instagram.com/theateraanzee</a>		
주요 프로그램	- 연극, 음악, 영화, 거리예술, 가족극, 문학, 어린이 프로그램 - 신진 예술가를 위한 프로그램 별도 운영		

타즈(TAZ, Theatre Aan Zee)는 매년 여름 오스텐드(Oostende)에서 개최하는 예술축제이다. 씨어터 안지(Theatre Aan Zee)는 네덜란드어로 해변의 극장(Theatre By the Sea)을 의미한다. 벨기에 북단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오스텐드는 원래 낚시꾼들이 모여 살던 조그만 어촌이었는데, 점차 항구의 규모가 커지고 브뤼셀과 오스텐드를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되면서 현재와 같은 해변 휴양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덕분에 타즈와 같은 축제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오스텐드시 관광청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던 행사였지만 현재에는 비영리단체로서 타르타르티(TarTarT)가 설립되어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축제는 본격적으로 거리예술과 가족극을 포함해 다양한 장르의 연극들을 상연하게 되었고, 현재에는 연극뿐만 아니라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포괄하는 축제가 되었다. 특히 타즈가 지향하는 바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며 이들 간의 네트워킹을 장려한다.

축제의 역동성과 신진성을 인정받아 타즈는 2014년 플레미쉬문화상 공연예술부문(Flemish Awards for Performing arts)에서 수상하였고, 다양한 작품을 다양한 관객에게 소개하며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타즈 2020 'Don Juan' ©TAZ



타즈 2020 'Look on the bright side' ©TAZ

# 페이드당스

## Pays de Danses

유형	축제	설립연도	2006년
운영주체	리에주극장 (Theatre de Liege)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리에주(Liege)		
홈페이지 /SNS	<a href="http://theatredeliege.be/evenement/festival-pays-de-danses">http://theatredeliege.be/evenement/festival-pays-de-danses</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짝수 년마다 리에주 극장에서 개최하는 무용 축제</li> <li>- 2020년 제 8회 축제를 개최, 포르투갈을 테마 국가로 프로그래밍</li> <li>- 매해 7천 명 이상이 20개 내외의 공연을 관람</li> </ul>		

벨기에의 2월은 현대무용축제를 위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브뤼셀에서는 브뤼셀 시 정부와 여러 극장들이 연합하여 브뤼셀댄스(Brussels Dances)를 개최하는 한편 리에주에서는 리에주극장이 페이드당스(Pays de Danses)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페이드당스는 벨기에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무용축제 중 하나이다. 브뤼헤 지역의 디셈버댄스(December dance)가 플랑드르권을 대표하는 현대무용축제라면, 페이드당스는 왈로니권을 대표하는 격이다.

인구 약 20만 명의 도시 리에주는 브뤼셀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왈로니권 지역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다. 리에주 극장은 과거 한국의 국립현대무용단과 협력하여 '나티보스'를 제작, 상연하기도 했다. 약 7천 명 이상의 관객이 페이드당스의 작품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아오며, 유료 객석 점유율도 매우 높다. 리에주 극장은 약 한 달간 주변 지역의 예술기관과 협업하여 축제를 운영한다. 2006년부터 짝수 년마다 비엔날레 형태로 축제를 개최해 온 이래,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21일까지 제8회 축제가 열린 바 있다.

'춤의 나라(Pay de Danses)'라는 명칭답게, 작품을 선정함에 있어 매년 축제마다 특정한 국가나 지역을 테마로 선정한다. 2014년에는 한국, 2016년에는 아르헨티나, 2018년에는 남아프리카를 선정한 데 이어 2020년에는 포르투갈을 꼽았다. 현대 무용계의 실험성과 역동성이 돋보이는 국가를 선정하고자 하며, 왈로니권 예술가들과 해외 예술가들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모든 형태의 현대무용'을 제

공할 수 있도록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그 규모와 형태를 다양하게 갖추고자 하는데, 2016년에는 아르헨티나의 솔로 및 혼성 탱고 작품을 상연하였고 2018년에는 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남아프리카의 힙합 공연을 상연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포르투갈 무용단 4개 단체가 초청되었고, 이중 포르투갈국립발레단(Companhia Nacional de Bailado)이 선보이는 작품이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혼종(Métissage)'을 지향하는 축제답게 여러 형태와 국적을 가진 예술이 서로 교류하는 현장을 관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리에주의 지역 축제에서 벨기에 전역을 포괄하는 축제로 거듭난 페이드당스에서는 개방성과 다양성, 포용성을 중시하며 현대무용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벨기에 무용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페이 드 당스 ©Theatre de Liege



페이 드 당스 2020 'Dream is the Dreamer' ©José Caldeira

# 프랑스어공동체위원회 French Community Commission

## Commission communautaire française(COCOF)

유형	공공기관	설립연도	1989년
운영주체	프랑스어공동체위원회 총회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브뤼셀(Brussels)		
홈페이지/SNS	<a href="https://ccf.brussels">https://ccf.brussels</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기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1989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동체위원회</li> <li>- 프랑스어권 지역 및 브뤼셀과 같은 이중 언어 지역에서 권한 행사</li> <li>- 프랑스어권 지역의 문화/교육 관련 기관을 관할</li> </ul>		

프랑스어공동체위원회(Commission communautaire française, COCOF)는 벨기에의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여, 1989년 설립된 공동체위원회 중 하나이다. 벨기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공존하는 국가인 만큼, 각각의 지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중 프랑스어공동체위원회는 ‘왈롱’, 또는 ‘왈로니’라고 불리는 벨기에 남부권의 프랑스어 사용 지역을 관할하며, 교육과 문화 등의 분야에서 관련 기관을 관할한다 학교와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예술센터, 미술관 등도 공동체위원회의 관심사가 되며, 이러한 문제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 내 주 정부가 차지하는 지위와도 유사한데, 공동체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자체적인 입법권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와 같은 문제 역시 담당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어공동체위원회는 프랑스어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가치를 증진하며 다양성과 평등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특히 이중 언어 지역인 브뤼셀에 대해서는 플랑드르어공동체위원회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프랑스어공동체위원회 로고 ©COCOF

# 플랑드르어공동체위원회

The Flemish Community Commission  
Vlaamse Gemeenschapscommissie(VGC)

유형	공공기관	설립연도	1989년
운영주체	플랑드르공동체위원회 총회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브뤼셀(Brussels)		
홈페이지 /SNS	www.vgc.be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벨기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1989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동체위원회</li><li>- 플랑드르(네덜란드어권) 지역 및 브뤼셀과 같은 이중 언어 지역에서 권한 행사</li><li>- 플랑드르(네덜란드어권) 지역의 문화/교육 관련 기관을 관할</li></ul>		

프랑스어공동체위원회와 함께, 플랑드르어공동체위원회(Vlaamse Gemeenschapscommissie, VGC) 역시 벨기에의 문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브뤼셀의 경우 이중언어 지역이지만 사실상 거주 인구의 비중을 따졌을 때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플랑드르어공동체위원회의 영향력이 높은 편이다.

겐트(Ghent)와 오스텐드(Oostende), 앤트워프(Antwerp) 등을 비롯한 벨기에 중북부의 중요 도시들이 대부분 플랑드르어공동체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한다. 이외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서 문화, 교육, 복지 등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단, 플랑드르어공동체위원회는 프랑스어공동체위원회나 공동 커뮤니티위원회(Commission Communautaire Commune, COCOM, 이중 언어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와 달리 입법권은 갖고 있지 않고, 단지 특정한 규정을 채택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럽 → 이탈리아

Europe → Italy



- p.218 국가소개  
p.220 국립21세기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21st  
Century Arts MAXXI  
p.222 로마에우로파 페스티벌  
Romaeuropa Festival  
p.224 무라테 아트 디스트릭트  
Murate Art District  
p.226 문화유산관광부  
Ministry of Cultural  
Heritage and Activities  
and Tourism  
p.228 밀라노트리엔날레  
Triennale Milano  
p.230 베니스비엔날레  
Venice Biennale  
p.232 아르테 피에라  
Arte Fiera  
p.234 아우디토리움 파르코 델라  
무지카  
Auditorium Parco della  
Musica  
p.218 국가소개  
p.236 아치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  
Azienda Speciale  
Palaexpo  
p.238 움브리아 재즈  
Umbria Jazz  
p.240 이스티투토 루체-치네치타  
Istituto Luce-Cinecittà  
p.242 폰다치오네 프라다  
Fondazione Prada  
p.244 폰타 델라 도가나  
Punta della Dogana  
p.246 피우 리브리 피우 리베리  
Più libri Più liberi

# 이탈리아 Italy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반도 국가이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수 세기 동안 서구 문명의 정치적 중심지였으며 풍부한 문화를 축적하였다. 지리적으로 이슬람과 동로마의 문화를 접하기 쉬운 위치로 이들의 문화를 서유럽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14세기에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 강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도시 국가들을 형성하였다. 경제적 번영과 함께 시민 문화의 형성 및 문화예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르네상스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총 54개: 문화유산 49, 자연유산 5)하고 있다. 예술의 본고장, 세계문화의 수도, 열린 박물관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 전체가 문화재로 인식될 만큼 유물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 이에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오늘날에도 문화강국이자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문화 주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기는 하나, 그 문화는 대체로 유구한 역사에 따른 전통이나 과거의 유산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시에 이탈리아는 현대예술의 불모지라는 이미지 또한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달리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현대예술은 꽤나 다채롭다. 되레 켜켜이 쌓은 수천 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최근에 이탈리아 문화유산활동관광부가 런칭한 현대예술 관련 기관, 재단, 단체, 대안공간, 컬렉션 등을 정리한 온라인 플랫폼 ‘현대예술공간(Luoghi del Contemporaneo)’만 봐도 그 수와 규모가 방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중 버려진 건축물이나 낙후된 산업 공간이 국가적 또는 기업 주도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조 및 재건축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경우가 많다. 그 예로 베니스의 폰타 델라 도가나(Punta della Dogana) 그리고 밀라노의 피렐리 행거비코카(Pirelli HangarBicocca)와 폰다치오네 프라다(Fondazione Prada) 등이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지역과 장소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로컬과 글로벌을 연결하며 새로운 문맥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이탈리아는 문화강국의 명성만큼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열정이 많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공간 그리고 축제 및 행사가 굉장히 다양하다. 또한, 이탈리아반도 통일 이전 도시국가의 역사로 인해 분권적 다원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 책자에서 이탈리아 전체 문화지형도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하지만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이탈리아의 현대예술 현장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 국립21세기현대미술관

## National Museum of 21st Century Arts

### Museo Nazionale delle Arti del XXI Secolo(MAXXI)

유형	국공립기관, 미술관	설립연도	2010년
운영주체	막시재단 (Fondazione MAXXI)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로마(Rome)		
홈페이지 /SNS	www.maxxi.art		
주요 프로그램	- 상설·특별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막시(MAXXI)라 이름 붙은 국립21세기현대미술관(Museo nazionale delle arti del XXI secolo)은 현대 예술과 창의성에 전념하는 이탈리아 최초의 국립미술관이다. 로마가 역사 속의 도시가 아닌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현대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플라미니오(Flaminio) 문화·예술 지역 현대화 계획’ 중 하나로 2010년 완공된 이 미술관은 수 세기에 걸쳐 예술 및 건축 분야에서 우위를 누려왔던 이탈리아가 동시대의 창의적 표현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을 상징한다. 우리 시대의 미학적 긴장은, 비록 근본적으로 다른 표현 형태를 통해서 일지라도, 과거 시대의 예술적, 문화적 표현의 연장이다. 막시의 미션은 이러한 연속성을 장려하고 발전 시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오랜 시간 ‘로만 클래식(Roman Classic)’으로 세상과 소통을 해왔으나 더는 과거의 유물에 기대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이탈리아가 국립미술관으로 내세운 이곳은 21세기 건축 및 예술의 발전을 도모한다. 현대 예술 작품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 혁신을 주도하고 예술을 비롯한 세계의 전혀 다른 분야들의 언어를 비교 연구하며 중첩하는 실험적 공간이자 우리 시대의 미적 재료 생산을 위한 기계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창의적 표현들이 상호 작용하고 생산과 창조가 결합하고 융합하며 재생산되는 거점이 되고자 한다.

또한, 막시는 다른 세계와 문화 간에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이해를 돕는 데에 있어 예술의 중요성을 인지,

이를 바탕으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 콘텐츠를 외부에 알리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국제 문화의 흐름을 전달받고 그것을 이탈리아 내에 소개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오고 향후 개최될 전시 목록을 보면 다양성이 돋보인다. 다양한 장르, 작가 그리고 지역을 아우른다. 수많은 근·현대 건축가의 자료 및 국내외적 시각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수집하며 방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이 아카이브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작하며 관련 활동 및 전시를 기획해 나아가고 있다. 막시의 전시는 상설 소장품 전시부터 프로젝트 및 기획 전시, 브랜드 후원 전시 등을 아우른다. 또한, 학교, 가족, 어른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MAXXI ©MAXXI



MAXXI ©MAXXI



MAXXI ©MAXXI

# 로마에우로파 페스티벌 Romaeuropa Festival

유형	민간단체, 축제	설립연도	1986년
운영주체	로마에우로파재단 (Fondazione Romaeuropa)	장르	공연예술, 융·복합
소재지	로마(Rome)		
홈페이지 /SNS	<a href="https://romaeuropa.net">https://romaeuropa.net</a>		
주요 프로그램	- 매년 두 달간 개최되는 대규모 융·복합예술/축제		

이탈리아에서 가장 폭넓고 코스모폴리탄적인 축제로 알려진 로마에우로파 페스티벌(Romaeuropa Festival)은 1986년 처음 열린 이후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며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컬트(cult)’와 ‘트렌디(trendy)’를 비롯하여 ‘니치(niche)’와 ‘메스(mass)’를 모두 아우르며 동시대 창의성의 현주소를 제시하고 현대예술을 심도 있게 고찰하며 지난 30년간 넓고도 두터운 관객층을 구축해왔다.

현대 연극, 무용, 음악, 퍼포먼스, 디지털아트, 영화 등 다양한 장르가 한데 어우러지는 예술 축제이며, 로마에우로파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탈리아 및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기도 하다. 2019년의 경우, 5개 대륙 30개 국가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인상적인 부분은 두 달에 걸쳐 축제가 개최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매해 9월부터 11월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대중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 아르젠티나극장(Teatro Argentina)와 인디아극장(Teatro India), 아우디토리움 파르코 델라 무지카(Auditorium Parco della Musica), 국립21세기현대미술관(MAXXI, Museo nazionale delle arti del XXI secolo), 마타토이오(Mattatoio)를 비롯한 로마의 주요한 극장,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등 여러 기관 및 장소와 협력하여 진행되어 축제가 진행되는 두 달 동안 로마 도시 전체가 행사들로 가득해진다.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선보이며 어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로마에우로파 페스티벌 ©Artribune



로마에우로파 페스티벌 ©Artribune



로마에우로파 페스티벌 ©Artribune

# 무라테 아트 디스트릭트 Murate Art District(MAD)

유형	민간단체, 예술지구	설립연도	2014년
운영주체	자체운영	장르	문화예술일반, 융·복합
소재지	플로렌스(Florence)		
홈페이지 /SNS	www.murateartdistrict.it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연구 지원 사업: 창작의 연구와 과정, 전시를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li> <li>- 아카이브 사업: 프로젝트 및 작가 자료 수집·공유</li> </ul>		

무라테 아트 디스트릭트(Murate Art District, 이하 MAD)는 다양한 현대 예술 언어를 학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문화 단지이자 창작 및 레지던시 공간으로 모든 연령과 배경의 예술가에 열려있다. 미술사학자이자 기획자인 발렌티나 젠시니(Valentina Gensini)가 2014년 시작한 무라테 현대예술 프로젝트(Le Murate Progetti Arte Contemporanea)가 해마다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고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며 2019년 무라테 아트 디스트릭트(Murate Art District, MAD)로 이름을 바꾸었다.

15세기에 수도원이었다가 1883년부터 1985년까지 약 100년간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단지에 위치한 MAD는 현재 예술가들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계승하고 재해석하는 동시에 동시대성을 대변하는 자유와 연구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전시, 강연, 콘퍼런스, 퍼포먼스, 워크숍, 레지던시 등을 통해 현대의 언어를 개방적이고도 포용적인 방식으로 전파하고 홍보해 나아가고 있다.

MAD는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2019년에는 38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중년 예술가들이 젊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활성화시켰다. 그 외에 젊은 작가 양성 및 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 또한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는데 MAD의 과거와 현재 프로젝트들을 기록하고 작가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다.



무라테 아트 디스트릭트 ©MAD



무라테 아트 디스트릭트 ©MAD



무라테 아트 디스트릭트 ©MAD

# 문화유산관광부

Ministry of Cultural Heritage and Activities and Tourism

/ 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 e per il Turismo(MiBACT)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1974년
운영주체	이탈리아 정부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로마(Rome)		
홈페이지 /SNS	www.beniculturali.it		
주요 프로그램	- 이탈리아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이탈리아 내에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유산활동관광부(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 e per il Turismo, MiBACT)로, 로마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문화를 비롯해 역사적, 예술적, 그리고 경관적 가치를 지닌 유적의 보호 및 보존 그리고 관광 분야를 주로 다루며, 문화유산,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과 아카이브, 시각예술, 공연예술, 영화, 문화기관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1974년에 문화재환경부로 출발한 조직을 모태로 삼는다. 문화유산활동관광부는 이탈리아 전역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관리·감독하며 법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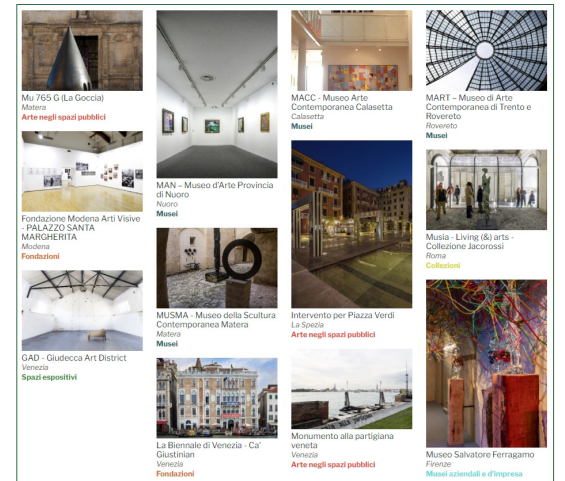
아홉 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고학, 순수미술, 자연경관(Archeologia, Belle Arti e Paesaggio), 영화와 시청각 미디어(Cinema e Audiovisivo), 공연예술(Spettacolo), 관광(Turismo), 교육과 연구(Educazione e Ricerca), 문화유산보존(Sicurezza del patrimonio Culturale), 현대 창의성(Creatività Contemporanea), 국가기록시스템(Sistema Archivistico Nazionale), 이탈리아 박물관 시스템(Sistema Museale Italiano) 등이다.

문화유산활동관광부는 최근 들어 문화재와 문화유산에 집중되었던 활동들을 현대예술로 확장 시키고 있다. 그 예로, 이탈리아의 동시대 창조성의 파노라마를 파악할 수 있는 현대예술장소(Luoghi del Contemporaneo)[1]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현대 문화예술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곳들을 정리하고 지도화하여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해외에도 이탈리아 문화를 활발하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보인다. 전 세계에 이탈리아의 문화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해서 감상할 수 있는 이탈리아 문화의 넷플릭스(Netflix della Cultura Italiana)를 추진 예정이다.

또한, 문화유산활동관광부는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청년들에게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당 해에 만 18세를 맞는 청년들에게 문화생활에 쓸 수 있도록 1인당 500유로(약 65만 원)를 지원하는 문화 보너스(Bonus Cultura) 사업을 진행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박물관, 미술관, 및 유적지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화책 출판사 코코니노-판당고(Coconino-Fandango)와의 협업을 통해 푸메티 네이 무제이(Fumetti nei Musei) 사업을 진행한다. 이탈리아 22개의 주요 문화기관과 유명 만화가를 연결시켜 각 기관을 배경으로 한 그래픽노블 및 영상 시리즈를 제작하여 국내에서는 교육 자료로, 국외에서는 홍보자료로 배포 및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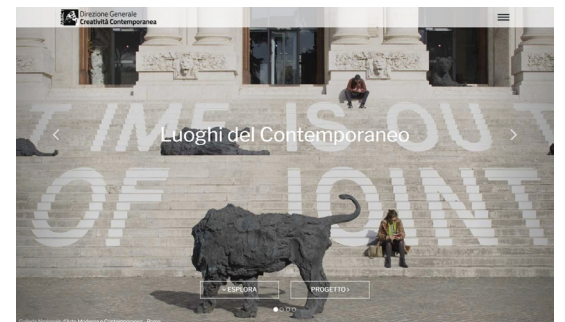
[1] <https://luoghidelcontemporaneo.beniculturali.it>



문화유산관광부 ©Luoghi del Contemporaneo



문화유산관광부 ©Fumetti Nei Musei



문화유산관광부 ©Luoghi del Contemporaneo

# 밀라노트리엔날레

## Triennale Milano / La Triennale di Milano

유형	축제	설립연도	1923년
운영주체	밀라노트리엔날레재단 (Fondazione La Triennale di Milano)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밀라노(Milano)		
홈페이지 / SNS	<a href="https://triennale.org">https://triennale.org</a>		
주요 프로그램	- 3년에 한 번 개최되는 국제 트리엔날레 - 상설·특별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밀라노 트리엔날레(La Triennale di Milano)는 1923년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기관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동시대의 복잡성을 디자인, 패션, 건축, 도시 계획, 비주얼 아트, 뉴 미디어, 사진, 퍼포먼스, 공연, 춤, 음악, 영화 등 현대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 더 넓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찾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한 장소와 시간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밀라노 트리엔날레는 1923년 몬자(Monza)에서 개최된 국제장식미술전(La mostra internazionale delle arti decorative)이 발전한 것으로 1927년 제3회까지는 격년제의 비엔날레로 개최되다가 4회부터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트리엔날레 형식이 되었다. 1933년에 현재의 위치인 건축가 조반니 무치오(Giovanni Muzio)가 설계한 팔라초 델라르테(Palazzo dell'Arte)로 자리를 옮겼다. 2007년에는 이 공간 내에 이탈리아 최초의 디자인 전문 뮤지엄인 트리엔날레 디자인뮤지엄(Triennale Design Museum)이 자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트리엔날레 기간 외에도 계속해서 이탈리아와 세계의 건축가, 디자이너,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비롯하여 만남, 콘퍼런스,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전 세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단독 공연장을 비롯해 도서관, 아카이브 등을 갖추었으며 방대한

이탈리아 디자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에는 밀라노 트리엔날레 공간 내에 이탈리아 디자인 컬렉션 일부를 상설 전시로 집중 조명하는 이탈리아 디자인박물관(Museo del Design Italiano)을 개관했다. 이곳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이탈리아 디자인 작품 1,6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제23회 국제 전시회는 2022년에 열릴 예정이다.



밀라노 트리엔날레 ©Triennale di Milano



밀라노 트리엔날레 ©Triennale di Milano



밀라노 트리엔날레 ©Triennale di Milano

# 베니스비엔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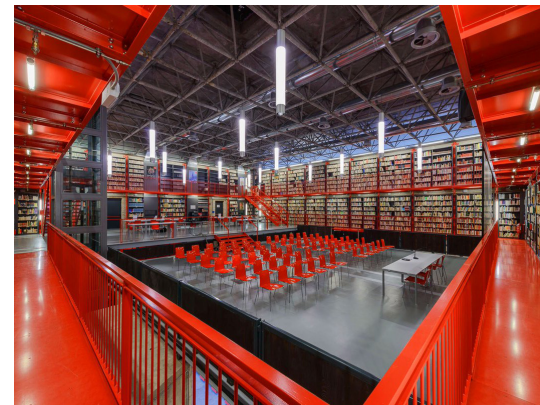
## Venice Biennale / La Biennale di Venezia

유형	축제	설립연도	1895년
운영주체	베니스비엔날레 재단 (Fondazione la Biennale di Venezia)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베니스(Venice)		
홈페이지 / SNS	www.labiennale.org		
주요 프로그램	- 격년으로 진행되는 미술전(홀수 해)과 건축전(짝수 해) - 매년 진행되는 영화제, 음악제, 연극제, 무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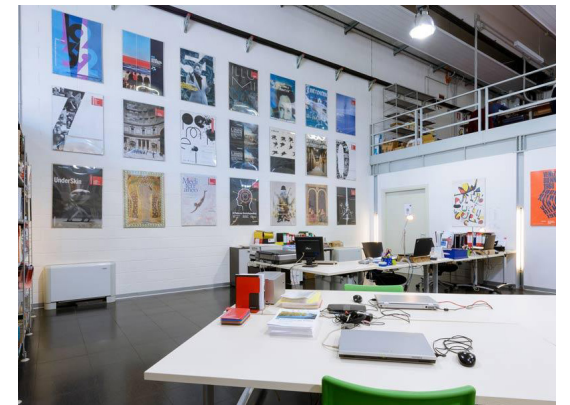
세계 최고(最古)의 베니스 비엔날레(La Biennale di Venezia)는 1895년 이탈리아 국왕 부부의 은혼식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베니스에 설립되었다. 1870년에 통일을 이루고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며 먼 역사 속 '로마제국 영광의 부활'을 염원하던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시대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의 하나였던 베니스에 경제적, 문화적 인프라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인도주의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국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하였다. 이탈리아는 당대의 선진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던 런던의 왕립 미술원 전시와 파리의 살롱전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의 만국박람회 등의 행사를 벤치마킹하여 교회사 왕실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로운 실험정신을 동시대적으로 펼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예술 선진국을 꿈꾸었다.

'베니스 시의 국제미술전'으로 시작된 베니스 비엔날레는 이후 격년제로 지속되며 다양한 지역의 새로운 현대 미술 경향들을 조명하고 여러 나라의 예술가, 평론가, 큐레이터들이 한군데 모여 생각을 교환하며 신선한 미학적 담론을 형성하는 장으로 자리를 잡으며 세계 미술계에서 큰 권위와 영향력 있는 국제 미술 행사가 되었다. 오늘날 베니스비엔날레는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영화, 무용, 음악, 연극으로 분야를 확장하여 다루고 있다. 현재 미술전은 홀수 해에, 건축전은 짝수 해에 열리며, 음악제, 영화제, 연극제, 무용제는 매해 열린다. 최근에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 지역 사회 및 미래세대와의 관계 강화를 비롯하여 '비엔날레 칼리지(Biennale College)'를 운영하여 젊은 작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행사들 외에 아카이브 기관인 현대예술 역사 아카이브(L'Archivio Storico delle Arti Contemporanee, 이하 ASAC)와 비엔날레 도서관(La Biblioteca della Biennale)을 운영하고 있다. 1895년부터 지속되어온 비엔날레의 발자취를 비롯해 현대 시각예술, 건축, 도시 생활, 영화, 음악, 무용, 연극, 사진, 미디어, 문학에 관한 기록 자료를 수집하고, 제작하고, 재생산하고, 보존해오고 있다. ASAC은 아카이브 예술 자료를 토대로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도서관은 역대 비엔날레 도록과 자료를 포함해 15만 3천여 권 이상의 현대예술 관련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학생부터 전문가까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베니스비엔날레\_현대예술역사아카이브 ©La Biennale di Venezia



베니스비엔날레\_현대예술역사아카이브 ©La Biennale di Venezia



베니스비엔날레 ©La Biennale di Venezia



베니스비엔날레 ©La Biennale di Venezia

# 아르테 피에라

## Arte Fiera

유형	민간단체, 행사	설립연도	1974년
운영주체	볼로냐피에레(BolognaFiere)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볼로냐(Bologna)		
홈페이지 /SNS	www.artefiera.it		
주요 프로그램	- 매년 개최되는 아트마켓		

아르테 피에라(Arte Fiera)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 페어이자 유럽에서 손꼽히는 행사로, 150개 이상의 갤러리와 수백 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며 근현대미술의 기준을 제시한다. 매해 1월에 볼로냐에서 열린다.

아르테 피에라의 메인 전시는 3개의 큐레이팅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진과 영상 작품을 조명하는 사진과 무빙이미지(Fotografia e immagini in movimento), 20세기 및 전후 거장들을 조명하는 포커스(Focus), 그리고 동시대 회화를 조명하는 21세기 회화(Pittura XXI)로 구성된다. 이처럼 아르테피에라는 예술 애호가들에게 새롭고 야심 찬 프로젝트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페어 기간에는 볼로냐시와의 협력을 통해 도시 전역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함께 열린다. 강연과 토론 등은 대중들에게 예술 현장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워크숍은 창작 활동을 경험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아르테 피에라는 국제전시 및 박람회 기획사인 볼로냐피에레(BolognaFiere)에서 주최하는데 이 그룹의 또 다른 주요행사로는 볼로냐 아동도서전(Bologna Children's Book Fair)이 있다.



아르테 피에라 ©Artribune



아르테 피에라 ©Artribune

# 아우디토리움 파르코 델라 무지카

## Auditorium Parco della Musica

유형	국공립단체,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2002년
운영주체	로마음악재단 (Fondazione Musica per Roma)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로마(Rome)		
홈페이지 /SNS	www.auditorium.com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사업, 클래식 음악, 팝, 재즈 및 다양한 음악 장르 및 무용, 연극 공연</li> <li>- 영화, 문학 등 문화예술 축제 연계 사업</li> </ul>		

아우디토리움 파르코 델라 무지카(Auditorium Parco della Musica)는 이탈리아 건축가 렌조 피아노(Renzo Piano)가 설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2002년에 문을 열었다. 전체 면적 약 55,000m<sup>2</sup>에 이르는 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 공간은 유럽 최대 규모의 음악센터이며 뉴욕의 링컨센터(Lincoln Center) 다음으로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공연장이다. 로마 도심의 북쪽인 파리올리 언덕과 1960년 하계 올림픽당시 조성되었던 선수촌 마을 사이에 위치한 지역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이자 1935년 무솔리니 정권에 의해 공연장이 파괴되었던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Accademia Nazionale di Santa Cecilia) 소속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위한 상주 공연장 신축·설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대편성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위한 아레나 형의 대극장 살라 산타체칠리아(Sala Santa Cecilia, 2,744석),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공연을 위한 살라 시노폴리(Sala Sinopoli, 1,133석), 그리고 독주회를 위한 소극장 살라 페트라시(Sala Petrassi, 673석)로 불리는 세 개의 음악 홀이 각각 독립 건물로 위치하여, 제 4의 음악 홀로 불리는 팝, 재즈, 월드뮤직 공연을 위한 야외 원형극장을 중심으로 주변을 감싸듯이 세워졌으며, 옆에는 숲이 우거진 공원이 있어 파르코(Parco, 공원)라는 이름 그대로 녹지로 둘러싸인 '음악공원'을 이룬다.

공연장과 리허설룸 그리고 리코딩 시설뿐만 아니라 고고학박물관, 악기박물관, 전시실, 어린이 옥상 놀이

터, 레스토랑, 상점 등을 갖추고 있어, 건축가 피아노가 의도한 대로 문화공장(fabbrica di cultura)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공간은 음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곳을 생활 속에서 다양한 만남과 교류가 일어나는 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아우디토리움 파르코 델라 무지카를 운영하는 로마음악재단(Fondazione Musica per Roma)은 음악 공연 및 축제, 영화 시사회 및 영화제, 연극, 시각예술 전시, 문학 축제 등 여러 문화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풍부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의 많은 주요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아우디토리움 파르코 델라 무지카 ©Auditorium



아우디토리움 파르코 델라 무지카 ©Auditorium



아우디토리움 파르코 델라 무지카 ©Auditorium

# 아치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

## Azienda Speciale Palaexpo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1998년
운영주체	아치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로마(Rome)		
홈페이지 /SNS	www.palaexpo.it		
주요 프로그램	- 로마 주요 문화예술기관 운영		

아치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Azienda Speciale Palaexpo)는 로마 시 교육·문화국 산하의 비영리 기관으로 1997년에 팔라초 델레 에스포지치오니(Palazzo delle Esposizioni), 일명 ‘전시 궁전’의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운영과 행정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온전히 문화, 특히 시각예술을 위해 설립한 첫 책임 운영 기관이다. 로마 내에 새로운 문화 생산을 주도하는 ‘현대 문화의 중심’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탈리아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조직 및 단체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세계 유수의 박물관, 미술관, 연구소, 대학 등과의 교류를 넓히고 증진시키고자 노력한다.

다양한 문화 영역, 특히 예술과 과학 간의 대화 및 융합, 경험과 지식의 적극적이고 실험적인 생산, 다양한 예술적 형태의 실험과 연구의 가치, 학제 간 활동의 중요성, 모든 형태의 문화 생산에 수반되는 요소로서 발달/교육적 접근의 중요성, 커뮤니티 형성, 지식의 접근성,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활동의 중요성, 활동의 온·오프라인 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 및 활동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아치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는 현재 팔라초 델레 에스포지치오니와 더불어 로마현대미술관(Museo di Arte Contemporanea, MACRO)과 복합문화공간 마타토이오(Mattatoio)까지 로마 시내 주요 문화예술기관 세 군데를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 및 사업을 총괄한다. 세 개의 기관 내에 전시 및 심포지엄, 콘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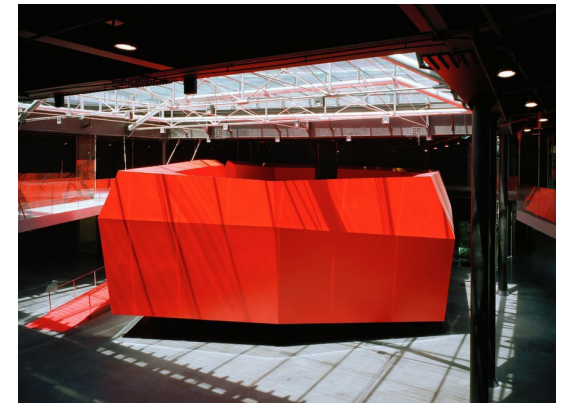
런스, 음악 및 영화 프로그램 등 연계행사를 활발하게 기획하고 운영하며, 연극, 무용, 음악, 영화, 건축,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장르와 역사,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한문 간의 소통 및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연구와 교육 활동도 활발히 펼치며, 문화예술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적이고도 실험적인 방식으로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동시대 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한다. 세 개의 기관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아치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 ©Azienda Speciale Palaexpo



아치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 MACRO ©exibart



아치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 Mattatoio ©Mattatoio



아치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 Palazzo delle Esposizioni ©Archello

# 움브리아 재즈 Umbria Jazz

유형	민간단체, 축제	설립연도	1973년
운영주체	움브리아재즈재단 (Fondazione di Partecipazione Umbria Jazz)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페루자(Perugia)		
홈페이지 /SNS	www.umbriajazz.it		
주요 프로그램	- 매년 7월 및 12월에 개최되는 음악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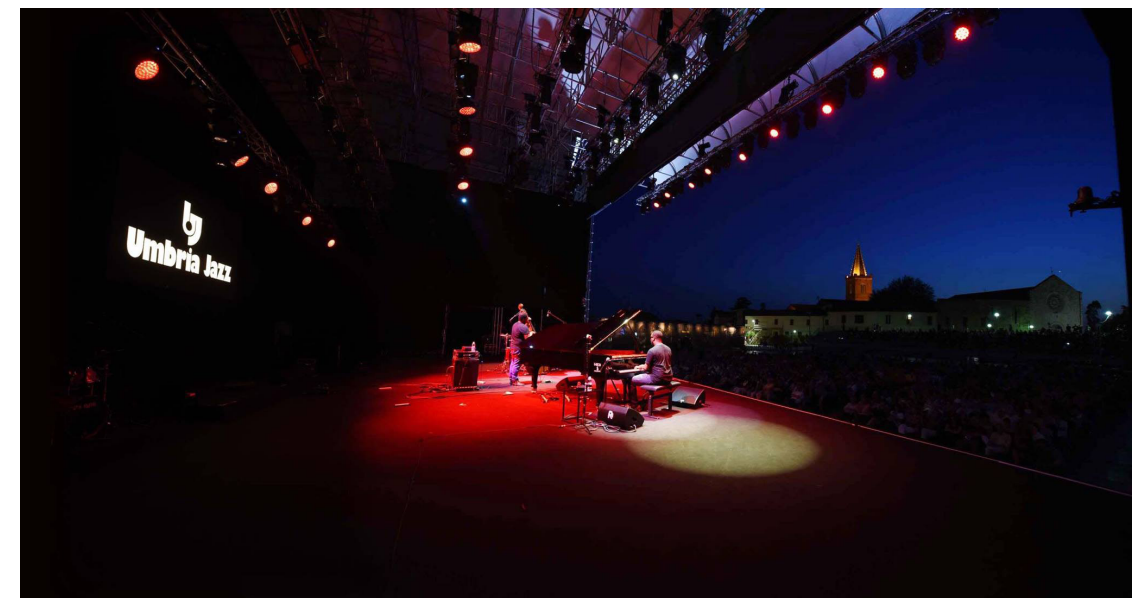
197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움브리아 재즈(Umbria Jazz)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재즈 축제 중 하나이다. 해마다 7월에 열흘에 걸쳐 이탈리아 중부의 구릉 지대, 움브리아주의 주도이자 중세 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곽도시 페루자에서 열리는데,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 전체가 재즈로 물든다. 공식 주요 무대와 더불어 도시 곳곳의 공연장, 광장 그리고 레스토랑을 비롯한 바와 펍 등에서 무료 공연과 점세션이 낮부터 밤까지 도시를 가득 메운다.

움브리아 재즈에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즈 뮤지션들이 참여를 해왔으며, 광범위한 재즈 장르를 다양하고 밀도 있게 선보인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재즈계의 거장들이 출연해오며 그 중요도를 입증해왔는데 그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뮤지션들을 국제무대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페루자에서 열리는 축제의 뜨거운 인기와 성과에 힘입어 1995년부터는 움브리아주의 또 다른 도시인 오르비에토(Orvieto)에서 매해 12월 마지막 주부터 새해까지 5일간 연말연시를 기념하여 움브리아 재즈 윈터(Umbria Jazz Winter)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또한, 움브리아 재즈는 축제의 공연과 더불어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중 주목

할 만한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명문으로 꼽히는 미국의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움브리아 재즈 클리닉(Umbria Jazz Clinics)이다. 축제 기간과 맞물려 2주간 버클리음대 교수진과 함께 연주 및 음악 기술을 배우고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음악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매해 약 200여 명 이상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움브리아 재즈 ©Umbria Jazz

## 이스티투토 루체-치네치타 Istituto Luce-Cinecittà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2009년
운영주체	이스티투토 루체-치네치타	장르	영화
소재지	로마(Rome)		
홈페이지/SNS	<a href="https://cinecitta.com">https://cinecitta.com</a>		
주요 프로그램	- 영화 및 사진 아카이브 운영		

이스티투토 루체-치네치타(Istituto Luce-Cinecittà)는 이탈리아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영화진흥기구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럽 영화 및 사진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아카이브는 자체 제작물뿐만 아니라 개인 컬렉션을 비롯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한 자료들까지 수집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20세기의 역사를 다루는 대규모 시청각 자료 컬렉션이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스티투토 루체-치네치타는 이탈리아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장편작의 극장 개봉을 지원하고 이탈리아와 유럽 감독들이 만든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배포 및 적절한 국내 개봉을 보장한다. 또한, 이탈리아 고전 및 현대 영화를 해외에 활발히 알리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세계의 주요 기관 협력하고 다양한 영화제를 직접 조직하고 추진한다.

또한, 치네테가(Cineteca)라는 영화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데 이곳에는 3천 개가 넘는 가장 중요한 이탈리아 영화들을 다양한 언어의 자막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이탈리아 외무부와 협력하여 주요 국내외 기관에 이탈리아 문화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작품들과 복원된 작품들이 매년 추가된다.

영화 매거진 8 1/2을 비롯하여 영화 로케이션, 작품 그리고 시청각 제작을 위한 국가 포털 이탈리아 포 무

비스(Italy for Movies)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주요 활동에 대한 최신속보를 제공하는 일일 온라인 뉴스 매거진 치네치타뉴스(CinecittàNews, news.cinecitta.com)를 편집·운영한다.

2017년 7월부터는 1937년에 설립된 전설적인 치네치타 스튜디오(Cinecittà Studios)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네치타 디지털 팩토리(Cinecittà Digital Factory)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하에 포스트 프로덕션, 복원 그리고 제3자가 제작한 작품에 대한 보존까지 진행한다. 또한, 치네치타 디스트릭트 엔터테인먼트(Cinecittà District Entertainment)의 활동을 이어받아 전시부터 이벤트, 관광투어, 제작 및 유통, 홍보, 시청각 자료까지 모두 치네치타의 브랜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 폰다치오네 프라다 Fondazione Prada

유형	민간단체	설립연도	1995년
운영주체	자체운영	장르	융·복합
소재지	밀라노(Milano), 베니스(Venice)		
홈페이지 /SNS	www.fondazioneprada.org		
주요 프로그램	- 상설·특별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폰다치오네 프라다(Fondazione Prada)는 1995년 글로벌 패션 브랜드 프라다(Prada)와 미우미우(Miu Miu)의 수장 미우치아 프라다(Miuccia Prada)와 그녀의 남편 파트리치오 베르텔리(Patrizio Bertelli)가 문화와 예술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건축, 미술, 디자인, 사진, 영화, 음악, 과학, 문학, 철학을 융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폰다치오네 프라다의 시작은 1993년에 동시대 조각을 소개하기 위한 전시 공간으로 밀라노에 설립되었던 프라다밀라노아르테(PradaMilanoArte)로 돌아간다. 이 프로젝트는 1995년에 폰다치오네 프라다로 이름을 바꾸며 그 이후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장소 특화된 전시를 기획하거나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들을 제작하고 선보이며 현대 시각예술의 경향들을 탐구하였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 철학, 과학, 디자인, 영화 등 다른 분야들로 발을 넓혀 나아갔다.

2011년에 미우치아 프라다와 파트리치오 베르텔리는 자체 전시 공간을 확보, 확장하여 문화적 관점을 넓힐 필요성을 느꼈고 베네치아 대운하 옆에 있는 18세기 궁 카 코너 델라 레지나(Ca' Corner della Regina)에 첫 상설 전시관을 열었다. 그와 동시에 세계적인 네덜란드 태생의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이끄는 OMA 건축 사무소에 밀라노에 문화예술 복합단지 설계를 의뢰했다. 2015년에 개관한 폰다치오네 프라다의 밀라노관은 라르고 이사르코(Largo Isarco)라는 도시 남부의 쇠락해 가는 산업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1만 9,000㎡ 규모의 부지에 들어선 이 복합예술 단지는 원래 1910년대에 지은 증류주 양조장이 있던 곳으로 기존에 있던 7개 건물 외관을 최대한 보존해가며 복원하고 3개의 건축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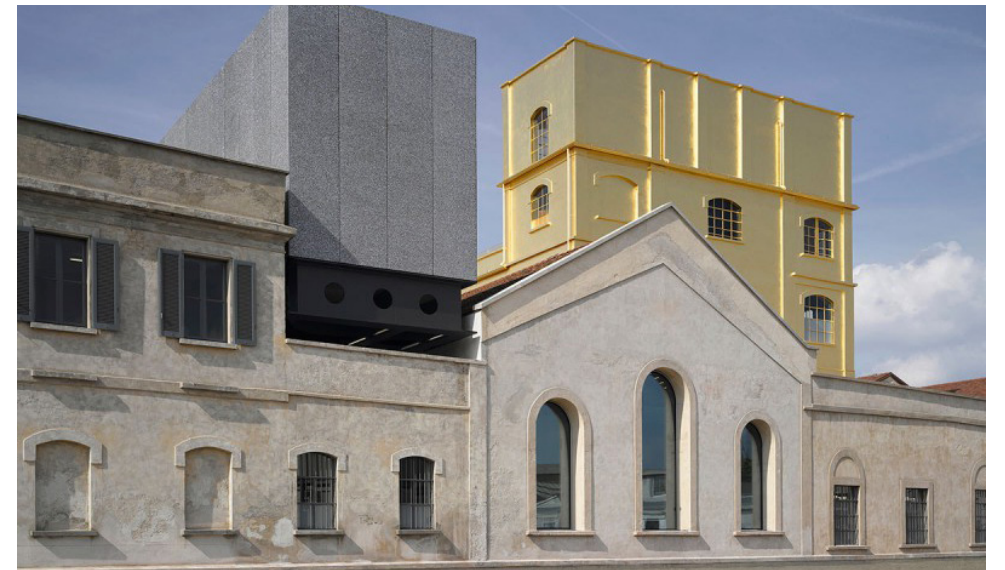
신축하여 완성했다. ‘보다 빠르고, 보다 신선하고, 보다 즉각적이고, 보다 실험적인 곳’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춰 문학, 영화, 음악, 미술, 그리고 과학 등 다른 분야들이 어떻게 공존하며 예상치 못한 공명과 문화적 교차로 이어지도록 하는 프로젝트들을 선보이고 있다. 폰다치오네 프라다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현해내려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폰다치오네 프라다 ©Fondazione Prada



폰다치오네 프라다 ©Fondazione Prada



폰다치오네 프라다 ©Fondazione Prada

# 푼타 델라 도가나

## Punta della Dogana

유형	민간단체, 미술관	설립연도	2009년
운영주체	피노컬렉션(Pinault Collection)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베니스(Venice)		
홈페이지 /SNS	www.palazzograssi.it		
주요 프로그램	- 특별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푼타 델라 도가나(Punta della Dogana)는 베니스에 있는 현대 미술관으로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컬렉터인 프랑수아 피노(Francois Pinault)가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미술관 공간은 15세기에 베니스의 상업 활동이 발전하면서 운하 통항의 세관 건물(Dogana da Mar)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1980년대까지도 도시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약 20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베니스시는 이 건물을 현대 미술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공개 입찰을 올리고, 구겐하임재단(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과 프랑수아 피노의 피노컬렉션(Pinault Collection)이 경쟁에 들었고, 후자가 승리하였다. 피노는 건물의 복원 및 재건을 일본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Tadao Ando)에게 맡겼고 14개월의 작업 끝에 푼타 델라 도가나는 2009년 6월에 현대 미술관으로 문을 열어 대중들에게 다시 공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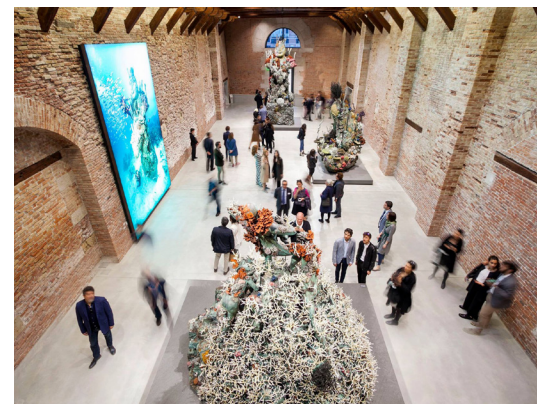
피노는 푼타 델라 도가나에 미술관을 개관하기에 앞서 2006년에 1700년대 중반에 지어진 귀족 그라시 가문의 궁전 팔라초 그라시(Palazzo Grassi)를 이탈리아 자동차 기업 피아트(Fiat) 그룹으로부터 인수해 미술관으로 오픈한 바 있다. 비록 프랑수아 피노의 개인 미술관들이기는 하지만 3천 점이 넘는 근현대 미술 소장품으로 이루어진 정상급 컬렉션을 선보이며 현대 미술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베네치아가 르네상스 미술의 도시가 아닌 현대미술의 도시가 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푼타 델라 도가나는 개관 이후 다양한 개인 및 그룹 기획전시를 선보이고 있으며 피노 컬렉션의 현대 미

술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대중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전시와 연계하여 현대 미술을 보다 더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및 베니스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푼타 델라 도가나는 2021년에 프랑스 파리의 옛 상품거래소(La Bourse de Commerce de Paris)에 개관을 앞둔 피노의 새 미술관 그리고 팔라초 그라시 및 테아트리노(Teatrino) 등 피노 컬렉션이 기존에 보유한 문화공간들과 함께 계속해서 독특한 기획의 전시 문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푼타 델라 도가나 ©Punta della Dogana



푼타 델라 도가나 ©Punta della Dogana



푼타 델라 도가나 ©Punta della Dogana

# 피우 리브리 피우 리베리

## Più libri Più liberi

유형	민간단체, 도서전	설립연도	2002년
운영주체	피우 리브리 피우 리베리 조직 위	장르	문학
소재지	로마(Rome)		
홈페이지 /SNS	<a href="https://plpl.it">https://plpl.it</a>		
주요 프로그램	- 매년 개최되는 독립중소출판사 도서전		

피우 리브리 피우 리베리(Più libri Più liberi, 더 많은 책, 더 많은 자유)는 이탈리아 독립 중소출판사들을 소개하는 도서전으로 매년 12월에 로마에서 개최된다.

이 도서전은 대규모 출판사들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는 작은 규모 출판사들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도서 전시 및 판매 외에도 도서전 기간 5일간 650건 이상의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작가와의 만남, 주제 토론, 워크숍, 음악 및 라이브 공연, 스토리텔링 등 모든 연령대를 위한 이벤트가 계속된다. 책 작가뿐만 아니라 철학자, 음악가, 작곡가, 비평가, 기자, 시나리오 작가, 과학자,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크기는 일반 성인, 전문가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나뉜다. 전문가들에게는 출판 관련 분야가 직면한 과제들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강연, 체험 프로그램, 전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 공간은 로마 시립도서관네트워크(Biblioteche di Roma)에서 총괄 운영한다.

도서전은 2017년부터는 로마 컨벤션센터 라 누볼라(La Nuvola)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크레이티브 유럽(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의 일환인 유럽 도서박람회 네트워크 알두스(Aldus)에 참여한다.



피우 리브리 피우 리베리 ©Più-libri-più-liberi



피우 리브리 피우 리베리 ©Più-libri-più-liberi

유럽 → 폴란드  
Europe → Poland



- p.250 국가소개  
p.252 그단스크 셰익스피어극장  
Gdansk Shakespeare Theatre  
p.254 노비극장  
Nowy Theatre  
p.256 라즈니아현대예술센터  
Laznia Centre for Contemporary Art  
p.258 로칼\_30  
Lokal\_30  
p.260 루블린문화센터  
Center of the Meeting of Cultures in Lublin  
p.262 문화과학궁전  
Palace of Culture and Science  
p.264 바르샤바갤러리위켄드  
Warsaw Gallery Weekend  
p.266 분키에르갤러리  
Bunkier Gallery of Contemporary Art
- p.268 아담미츠키에비츠문화원  
Adam Mickiewicz Institute  
p.270 우야즈도브스키캐슬  
현대예술센터  
Ujazdowski Castle Centre for Contemporary Art  
p.272 유럽연대센터  
European Solidarity Centre  
p.274 자행타국립미술관  
Zachęta National Gallery of Art  
p.276 타우론노바무지카축제  
Tauron New Music Festival

# 폴란드 Poland

필자는 지난 2017년 NEXT 전문인력파견사업의 일환으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시각예술 분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폴란드 문화예술에 대해 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파견 당시에는 ‘2017년 폴란드 아방가르드 100주년’[1], ‘2018년 독립 100주년’이라는 주요 이슈가 있었고, 이에 담당 정부 부처인 문화유산부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굵직한 행사들을 기획하여, 폴란드 국내·외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폴란드 문화유산부에서 기획한 이 두 개의 커다란 행사는 폴란드 문화예술의 특징 및 방향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 이 행사를 중심으로 폴란드 문화예술의 키워드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폴란드는 독립 100주년 프로그램 니에포들레과(Niepodległa)[2]의 해외 프로그램은 1989년부터 폴란드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있는 아담미츠키에비츠문화원(Adam Mickiewicz Institute, 이하 IAM)에서 맡았고, 문화유산국 산하 문화 기관, 니에포들레과 프로그램 사무국 그리고 IAM에서 나누어 국제 행사를 구성하여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AM은 전 세계 예술가, 제작자 및 기관 간의 폴란드 문화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폴스카 100(POLSKA 100)’[3]을 옆의 도표와 같이 구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세기 폴란드 문화의 가장 중요한 현상과 이에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와 작품을 보여주고자 음악, 시각예술, 디자인, 공연, 영화, 신기술 분야의 총 6개의 분야로 구성했는데, 세부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 공통된 키워드는 폴란드 문화예술의 역사성, 아방가르드,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뒤에서 소개할 폴란드의 문화예술기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보인다.

폴란드는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에 의해 123년간 분할되었다가 1918년 독립을 맞이했으나 이후, 제 1·2차 세계 대전, 사회주의의 시기를 거쳐 1989년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듯, 1990년대 준비기를 거쳐 2000년대 들어 현대의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활동을 시작하는 문화예술기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두고 현대의 모습으로 재정비된 경우도 많다. 다수의 폴란드 문화예술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기관의 아카이브를 충실히 보여주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사립 기관인 아르톤재단(Fondacja Arton)에서 진행한 잊혀진 유산들(Forgotten Heritage)[4] 프로그램과 같은 아카이브 프로젝트도 잘 갖추고 있다.

아울러 미술, 공연 전 분야에 걸쳐 아방가르드의 전통은 아직도 계속되는 듯 보인다. 미술에 있어서는 1920-30년대 급진파 작가 집단인 a.r.그룹(a.r. Group)이 당시 가장 중요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수집하여 유러피언 아방가르드의 주요 작가인 페르낭 레제(Fernand Leger),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한스 아르프(Hans Arp) 등의 작품을 기부하여 구축된 우치미술관(Muzeum Sztuki w Łódź) 컬렉션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폴란드 공연장의 경우, 전 장르를 다 보여주는 복합예술센터 성격의 공간이 보이는 특징을 지니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창작을 위한 융·복합 혹은 장르를 초월한 아방가르드한 프로그램이 실제로도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카테고리 명	내용	비고
음악	자유의 음악 (Music of Freed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derewski에서 아방가르드(Avant-garde)까지</li> <li>• 폴란드 라디오 실험 스튜디오</li> <li>• 영웅의 소리</li> <li>• 폴란드 작곡가 지도(Map)</li> </ul>	클래식 음악
	폴란드 재즈 (Polish Jazz)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azz a head’에 선보일 폴란드 재즈 및 세계 주요 재즈 페스티벌</li> <li>• 국제 재즈 교류-폴란드 재즈 페스티벌 네트워크</li> </ul>	현대 음악
시각 예술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사람들 (New Reality Buil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방가르드 : 전장기에서 현대까지</li> <li>• 폴란드 사진 : 실험과 다큐멘터리 경향 사이에서</li> <li>• 현대 미술 : 대화 (A Dialogue)</li> <li>• 20세기 폴란드 미술 : 국가 스타일을 찾아서</li> </ul>	
디자인	근대 폴란드 디자인 개요 (Last Century in Polish Design: An Over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란드 디자인의 역사</li> <li>• 중·동부 유럽의 디자인</li> </ul>	
공연	공연의 새로운 전망 (A Brand New Vision of Theat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연극을 향하여</li> <li>• 위대한 개혁의 맥락에서 낭만주의 유산</li> <li>• 커리어그래피랜드: 아방가르드를 위한 새로운 길</li> <li>• 공장의 심장</li> <li>• 폴란드 전위 미술의 번역 및 문화 전수</li> <li>• 중앙 유럽 공연 쇼케이스</li> <li>• 새로운 세대의 마스터에 대한 반응</li> <li>• Paderewski가 뮤지컬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li> </ul>	
영화	영화 (Fil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시대의 아이콘 :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li> <li>• 폴란드의 소리</li> <li>• Jack Strong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공동 제작한 장편 영화)</li> <li>• 폴란드 영화의 거장들</li> </ul>	
신기술	새로운 기술들 (New Technolo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lture.pl에 대한 N18가이드: 폴란드 문화에 대한 외국인 가이드</li> <li>• 세계 문화 안의 폴란드</li> <li>• Roderick Coover, Webdoc</li> <li>• VR 앱들</li> </ul>	

[폴스카 100 프로그램 개요]

[1] <http://culture.pl/en/article/2017-the-centenary-of-polish-avant-garde>

[2] <http://www.mkidn.gov.pl/pages/posts/zagraniczny-program-obchodow-stulecia-odzyskania-niepodleglosci.-bdquoocemy-zadbac-o-dobre-imie-polski-8147.php>

[3] <http://culture.pl/en/article/polska-100-adam-mickiewicz-institute-to-launch-new-programme>

[4] 이 프로젝트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벨기에, 크로아티아의 문화예술 기관과 협력하여 공식적인 국제 아방가르드 역사에서 가장 잊혀있었던 유럽 지역의 네오 아방가르드를 재발굴하고, 재해석하여 알림을 큰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5월까지 추진된 결과 현재 8천여 점의 자료들이 웹사이트(www.forgottenheritage.eu)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 그단스크 셰익스피어극장 Gdansk Shakespeare Theatre / Gdański Teatr Szekspirows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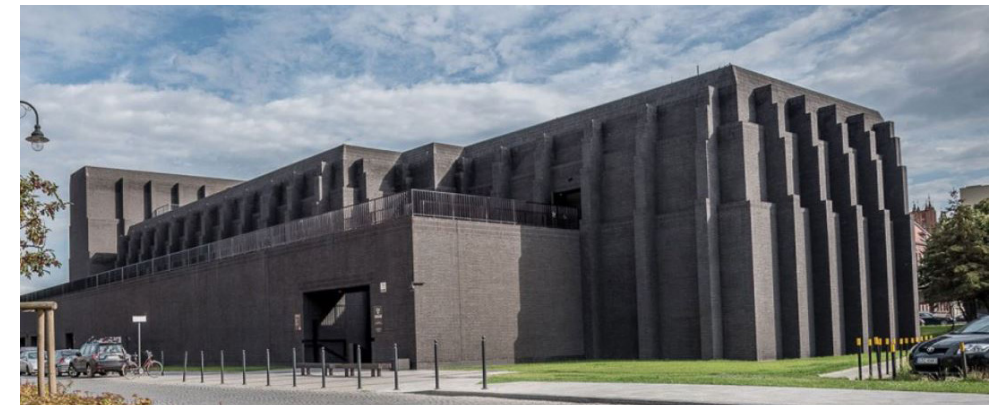
유형	국공립단체, 극장	설립연도	2008년
운영주체	그단스크시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그단스크(Gdańsk)		
홈페이지 /SNS	teatrshakespeare.pl		
주요 프로그램	- The Gdansk Shakespeare Festival: 세계 각지에서 온 예술가들과의 공연, 워크숍, 미팅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 연극의 경향을 보여주는 행사		

2008년 개관한 그단스크 셰익스피어극장(Gdansk Shakespeare Theatre)은 국가기관(Pomorskie Voivodeship)과 지방단체(Gdańsk City Hall) 그리고 비정부 기관(Theatrum Gedanense Foundation)의 문화 파트너십으로 이루어 낸 문화기관으로 주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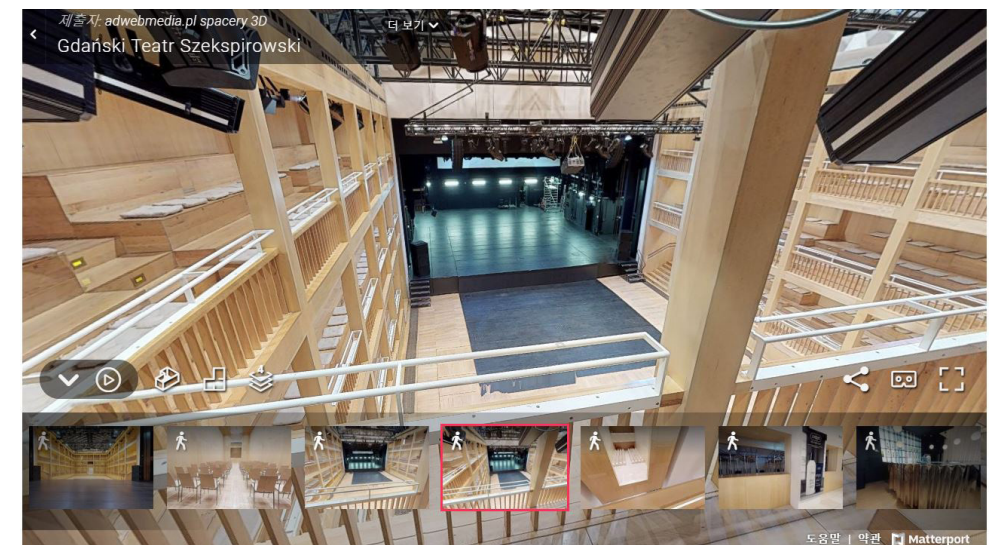
그단스크에 셰익스피어 극장이 생기게 된 계기는 펜싱 학교(Fencing School)가 완공된 16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펜싱 학교에서는 펜싱 외에 정기적인 연극 공연을 진행했고, 1695년 독일 배우 요하네스 벨텐의 미망인 카테리나 벨텐이 펜싱 학교에서 그단스크에서 쓰인 최초의 오페라 월렌티 메더의 '네로'를 무대에 올리는 등 그단스크 극장의 요람이자 연극 전통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1991년 그단스크에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극장을 재건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The Theatrum Gedanense Foundation)은 기존의 건물을 보수하는 것 대신 연극에 대한 그들의 정신을 재건하기로 결정, 문화 기관의 주요 장소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건물을 세우게 되었다.

셰익스피어 축제 및 연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유럽 및 세계의 연극 및 음악 등 예술 행사를 그단스크에 소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VR을 통해 내부 공간 및 건축물을 둘러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 극장에서 운영 및 지원하고 있는 오크니극장(Teatr w Oknie)는 세계 최초의 스튜디오 극장이다. 두 개의 스테이지가 하나의 극장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곳은 두 개의 큰 창을 이용, 경치의 요소를 도입하여 보다 큰 무

대를 연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노드라마, 인형극, 댄스 공연, 콘서트, 영화 상영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셰익스피어 축제 기간 중 공연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그단스크 셰익스피어극장 외관 ©Gdansk Shakespeare Theatre



그단스크 셰익스피어극장 VR 공간 소개 ©Gdansk Shakespeare Theatre

# 노비극장

## Nowy Theatre / Nowy Teatr

유형	국공립단체,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2008년 설립, 2016년 공식 개관
운영주체	바르샤바시	장르	문화예술일반, 공연예술
소재지	바르샤바(Warszawa)		
홈페이지 /SNS	nowyteatr.org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문화, 시각예술 전반의 프로그램</li> <li>- New Music Scene: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체인 앙상블 콘서트</li> <li>- Widening the Field: Poznan Art Stations Foundation과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안무 제작 프로그램</li> </ul>		

노비극장(Nowy Theatre)은 2008년 바르샤바 시립 예술 기관으로 공식 설립되었다. 2016년 노비극장 국제문화센터(Nowy Teatr International Cultural Centre)가 공식 개관 이전까지는 바르샤바 전역의 공간, 역, 카페, 아파트 등에서 공연 및 토론을 진행하며 아이디어를 얻었다. 모든 행사는 토론, 미팅, 대화를 통한 생각의 교환에서 시작한다. 단순히 공연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주제에 대해 소통하고 교류를 통해 우리가 살고 일하는 곳을 이해하는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비극장은 공연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관객과의 대화의 영역을 확장하여 예술가와 큐레이터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자, 아이디어로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어 새로운 예술적 장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열어 바르샤바 주민들의 도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들의 삶과 함께하기 위해 학제 간에 분열과 편견이 없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문화, 시각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극의 경우, 폴란드와 해외의 실험 극장을 제작한다. 어려운 이슈 및 현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여 청중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한다. 음악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뉴 뮤직(New Music)의 다른 영역을 탐구한다. 도전을 제기하고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창조적 이성의 음악을 통해 음악을 통한 현대성의 내레이션을 완성하기 위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노비극장 외관 ©Nowy Teatr



노비극장 내부 ©Nowy Teatr

# 라즈니아현대예술센터

## Laznia Centre for Contemporary Art / Centrum Sztuki Współczesnej ŁAŻNIA

유형	국공립단체, 미술관	설립연도	1998년
운영주체	그단스크시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그단스크(Gdańsk)		
홈페이지 /SNS	www.laznia.pl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교류 사업, 워크숍, 교육, 학술 행사, 강의, 콘서트, 영화 상영회</li> <li>- Art+Science Meeting: 예술과 과학의 경계에 대해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하는 전시, 콘퍼런스, 강연, 교육, 출판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진행 중</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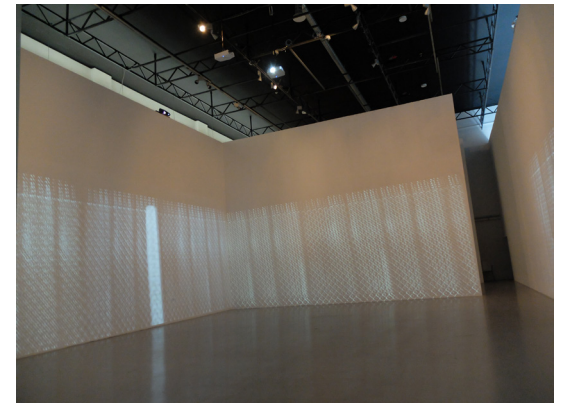
라즈니아현대예술센터(Laznia Centre for Contemporary Art)는 1989년 폴란드 민주화 이후 설립된 초기 시민 문화 기관 중 하나다. 전통적인 예술에 반대하는 지역의 독립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검열, 고정관념, 편견 등에서 자유로운 그들만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공간 설립에서 시작되었다. 1908년에 야스쿠워차 거리(Jaskólcza street)에 문을 열었던 대중목욕탕이 예술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판단하여 1998년 그단스크 시의회는 라즈니아현대예술센터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라즈니아현대예술센터는 현대 미술을 보편적 가치와 세계 문화유산의 요소로써 현대 예술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전시 진행 및 홍보를 큰 골자로, 예술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현상을 통한 현대 예술의 최신 발전 상황을 전시, 교류 프로그램, 교육, 학술 콘퍼런스, 강의, 콘서트 및 영화 상영회 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라즈니아 1의 설립 이후 콘서트, 필름 상영회, 미팅 그리고 패널 디스커션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자 이를 반영하여 2012년 그단스크 노비 포트(Nowy Port) 지역에 라즈니아의 새로운 분관 라즈니아 2를 개관하게 된다.

라즈니아 2는 노비 포트 지구 활성화 사업의 문화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예전에 대중목욕탕으로 사용

하던 건물을 리노베이션하여 이용 중이다. 라즈니아 2는 관람객들이 전시를 감상할 뿐 아니라 예술 관련 서적을 접할 수 있는 독서실과 도서관, 오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영화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강좌와 워크숍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라즈니아 1 전시 @이꼬까



라즈니아 2 외관 @이꼬까



라즈니아 1 외관 @이꼬까



라즈니아 2 전시 @이꼬까

# 로칼\_30

## Lokal\_30

유형	민간단체, 예술공간	설립연도	2005년
운영주체	로칼_30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바르샤바(Warszawa)		
홈페이지 /SNS	<a href="http://lokal30.pl">http://lokal30.pl</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퍼포먼스 포럼, 토론, 세미나, 문화 행사</li> <li>- Feminist Seminar: 예술과 시각 문화의 이슈들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바라보는 토론. 근현대 미술사적 문제 뿐 아니라 동시대 예술, 큐레이팅, 비평 전체에 대해 논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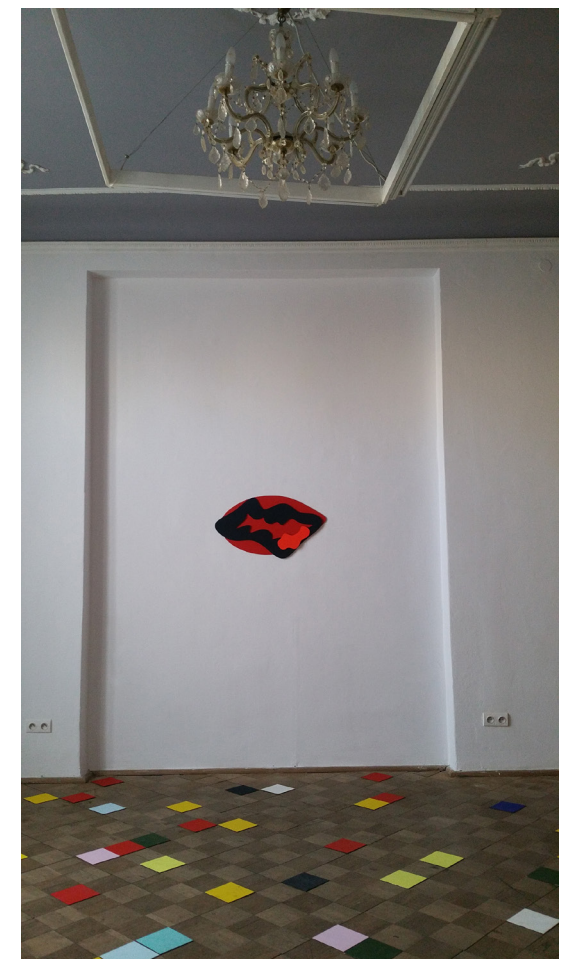
로칼\_30(Lokal\_30)은 2005년 바르샤바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포크살 거리(Foksal Street)에 위치한 이곳은 세계대전 이전에 예술가 주잔나 야닌(Zuzanna Janin)의 스튜디오로 사용되었던 역사적인 곳으로, 2003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처음에는 오픈 아트 스튜디오로 운영되다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로칼\_30의 프로젝트 및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2013년도 1월, 로칼\_30 갤러리는 전시 공간을 확장하여 현 갤러리가 위치한 빌차 거리(Wilcza Street)에 위치한 아파트 공간으로 이전했다.

동시대 비디오 예술을 반영하여 가능한 최상의 컨디션으로 제공한다는 설립 취지 아래에 비디오 예술을 중점적으로 전시 및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예술가, 큐레이터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예술, 예술가,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이벤트, 퍼포먼스, 액션, 사회 참여 프로젝트, 미팅, 토론 등도 진행한다.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로칼\_30은 영국 내 '폴란드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아담미츠키에비츠 인스티튜트(Adam Mickiewicz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런던에 임시 갤러리 공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로칼\_30 전시장 ©이꼬까



로칼\_30 전시장 ©이꼬까

## 루블린문화센터

### Center of the Meeting of Cultures in Lublin / Centrum Spotkania Kultur w Lublinie(CSK)

유형	국공립단체, 아트센터	설립연도	2007년 (2015년 완공)
운영주체	루블린시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루블린(Lublin)		
홈페이지 /SNS	www.spotkaniakultur.com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페라, 연극, 무용, 콘서트, 심포지엄, 국제회의, 전시 등</li> <li>- 2019년 4월, 한-폴 수교 30주년 기념 사업으로</li> <li>2019 KBS교향악단 유럽투어 진행</li> </ul>		

역사적으로 루블린은 무역의 길목이자 국경에 인접한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유대의 문화가 혼합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연방의 국경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다. 1960년대 계획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오페라 무대가 이곳에 설계되었다. 1980년대 경제 위기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폴란드가 자유 국가가 되면서 민간 기업들이 전면에서 나서며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루블린문화센터(Center of the Meeting of Cultures in Lublin, CSK)는 대화의 장이자 만남의 공간으로서 지역민들의 꿈과 열망을 표현한 곳으로 세계의 문화가 교류하며 교차하며 문화를 진흥하고 확산하는 새로운 플랫폼이다.

폴란드 및 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있으나 루블린 문화센터에서 가장 특징적인 곳은 1층에 위치한 오페라 홀이다.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오케스트라를 위한 5m를 확장할 수 있는 무대 등 전문적인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국제회의, 심포지엄 및 콘서트, 오페라,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하 1층에 위치한 170여 석의 스크린 룸은 이동식 강당의 형태로 공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 변화 가능한 공간이며, 조명 및 음향 설비를 갖춘 다목적 공간이며 200명의 수용이 가능한 체임버 룸, 발레 연습 및 무용단의 리허설이 가능한 발레 룸 등이 있다.

또한, 이곳에는 생태계에 기반을 둔 사업을 진행하는 카페, 독서실, 옥상 정원 등의 공간과 더불어 미디어

랩(Media Lab)을 활용하는 등 창조산업의 인큐베이팅을 위한 곳 이자 인근 교육 기관들과 함께 도시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기 위한 루블린 도시경관 개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루블린문화센터 오페라홀 ©CSK



루블린문화센터 외관 ©CSK

## 문화과학궁전 Palace of Culture and Science / Pałac Kultury i Nauki (PKiN)

유형	국공립단체, 복합문화공간	설립연도	1955년
운영주체	바르샤바시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바르샤바(Warszawa)		
홈페이지 /SNS	<p>pkin.pl  teatrdrmatyczny.pl (드라마극장)  teatrstudio.pl/pl (스튜디오극장)  teatrlalka.pl (랄카극장)  teatr6pietro.pl (6층극장)</p>		
주요 프로그램	- 극장, 박물관, 영화관, 전시장 등 복합문화공간		

스탈린의 선물로 유명한 문화과학궁전(Palace of Culture and Science)은 폴란드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바르샤바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독특한 외관과 30층에 위치한 전망 테라스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곳은 내부에는 극장 4곳, 박물관 2곳, 영화관 등의 공간을 지닌 복합문화공간이기도 하다.

문화과학궁전에는 과학박물관(Narodowe Muzeum Techniki)과 폴란드 과학 아카데미의 진화박물관(Muzeum Ewolucji)이 위치해있으며, 문화과학궁전 내 위치한 극장은 총 4개로 아래와 같다.

드라마극장(Teatr Dramatyczny)은 1949년 폴란드육군극장(House of Poland Army Theatre)으로 시작하여 1955년 문화 과학 궁전으로 옮긴 이후 열린 극장이 되어 시대에 주목할 창작자들과 함께 공연해 오고 있다.

스튜디오극장(Teatr Studio)은 폴란드와 유럽의 예술 극장의 미래와 현재의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에서 그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현실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극, 음악, 영화, 미술 등 다양한 분야들이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자 분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제작한 혁신적인 실험을 진행하는 창작의 장이다.

랄카극장(Teatr Lalka)은 1945년 러시아로 추방된 미술사학자 겸 일러스트레이터인 야니나 킬리안 스

타니스와프스카(Janina Kilian-stanisławska)가 사마르칸트에 설립한 블루아몬드폴란드극장(Blue Almonds Polish Theatre)에서 시작된 인형극장이다. 이후 블루아몬드극장이 1948년 바르샤바로 옮긴 후 1955년 문화과학궁전 개관에 맞춰 안데르센의 ‘부싯돌상자(Krzesiwo, The Tinderbox)’를 초연하며 랄카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른다.

문화과학궁전 6층에 자리 잡고 있는 6층 극장(Teatr 6 Piętro)은 2010년 우디 앨런(Woody Allen)의 ‘카사블랑카여, 다시 한번(Play it again, Sam)’을 초연으로 극장을 개관했다.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문학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가치와 과감한 새로운 해석과 최고의 연기를 결합한 연극을 관객들에게 선보임으로써 급속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



문화과학궁전 외관 ©이꼬까



문화과학궁전 랄카극장 ©이꼬까

# 바르샤바갤러리위켄드 Warsaw Gallery Weekend

유형	축제	설립연도	2011년
운영주체	바르샤바 소재 갤러리 연합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바르샤바(Warszawa)		
홈페이지 /SNS	warsawgalleryweekend.pl www.facebook.com/warsawgalleryweekend		
주요 프로그램	- 전시, 교육, 큐레이터 토크, 패널 토론 등 프로그램 조직 및 운영		

2011년도부터 매년 9월 마지막 주가 되면 바르샤바 현대미술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바르샤바갤러리 위켄드(Warsaw Gallery Weekend, 이하 WGW) 페스티벌이 바르샤바시 전역의 갤러리에서 열린다. 관람객들은 모든 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행사는 전시뿐 아니라 관련 이벤트와 함께 병행된다. 이벤트를 통해 일반 관람객들은 큐레이터 그리고 갤러리스트들과 만나 아트 마켓과 관련하여 최신 트렌드 및 기타 궁금증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일반인들에게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WGW에는 바르샤바 소재 갤러리가 매년 평균 30여 개 참여하여 풍성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클래식 사진, 비디오 아트, 페미니스트 아트, 정치 미술, 회화, 텍스타일 등의 전시 및 이벤트, 이미 해외 예술계에 선보인 적이 있는 젊은 세대의 작가들을 집중 조명하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함께 WGW에서만 볼 수 있는 전시와 이벤트를 준비하여 선보인다. 또한 이 기간에는 우야즈도브스키캐슬 현대예술센터(Ujazdowski Castle Centre for Contemporary Art), 자헨타국립미술관(Zachęta National Gallery of Art), 모던아트뮤지엄(Museum of Modern Art in Warsaw) 등 국립기관들과 협력하여 미팅, 토론, 가이드 투어 등을 진행한다.

홈페이지에 바르샤바 소재 갤러리에 대한 개관 및 지도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있어 바르샤바 소재 주요 갤러리의 개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바르샤바갤러리위켄드 ©warsawgalleryweekend



바르샤바갤러리위켄드 지도 ©warsawgalleryweekend

## 분키에르갤러리

### Bunkier Gallery of Contemporary Art / Galeria Sztuki Współczesnej Bunkier Sztuki

유형	국공립기관, 미술관	설립연도	1965년
운영주체	크라쿠프시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크라쿠프(Kraków)		
홈페이지 /SNS	bunkier.art.pl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미술 전시, 강연, 워크숍</li> <li>- Bunkier online: Bunkier 컬렉션의 작품들을 주제별 온라인 전시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필름, 비디오 작품들을 소개</li> </ul>		

분키에르갤러리(Bunkier Gallery of Contemporary Art)의 전신은 1950년 폴란드문화예술부(Central Bureau of Art Exhibitions, 이하 CBWA)의 크라쿠프 지부라 할 수 있다. 1962년 CBWA의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크라쿠프 지부는 BWA Exhibition Office로 바뀌었으며, 1965년에 슈체판스키 3a 플롯(Szczepański 3a plot)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른다.

이 건물은 폴란드에서 브루탈리즘을 반영한 몇 안 되는 건축물로, 1990년대까지 올드타운에서의 유일한 현대 건축물이었다. 1989년 이후 BWA가 크라쿠프시의 정부에 편입되고, 1994년 시립미술관이 되면서 이듬해인 1995년부터 상징적으로 갤러리아 슈투키 브스푸체스네이 분키에르슈투키(Galeria Sztuki Współczesnej Bunkier Sztuki)로 이름을 변경하게 된다.

2006년에 발간된 서적 슈투카 브 분크르제(Sztuka w Bunkrze)에 의하면, 벵커 현대 아트 갤러리의 아이디어는 이 장소가 가졌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크라쿠프를 넘어 현대 미술의 중심지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공간의 정신을 반영하여 현재 폴란드 및 국제 아티스트의 전시 및 강연,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분키에르갤러리 내부 ©이꼬까



분키에르갤러리 외관 ©이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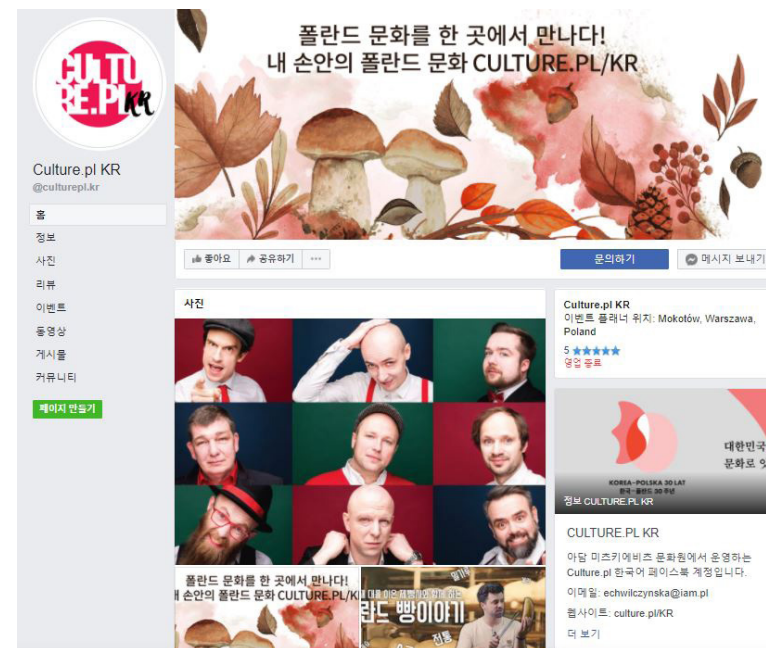
# 아담미츠키에비츠문화원 Adam Mickiewicz Institute(AMI) / Instytut Adama Mickiewicza(IAM)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2000년
운영주체	폴란드 문화유산부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바르샤바(Warszawa)		
홈페이지 /SNS	iam.pl culture.pl (컬처 폴란드) asia.culture.pl/pl (아시아 프로그램) www.facebook.com/InstytutAdamaMickiewicz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lture.Pl: 온라인 아카이브, 폴란드 문화예술 관련 정보 수록</li> <li>- Asia Programme: 한국, 중국, 일본에 폴란드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문화 협력 프로그램.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95개의 폴란드 문화 이벤트 후원.</li> <li>- Digital Culture: 시각예술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폴란드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하는 프로그램. 2020년 ‘상상의 미래’를 주제로 제4회 행사 개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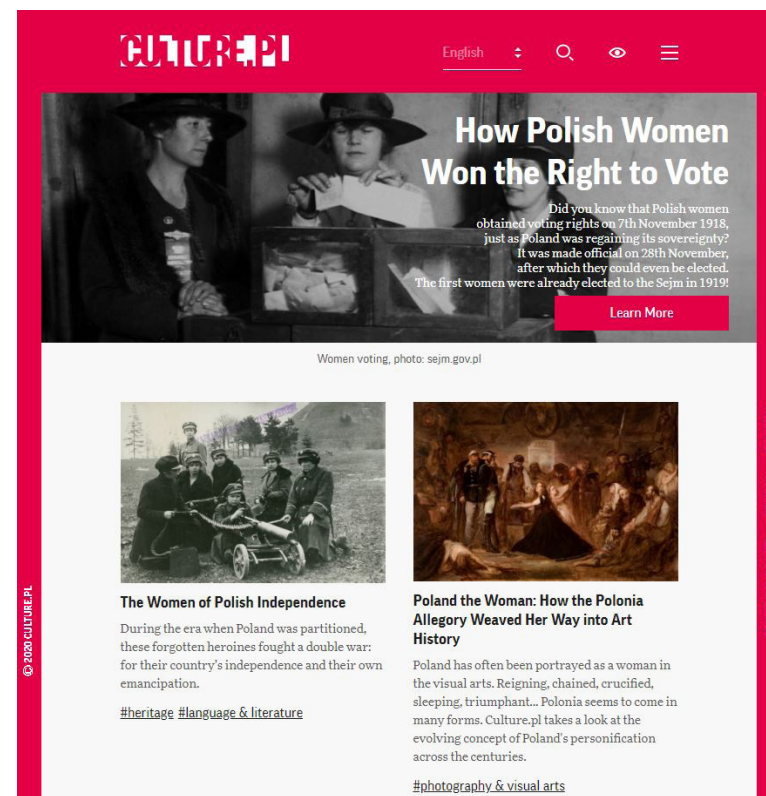
아담미츠키에비츠문화원(Adam Mickiewicz Institute, AMI)은 폴란드 문화유산부의 산하 기관으로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폴란드의 문화 및 문화유산을 세계에 소개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를 확장하며 폴란드 문화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폴란드의 문화를 해외 예술가들의 영감으로’라는 비전으로, 문화원은 70여 국가와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016년 기준 5,500여 이벤트를 진행, 52만 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문화원은 플래그십 브랜드인 컬처폴란드(CULTURE.PL) 웹 사이트를 200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웹 사이트는 아담미츠키에비츠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폴란드의 지역별 주요 예술기관, 행사 등을 소개함은 물론, 폴란드의 음악, 영화, 공연, 시각예술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한 온라인 아카이브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2020년도 11월 현재 총 1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아시아 프로그램(Asia Programme)은 2010년에 시작하여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지역으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부산국제영화제, 국제교류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확장해 가고 있다.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문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아담미츠키에비츠문화원 한국어 페이스북 페이지 ©AMI



아담미츠키에비츠문화원 culture.pl 영문 페이지 ©AMI

## 우야즈도브스키캐슬 현대예술센터

### Ujazdowski Castle Centre for Contemporary Art / Centrum Sztuki Współczesnej Zamek Ujazdowski

유형	국공립기관, 아트센터	설립연도	1981년
운영주체	폴란드정부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융·복합
소재지	바르샤바(Warszawa)		
홈페이지 /SNS	<a href="http://u-jazdowski.pl">http://u-jazdowski.pl</a> <a href="http://obieg.u-jazdowski.pl/en">http://obieg.u-jazdowski.pl/en</a> (오비에그)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퍼포먼스, 연극, 현대 음악, 실험 영화, 비디오 아트, 창의 워크숍</li> <li>- 레지던시, 네트워킹, 공동제작, 연구 사업</li> <li>- Project Room: 2012년에 시작된 신진 작가들을 위한 전시 시리즈, 2019년 기준 111명의 작가들과 88개의 전시를 진행</li> </ul>		

우야즈도브스키캐슬 현대예술센터(Ujazdowski Castle Centre for Contemporary Art, 이하 CCA)는 전시, 퍼포먼스, 연극, 현대 음악, 실험 영화, 비디오 아트, 창의 워크숍 등 현대 예술 모든 장르의 창작(Creation)과 기록(Documentation)을 장려하기 위해 1981년 시작되었다. 폴란드 최초의 컨템퍼러리 아트센터로, 새로운 특성과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예술 분야가 서로 공존하고 교류하며 그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예술과 사회, 학제 간, 다양한 형태의 협업, 네트워킹, 공동제작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

현재 사용 중인 바로크 캐슬의 형태를 지닌 건물은 17세기 초에 건립, 군사 병원으로 사용되다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재건된 곳을 개조한 곳으로 매년 500여 개의 다양한 이벤트와 해외 작가 및 큐레이터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시각 예술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만 있었으며 작가와 큐레이터의 레지던시 및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교류에 관심 있다.

CCA 온라인 매거진 오비에그(Obieg)는 다양한 큐레이토리얼 담론과 알찬 정보들이 폴란드어와 영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의 매거진 게재 신청도 받고 있다.



우야즈도브스키캐슬 현대예술센터 외관 ©이꼬까



우야즈도브스키캐슬 현대예술센터 전시장 ©이꼬까

# 유럽연대센터

## European Solidarity Centre / Europejskiego Centrum Solidarności(ESC)

유형	국공립단체	설립연도	2014년
운영주체	그단스크시	장르	문화예술일반, 역사
소재지	그단스크(Gdańsk)		
홈페이지 /SNS	www.ecs.gda.pl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설 전시, 교육, 연구 사업</li> <li>- The European Forum: 유럽인들 사이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 문화, 교육 및 역사 프로젝트</li> </ul>		

1998년 3월, 당시 그단스크 시장이었던 파베우 아다모비츠(Paweł Adamowicz)와 역사학자 예르지 쿠 크린스키(Jerzy Kukliński)에 의해 박물관 건립에 대한 프로젝트가 발의되어 1999년 12월 유럽연대센터(European Solidarity Centre, 이하 ECS) 건립을 위한 재단이 발족, 이후 여러 해 준비를 통해 2014년 8월 31일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ECS 두 개 총 3,000㎡ 공간에는 총 7개의 세부 주제로 상설 전시를 마련, 1980년 8월 파업부터 1989년까지 중·동 유럽 지역의 연대(Solidarity) 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변화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상설 전시는 폴란드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공산주의 국가의 삶이 어떠했으며, 민주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영상, 음향 및 터치스크린 등 관람객이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자동재생 설명 기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2016년에는 폴란드 박물관으로는 유일하게 유럽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공로를 인정받아 유럽박물관협의회 상(The Council of Europe Museum Prize)을 받았다.

또한, 자리마다 음성 통역기 및 조명, 음향 시설이 잘 갖추어진 콘퍼런스 실과 상설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상품이 인상적인 뮤지엄 숍도 갖추고 있다.



유럽연대센터 상설 전시 전경 ©이꼬까



유럽연대센터 외부 ©이꼬까

# 자행타국립미술관

## Zachęta National Gallery of Art / Zachęta Narodowa Galeria Sztuki

유형	국공립단체, 미술관	설립연도	2003년
운영주체	자행타국립미술관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바르샤바(Warszawa)		
홈페이지 /SNS	<a href="https://zacheta.art.pl">https://zacheta.art.pl</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 전시, 소장품 전시, 예술 교육, 예술 자료실, 출판</li> <li>- Venice Biennale Project: 베니스 비엔날레 폴란드관 큐레이팅, 역대 출품작 전시</li> </ul>		

자행타국립미술관(Zachęta National Gallery of Art)은 2003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불려오고 있으나, 그 주체이자 전신이라 할 수 있는 TZSP(The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Fine Arts)의 활동은 1860년대부터 시작된다. TZSP는 당시 러시아의 점령을 받고 있던 폴란드에서 폴란드의 예술을 전시하고 수집한 첫 기관이었다.

자행타국립미술관은 세계 제2차 대전 기간 모든 작품을 바르샤바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in Warsaw)으로 옮기고 건물을 독일문화원(Haus der Deutschen Kultur)으로 내어주는 등 폴란드 역사와 함께 많은 굴곡을 겪으며 잠시 활동이 주춤하기도 했다. 하지만 1945년 자행타국립미술관의 건물을 재건하며 재기를 다짐, 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가 잠식되고 TZSP의 활동이 완전히 재개되면서 현재까지 현대미술을 대중화하고, 예술 의식을 확산하며 폴란드 젊은 작가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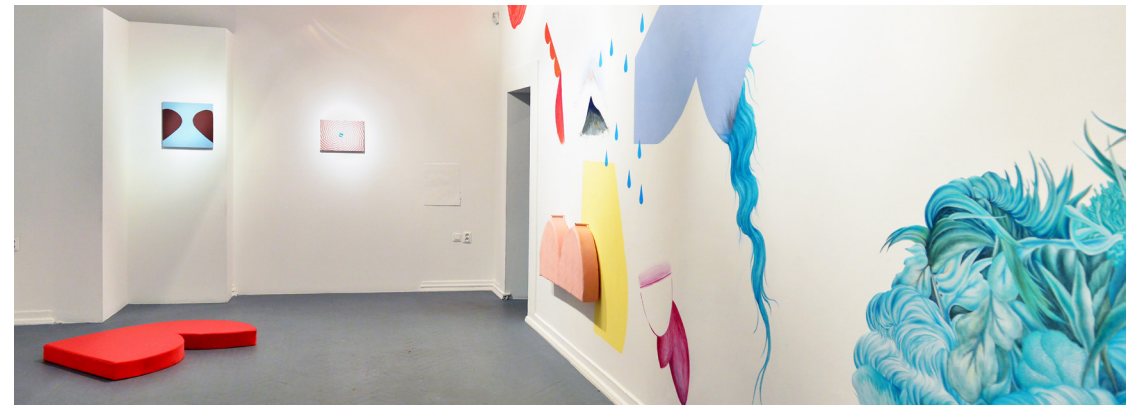
자행타프로젝트룸(Zachęta Project Room, 이하 ZPR)은 예술적인 실험을 위한 플랫폼으로 폴란드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들을 소개하고 예술가 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본관과 별개의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행타국립미술관은 2006년부터 ZPR의 전신 격인 프로젝트를 외부 갤러리 공간에서 진행해 왔는데, 2012년도 현재의 상설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자행타국립미술관 내부 전시장 ©이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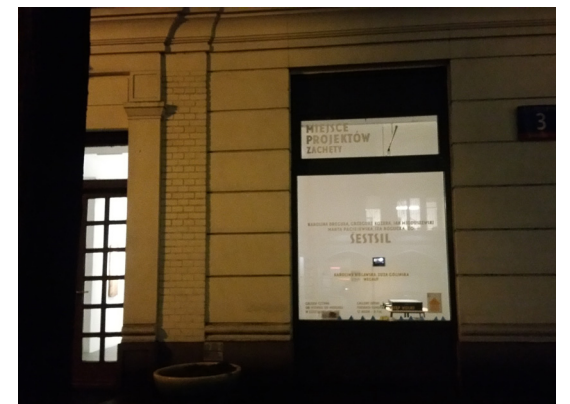
자행타국립미술관 본관 내부 ©이꼬까



자행타국립미술관 프로젝트룸 전시 ©이꼬까



자행타국립미술관 본관 외관 ©이꼬까



자행타국립미술관 프로젝트룸 외관 ©이꼬까

# 타우론노바뮤지카축제

## Tauron New Music Festival /

### Tauron Nowa Muzyka Katowice

유형	민간단체, 축제	설립연도	2006년
운영주체	타우론노바뮤지카, 카토비체시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카토비체(Katowice)		
홈페이지 /SNS	festiwalnowamuzyka.pl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음악 공연</li> <li>- TNMK.online: 페스티벌 전용 인터랙티브 플랫폼, 아티스트들이 녹화한 콘서트, 클럽 이벤트, 라이브 취재 및 '원격' 콘서트 등을 방송</li> </ul>		

2020년 제15회를 맞은 타우론노바뮤지카축제(Tauron New Music Festival)는 힙노자(Hipnoza) 음악 클럽과 연결된 친구들이 그들만의 음악 축제를 조직하기로 결정하면서 2006년 카토비체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DJ Krush, Sweizak, Christian Vogel은 지금은 사라진 윌슨 샤프트(Wilson shaft)에서 공연을 했고, 이후 치에신(Cieszyn)에서 두 번 개최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카토비체로 돌아왔다. 2014년부터는 폐광된 보구치체(Bogucice) 지역의 카토비체 탄광 부지에 조성된 카토비체 문화존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시작 때부터 재즈, 일렉트릭, 댄스 뮤직과 비슷한 장르가 아닌 가장 흥미로운 현대 음악을 선보이길 원했고, 미래적인 사운드와 산업화 이후의 장소적 결합에 힘입어 이 축제는 빠르게 고정 관객을 확보해나갔다. 주최 측에서는 전위적인 아이디어와 수천 명의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의 신진, 유명 뮤지션들을 선발해왔고, 디제이 크러시(DJ Krush), 프리퓨즈 73(Prefuse 73), 제이미 리델(Jamie Lidell), 아몽 토빈(Amon Tobin), 플라잉 로투스(Flying Lotus), 배틀즈(Battles), 보노보(Bonovo), 피버 레이(Fever Ray) 등이 폴란드에서 처음 공연한 곳이 되었다.

2019년 카토비체시와 공동 주최한 나흘간의 페스티벌에 2만 5천 명이 넘는 관객을 기록했으며, 2010, 2012, 2014년 유럽 축제 시상식에서 최고 유럽 소규모 축제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1년 축제는 6월 3일에서 6월 6일로 예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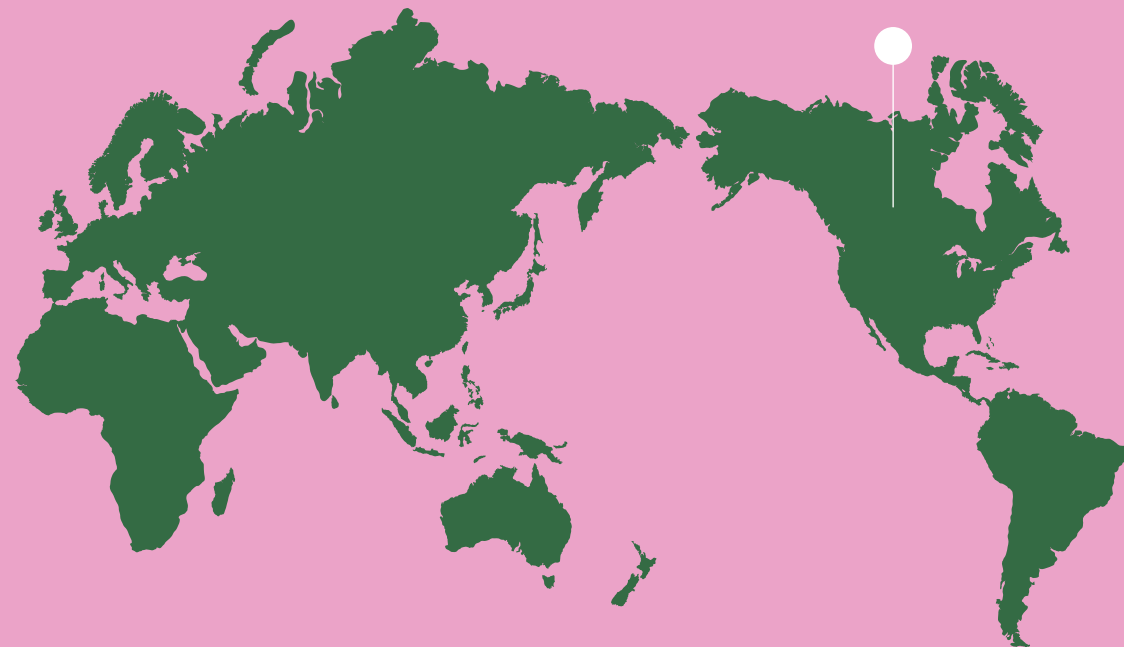
타우론노바뮤지카축제 ©TauronNova



타우론노바뮤지카축제 ©TauronNova

북미 → 캐나다

North America → Canada



- p.280 국가소개
- p.282 국립예술센터  
National Arts Center
- p.284 문화인적자원위원회  
Cultural Human  
Resources Council
- p.286 밴쿠버포크뮤직페스티벌  
Vancouver Folk Music  
Festival
- p.288 밴프센터  
Banff Centre for Arts and  
Creativity
- p.290 슬래드아일랜드페스티벌  
Sled Island Music & Arts  
Festival
- p.292 에드먼턴거리예술축제  
Edmonton International  
Street Performers Festival
- p.294 인디피니트아트센터  
Indefinite Arts Center
- p.296 캐나다국립미술관  
National Gallery of  
Canada
- p.298 캐나다안스테이지  
Canadian Stage
- p.300 캘거리포크뮤직페스티벌  
Calgary Folk Music  
Festival
- p.302 토후  
TOHU
- p.304 푸시페스티벌  
PuSh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 캐나다 Canada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 캐나다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나라 캐나다는 대륙의 1/3은 사람이 살기 힘든 지형이다. 짧게 캐나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태초에는 소수의 인디언이 살고 있었으며, 실제 캐나다라는 지명은 인디언 이 로코이족의 언어인 카나타(Kanata, 부락이라는 뜻)가 어원이라고 한다. 17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캐나다의 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고, 이 두 국가는 1756년부터 1763년까지 7년간 캐나다 내에서 국토 전쟁을 벌였으며, 영국군이 퀘벡과 몬트리올을 점령하면서 영국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캐나다는 영국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1876년 캐나다 자치령으로 독립을 하고, 최종 1982년 캐나다 최초의 헌법이 선포되면서 영국과의 법적 연속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두산백과 '캐나다의 역사' 참고)

## 다문화사회,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된 캐나다

영국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캐나다 여왕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로, 그녀가 국가의 수반이다. 여왕의 권한은 대리권자인 캐나다 연방 총독이 대신 행사하고 있다. 3천 2백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매년 2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1971년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한 나라이다. 200여 개 민족 집단이 캐나다에 어울려 살고 있으며, 현재 이민자는 캐나다 인구 성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캐나다 다문화주의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은 서로 태생이 다른 개인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교류는 물론, 캐나다 사회의 모든 민족의 완전하고 공평한 참여도 복돋우고 있다.



지도상으로 보면 캐나다는 총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주는 수도 오타와가 있고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Ontario)와 캐나다 제3의 대도시인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로키산맥을 품고 있는 앨버타주(Alberta), 마지막으로 북서쪽으로 캐나다 제2의 대도시 몬트리올이 있는 퀘벡주(Quebec)가 있다.

캐나다의 문화예술 정부 기관을 살펴보면, 캐나다 문화유산부(Canadian Heritage)가 있고 그 아래 3명의 장관이 있다. ①문화유산 및 다문화 장관(Minister of Heritage and Multiculturalism), ②관광 및 공용어(영어, 불어) 장관(Minister of Tourism, Official Languages and La Francophonie), ③과학과 스포츠 장관(Minister of Science and Sport). 또한 문화유산부 내에 지원사업(Funding)이 40여 개가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물론 원주민 지원, 인종차별 금지, 문화유산 보호, 스포츠, 매거진, 미디어, 공용어, 청년예술가 인턴십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다.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services/funding.html> 참고)

문화유산부 산하 기관으로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가 있으며, 캐나다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2017~18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 총액은 205억 달러, 총 5,951건을 지원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작품 제작 및 발표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지원사업에 총 12개 장르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 국립예술센터 National Arts Center(NAC)

유형	국공립기관, 아트센터	설립연도	1969년
운영주체	국립예술센터	장르	문화예술일반, 공연예술
소재지	오타와(Ottawa)		
홈페이지 /SNS	<a href="https://nac-cna.ca/en/">https://nac-cna.ca/en/</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케스트라, 무용, 연극, 커뮤니티 프로그램</li> <li>- 시즌제 공연예술 프로그램 운영</li> <li>- 창작지원 프로그램</li> </ul>		

1969년에 오픈한 캐나다 국립예술센터(National Arts Center, 이하 NAC)는 오케스트라, 무용, 영어 연극, 프랑스 연극, 원주민 연극,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다루고 있다. 2019년 50주년을 맞이하여 NAC의 새로운 로고를 발표하고 NAC 브랜드를 강조하며 중요한 이벤트 50개를 발표하고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NAC 오케스트라분야에서 35년 일을 한 크리스토퍼 디콘(Christopher Deacon)이 최고 경영자(CEO)로 임명되었으며, 이는 NAC 역사상 조직 내 처음으로 최고 경영자가 임명된 사례였다.

총 4개의 홀을 가지고 있다.[1] 그 이외에도 극장 내 오픈된 공간이 있어 무료 이벤트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시즌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22년 시즌에 한국단체 초청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작품 초청의 기준은 캐나다 관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인가와 예산과 스케줄이 잘 맞아야 한다고 한다. 한 나라를 특정해서 포커스하는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하며, 2020년에는 노르딕 국가가 포커스 국가로 지정되어 운영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공연 라이브 스트리밍, 팟캐스트를 통한 예술가 인터뷰, NAC 오케스트라 아카이빙 공연 청취 및 클래식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온라인 전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NAC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 중 창작지원(National Creation Fund) 프로그램이 있는데, 2017년 1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최대 3백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캐나다 전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새로운 작품을 지원한다.

[1] Southam Hall(2,076석), Babs Asper Theater(897석), Azriel Studio(305석), Forth Stage(160석)



국립예술센터 커뮤니티 프로그램 ©Trevor Lush



국립예술센터 공간 ©Trevor Lush



국립예술센터 전경 ©NAC

## 문화인적자원위원회

### Cultural Human Resources Council(CHRC)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1995년
운영주체	문화인적지원위원회 이사회	장르	문화예술일반
소재지	오타와(Ottawa)		
홈페이지 /SNS	www.culturalhrc.ca / http://respectfulartsworkplaces.c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종사자의 훈련 및 경력 개발 지원</li> <li>- 교육 훈련 프로그램, 노동 시장 정보 보고서, 청년 예술가 인턴십 프로그램</li> <li>- ‘예술 분야의 존경 받는 직장’ 프로젝트</li> </ul>		

문화인적자원위원회(Cultural Human Resources Council, 이하 CHRC)는 문화예술 분야 및 문화산업 대표자들을 모아 해당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예술가, 기술직원, 관리자 및 기타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고용주 및 문화예술 근로자의 훈련 및 경력 개발 요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 부문은 라이브 공연예술, 작문 및 출판, 시각예술 및 공예, 영화 및 TV, 방송, 디지털 미디어, 음악 및 사운드 녹음, 문화유산으로 구분된다. 캐나다 통계청의 문화 통계 프로그램에 따르면 약 600,000명의 캐나다인이 문화 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거의 70%가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문화 노동자들은 경제에 약 480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20년 동안 문화예술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CHRC가 추진한 프로젝트 중 ‘예술 분야의 존경받는 직장(Respectful Workplaces in the Arts)’은 캐나다 전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문화예술 직장(조직)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존경받는 직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원 제공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예술연합(Canadian Arts Coalition, CAC)은 2015년도부터 3년간 재무장관에게서 예술 분야 직장 내 괴롭힘 없이 서로 존중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절차, 도구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후, 캐나다 예술위원회와 캐나다 문화유산부의 지원을 받아 자금을 조성한 후 <예술 분야의 존경받는 직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는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피해 사실 보고 시스템 및 트레이닝 등 가이드 리서치를 추진하고 2단계로는 강사 교육 세션(영어, 불어)을 준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할 수 있는 강사를 배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술 분야 안에서도 장르별 특수성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동영상 파일과 가이드라인 문서 등을 통해 시각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보고하고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는데, 사례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진행된 사유와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간 과정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을 발표하고 공연예술 조직에 이를 동참해주시기를 권장하고 있다. 내용에는 예술 조직에서 일하는 예술가, 일반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추구해야 하는 요구들과 CHRC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약속을 담았다.

이 프로젝트 이외에도 CHRC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커리어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노동 시장 정보 보고서 연구, 청년 예술가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인적자원위원회 Respectful Workplaces in the Arts ©CHRC

# 밴쿠버포크뮤직페스티벌

## Vancouver Folk Music Festival(VFMF)

유형	축제	설립연도	1978년
운영주체	밴쿠버포크뮤직페스티벌 소사이어티 (Vancouver Folk Music Festival Society)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밴쿠버(Vancouver)		
홈페이지 /SNS	<a href="https://thefestival.bc.ca">https://thefestival.bc.ca</a>		
주요 프로그램	- 포크 음악, 월드 음악 프로그램 등 페스티벌 프로그램 구성		

밴쿠버포크뮤직페스티벌(Vancouver Folk Music Festival)은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많은 페스티벌 중 가장 사랑받는 축제 가운데 하나이다. 매년 7월 셋째 주 주말에 제리코 해변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4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전통과 현대 양식의 포크 음악, 월드 음악 등을 주요 콘텐츠로 한다.

1978년 설립되어 스탠리 파크(Stanley Park)에서 개최되었으나, 2년 차에 제리코 해변 공원(Jericho Beach Park)으로 옮겨 개최되었다. 초기에는 1979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밴쿠버포크뮤직페스티벌 소사이어티(Vancouver Folk Music Festival Society)에서 운영하면서 자체 음반사 및 배급회사인 페스티벌 레코드(Festival Records)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2019년 페스티벌에는 한국의 예술단체 블랙 스트링(Black String)이 초청되어 공연하기도 했다.

축제를 통해 예술적 우수성(Artistic Excellence),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 and Inclusiveness), 환경적인 소명(Environmental Stewardship), 사회 정의(Social Justice)를 핵심 가치로 표방하고 있다. 페스티벌 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관련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페스티벌 현장에서는 플라스틱병을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수는 현장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대신 텀블러를 제공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오프라인에서 페스티벌을 진행할 수 없어서, 클러치극장(Historic

Theatre, The Cultch)에서 촬영된 무료 라이브 공연 'VFMF애틀홈(VFMF at Home)'을 웹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하였다. 제프 버너(Geoff Berner)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아티스트 및 밴드가 참여하였다. 그 이외 집에서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페스티벌 빙고 게임을 제공하였으며, 빙고 카드를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했고, 몇 명을 선정하여 페스티벌 티셔츠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수익의 약 80%가 부족한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어 다양한 기부금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 중 '페스티벌 50/50' 프로그램은 총 2,800장의 티켓을 단일 티켓은 10달러, 3매의 티켓 패키지는 20달러로 판매하여 선정된 1명에게는 판매수익의 절반을 지급하는 복권 형식의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밴쿠버포크뮤직페스티벌 ©VFMF



밴쿠버포크뮤직페스티벌 ©VFMF David Niddrie

# 밴프센터

## Banff Centre for Arts and Creativity

유형	아트센터	설립연도	1933년
운영주체	밴프센터재단 (Banff Centre Foundation)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소재지	밴프(Banff)		
홈페이지 /SNS	www.banffcentre.c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복합 기관</li> <li>-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디지털, 원주민 예술 프로그램</li> <li>- 레지던시, 워크숍, 연구 사업, 실습 프로그램</li> </ul>		

1933년 앨버타 대학교에서 설립하였고 이후 카네기재단의 지원을 받아 드라마 과정을 시작으로 미술, 예술 프로그래밍, 콘퍼런스 등 점차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나아갔다. 이후 1970년 지속 교육을 위한 밴프센터(Banff Centre for Continuing Education)로 기관명을 바꾸면서 자율권을 가지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드라마 스쿨은 물론 극작가, 음악, 공예, 도자기, 필름, 오페라, 사진, 디자인, 무용, 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6년 지금의 밴프센터(Banff Centre for Arts and Creativity)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교육기관을 넘어서 창의적인 문화예술 복합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간단히 주요 장르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그리고 문학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디지털, 원주민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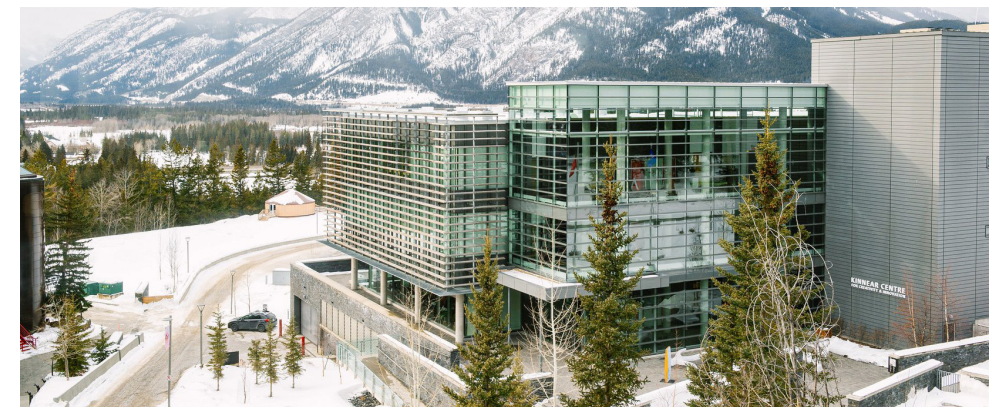
공연예술 분야는 무용, 음악, 오페라, 극작가 랩, 연극, 연극 제작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연 장소로 극장과 스튜디오가 있으며, 리허설 스튜디오를 비롯하여 창작(의상, 디자인 등) 공간을 가지고 있다. 장르별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레지던시와 봄/가을로 구분되는 시즌 레지던시 프로그램, 워크숍, 랩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있다.

시각예술 분야는 아티스트, 큐레이터, 비평가, 리서치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실습 프로그램이 있으며, 월터필립갤러리(Walter Phillips Gallery)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티스

트 스튜디오, 세라믹, 디지털 이미지 작업, 드로잉과 페인팅, 사진 스튜디오 등 시각예술 작업을 위한 전반적인 시설이 있다. 신진예술가 레지던시 및 기간별 레지던시 프로그램, 심포지엄, 큐레토리얼 리서치 실습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있다.

문학 분야의 사업은 신진작가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과 집중된 시간을 제공하며 모든 장르의 작가들에게 문학적 성공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간별(장기, 단기) 프로그램과 함께 사서 실습 및 아카이브 실습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 이외에도 밴프 지역을 잘 활용한 밴프 산악영화제(Banff Centre Mountain Film Festival)는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산악영화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월터필립스갤러리는 일시적으로 폐쇄하였고, 재니벨츠베르그극장(Janey Belzberg Theatre)의 모든 투어 프로그램을 연기하기로 결정, 밴프센터 산악영화제 및 북 페스티벌은 온라인으로 가상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이외 현대무용 워크숍, 상상력 글쓰기, 21세기 오페라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밴프센터 ©Banff



밴프센터 야외공연 ©Banff

# 슬래드아일랜드페스티벌 Sled Island Music & Arts Festival

유형	축제	설립연도	2007년
운영주체	슬래드아일랜드페스티벌 조직위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캘거리(Calgary)		
홈페이지 /SNS	www.sledisland.com		
주요 프로그램	- 음악, 영화, 전시, 코미디 프로그램 - 아티스트 토크, 패널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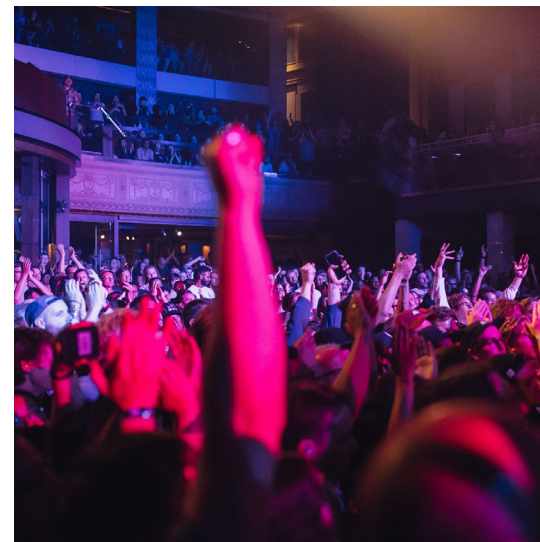
슬래드아일랜드페스티벌(Sled Island Music & Arts Festival)은 다양하고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독특한 축제로, 매년 6월에 5일간 개최된다. 음악 공연은 물론 영화, 전시, 코미디 프로그램 등이 30개 장소에서 진행된다. 약 4만 명 이상의 관객이 방문하며 2019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센터스테이지코리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한국의 2팀이 공연을 하였다.

페스티벌의 특이한 점은 매년 게스트 큐레이터를 선정하여 축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게스트 큐레이터는 캘거리 전역의 30개 장소에서 약 2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협력한다. 홈페이지에는 역대 게스트 큐레이터의 이름과 그들이 선정한 단체들의 목록을 함께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면서, ‘레모네이드스탠드(The Sled Island Lemonade Stand)’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6월 22~28일까지 유·무료 온라인 공연, 영화 상영, 코미디쇼 ‘래프콘(Laugh-con 2020)’ 및 팟캐스트, DJ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선보였다. 또한, 기존 페스티벌에서 진행되었던 음원을 장소별로 구분하여 스포티파이(Spotify) 플레이리스트로 제공하였다. 그 이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기존 페스티벌 영상을 매일 하나씩 서비스하였다.

그 이외 최근에는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바이타(Byta)와 함께 인터넷 라디오 ‘테트아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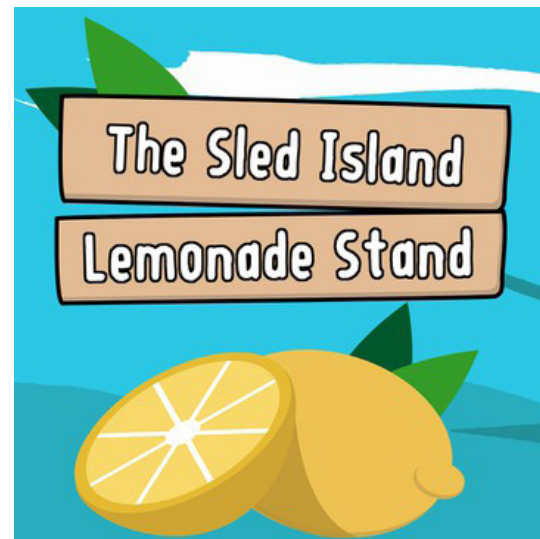
(Tête-à-Têtes)’ 시리즈 ‘락다운 라디오(Lockdown Radio)’를 발표하였다. 이는 격월 시리즈로 기존 뮤지션 및 업계 리더들과 신인 뮤지션들 간의 대화로 진행되며, 최근 전례 없는 변화를 겪은 업계에서 음악 제작의 창의적, 기술적, 재정적, 사회적 측면에서 대화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티스트 토크 및 패널 토론 등이 포함된다.



슬래드아일랜드페스티벌 ©Mike Tan



슬래드아일랜드페스티벌 통계 ©Sled Island



슬래드아일랜드페스티벌 Lemonade Stand 프로그램 홍보 ©Sled Island



슬래드아일랜드페스티벌 Tête-à-Têtes 프로그램 홍보 ©Sled Island

## 에드먼턴거리예술축제

### Edmonton International Street Performers Festival

유형	축제	설립연도	1981년
운영주체	에드먼턴거리예술축제 소사이어티(Edmonton International Street Performers Festival Society)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에드먼턴(Edmonton)		
홈페이지 /SNS	<a href="http://edmontonstreetfest.com">http://edmontonstreetfest.com</a>		
주요 프로그램	- 거리예술, 서커스 공연 - 관객 기부형 공연 운영		

에드먼턴거리예술축제(Edmonton International Street Performers Festival)는 1981년 처음 개최된 거리예술축제로, 북미에서는 가장 처음 개최된 거리예술 축제이면서 가장 오래된 축제다. 2019년이 35주년을 맞이한 해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크게 열렸다. 매년 7월 첫째 주에 10일간 에드먼턴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진행되는 페스티벌로, 평균 4백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도심의 상점과 레스토랑의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에드먼턴 예술위원회(Edmonton Arts Council)에 따르면, 에드먼턴 내에 58개의 페스티벌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이외 신생 페스티벌도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어 매년 최소한 60개가 넘는 페스티벌이 에드먼턴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한다.

운영 조직은 작은 규모로 평상시에는 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페스티벌 기간에는 6명의 직원을 임시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축제의 역사가 긴 만큼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축제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10년 이상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이 중 28년째 매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분도 있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이후 관객이 원하는 만큼 예술가에게 지불하는 형식이다. 모든 수익

은 예술가가 가져가게 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한국의 크로키키브라더스(Croquiky Brothers)가 초청되어 공연하였다. 축제의 프로듀서 셸리 스위처(Shelley Switzer)는 크라이스트처치페스티벌(Christ Church Festival)의 관계자가 영상을 보여줘서 한국 단체를 알게 되었고, 퍼포먼스 방식이 창의적이고 독특하여 초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예술가 초청은 예술가들이 직접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거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 다른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직접 관람한 작품, 혹은 다른 프로듀서들에게 추천을 받는 등 다양하게 작품을 직접 다 살펴보고 초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프로듀서 셸리 스위처는 32년을 에드먼턴 거리예술 축제에서 일하였으며, 처음 11년은 자원봉사 매니저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아티스트 프로듀서로 21년째 일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42건의 예술단체를 초청하였으며, 매일 3개의 공연이 구성, 이외에 아이들을 위한 워크숍 및 소규모 이벤트들이 상시로 진행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축제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기존의 참여 공연을 유튜브를 통해 상영하거나,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워크숍을 영상으로 서비스하고, 역대 페스티벌의 사진, 영상을 비롯하여 참여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에드먼턴거리예술축제 ©Edmonton Festival



에드먼턴거리예술축제 ©Edmonton Festival



에드먼턴거리예술축제 ©Edmonton Festival

# 인디피니트아트센터 Indefinite Arts Center(IAC)

유형	아트센터, 비영리기관	설립연도	1975년
운영주체	앨버타주정부, 앨버타예술재단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캘거리(Calgary)		
홈페이지 /SNS	<a href="https://ouriac.ca">https://ouriac.ca</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 지원, 예술 교육, 작품 활동, 전시회</li> <li>- 창작, 제작 작업 공간 운영, 장애 예술가들의 활동 지원</li> </ul>		

인디피니트아트센터(Indefinite Arts Center, 이하 IAC)는 1975년 설립된 기관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규모가 큰 비영리 장애예술인 조직이다. 현재는 약 300여 명의 지체 장애와 발달 장애를 가진 예술가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예술의 주요 거점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브랜딩되어 내셔널엑세스아트센터(National accessArts Centre)로 새로운 시설을 재조성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각예술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장애무용단, 신체장애를 가진 성인을 위한 예술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캐나다 최초의 종합 장애예술 조직이 되어, 시각예술, 문학, 음악, 무용 및 기타 공연 예술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신체 및 발달장애가 있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IAC에 속한 예술가들은 기본적인 예술 교육부터 작품 활동 및 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2018년에는 한국 이음센터에서 약 30여 명의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가 진행된 적이 있으며, 2019년에는 김현우(Pixel) 작가의 작품을 캐나다 3개 지역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주관하여 운영하였다.

IAC 건물 내에는 시각예술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들의 작품들도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 소속 예술가들은 페인팅 작업, 공예, 드로잉 등 다양한 작업을 지원을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IAC는 한번 소속 예술가가 되면 본인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고 한다. 2019년도까지는 예술가들의 작업이 시각예술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다양한 예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리모델링을 하여 공간을 확장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내셔널엑세스아트센터(National accessArts Centre, NaAC) 프로젝트는 2,150만 캐나다달러가 투입되는 규모이며, 북미에서 최초의 다원예술 커뮤니티이자 전문적인 아트 허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IAC에서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IAC에서 NaAC로 단체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며, 조만간 새로운 웹 사이트 오픈과 2021-2026년 전략기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디피니트아트센터 ©IAC



인디피니트아트센터의 새로운 조감도 (National accessArts Centre, DIALOG Architects) ©IAC

# 캐나다국립미술관

## National Gallery of Canada

유형	국공립단체, 미술관	설립연도	1988년
운영주체	캐나다국립미술관재단	장르	시각예술
소재지	오타와(Ottawa)		
홈페이지 /SNS	www.gallery.c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화, 조각, 설치 미술, 사진 및 비디오 포함 시각예술 작품 전시</li> <li>- 투어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이벤트 진행</li> </ul>		

캐나다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Canada)은 1988년 오픈 이래, 캐나다에서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의 미술관 건축은 모셰 사프디(Moshe Safdie)가 설계하였는데, 건물의 지붕과 벽면이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채광과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워 오타와에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필수 방문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문을 잠시 닫았다가 다시 재개장하였으며, 영업시간을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투어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이벤트 등은 취소가 되었고 갤러리 전시 운영만 하고 있다.

국립미술관은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뒤를 잇는 규모로 25,000여 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태생의 미국 추상표현주의 조각가이자 현대 미술의 대모로 불리는 루이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의 작품 ‘마망(Maman)’이 설치된 것으로 유명하며, 거대한 거미의 모습을 한 마망이 미술관 앞에 자리하고 있다. 그 이외 클림트, 세잔, 드가, 고흐, 렘브란트, 마티스, 모네, 르누아르 등 저명한 유럽 화가들의 작품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의 미술, 판화, 사진, 공예품도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6월 캐나다 및 원주민 갤러리가 새롭게 오픈하였는데, 이는 건물 개관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갤러리의 새로운 변신이었다. 이누이트, 메티스, 퍼스트 네이션 예술가들의 역사적인 토착 조각품 및 예술작품 포함하여 회화, 조각, 장식 예술, 사진 및 비디오를 포함하여 800여 개의 캐나다 및 원주민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큐레이터, 지식인 및 기타 공

인 기관 등으로 구성된 두 개의 원주민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시 내용의 해석 및 전시 프로토콜 등 지침을 제공하였다. 전국의 17개 원주민 언어로 50개 이상의 갤러리 텍스트를 제작하고 원주민 커뮤니티와도 지속적인 협력을 하였다. 최근에는 에이와이 잭슨(AY Jackson), 로렌 해리스(Lawren S. Harris), 조지 베르통(George T.Berthon), 루벤 코망가픽(Ruben Komangapik), 팀 피술락(Tim Pitsiulak), 에밀리 카(Emily Carr)와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도 인수하여 225개 작품이 추가되었다.



캐나다국립미술관 도슨트 투어 ©NGC



캐나다국립미술관 ©Ottawa Tourism

# 캐나다인스태이지 Canadian Stage

유형	비영리기관, 공연장	설립연도	1987년
운영주체	캐나다인스태이지	장르	공연예술, 융·복합
소재지	토론토(Toronto)		
홈페이지 /SNS	www.canadianstage.com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템퍼러리 공연예술 프로그램</li> <li>- 실내 극장 및 야외무대 운영</li> <li>- 시즌 프로그램 기획, 구성</li> </ul>		

캐나다인스태이지(Canadian Stage)는 캐나다 내 컨템퍼러리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기관 중 하나로 다양한 형식의 공연예술을 선보이고 제작하는 극장이다. 토론토 내 3개의 극장을 가지고 있으며, 블루마아펠극장(Bluma Appel Theatre), 버클리스트리트극장(Berkeley Street Theatre), 하이파크원형극장(High park Amphitheater)이다.

1987년 대안극장인 3개의 극장이 합쳐지면서 캐나다인스태이지가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컨템퍼러리한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원예술, 융·복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던 힐리(Brendan Healy)가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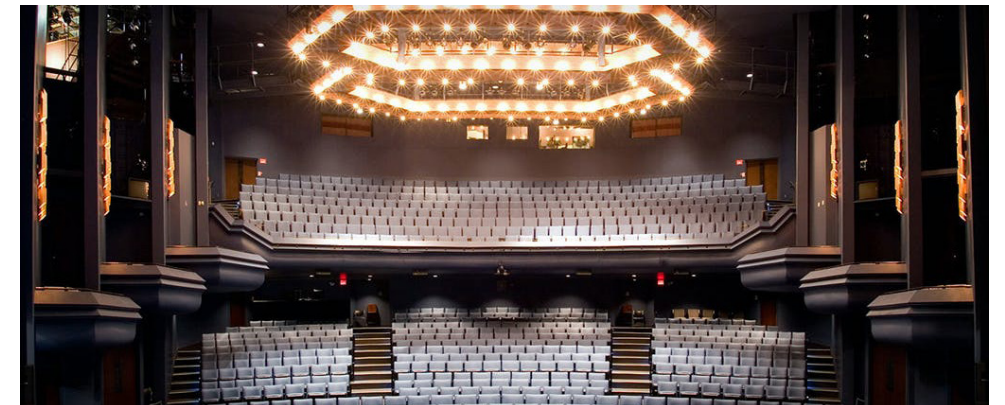
메인 공연장인 버클리스트리트극장은 중·소규모의 공연장이 2개 있으며, 큰 규모의 작품도 매년 5편 정도는 진행되고 있다. 이보다 규모가 큰 작품은 다른 극장을 빌려서 공연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이파크원형극장은 토론토 내 공원 안에 있는 야외무대로 여름 시즌에만 셰익스피어 작품을 무료로 공연하는 공간이다.

극장 공연의 메인은 시즌제로 운영되며, 라인업을 미리 계획하여 연말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19 대유행 여파로 지속가능한 컨템퍼러리 라이브 퍼포먼스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이는 총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투자(Invest)로, 디지털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술가들 주도로 이뤄지는 조사 및 유료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탐색(Explore)으로, 새로운 형태의 라이브 공연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지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실천을 위한 AI,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과 관련된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새로운 작업의 긴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계(Engage)이다.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라이브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며, 야외 공연, 온라인 페스티벌 등 공연예술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정책 연구가 포함된다.



버클리극장 ©csgrid



블루마아펠극장 ©csgrid



하이파크원형극장 ©csgrid

# 캘거리포크뮤직페스티벌 Calgary Folk Music Festival(CFMF)

유형	축제	설립연도	1980년
운영주체	포크페스티벌소사이어티 (Folk Festival Society)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캘거리(Calgary)		
홈페이지 /SNS	www.calgaryfolkfest.com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크, 힙합, 얼터너티브, 블루스, 펑크, 컨트리 음악 등 7개의 야외무대</li> <li>-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 교실 및 워크숍 지역 극장 연계 공연</li> <li>- 소규모 콘서트홀 운영, 다양한 포크 음악 공연 기획</li> </ul>		

캘거리포크뮤직페스티벌(Calgary Folk Music Festival, CFMF)은 2019년 40주년을 맞이한 캘거리 내 오래된 음악 페스티벌이다. 캘거리 중심부에 위치한 프린스아일랜드공원(Prince's Island Park)에서 7월 중순 4일간 진행된다. 새로운 포크 음악을 소개하고 즐기는 축제이지만, 힙합, 얼터너티브, 블루스, 펑크, 컨트리 등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이 진행된다. 매년 60여 명의 아티스트를 전 세계에서 초청하고 공원 내 7개의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 매년 약 50만 명의 방문객이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2천여 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페스티벌을 도와주고 있다. 잼 또는 콜라보레이션 워크숍 등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 교실을 진행하여 매년 2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작곡을 배우고 지역극장과 연계하여 공연을 기획하기도 한다. 2014년 거문고팩토리과 들소리가 초청되어 공연되었으며, 이후에는 아직 한국 아티스트가 초청되지는 않았다. 페스티벌 기간 이외에는 페스티벌홀(Festival Hall)이라는 작은 콘서트홀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포크 음악 공연과 소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페스티벌을 공원에서 진행하지 못하였고 온라인으로 6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각 예술가는 각자의 공간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이것을 페스티벌 측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각 공연은 티켓을 구매하면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공연을 볼 수 있게 진행되었다. 그 이외 당초 축제가 열리기로 한 기간은 페스티벌 주말로 정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홈페이지에는 기존 공연되었던 공연 중 기억에 남는 것을 선별하여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예술가의 인터뷰 영상도 서비스하고 있다.



캘거리포크뮤직페스티벌 ©CFMF



캘거리포크뮤직페스티벌 페스티벌홀 ©CFMF



캘거리포크뮤직페스티벌 ©CFMF

# 토후 TOHU

유형	국공립기관	설립연도	2004년
운영주체	퀘벡주정부, 몬트리올시정부	장르	공연예술
소재지	몬트리올(Montreal)		
홈페이지 /SNS	<a href="https://tohu.ca">https://tohu.ca</a> , <a href="http://circassien.com/">http://circassien.com/</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커스 공연, 워크숍, 전시</li> <li>- 서커스 교육,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 서커스 창작 지원</li> <li>- 서커스 공간 운영, 훈련 장비 및 시설 제공, 레지던시 운영</li> </ul>		

토후(TOHU)는 ‘서커스’-‘지구’-‘인간’이라는 3개의 상호 연결된 구성 요소 문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험실을 지향하는 공간이다. 서커스 전용 공연장으로 지어졌으며, 북미에서 유일한 컨템퍼러리 서커스 전문 창작 공간으로, 매년 90여 개 서커스 공연과 400여 개의 행사를 유치, 동시대 서커스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훈련과 연구, 창작을 지원한다.

몬트리올의 세인트 미셸 지역은 광산업이 쇠퇴하고 황폐화되면서 석회 채석장이 쓰레기 매립지로 전락한 곳이다. 이 공간을 문화예술 지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토후라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재활용 원자재를 이용해 360도 서커스 원형극장과 학교를 세웠다. 토후의 극장 건물은 환경친화적 건물 인증, 혁신건축상 등 환경, 건축 분야에서 15개 이상의 상을 받았다. 극장은 22.56m 높이에 직경이 40m로 최대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서커스 극장이다. 세인트 미셸은 현재 서커스예술지구(Cité des arts du cirque)로 지정, 국립서커스학교(National Circus School)를 비롯한 국립서커스예술협회(En Piste, National Circus Arts Association),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토후 등 서커스와 관련한 조직 및 단체들이 구성된 세계적인 서커스 예술 도시로 부상하였다.

토후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커스 공연이 진행되며, 극장 홀 또는 야외에서 전시회가 개최되고 다양한 무료 이벤트와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예술가와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셀프 트

레이닝, 레지던스, 서커스마켓(Marché International de Cirque Contemporain, 이하 MICC)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셀프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서커스 전문가가 기술 연습 또는 정기적인 훈련을 위해 특수 장비 및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2020년 10월부터는 국립서커스 학교에서 셀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서커스의 예술 활동의 연구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다. 메인극장(Salle TOHU)과 토후로비/홀(TOHU Lobby/Hall), 태양의 서커스 스튜디오(Cirque du Soleil Studio) 공간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퀘벡에 기반을 둔 예술가와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코로나 19에 친화적인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지원도 하고 있다. MICC는 매년 7월에 개최되는 몬트리올서커스페스티벌(Montréal Complètement Cirque Festival)과 함께 진행되는 행사로, 2015년부터 진행해왔으며 피치 세션, 워킹 그룹 회의 등 전 세계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토후 서커스 창작 지원작 공연 ©TOHU



토후 ©TOHU



토후의 서커스 공연장 ©TOHU

# 푸시페스티벌

## PuSh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유형	축제	설립연도	2003년
운영주체	푸시페스티벌소사이어티(PuSh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Society)	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소재지	밴쿠버(Vancouver)		
홈페이지 /SNS	<a href="https://pushfestival.ca">https://pushfestival.ca</a>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용, 전시, 연극, 퍼포먼스, 대중음악 및 콘서트 공연</li> <li>-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및 커뮤니티 대상 프로그램</li> </ul>		

2003년 공동 창립자 노먼 아머(Norman Armour)와 카트리나 던(Katrina Dunn)은 밴쿠버 예술가와 캐나다 다른 지역과의 관계와 기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푸시페스티벌(PuSh Festival)을 기획하였다. 2004년에는 총 5 작품의 공연으로 시작하여, 점차 페스티벌이 성장하면서 2010년 문화 올림픽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으며, 2011년에는 밴쿠버 도시의 125주년 기념식을 함께 개최하기도 하였다. 매년 1월 약 3주간 진행되는 페스티벌로 신진 예술가들 위주로 프로그래밍이 되었으며, 2020년에는 구자하 작가의 '쿠쿠'가 초청되어 밴쿠버의 워터프런트극장(Waterfront Theatre)에서 3일 공연과 두 번째 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페스티벌을 크게 구분하면 극장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공연, 대중적인 음악 및 콘서트 형식의 클럽푸시(Club PuSh), 전문가들을 위한 푸시어셈블리(PuSh Assembly), 청소년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으며, 라이브 공연의 경우 무용, 사운드 전시 및 퍼포먼스,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작품들이 초청되어 공연되며, 대다수의 작품 다원예술의 형태의 공연이었다.

페스티벌은 운영하는 조직을 살펴보면, 최근 큰 변화들이 있었다. 2018년 공동 창립자 두 명이 페스티벌 조직을 떠나기로 하여 2019년 페스티벌 프로그래밍 협력을 마지막으로 참여하였고, 새로운 예술감독 프랑코 보니(Franco Boni)를 선정하였다. 그는 2020년 페스티벌만 추진하고 사임하였으며, 협력 예술감

독인 조이스 로사리오(Joyce Rosario)도 페스티벌을 떠났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예술가들의 대담 및 발표하는 푸시랠리(PuSh Rally)프로그램에는 마이코 야마모토(Maiko Yamamoto)와 마르쿠스 유세프(Marcus Youssef)를 2021년 페스티벌 큐레이터로 선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페스티벌의 조직과 프로그램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페스티벌의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총 13개 국가의 아티스트와 함께 41개 공연을 포함하여 150개가 넘는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2020년에는 총 9개 국가의 14개 공연단체가 참여하여 총 27개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2021년 페스티벌 일정(2021년 1월 26일~2월 7일)을 발표하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및 캐나다 자국 예술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푸시페스티벌 공연 'The Fever' ©PuSh Tim Matheson



푸시페스티벌 'Screening of the democratic set' ©PuSh Tim Matheson

## 필자소개

### 강제욱

기획자이자 다큐멘터리 사진가이다. 수원국제사진축제의 총감독으로서 범아시아적인 사진교류에 힘을 쓰고 있다. 사회, 역사, 기억을 바탕으로 양 문화 간의 공통된 맥락과 이야기를 발견하고 전시를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최근 러시아 그리고 구소련 국가와의 교류를 다수 추진한다.

### 김은하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에서 해외공연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월드뮤직페스티벌을 포함한 축제를 담당하는 등 주로 축제 분야에서 활동했다 할 수 있다. 제법 많은 국가를 다녔고 일했고 살았다. 호주에서 영화 편집, 칠레 국립대학에서 문화경영 석사 과정을 거쳤다. 현재는 시골에 살며 두루두루 일하는 프리랜서다.

### 남궁홍

학부와 대학원에서 미술과 미술관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대 미술교육과 박사과정과 미술연구소 운영을 겸하고 있다. 작가로서 여러 전시와 드로잉 퍼포먼스에 참여했고, 에듀케이터로서 국립현대미술관, 대림미술관, KT&G상상마당에서 근무하였다. 예술이 사회와 만났을 때 생성되는 긍정적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예술교육가로서 활동한다.

### 목홍균

독립기획자. 학부에서 통계학을 대학원에서 미학을 공부했다. 전시 《The Manual:Parts & Labour\_문화공장오산》, 《The City of Homeless\_아르코미술관》, 《Privated Song I\_두산갤러리서울》을 기획했다. 암스테르담 드아펠, 도쿄원더사이트, 런던V&A 에서 연구자 및 펠로우십 과정에 참여했으며, 현재 기술어 어떻게 큐레토리얼의 실천적 도구로서 전시 전반에 관여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모임 콜렉티브알앤디에서 활동하고 있다.

### 박가희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다.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서 간주하고, 큐레이터의 질문과 문제의식이 주제나 지식의 차원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질문과 문제로 전이되는 앎의 사건(event of knowledge)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큐레토리얼 실천으로서 과거의 전시들을 아카이빙, 연구, 맥락화함으로써 전시의 역사와 담론을 통해 다양한 미술의 역사 쓰기를 수행하고자 한다. 동료기획자 전효경, 조은비와 함께 《스스로 조직하기(Self-organised)》(미디어버스, 2016)를 번역했다.

### 배가브리엘

경제학과 현대무용을 공부하며 방송사와 광고회사를 거쳤다. 유럽에서 독립 안무가로 활동하던 때로 다시 돌아가고자 NEXT 사업에 참여하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현재에도 무용과 음악, 무용과 텍스트, 무용과 소셜 미디어의 크로스오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독립 안무가이자 기고가로서 연구 중이다.

### 손예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말레를 전공한 뒤 런던시티대학교 문화정책·경영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월간 '몸'지에서 기자로 일했고 한국·미국·영국·베트남의 공공·민간 기관에서 축제, 공연, 전시 등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했다.

### 송미선

무용을 전공하였고, 대학 졸업 후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한-영 문화예술공동기금 사업을 추진하였다. 퇴사 후 NEXT 사업을 통해 캐나다 문화예술에 대한 리서치를 하였고, 현재는 서울국제도서전 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영역을 구분 짓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키우고자 노력하고자 한다.

### 안소연

문화예술 분야 전문 번역가이자, 국제 문화교류 사업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동과 서: 그림책 축제》(2019, 로마), 《춤추는 나무들: 한국·이탈리아 그림책 여행》(2018-2019, 로마)를 기획했으며, 최근에는 《도취도람 도취도감: 상상동물도》(2020)기획에 참여했다.

### 이꼬까

환기미술관 큐레이터, 부산비엔날레 학술정책 팀장,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젝트 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뜻밖의 만남》, 국립미술관 자행타, 바르샤바, 폴란드, 2018, 《낮설지만 익숙한》, 르 무라트 현대예술센터, 피렌체, 이탈리아, 2017 등을 공동 기획했다.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예술학 박사과정 수료 후 독립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문화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 허브’를 목표로 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조성, 조사 및 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은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지원

: 국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의 경력단계별 해외파견을 지원합니다. 해외 문화행사 인턴십, 재외한국문화원 공동프로젝트 기획, 해외 문화 전문기관 펠로우십 등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전문역량을 강화합니다.

###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운영

: 국제적인 수준의 국내 대표 축제들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 과정은 국제문화교류 이론교육부터 현장실습, 프로젝트 개발까지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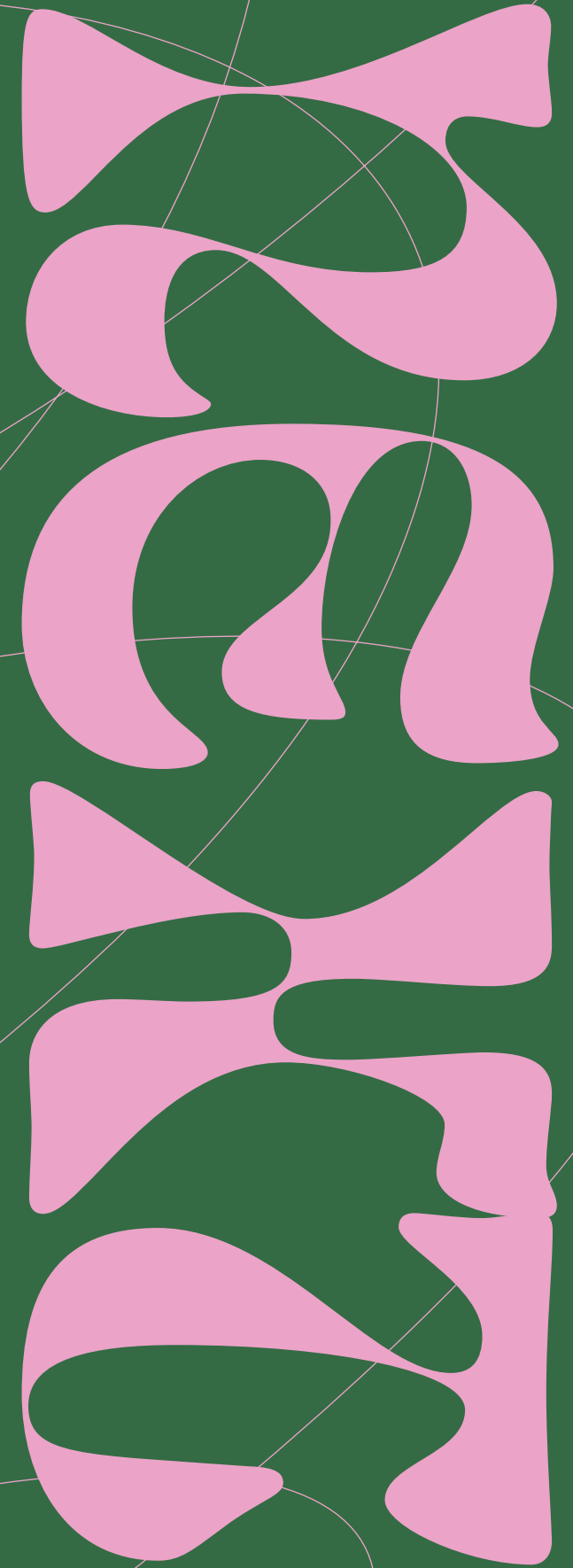
### ■ NEXT 아카데미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

: NEXT 아카데미는 국제문화교류 강의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홈페이지 및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를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홈페이지 [www.kofice.or.kr](http://www.kofice.or.kr)
-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 [www.kcultureroad.kr](http://www.kcultureroad.kr)

### ■ 국제문화교류 후속활동 지원

: NEXT 기파견자 및 집중양성과정 수료생의 지속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제문화교류 후속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NEXT 문화예술 디렉토리북

## NEXT Arts and Culture Directory

※ 본 디렉토리북의 판매, 무단전재 및 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 집필자

강제욱, 김은하, 남궁홍, 목홍균, 박가희, 배가브리엘,  
손예운, 송미선, 안소연, 이꼬까

### 기 획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기반팀

### 구성/편집

문화이꿈이 꿀 신혜원, 임현진

### 디자인

파이카paika

### 발행인

김용락

### 발행처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A동 203호

T. 02-3153-1764 F. 02-3153-1787 [www.kofice.or.kr](http://www.kofice.or.kr)

[next@kofice.or.kr](mailto:next@kofice.or.kr)

ISBN 979-11-85661-89-6

